

2023년

[www.nymunhak.com](http://www.nymunhak.com)

# 뉴욕문학

KOREAN LITERATURE OF NEW YORK

제33집



**미동부한인문인협회**

Korean American Writers Association of Eastern USA

5 노 려 - “시와 뒷방 노인”

8 장석렬 - 더 높이 너 멀리, 고귀한 문인으로

10

22 변정숙 시분과위원장 - 시는

24 광상희 - 시간의 발자국이 멈칫 / 제비꽃 언술

27 김명옥 - 주름 / 나방이

30 김미숙 - 2019년 그해 여름 / 60년 된 풀꽃

33 김소향 - 인터넷(Internet)의 횡포에 / 서울에서

36 김송희 - 종착역 / 마지막 10월의 사랑

40 김정혜 - 금요일 저녁엔 음악회에 오세요 / 오늘 하루가 또 지났습니다

42 김철우 - 안개 자욱한 호수 / 혼비(魂碑)

45 박원선 - 우리 집 귀염둥이 외손녀에게 / 2023년 4월에...

47 변정숙 - 결계(結界)를 치다 / 시간이라는 기차

50 복영미 - 목구멍이 뜨겁다 / 난민선

52 선우 옥 - 봄 / 사랑

56 손정아 - 사랑으로 가는 길 / 평화의 손을 가진 미소

58 송온경 - 그랜드 캐년 / 소살리토

62 안 영 - 결혼사진은 왜 비장한가 / 손녀딸과 나무

64 윤영미 - 나의 시 / 산꽃

66 이광지 - 찐빵 / 넷 친구

68 이명숙 - 비파나무가 있는 풍경 / 병 속의 바다 · 4

72 이선희 - 꿈을 그리다 / 하루살이 풀꽃

74 이성곤 - 어떤 도주 / 숨 쉬고 싶어요

76 이정강 - 봄맞이 / 연줄 타고 오르는 언니에게

80 이종비 - 봄비 / 나무 한 잎 바람에 나부끼다

84 이춘희 - 거북이 / 풀꽃

88 이혜란 - 창경궁에서 / 면역력

93 전애자 - 카카오톡 소리 / 팔순 어머니

97 정종환 - 봄 인사 / 늦겨울

100 혜 성 - 슬픔의 스토리지 / 귀땀

103 정희수 - 점묘화 / 포도의 맛

107 조성자 - 밥 한번 먹자 / 환승역

109 최주석 - 미려별서와 장개석 / 잊혀진 영혼, 버려진 영혼

113 하명자 - 봄의 길목 / 겨울나무

115 황미광 - 커피 / 봄비

118 이경숙 수필분과위원장 - 수필 예찬

120 광경숙 - 봄부추 / 어느 부활절 아침 풍경

127 김미연 - 그랜드 마스터 트레쉬 'Grand Master Trash' / 후회의 책

134 김봉례 - 변화 / 뉴욕 대한민국 음악제

141 김옥수 - 텃밭에서 / 흔적을 지우는 일

147 김희우 - 카불 스케치 / 아름다운 동행

153 노 려 - 픽스킬에서 살아보고 싶다 / 뉴욕, 나의 뉴욕

162 방인숙 - 만두 방망이 / 선택의 길에서

169 서헬렌 - 겨울밤 하이웨이에서

174 송지선 - 출근길 단상(斷想) / 카톡이 사라졌다

181 양주희 - 버틴다는 것 / 아이슬란드 마라톤

187 연봉원 - Romance Scam - 누가 이 사람을 죽였는가? / 나의 소년기를 정신적으로 살찌운 월간지 <<학원>>

198 관호 - 사가모어 힐 미국립사적지 / 크리스마스 스펙타클러

203 이경숙 - 3월의 낙엽 / 이고 지고 산다

209 이경애 - 이런 의사

216 이미경 - 거창하지 않은 나의 생각 / Killer whale의 꿈

220 전설자 - 백세시대에 노후 대책  
 229 전수중 - 빛 / 창작의 종언  
 235 전애자 - 오월에 쓴 낙서  
 237 차덕선 - 금발이라고 좋아할 게 아니라... / 멋진 도서관  
 243 이광지 - 할머니와 장미꽃 - 동화 -

246 홍남표 소설분과위원장 - 첫 지피티세상 창작의 고통  
 248 김근영 - 별  
 261 나정길 - 해풍  
 271 민병임 - 지독한 사랑  
 289 임혜기 - 그러던지요  
 295 전준성 - 내 짧은 인생 | Started a Joke  
 313 정은실 - 소미의 분노  
 331 한영국 - Tun으로 쓰고 Sun으로 읽는  
 343 홍남표 - 미스 신, 그녀

31

360 줄리아 김 - 런던에서 온 머리핀  
 368 가 이주용 - 40년 전  
 373 수필부문 심사평 / 노려, 이경애  
 374 시부문 심사평 / 윤영미, 변정숙

375

2022

382 이 에스더(12학년) - 나를 제일 아끼는 친구  
 384 구나연(10학년) - 가을  
 386 박윤선(11학년) - 겨울

AI



노려  
미동부한인문인협회 제19대 회장

Chat GPT를 다운로드 받았다. 뒤쳐져도 너무 뒤쳐지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내가 쓴 글을 넣고, 내용을 요약하고, 독자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알려 달라고 주문을 하자, 1초 만에 요점 정리와 독자들이 그럴듯한 반응까지 답이 나왔다. 놀랐다.

다시 'A.I와 문학과인의 관계는?'라고 하자 또다시 1초 만에 구구절절 답이 올라온다.

〈문학인들과 AI의 관계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AI 기술은 자연어 처리와 기계 학습 등을 통해 텍스트 생성, 문장 요약, 번역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문학 창작물의 생성과 분석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부 문학인들은 AI 기술이 문학 창작의 과정에 개입하여 작품을 쓰거나 그분야에

서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우려하며, AI 기술이 문학 창작의 미학적 가치를 상회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부 문학인들은 AI 기술이 새로운 창작법과 미학적 표현을 발견할 수 있으며, 문학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기술은 문학 연구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계 학습 기술을 사용하여 작품의 텍스트를 분석하고 작가의 스타일을 파악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AI 기술은 문학 창작과 연구 분야에서 많은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이를 통해 인간의 창의성과 미학적 감각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인간의 창작물과 AI 창작물이 서로 대립하지 않고 함께 공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2023년 4월 30일)

작가가 인공지능과 공존할 수 있다고?

사실 《뉴욕문학》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절대로 고생할 필요가 없는 일로 고생한다. 컴퓨터 워드파일로 글을 써서 이메일로 보내는 단순 작업을 잘 못하는 회원들이 있는 것이다.

현세대에서 컴퓨터 사용은 구구단 외우기보다도 더 먼저 해야 할 일인데도 말이다.

바로 얼마 전까지 미국인 베이비부머 세대가 문화와 경제를 좌지우지해 나갔지만, 그건 이미 TV 만화영화 ‘플린트스톤(Flintstones)’ 시대, 즉 구석기 시대가 된 것이다. 한국식으로는 옛날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대가 되어버렸다.

“나는 종이신문이 좋더라.” “책도 종이책으로 읽어야 맛이 난다.” 고들 하는 여기 우리 한인들……. 다 좋다. 그러나 기본적인 생활도

구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구석기 시대에도 도달 못한 셈이고, 당장 눈앞의 세상을 따라간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다. 그렇다고 이대로 뒷방노인으로 밀려날 것인가?

AI 즉 인간이 만들어 놓은 두뇌가 인간을 위협하고 있는 지금, AI의 장단점을 논하기 전에 AI와 친해져야 할 것이다. 벌써 오래전부터 AI가 알게 모르게 우리 삶에 침투해 있었지만, 우리 베이비부머 한인들은 그들이 만들어낸 온갖 뉴스에 속아 넘어가기만 하고, 그들이 만들어낸 온갖 좋은 이야기 감동적이라는 이야기를 읽는다. 또 어디서 글을 퍼서 카톡에 올릴 줄 알고 셀폰으로 유튜브를 볼 줄 알면 깨나 첨단을 가는 줄로 착각하면서 자꾸자꾸 뒤로 밀려나고 있다.

Chat GPT가 뭐든 다 해주는 때에, 원고를 써 보내는 일부러 전전긍긍한다면 어떻게 문학을 할 수 있겠는가? 과연 당당하게 작가라는 위치를 지탱해내 갈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

지금이라도 당장, 컴퓨터 공부 기초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노 려 미동부한인문인협회 제19대 회장





장 석 렬

국제PEN한국본부 미동부지역위원회 고문

《뉴욕문학》!

이름만 불러도 정겹고 그 이름 생각할수록 가슴이 메어 옵니다. 올해는 《뉴욕문학》이 신인상 제도를 신설하고 그 첫 열매를 맺은 지 꼭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축사를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뉴욕문학》 제1집을 다시 꺼내어 찬찬히 읽어 보았습니다.

제4집에서는 신인상을 수상하는 젊은 날의 제 이름도 보았습니다. 그리운 얼굴들, 친숙한 얼굴들, 그리고 다시는 볼 수 없는 얼굴들이 그 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발간된 32집을 바라보면서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 힘든 이민생활 속에서 33년 지속해 온 역사의 위대한 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작품을 실은 보석 같은 이름들이 어찌나 귀하고 자랑스러운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 긴 세월 동안 누

가,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힘든 문학의 길을 가도록 내몰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찍이 플라톤이 그의 저서 『공화국』에서 시인을 추방한 이래 문인의 길은 외롭고 고달픈 길이었습니다.

30여 년 전 미국으로 이민온 한인 문인들이 뉴욕을 선택하였듯이 우리의 문학도 〈뉴욕〉을 선택하였습니다.

물신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의 결정체인 뉴욕에서 우리는 글을 씀으로 거대한 물신과 마주하며 이 물신과 피 흘리며 대결하는 뉴욕의 문인이 되었고 그래서 그 제목을 바로 집어 《뉴욕문학》이라 이름하게 된 것입니다.

뉴욕의 한인 문인들은 황무지 같은 뉴욕 이민자들의 정신세계에 《뉴욕문학》이라는 거대한 산맥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이 산맥은 앞으로 더욱 높아지고 더욱 멀리 뻗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 문우 회원들께서는 이러한 희망 속에 지난 30여 년의 역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험난한 문인의 길을 강하게 헤쳐 나가는 고귀한 문인들이 되어 주시기를 새삼 부탁드립니다.

아카시아 꽃 향기 사라지고 짙레 향기도 그 숨을 다해 가는 초여름 입구에서 《뉴욕문학》을 손에 들고 감격해하는 한 올드타이머 뉴욕커가 여러분에게 감사, 또 감사를 드리면서 이 글을 맺습니다.

장석렬 국제PEN한국본부 미동부지역위원회 고문



▲ 2022년 뉴욕문학 출판기념회 단체사진



▲ 신입회원소개





- 문협 19대 첫 이사회



- 문협 교정



- 문협 소풍날



- 2023 미동부한인문인협회 제34회 정기총회





- 문협 단체 야외회



- 신입회원 환영모임





- 시분과 회원 사진



- 회원소식



◀ 2022년 11월, 뉴욕 프라미스 교회에서 열린 제1차 '뉴욕대한민국음악제'에 연주되었던 김동진 작곡의 <겨레의 찬가> 작시를 한 곽상희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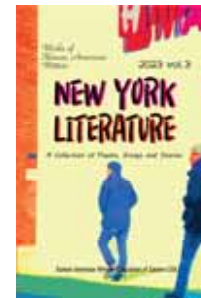
## 2024 제32회 뉴욕문학 신인상 작품 공모

미동부한인문인협회에서 발간하는 《뉴욕문학》은 매년 신인상 공모 작품을 모집합니다.

- 응모자격 : 미국영주권, 시민권자
- 모집부문 : 소설 : 1편(Letter 용지 20pages 내외)  
수필 : 3편(편당 Letter 용지 3page 내외)  
시, 시조, 동시: 5편 이상(편당 Letter 용지 2page 내외)  
※타 인쇄물에 발표되지 않은 작품
- 접수마감 : 2024년 3월 31일  
입상 내용 각 장르별 당선작과 가작을 선발함
- 심사위원 : 당선자 발표 시에 함께 발표함
- 입상자 발표 : 접수마감 후 1개월 내로 개별 통지 및 뉴욕 한인일간지에 발표
- 대우 : 수상자는 기성문인으로 대우, 본 협회에 입회자격을 부여
- 유의사항 : 이메일 SUBJECT에 '뉴욕문학 신인상 응모'라고 명기  
모든작품을 한 파일에 입력  
파일에 응모자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명기
- 보낼 곳 : nymunhak7@gmail.com
- 자세한 문의 : WWW.NYMUNHAK.COM



이경애



가

가

가

가

33

가

/

## 뉴욕문학 신인상 공모합니다

미국의 한인 문학을 30년이 넘도록 주도해 오고있는  
'미동부한인문인협회'는  
뉴욕문학 신인상을 공모합니다.  
문학인의 길로 나아가길 많은 분의 응모를 바랍니다.

**모집부문**  
 소설 : 1편 (워드 11 포인트 20 페이지 이하)  
 수필 : 3편 (만당 워드 11 포인트 2 페이지 내외)  
 시, 시조, 동시 : 5편 (만당 워드 11포인트 2 페이지 이내)  
 \* 타 인쇄물 또는 인터넷 상에 발표되지 않은 작품

**접수마감** : 3월 31일

**응모자격** :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입상자 대우** : 당선자는 가성 문인 대우  
 '미동부한인문인협회' 입회 자격부여

**입상자 발표** : 접수마감 1개월 내외로 개별 통지 및  
 뉴욕발행 한인 일간지에 공고

**보낼 곳**  
 email to : nymunhak7@gmail.com  
 이메일 제목 난이 (해당년도 신인상 공모작품)명기  
 첨부 파일 첫 페이지에 본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본명 명기

**자세한 내용** : [www.nymunhak.com](http://www.nymunhak.com)

**미동부한인문인협회**  
 HOREAN AMERICAN WRITERS ASSOCIATION OF EASTERN USA

가

가





## 미동부한인문인협회

Korean American Writers Association of Eastern USA

2022-2023 19

### 집행부

회 장 : 노 려  
부 회 장 : 윤영미  
총 무 : 선우옥  
재 무 : 이미경

### 이 사 회

이 사 장 : 이경애  
이 사 : 김송희, 김자원, 노 려, 박원선, 변정숙, 복영미, 선우 옥  
손정아, 윤관호, 윤영미, 이경애, 이명숙, 이미경, 이진구,  
이정강, 이춘희, 이혜란, 임혜기, 정혜성, 최정자, 황미광

감 사 : 복영미

### 분과위원회

시 분과 위원장 : 변정숙  
수필 분과 위원장 : 이경숙  
소설 분과 위원장 : 홍남표

### 자문위원회

위 원 : 김정기, 최정자, 이정강, 임혜기, 김송희,  
김자원, 이진구, 윤관호, 황미광





시는...

변 정 숙

(미동부한인문인협회 시분과위원장)

“시가 내게로 왔다”

파블로 네루다의 시를 읽으면서 떨리는 시인의 가슴을 만났다.

미처 뽑아 올리지 못한 내 마음도 그의 시 속에 있었다.

시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도, 어디서 오는 소리인지 모를 때 많았다.

내 주변을 휘도는 작은 먼지 한 톨까지, 시로 내게 오기를... 기다렸다.

지나가는 바람이거나, 삶을 저어가는 소리이거나, 꽃 피고 지는 소리,

돌의 표정을 읽고 받아 적어 시를 쓰겠다 했다, 가뭇없이 스쳐가는

것들의 신음까지

나에게 와서 시가 되기를... 갈망하면서

시에게 부친 연서를 여기 고백하려 한다.

\_\_\_ 당신, 왔다가는 소나기처럼 그렇게 느닷없이 오지 않았으면 해

부디 내 마음 젖을 만큼만 내렸으면 좋겠어

당신은 물거울

나는 참으로 어설픈 송사리,

당신 얼마나 깊은 심장을 가졌기에 해도 달도 품을까?

물풀은 어떻게 숨의 결을 고르는지?

물이랑에 가라앉은 비릿한 아픔은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

서먹한 질문을 들고 당신 안에서, 당신을 찾아, 구석 구석 헤매고  
있을 거야,

스치는 것들, 간지럼 태우는 물살, 수련의 힘센 발가락들, 그들의  
수린거림이

당신의 처소라는 것을 알기까지는\_\_\_

그렇다, 시는 갈망이며 가만하게 일어나는 마음이다.



시간의 발자국이 멈칫,

곽상희

자꾸 당기라 한다 연줄을 잡고 연줄에 기대라 한다 연줄에 매달린  
몸은 그이에게 기대고

허덕이는 숨결에 기대고 악기를 영혼으로 연주하는 그이, 발가락으로  
피아노 건반을 탁, 탁, 두드린다. 입술이 터지고 잠시 4월 배롱나무  
가지에서 우는 어린 피꼬리를 꿈꾼다

새울음이 푸르다 그 울음 따라 샘물이 떨어져 강으로 흘러간다 붉은  
꽃울음 노래하며 저절로 흘러간다 시간의 발자국이 멈칫, 한다

계절이 보이지 않는 지구의 어느 곳,

너의 푸른 빛 호루라기 소리, 옷을 벗은 아이들이 뛰어가고 있다.

제비꽃 언술

곽상희

서둘지 마

알아, 시간이 기다리고 있어

알아, 제비들도 돌아왔어

알아, 갈매기들도 쉬어갈 줄 알지

사람들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래 알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게

희망을 절망으로 바꾸고

넘어지는 찰나 신호탄을 보내는 줄도 모르고

오늘은 어제의 연속이 아니야

어제는 갔어, 새 걸음을 떼야 해

앞을 봐, 어제의 해는 없어  
그 해가 만드는 숲의 그늘  
그 숲이 흔드는 미세한 속삭임, 손짓까지

그건 울음이야 웃음이야

거대한 토네이도의 중심에 깃든  
세밀한 고요를 생각해 봐

그 고요에 힘이 있지

사랑이야, 너야  
작은 제비꽃 향기가 툭, 툭 내 어깨를 친다



곽 상 희

《현대문학》 시 등단, 박남수시인대상, 동주해외작가 특별상, 영국 국제여류시인상 백과사전 등재 Olympoetry (Spain), 계관시인(ULI), 광상희치유문학제제(코스미안뉴스), 한미문학창립(1984) 청소년글짓기상(1990) 등으로 청소년 정신문화동력에 힘쓰고, 콜럼비아대학과 타대학 미코뮤니티 등 여러 곳에서 시낭송과 강연 등으로 코리안의 문화와 문화소개, 뉴욕시문학회 고문 시집 『사막에서 온 푸른 열서』(영한) 외 9권 수필집 3권, 장편소설 (영한) 3권 《삶과 문학》지 발행

## 주름

김 명 옥

이마에 주름살 하나둘 생의 계급장인 양 5년 10년에 하나씩 생겨 90평생 외할아버님의 가는 생엔 주름이 아홉 아닌 열여덟이다 70평생 아버님의 이마엔 주름이 일곱이나 열넷 가는 생에 빛나는 계급장이다 어머님 아버님을 뒤쫓아 열둘 아닌 여섯 주름이 지고 난 주름이 일곱 아닌 셋 반에 걸려 혁혁대고 있다 아름다운 동산 동방예의지국이라 일컫는 나의 조국에선 나의 주름은 여섯 혹은 셋이었다 여긴 뉴욕의 써니사이드 이름하여 쿼즈 아내는 만삭되어 가는 똥보의 몸을 전철에 땡굴리며 오늘도 이방인들 상대하여 입씨름 짓거리며 배 안에 든 아이 버릇 아니 버리게 속임질 못한다 그 아내는 주름이 셋이 조금 넘고 일곱이 조금 모자란다 딸 하나가 오늘도 작은 방 하나에 다섯 식구 머리 둥이 덩다고 훌러덩 바지를 벗고 색새근 마미 옆에 잠 들었다 주름이 하나도 반도 아니 되는 나의 첫 아이는 마이클 잭슨의 팬 오늘도 검은 하늘빛에 구름은 가고 또 내일은 써니사이드에 태양 떠오르리 가는 생 오는 생에 낮이라도 담아 들까 코 고시는 아버님의 주름살 다리 하나 엄마 불룩 나온 배 위에 올리고 마냥 좋은 꿈꾸는 주름 없는 어린 딸 가운데에서 나와 아내는 주름이 반 생의 복판에서 있다 아메리카 안의 뉴욕 세계 인종박람회장의 뉴욕 하루 다섯 시간의 잠 속에 오늘도 나의 주름은 이마에 생겨 가는 생 오는 생의 벼를 벗하고 있네



## 나방이

김명옥

매어 달린 목숨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아 오늘도 허우적대는 한 나방이 끈적거리는 거미줄을 못 벗어 나오고 혈 말을 도둑맞은 무력함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하신 인자의 옆 모습을 비낀 눈빛으로 바라만 본다

나의 서 있음이 뛰는 고동에서 넉넉한 먹음에 시작되어 이제는 보리죽 한 그릇보다는 아픈 가슴이 더 빨리 타인을 의식하게 한다

베드로 앞에 들의 무기물질이 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거짓말 속에 내려진 신의 저주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 한 마리의 돈 벌레가 되고자 높고 푸르른 하늘을 잃어버린 가없는 애벌레 뜯기어 먹혀 가는 가슴 한 구석을 성스러운 제단 위에 번제물로 올려놓았다

살아 보려는 의지는 사형수의 간절한 마음 영혼을 포기하려는 어느 자살자의 십자가 모습 한 애벌레는 나방의 방에서 태어나 아픈 두 날개를 달고 사방이 두꺼운 시멘트벽의 네 그림자를 모두어 들어키고 있다 아! 언제나 휘얼 훔 나르는 마음 없는 날개가 되려나



김명옥

《시대문학》 시, 《순수문학》 수필 등단, 남가주(LA)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석사(M.Div.), 박사(D.Min.) 뉴욕한인교회(LMC) 소속 목사, 《뉴욕 한국일보》 논설위원 역임, 《신대륙》 동인, 국제PEN한국본부 회원, 미동부한인문인협회 1992년 가입  
시집 『가슴 깊이 구르는 소리 하나 있어』  
수필집 『꿈은 나이를 상관치 않는다』

2019년 그해 여름

김미숙

사랑에 가난했던 너는  
멀리서 손을 흔들고

사랑에 혼을 날린 나는  
방글방글 웃으며 달려갔지

달달한 보랏빛의 라일락은  
금어초의 노랫소리에  
하늘에서 휘이휘이 꽃잎을 날리며  
춤을 추었다

동네를 끌어안은 고목나무들은  
태양에서 빛을 받아  
너의 미소보다 더 따사로웠는데..

허드슨 강 건너 산자락을 돌아  
굽이굽이 울창했던 그 해 여름..  
태양 같던 그 해 그 순간들..

지금은 강물 속에서 기억하고 있을까?

60년 된 풀꽃

김미숙

웃으라는데 나는 웃었습니다  
울어도 괜찮다는데  
나는 배시시 웃었습니다

밤마다  
별을 하나씩 담았습니다  
새벽마다  
이슬을 하나씩 담았습니다

그렇게  
작은 가슴 안에  
유리병 하나 만들어  
쓰담쓰담 고이 담았습니다

거친 바위 옆..  
그래도 살아야 했기에..  
더부살이로 60살 된 풀꽃이 되었습니다

어젯밤  
꿈을 꾸었습니다  
별들과 이슬들이 모두 날아가는…  
나의 몸이 가벼우니  
나도 날개가 생기나 봅니다



김 미 숙

아호는 우설, 1963년 서울 출생, 1991년 미국 가족 이민  
1999년 《문학세계》 시부문 등단, 2000년 《문학세계》 소설부문 등단  
현재 뉴욕에 거주, 미동부한인문인협회 회원, 미주기독교문인협회 회원  
E-mail : mscho424@daum.net

## 인터넷(Internet)의 횡포에

김 소 향

난데없이 떠오르는 공상  
아니, 이미 공상이 아닙니다

맨몸으로 서 있더군요  
느닷없이 인터넷에 나타난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이름까지 적나라하게…

어디쯤  
나의 속마음마저 활짝 열려 있을지?

컴맹 겨우 면하고  
마음만 먹으면 만나서 수다 떨고  
우주까지도 휘돌며 신이 낮었는데

저, 이제 어찌하리요  
이 몸,  
아니, 속내까지도 꼭꼭 숨길 수 있는 가리개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말씀해 주세요



## 서울에서

김 소 향

참말이지  
어리둥절하더라

시골의 양반  
한양에 갔을 때도 이러했나 싶다

대낮 햇빛도 기를 못쓰는 미세먼지의 횡포  
치솟은, 치솟고 있는 빌딩의 무리  
거리마다 밀리는 인파, 자가용, 택시, 버스...

그래도 지천에 만발한 꽃, 꽃, 꽃  
그러나 일곱 해 동안 변함 없어라  
무표정한 이웃, 부디 꽃의 미소 닮을 때가 오기를

깔끔히 닦여지지 않은 낯그릇 닮은  
미국 생활 오십 여 년에 길들여진 내게  
그지없이 변신하는 서울아

생소한 풍경에 어지럽다  
나는 휘청거릴 수밖에



김 소 향

1997년 《시문학》 등단  
미주카톨릭문인협회 회원  
시집 『등그러지는 바람』, 『바람의 예감』  
E-mail : mk588@nyu.edu

## 종착역

김 송 희

버린 세월 꺾꺾  
눌러 담고도  
넘치는 뉴욕의 55년  
하얗게 타고 있는 햇바닥은  
바다에 깊숙이 잠겨  
황금색 거품을 품고 타고 있다

마지막 남은 나의 흐늘거리는  
육신  
다듬고 다듬어도 눈 안으로 가득한  
부스러진 손톱  
푸른 하늘빛 파도소리에 춤추는  
반짝이는 별 하나

기다리는 기적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어디로 가고 있는가  
죽어가는 혀를 깨우기 위해  
레몬을 깨문다  
영혼을 찾지 못하는 나의 육신은

마지막 기적 소리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보았다 바닷속에서 빛나고 있는  
별들의 고향을  
아! 어머니  
당신의 잔잔한 평화가 기적소리를 품고  
기다리고 계셨군요

## 마지막 10월의 사랑

김 송 희

쓰다 지우고 또 쓰다 지우면서  
꽃잎 지는 소리도 듣지 못한 오월  
또 하나의 시월은 바람 실어 손짓하고 있는데  
늘 싱싱한 석류 알처럼 빛나던 언니  
용인과 일산 중간쯤 압구정동  
내 젊은 시절 맛있다 했던 기억을 찾아낸  
곱창 불고기 전골  
콧물 흘쩍이며 휴지만 한 줌 쥐고  
마음 들키지 않으려 곱빼기  
언니의 기쁨은  
나의 슬픔이다

마지막이겠지  
내일이 없는 헤어짐은  
낙화의 눈물

눈을 맞추지 못한 애절한 사랑  
10월이면 다시 만나지는 약속은  
나보다 먼저 죽어 있다

한 발짝 한 발짝 멀어져 가는 굵은 어깨 넘어  
언니의 젖은 눈을 본다

이젠  
서울행 큼직한 가방은  
멀찍이 올려놓고 외면한다

해마다 10월이면  
설레이던 가슴 언저리  
그대와 내 모국에 심어둔 그리움  
삶의 꿈이었던 모든 것  
가방에 가둬 놓고 이별하기로 한다



김 송 희

1968년 《현대문학》 등단, 국제PEN한국본부 지문위원, 국제PEN한국본부 마동부 지역위원장 역임, 미동부한인문인협회 회장 역임 및 현재 지문위원  
재미 팬문학상, 숙명여대문학상, 미당서정주시백상 등 수상  
문교부 장관상, 대통령 표창(2세 한국어 교육)  
시집 『이별은 고요할수록 좋다』 외 7권 외 공저,  
수필집 『시도 때도 없이 외로울 땐 배가 고프다』 외 다수



## 금요일 저녁엔 음악회에 오세요

김 정 혜

일주일 동안 묻은 먼지도 털어 내고  
힘겨웠던 손목에 반짝이는 팔찌도 끼워보는 금요일  
내 몸속에선 목이 마르답니다  
금요일 저녁엔 음악회에 오세요  
빨간 드레스의 바이올리니스트  
그녀를 아시나요  
마술일까요  
아름다운 선율은 샘물 되어  
시간에 쫓기고 계산밖에 할 줄 모르던  
나의 영혼을 적시네요  
그녀는 아픔이 없었을까요  
금박으로 화려한 치맛자락 속에 감추어진  
가녀린 핏줄과 힘들었던 걸음걸이  
다시 튼튼한 뼈와 살이 되었답니다  
내 어깨를 두드리며  
내 몸속의 은비늘을 꺼내 주어  
나는 헤엄치기 시작해요  
금요일 저녁엔 음악회에 오세요

## 오늘 하루가 또 지났습니다

김 정 혜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하루 종일 집에 있던 강아지를  
산책시킵니다  
걸으면서 생각해봅니다  
나의 소중한 하루의 시간을 내어주고  
대신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보수로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특별히 내 시간을 더 훌륭한 곳에 바칠 힘도 없군요  
다행히 지금 일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가느다란 가지의 나무들 너머  
주황색 노란색 어우러진 노을이 겸손하게 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무사히 지났습니다



김 정 혜

《뉴욕문학》 신인상으로 등단, 독어독문학 석사  
미동부한인문인협회 총무 역임  
Long Island Univ.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Master's Degree  
NYC Department of Education, Substitute teacher

## 안개 자욱한 호수

김철우

간밤에 내린 비  
비 젖은 낙엽 밟으며  
새벽안개 자욱한 호숫길 걸어가다  
길 잃은 거북이 보았다  
무거운 갑옷 등에 지고  
짧은 네 다리만 흐느적, 흐느적,  
보기 애처로워  
두 팔로 거북이 들어 올렸더니  
너석은 불안한지  
머리는 갑옷 속으로 숨어버리고  
짧은 다리만 흐느적, 흐느적.  
조심스럽게  
100미터 거리의 호수 물속에 놓아주었다  
상쾌한 아침 기분이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거북이 한 마리 살렸다는  
그런 기분

돌아오는 길  
거북이 생각에 그곳에 멈추었다  
혹시,  
실수한 것 아닐까?  
거북이는 알을 낳기 위해 그 먼 길을  
가고 있었던 것 아닐까?  
거북이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면...  
하루 종일 걱정이다

나의 마음도 안개 속에 헤맨다

혼비(魂碑)

김철우

앙...

울면서 태어났다

슬퍼서 울었을까?

기뻐서 울었을까?

한세상 구경 잘하고

떠날 때

울지 않고 돌아가련다

태어날 때 왜 울었을까?



김철우

1965년 서울사운드(TV, CF, CM SONG) 제작  
1976년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1977년 미국 뉴욕 이주  
1978년 Lexington ART Gallery 근무, 2012년 Home ART Gallery 운영(Retired)  
제28회 2020년 <<뉴욕문학>> 신인상

우리 집 귀염둥이 외손녀에게

박원선

앙증맞고 귀엽던 아기가

어느새 이렇게 커서

Smith college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구나...

아름답고 긴 머리에 태양이 비추는 그 순간에 너는 정말로 천사 같다

밝고 상냥하여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태주야...

어느새 키가 훌쩍 커서

할머니가 올려다보아야 하는구나

수줍은 듯 반짝이는

눈동자에 서려 있는

아름답고 높은 이상과 꿈을

마음껏 펼쳐 보거라

늘 응원할게...

사랑한다...



2023년 4월에...

박 원 선

한 번의 눈 쌓임도 없이  
슬그머니 노란 수선화가 보인다

겨울이 없었는데  
봄이란다

거리마다 분홍 꽃들이  
환하고 아름답게 피더니  
어느새 길바닥엔  
꽃잎들이  
꽃비되어  
거리에 흩날린다

아름다운 봄의 노래를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고 있다



박 원 선

아호는 현운, 2005년 《문학시대》 등단  
대한민국 서예전람회 초대작가, 대한민국 서예전람회 심사위원 역임  
2022년 아세아미술상 대상, 서화 개인전 3회  
미주한인서화협회 회장 역임

결계(結界)를 치다

변 정 속

하루에도 몇 번씩 마주 보며 웃는 사이  
눈도 코도 입도 똑같이 생겼다  
내가 머리를 자르면  
저도 같은 스타일을 하고 온다

아무리 봐도  
거울 속 저 여지는 나와 너무 닮았다  
또 다른 내가 저 너머에 있는 것이다  
이따금 고독해 보이는 것은 물속 같은 배경 때문이겠지  
고요로 지어진 성에는  
소리가 살지 않는 것인가

침묵에 잠긴 내가 보고 싶어  
거울 앞에 다가서 본다  
저 불가침의 성  
무성영화 속 여주인공은  
결단코 경계의 바깥으로 넘어오지 않는다

누군가  
빛의 날개 같은  
결계(結界)를 쳐놓았으므로...

## 시간이라는 기차

변 정 숙

생애 첫울음을 울리고  
광음(光陰)호라 불리는 열차를 탄다

우리는 모두 시간의 등에 올라  
간이역 없는 철로를 달리는 것인데  
20대는 시속 20, 60대는 시속 60  
너무 느리고, 혹은 너무 빠른 속도를 껴입고  
흔들고 흔들리면서  
그렇게 한 생을 끌고 가는 것이다

가뭇없이 스쳐 가버린 사랑 몇 페이지,  
풍경으로 사라지기 전, 저장 버튼을 눌러야 해  
아아  
숨 가쁜 나는  
습관처럼 멀미를 한다

성마른 어떤 청춘은  
달리는 차창을 열고 뛰어내렸다는 비보  
(태어나기 전 그의 시간 속으로

다시 돌아간 것인지도 몰라)

구글 내비게이션도 찍어주지 않는 종착역,  
나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 것일까



변 정 숙

부산 출생, 2009년 《창조문학》 시부문 등단, 한국문인협회 회원, 미동부문인협회 이사·시분과위원장, 문학동인 글마루 동인(서울), 계간 문예지 《미래시학》 미주 분과위원장, 2013년 경희해외동포문학상 수상  
시집 『소리화가』(시와 시학), 공저 『시의 끈을 풀다』 외 다수  
Email: jungsook.byun@gmail.com

## 목구멍이 뜨겁다

복영미

전염병이 없어버린 뉴욕 홀리싱 거리  
 하루 폼 팔려 가기를 기다리는 막노동자들이  
 콘크리트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  
 삶은 계란을 먹는다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맨손으로 계란을 먹고 있는 노동자들을  
 피해간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들에게  
 노동이란  
 국경선을 이어주는 철조망 없는 지름길인데  
 걸음마를 시작한 고향 아가의 신발인데  
 점심으로 계란 한 개를 삼키는  
 뜨거운 목구멍  
 누군가 저를 팔아 갈 때까지  
 해를 안고 있는 모퉁이  
 하나둘 켜지는 불빛  
 목구멍이 뜨겁다

## 난민선

복영미

누가 아기에게 날개를 달았나  
 아기는 요동치는 난민선을 타고도 웃기만 하는데  
 엄마하고 형아만 있으면  
 무서울 게 없던 아이 아일린 쿠르디\*  
 터키 휴양지 물결 출렁거리는 바닷가에서  
 아이는 엎드려 잠이 들었다  
 엄마만 있으면 형아만 있으면  
 팔이 통통한 아이의 어깨에  
 날개를 달지 마세요  
 아이는 난민선이 뒤집힐 때도  
 엄마랑 형아랑 옆에 있으면  
 즐겁기만 했을 거예요

\* 아일린 쿠르디 : 시리아 내전으로 유럽으로 이주하던 중 배가 난파되어 터키 해변에서 발견한 세 살짜리 사내아이.



복영미

경남 울산 출생, 2002년 《한국문학평론》 시부문 등단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디어문예창작학과 졸업, 한국시인협회, 헤시아나 활동 중  
 2010년 재외동포문학상 시부문 대상 수상  
 시집 『우주의 젓이 돈다』  
 E-mail : Youngmee\_b@hanmail.net

봄

선우 옥

창가에 선 매서운 바람

한가득

쏟아질 듯한 추위 손으로 꼭 잡고

이른 봄날

황급히 찾아온 개나리에 이끌려 꿈길을 걷는다

소리소문없이 언덕에 앉아

한동안 가지 해 벗이 되어버린

꽃들의 이야기

그의 고독

그의 웃음

그의 손길이 바람에 스치운다

기다리지 않아도 태양은 떠오르고

기다리지 않아도 봄은 오고

삶의 무게를 지고 저 멀리 서 있다

꽃도

나무도

나도

오늘은 하나가 되어 새 문을 활짝 연다



## 사랑

선우 옥

나는 시방 사랑이 좋다  
포근해서 좋고 마음껏 기댈 수 있어 좋다

나는 시방 사랑이 좋다  
선한 눈동자가 좋고 정답게 얘기해서 좋다  
안심할 수 있어 좋고 넉넉해서 좋다

나는 시방 사랑이 좋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 무지개를 볼 수 있어 좋고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어 좋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기 자로 다 잴 수 없는 길이  
영원히 품에 안을 수 없는 무계이기에  
기슴 벅차다

그만 있으면  
허다한 죄도 물거품이 되고  
꺼져가는 생명도 불꽃이 된다

그만 있으면  
시방  
이곳이 낙원이고 영원한 물 댄 동산이다

따뜻한 햇살이 목으로 다가와 안긴다  
바람도  
다가와 사랑을 속삭인다

벗도  
눈물도  
슬픔도  
모두 나의 님이 되었다



선우 옥

1991년 유학으로 도미, 2004년 《순수문학》 신인상 수상  
한국방송공사 · 시사영어사 · 동아일보 근무, 사업체 운영  
미동부한인문인협회 이사 · 서기 · 총무  
E-mail : m\_groysman@yahoo.com

## 사랑으로 가는 길

손정아

해가 지는데  
울적한 밤을 두르진 말라 하네  
아침이 올 것이니

혼자 웃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하네  
함께 있어도 혼자이니  
울고 싶으면 울어도 되고  
모든 것은 지나갈 것이므로

옛것이라고 포기하지 말라 하네  
묵은해 자리에도  
빛이 드는 것이니

새로운 물꼬를 트라 하네  
흐르는 물은 썩지 않으므로

원망은 말라하네  
거짓 꽃이 떨어진 후에야  
사랑이 보이므로  
사랑으로 가는 길은

## 평화의 손을 가진 미소

손정아

풀꽃의 손이 작아서  
아주 작아서

돌의 무게가 무겁지 않고  
폭풍의 칼이 두렵지 않고

땅에서 올라오는 온기로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기로만

냉기 없는 거기엔

평화의 손을 가진 미소가  
바람도 거스르지 않는 자유로  
순환을 합니다

평화의 손을 가진 미소는  
사랑입니다.



손정아

《시문학》 신인작품상으로 2014년에 등단  
현재 미주 중앙일보 문학동아리와 미 동부한인문인협회 이사, 고원기념사업회 이  
사로 활동 중  
시집 『발에 운동화 끈이 풀려 있다』, 『어제보다 오늘 더』, 『길 위에 길』,  
『길 안에 길』

## 그랜드 캐년

송 온 경

한 켠 한 켠 쌓여온  
가나긴 세월의 티끌들  
수백만 년을 지나며

굽이굽이 돌아 흐르는  
도도하고 푸른 물줄기와  
끈질기게 애무하는 비바람에  
온전히 제 몸을 내맡긴 채  
생살이 깎이는 아픔 이기고  
별보다 많은 마천루로 태어나

비밀을 속삭이는 듯  
세월을 증언하는 듯  
영원히 맹세하는 듯

그 우아한 자태에  
눈길 닿는 곳마다  
소리 없는 탄성  
구도자의 침묵

망각의 속삭임

신묘한 대자연의 법칙

## 소살리토\*

송 은 경

하이얀 구름과 잿빛 구름이  
파아란 화폭에  
어깨 맞댄 채 붓질을 하고

양지바른 언덕, 그림 같은 집들  
나른한 오수에 빠져든  
비 개인 오후

물빛 바다 위로  
끼룩 끼룩  
한 무리 바다새

펼럭펼럭  
힘찬 날갯짓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경주를 하네

파아란 바다 배경으로  
알록달록

대지를 수놓은 들꽃에  
마음 빼앗긴 여행자

먼발치에  
떠나온 도시 바라보며  
숨 고르는

시간이 멈춘 그곳

\* 소살리토(Sausalito) : 소살리토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린 카운티에 위치한 매력적이고 그림 같은 해안가 마을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바로 건너편 금문 해협의 북쪽에 자리 잡고 있으며, 멋진 전망, 예술적인 분위기, 지중해와 같은 분위기로 유명한 소살리토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문화적 명소가 독특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송 은 경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퀸즈 칼리지 도서관학 석사, 자연의 아름다움을 시로 표현하는 뉴욕주 공립학교 미디어 스페셜리스트. 전직 뉴욕주 공공도서관 사서  
네이버 블로그 : 뉴욕 사서교사의 창, 유튜브 채널 : 송은경 Nature Poet  
저서 『도서관의 림과 독서교육』(2021), 『영어 그림책을 통한 21세기 교육과 인성개발』(2018)



## 결혼사진은 왜 비장한가

안 영

예복을 입은 남자와 여자가 흰 장갑을 끼고  
앞날을 응시하고 있다  
아무런 의심도 없이 아버 친척 집을 떠나겠다는  
용기 하나만큼은 박수를 쳐줄 만하다  
근거 없는 믿음의 구름 기둥이 광야의 내비게이션이란 걸  
진즉에 알았다더라면 흥해는 건너지 못했을 것이다  
발부리에 걸리는 쓴 뿌리가 같은 길을 들고 들게 만들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날들이  
무리에 섞여  
이탈하는 영혼을 갉아먹는 불면의 밤이 지속되면서  
피폐해지는 일상이 탈출구를 찾아  
부질없는 객기와 타락한 욕망으로 가는 셋길에  
사자상이 지키고 있는 피라미드가 기다리고 있다  
하루분의 만나와 반석의 물이 흐르는 길 위에서  
아이들은 자라고  
젓과 꿀이 흐르는 미래가 눈앞인데  
만종이 울린다  
하던 일 멈추고 죽어 버린 꿈의 바구니 앞에서  
머리 숙여 기도를 드린다

## 손녀딸과 나무

안 영

쫄깃한 포옹과 사르르 녹는 미소로 버무린 떡  
웬 떡이야  
하나님은 쉬지 못하시고  
소설보다 외로운 이 세상에서 시 한 편 쓰셨다  
먼 길을 돌아와 날아온 나비 한 마리 새로운 풍경으로 팔랑팔랑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유전자의 나라에서 피의 언어로 소통하고  
춤과 노래의 파티가 시작된다  
사랑은 내리사랑  
깨소금 볶으려 먼길도 마다 않는다  
조상의 옆구리에서 겨자씨 한 알이 움터 오는 봄날  
연분홍 꽃잎이 흩날리고 꽃가루가 천지 사방 뿌려질 때  
무성해질 초록의 이파리들이 젊음을 점령해버릴 때까지  
나무는 버틸 것이다  
나무는 자꾸 윤회하며 가려운 시간을 지나갈 것이다  
나이테는 어떤 기억보다 선명하게 자신만의 무늬를 남기며  
죽보를 써내려 갈 것이다  
누구누구의 딸이  
누구누구의 딸을 낳고  
누구누구의 딸도 쉬지 못할 것이다



안 영

본명은 안영애, 전남 목포 출생, 1979년 도미, 1996년 《뉴욕문학》으로 등단  
국제PEN한국본부 회원, 한국문인협회 회원  
시집 『몽아일랜드에 부는 바람』(2003)

## 나의 시

윤영미

뜨거운 살냄새가 가슴을 치민다  
스스로 할퀴 상처 구박이다  
부끄러운 고백이다  
뛰어넘어야 할 것은 나의 이기심이다

서로에게 잠긴 빗장을 풀게 해야 할 일  
들여다보이는 속내가 따습도록  
보여주어야 할 일

경직된 숨통을 열어 주는 빛이 되어야 한다

끝내는  
무대 위에 남겨진 미련마저도  
태워야 하는 나의 시

## 산꽃

윤영미

숨통 끊기는 날 있어도 절망을 꿈꾸지 않았다  
천지의 날이 어둡고 어두웠어도  
숨은 달빛을 껴안고 부끄러운 거울을 보았다

사계절을 꿈틀거리며 피어나는 산꽃

삶을 찾아가는 인생의 자그마한 약도를  
마른 두 손에 쥐고 어느 날은 맨발로 달리고  
어느 날은 자꾸만 넘어지는 몸  
다시 일으켜 세우며 그래도 꿈을 꾸었다

바람이 불고 불어 먼지를 일으켜  
낭떠러지로 굴렀어도 울지 않았다  
숨차게 달려온 그 길  
오늘도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 가르며  
바람과 어우러져 기쁜 노래 부른다, 나는



윤영미

《삶터문학》, 《시대문학》 등단, 세계시인협회 회원, 한국스토리문인협회 미주지  
부장, 미동부한인문인협회 회원 · 이사 · 시분과위원장 · 현재 부회장  
현재 포코노임마누엘수양관, 청솔삶터문학마을 원장  
2023년 제10회 스토리문학상 수상, 시집 『질경이 풀꽃 속에』

## 찐빵

이 광 지

모락모락 김이 서린  
따끈따끈 찐빵  
  
포동포동 살찐 얼굴  
'먹고 싶니?'  
먹으려고 손에 쥐니  
보드라운 하얀 살결  
쫄개어 한 입에 쏘옥 넣고  
오물오물 먹으며  
마음이 좋아지네  
달콤한 팥앙꼬 잇새에 끼고  
냉큼 한 개 더 가져와  
먹고 또 먹네

## 넷 친구

- 책상다리

이 광 지

이쪽저쪽으로  
가깝게 이어진 끈  
나를 너를 잡고  
집 안에 있어도  
나들이를 가도  
온종일 함께 있어  
  
심심하지 않네  
입 빼죽거리며 미워하지 않고  
돈 자랑, 힘 자랑하지 않는다  
어느 한쪽 고장 나면 고쳐줘  
튼튼한 친구 되라 다독이네



이 광 지

목사, 전 한국크리스천문인협회 회원  
전 미주 《disapora》 편집인  
저서 『교회학교 주일공과』, 『성경동화』, 『어린이 찬송가』 집필  
E-mail : kwangikee@gmail.com

## 비파나무가 있는 풍경

이 명 속

낮은 흙스편 외투 위로 내리는 첫눈 향기였다

꽃잎 송송이 시린 손을 콧고  
뱃소리 저문 겨울 바다를 건너는  
꽃잎들의 길을 따라 돌아오는 물결들을  
비파나무에 기대어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아직 여물지 않은 도다리 새끼들은  
뺨을 물고 잠든 바닥을 울리지 않고  
빨리 달리는 말처럼  
2월의 짧은 날이 지나가고 있었다

등대 뒷산 바람들은 긴 생각을 흘리며  
밤의 종패(種貝)들을 감싸 안은 나뭇잎 사이  
겹겹이 밀려오는 비파소리에 부서지고 있었다

눈물을 깨우며 일어서는 파도의 손가락들은

얼마나 부드럽게 휘어지는 것인지

가장 깊은 호주머니에서 흘러내리는 잉크들은  
끝없이 편지를 쓰고

부치지 못한 채 밀봉된 녹청색 바다가  
굽 언저리 돌아오는 이도다완 비색(枇色)의  
달빛으로 익어가는 바닷가 언덕

어두운 바다를 들여다보는 밤마다  
빛의 사다리를 출렁이며 둥근 달무리들이 부서져 내리고  
키 큰 회색 어깨너머 황금빛 소리의 바다는

첫눈 향기로 혀끝을 맴돌고 있었다  
높은 '라'음(音)이었다



병 속의 바다 · 4

- Rimsky-Korsakov Seherezade -

이 명 숙

흰 그림자를 안고 배가 들어왔다

아다지오를 춤추는 물결들이 만(灣)에 기대어 젖어 들고  
땅끝 유채꽃밭으로 숨어드는

소들의 검은 눈이 언덕을 내려오는 바닷길은

오래 잊어버렸던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시든 꽃들이 갯내음으로 피어나는 천장에는  
일렁이며 일어서는 물무늬들이 긴 숨비파람을 불고

공작이 날개를 펴던 학교 뒤결

구름 끝으로 그네를 밀어올리던 날들의 오후를  
키 큰 수국나무가 지키고 있었다

푸른 물빛을 길어 올리는 뿌리들은

아무것도 입지 않는 싱싱한 시간들의 이름을 부르며

어딘가에서 일생을 쓰고 오랜 길을 돌아

처음과 마지막 지상의 빛으로 춤추는 일은

한 방울의 우주가 기억하고 있는 모든 날들의 밤

세상의 천일(千日)들이 배란다 난관으로 스며드는  
노을처럼

단힌 문틈으로 불꽃을 꺼버린 발자국으로

소리들은 태어난 곳에서 스스로를 새기며

밤의 줄을 당기는 수국나무 그늘 아래

물새들이 몇 번 울고

길게 머리채를 꼬이는 바닷말들이

빛바랜 길을 감도는 별들로 떠서

잠들지 못하는 바다

눈물처럼 빛나는 수국나무 꽃잎을 아직 다 셀 수 없었다

어디선가 닳을 내리는 소리

몸의 깊은 곳으로 바다가 굽어들고 있었다



이 명 숙

1988년 《불교문학》 신인상 수상, 2016년 《뉴욕문학》 시부분 가작 수상  
E-mail : nyungsockji@gmail.com

## 꿈을 그리다

이 선 희

적, 적막한 강  
연초록 구름, 산철쭉, 복수초, 노루귀 꽃 만발하면  
봄 인줄 알리  
자작나무 숲 그늘, 뻗꾸기 울음소리 외로움 엮고 땀방울 식힐 때면  
여름이러니  
세월 떨군 검노란 잎 발밑에 수북하니 아, 가을인가  
싸리나무 고리작 숨 털 입성 끌어내어 온기 포개고  
뻗이끼 덧문 여니 소리 없이 쌓여가는 함박눈, 어느새 겨울이네  
참 나무 가지 꺾어 담벼락 틈새에 촘촘이 걸어  
소용없이 늘어가는 내 나이 기억하리

나 위해 흐드러진 우주의 조화  
철철마다 낮밤마다 풍덩 빠져 들어  
변치 않는 물결 타고 순전하게 흘러가리

한 톨 시간 꿰어 매는 균열 간 아스팔트  
지친 먼지 털어 내며  
윌력 없는 편안한 날 꿈꾸어 본다

## 하루살이 풀꽃

이 선 희

죽음인 듯  
칠혹으로 뒤덮인 간밤  
밝아오는 햇살 입고  
열려지는 초록 핏줄  
그 누가 울고 갔나  
작은 풀에 맺힌 눈물  
매일매일  
죽어지게 하소서  
빛 한 줄기 고이 품고

다시 피어나는 풀꽃 하나



이 선 희

2005년 《문예사조》 등단, 《크리스찬저널》 창간 25주년 공모 시부문 당선  
미주한국기독문인협회 회원, 뉴욕시문학회 총무  
한국문화미술대전 추천작가  
E-mail : parksunhee0708@gmail.com

## 어떤 도주

이성곤

그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저 깊은 숲속이나 동굴이라 짐작할 뿐 아니 아이들 말대로 외계인이 보낸 스파이일 수도 그사이 우리는 마스크를 쓴 채 서로를 외면하는 예의를 배웠고 텅 비워진 도시 한켠에 우두커니 남겨진 공원으로 오래된 습관처럼 무료한 오후엔 산책을 나간다 그곳엔 큰 호수가 있고 늘 여남은 마리의 오리 떼가 떠 있다 문득 나는 물속으로 뛰어들어 오리 떼에 섞이고 싶어졌다 물속을 허우적대며 살려달라고 소리치는데 아무도 듣는 이가 없다 코로 나로 일터를 잃은 이들인가 마스크를 쓴 채 드문드문 앉아서 먼 곳을 바라볼 뿐 아마도 귀먹거나 눈멀거나 영혼까지도 빼앗긴 게 틀림없다 갑자기 오리 떼가 떠 있던 자리로 핏빛의 석양을 앞세운 채 바이러스가 떼지어 몰려온다 얼른 도망가야 해 땀인지 피인지 끈적끈적한 어찌면 바이러스의 체액일지도 흠뻑 뒤집어쓴 채 알몸이 되어 풀밭을 달리는데 사방은 온통 오리 똥이다 감염된 자들의 잔해 이리 피하고 저리 밟으며 뛰고 또 뛰다 차라리 꿈이었으면 하며 꿈속을 내달린다

- 2020년 5월

## 숨 쉬고 싶어요

- BIM (Black lives matter)

이성곤

제발 무릎을 꿇주세요 숨을 못 쉬겠어요  
검은 피부는 내가 택한 게 아니잖아요  
수상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수상한 동네  
어두워지면 통금 사이렌은 필요조차 없어요  
담배를 사러 가려 해도 목숨을 걸어야 하니  
적진을 돌파하듯 어둠의 철책을 넘어 담배 사러가요  
목표점에 다다르면 적군이 없나 일단 좌우를 살핀 후  
재빠르게 거래를 끝내야 해요  
그리고 왔던 길을 되돌아 조심조심 가야 해요  
신의 가호를 빌면서  
아뿔싸! 쏘지 마세요  
깜깜해서 길을 잘못 들었을 뿐 선량한 시민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숨을 못 쉬겠어요 제발 목을 조~르

이성곤

용산고등학교, 1975 한양대학교 화공과 졸업  
1984년 미국 이민, 현재 뉴저지에서 전자 관련 사업 중  
2013 - 2022 미동부한인문인협회 회원  
E-mail : Sklee4202@yahoo.co

\*\* 2022년도 《뉴욕문학》에 「어떤 도주」와 「숨 쉬고 싶어요」가 나눠지 않고 게재되었기에, 정정합니다.

## 봄맞이

### 이정강

봄비가 토닥토닥 내리면  
20년 세월 똑 잘라  
풀밭으로 달려가고파요

민들레 토끼풀 수 놓은  
들판으로 맨발로 걷고 싶어요

봄비 그치고  
먹구름 물러가는 하늘에  
인사라도 할까봐요

수선화, 튤립, 동백꽃, 매화, 산수유꽃,  
목련, 개나리, 벚꽃, 진달래, 철쭉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피었어요

깜빡거리는 기억에도  
보슬비 적서  
피고 지고 피울 수 있을까요

벌써 크로커스꽃 지고

꽃이끼 꽃잔디  
한 자락 뽐내며  
우리 정원의 여왕이 되었어요

소곤소곤 북돋우며  
눈맞춤의 인사가 눈부셔요  
한껏 춤판 벌이기를 기다리지요

놓쳤던 기억들을 퍼내며  
있었던 이름들을 다시 불러 모읍니다  
오셔요, 화환을 머리에 얹어 드릴게요

## 연줄 타고 오르는 언니에게

이 정 강

“언제  
어디서나  
너와 나는  
바람의 집 한 채  
바람 타고 오르는  
연 따라 그대 생명  
영원하길”\*

11년 전  
서울과 뉴욕을 잇는  
선배 언니의 육성이 흐른다

『바람의 집 한 채』  
거느리고  
연 따라 흔들리며  
나부끼고 있어요

어깨동무하며  
앞서거니 뒤서거니

오르고 있어요

눈으로, 어깨로  
바람의 속 말 따라  
하늘을 날고 있어요

그대의 모르소 부호를  
듣고 있어요

오늘도 교정에는  
배꽃이 흩날리겠지요

\* 2010년 6월 서울에서 시집 출판기념일에 대학 선배가 축하 카드에 보내온 글



이 정 강

1970년 《월간문학》 신인문학상 시부 당선, 1968년 《중앙일보》 신춘문에 시조부 입선, 1968년 《시조문학》 추천 완료, 미주시조시인협회 회장 역임, 미동부한인문인협회 회장 역임, 국제PEN한국본부 미동부지역위원회 회장 역임, 2001년 미주시조시인협회 시조월드문학상 대상 수상, 2015년 국제PEN한국본부 해외작가상 수상  
시집 『프시케의 바다』, 『그 바다결에 연은 뜨고』

## 봄비

### 이 종 비

비에 젖은  
시들은 꽃 하나  
툭... 하고 떨어지니  
꽃잎 땅에 흐트러지네

4월의 단비  
생명마다 색깔 덧칠하여  
그 푸르름 짙어지는 날  
한 그루  
큰 나무는  
태양 아래  
넓적한 그늘 드리우고  
우리는 그의 품 아래 들어가  
땀을 닦으리

창문 너머  
잔잔한 빗소리  
냉한 가슴 사이  
한 줌, 따뜻한 온기로

비집고 들어와선  
토닥토닥  
마음 다독이고 있네



## 나무 한 잎 바람에 나무끼다

이 종 비

어둠에서  
썩 음 틈을 때  
그때는 그것이  
아픔인 줄 알았어

하늘 향해 빛나던  
기개는  
어느 날  
밤새 휘몰아치는 바람에  
울부짖던 큰 나무  
작은 가지 끝에 매달린  
겨우, 한 잎...  
나뭇잎이었던 것을!

그래도  
지난날들이 아름다워서  
그 모든 것이  
고맙고 고마워서  
스치는 바람 한 점에도

나뭇잎 한 잎  
기쁨에 넘쳐  
사랑사랑 나무끼는 거야!



이 종 비  
Nira.ChongBee@gmail.com

## 거북이

이 춘 희

섬찔했다

진흙 색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토마토를 베어먹는 거북이 보았다

손바닥만 한 몸뚱이 꿈틀꿈틀

늪은 수도사 베일 벗기듯

천천히 고개 돌려 나를 올려다본다

배고픔, 외로움 무한정 쌓인 크고 검은 눈빛,

어찌다 여기까지 왔을까?

축 늘어진 입에서 날름거리는 헛바닥

토마토 붉은 즙, 주룩주룩 흐른다

큰 소리라도 한번 지르면

덜 가련해 보이련만

한 공기의 밥, 아랫목에 묻어두고

고개 한번 제대로 들지 못한 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며 사신

외로운 어머니의 얼굴 떠오른다

밥을 먹는 것처럼

신성한 행위 또 어디 있을까

바라보기만 해도 마침표가 가까운

번쩍거리는 슬픔

커다란 나뭇잎으로 덮어주었지

## 풀꽃

이 춘 희

겨울의 끝, 어느 아침에 만난 풀꽃  
부서진 돌 틈 사이에서  
수줍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은밀한 숨소리, 하늘 가득히  
실수로 태어난 것 같은 먼지투성이의 얼굴,  
높이 들어 올리고  
진홍빛 가슴, 번갯불 튀듯 터지고 있습니다

새들도 날아와 쪼아대지 않는  
버려진 오솔길, 마지막 마을  
구슬픈 아픔조차 순수한  
바람 부는 땅에 맨몸으로 울고있는  
아, 외로움만 안고 피어난 꽃이여!

짧았던 만남  
긴 이별도  
대기에 흐르는 박하 향기로  
풀밭에 나를 뉘입니다



이 춘 희

2008년 《창조문학》 수필부문 신인작품상으로 등단  
2021년 《시문학》 시부문 신인우수작품상 수상  
2009년 미동부한인문인협회 가입, 미동부한인문인협회 18대 이사장 역임  
《뉴욕 중앙일보》 오피니언 〈삶의 트랙에서〉 필진

## 창경궁에서

이혜란

어머니의 어머니가 아버지의 아버지가  
들려주시던 찬란하고 유구한  
열, 역사, 민족,  
쿵쿵 심장 뛰는 단어들

지금도 창경궁 뒤뜰 아카시아 뿌리는  
한반도 땅 정기를 탐내고 있는가  
고요한 평화의 나라 백의민족  
오천 년 한반도의 유구한 역사와  
오백 년 조선 왕조의 찬란한 유물을 덮은  
핏빛 역사, 잃어버린 36년은 지금도  
유린되고 있는가  
사장(死藏)되고 있는가  
교과서에서조차

왜 몰랐을까  
조선 9대 성종대왕 때 건립된 창경궁  
조선의 왕들이 태어난 궁궐이 한국 최초의 동물원이 되어  
김밥을 싸서 소풍 다니던 어린 시절

겨울이면 스케이트를 메고  
창경궁 춘당지 연못을 찾아  
얼음을 가르던 나의 사춘기  
아카시아 잎사귀 한 잎 한 잎 떨구며  
당신이 사랑한다 내가 사랑한다  
놀이삼아 훌쩍이다 까르르  
아, 그땐 왜 몰랐을까  
그리고 무엇이 달라졌는가 지금

아우슈비츠는 세계가 기억해도  
군함도\*는 지금 아름다운 섬이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많은 절규가  
무덤이 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운동주의 「서시」는  
생체실험 받다 죽어간다, 오늘도  
잃어버린 역사가 잊혀간다

돌들아 소리를 지르라\*\*  
역사를 잊은 후예에겐 미래가 없다  
평화는, 지우고 묻어서 얻는 것이 아닌  
진정어린 눈물과 눈물이 만나

치유되고 화합하여 이루는 것

딸의 딸들이 아들의 아들이  
이 땅에 참평화를 이루도록  
찬란하고 유구한  
얼, 역사, 민족,  
쿵쿵 심장 뛰는 단어들  
어머니의 어머니가 아버지의 아버지가  
들려주시던

창경궁에서

\* 군함도 : 군함도의 본래 이름은 하시마섬으로, 2차 세계대전 때 조선인들이 일본의 강제 노역에 동원되었던 곳이다.

\*\* 성경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나오는 구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 참조.

## 면역력

이혜란

마음이 먼저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은  
속절없이 균형이 깨지고  
아프기 시작한다  
명상 속으로  
기도 속으로  
침잠되는 눈물  
아픔과 마주한다  
나의 우주에  
겨울이 오지 않도록  
뜸새 눈물이 얼어  
폭폭 패인 봄철 도로처럼  
나의 우주가 균열되지 않도록  
온기를 찾아  
먼지를 털며  
한 손으로 커튼을 걷는다  
햇살을 들인다 천천히  
쿵. 쿵. 쿵쿵쿵. 다시 뛰기 시작한다 심장이  
두 손 모은다  
단단히 손깎지 깬다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은 끝나지 않았다  
마음이 먼저다 다시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도.

\* 천상병 시인의 시 「귀천」에서 인용.



이 혜 란

《뉴욕문학》, 《문학세계》, 《한글문학》 등단

도미 전 한국교육방송(EBS) 방송작가 및 문화, 홍보영화 시나리오 작가로 5년간 활동  
현재 미국연합감리교회 (United Methodist Church) 소속 목사로 미국인 화중 목회  
를 하고 있음.

## 카카오톡 소리

전 애 자

카톡, 카톡~  
아침에 눈 뜨게 하는 소리  
친구, 친지들이 보내오는  
덕담과 사진, 그림으로  
마음의 동이 튼다

카톡, 카톡~  
구름은 바람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듯  
분신인 전화기가 없으면  
생활이 안되는 시대가 되었다

카톡, 카톡~  
한국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들리는 소리 하루가 저물고  
땅거미가 내려앉은 밤에도  
잠자리까지 동반한다



카톡, 카톡~  
보이지 않는 전파를 타고  
세계 각국에 사는  
친척, 친구들이 다가와서  
희로애락을 심어 주고 간다

## 팔순 어머니님

전 애 자

하루 종일 막내아들 기다리며  
잘 먹지도 않고 기다리다가  
문소리에 접은 날개를 펴고  
무사 귀가에 아이처럼 좋아하신다  
고운 모습 세월 속에 감추시고  
더 말라 버릴 것도  
더 잃어버릴 것도 없는  
순교자의 마음으로 사시는 어머니  
열한 명 자식들 품에 안고  
신발 거꾸로 신고 살아온 세월  
나무라면  
용이가 수백 개는 생겼을 것이다  
여가 없이 생활고에 허덕이는  
딸을 보시며  
안쓰러워하며 걱정하시는  
어머니 모습이  
위로보다 아픔으로 다가온다  
어머니 사시는 집을 나서면  
불 때마다 더 늙으신 모습

동그랗게 굽어진 작은 등이  
눈가에 어리고  
촛점 잃은 애잔한 눈빛이  
무거운 발걸음에 밝힌다



전 애 자

1979년 미국이민, 《한국수필》 신인상 당선(2003년), 아시아 이중언어 개발센터(시튼 홀 대학)근무, 미주 뉴욕 《동아일보》 편집기자로 근무, 뉴저지 YWCA한국어 교사로 근무, 삼성중인포트리그MAJORACE 회원, 미주 중앙신문문학상 시부문 당선(2005년) 공저 『21세기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하여』 1·2·3권

E-mail : anniree123@hotmail.com

봄 인사

정 종 환

뉴욕커 피부색들처럼  
눈물의 바다로 흘러가는  
숲을  
나는 본다  
알려지지 않고 사라지는 길,  
낙엽들 사이 새싹들,  
등나무,  
야생화 춤,  
스스로 움직이는 구름떼  
이른 아침 꽃의 하품 소리  
3월 공원 호수,  
빗질하는 이끼 풀,  
강아지 달음질,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찜질통...재잘거림  
흔들리는 신호등과 함께  
두려움으로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기지개를 켜다.

늦겨울

정 종 환

한 잔 속  
밤과 포도주

밤의 길목  
빨리 뛰는 심장  
머리는 천천히  
몸은 꾸벅꾸벅

다섯 개 창들  
서로서로  
가깝게 다가간다

눈 빌딩 흩어짐  
숲속 바람들  
분다  
이것들과 나  
사이로

겨울과 석양이 섞이고

밤과 낮

떨어지는 물소리  
빨간 손수건에서 하얀 카펫으로  
시끄럽지도 조용하지도 않음  
한 그루 나뭇가지들이 부러지는  
위로의 평화

비전과  
꿈틀거리는 씨앗들  
깨끗한 머리를 올린다  
말이 필요 없는 시간에.



정 종 환  
2021년 《뉴욕문학》, 《미주문학》 신인상

## 슬픔의 스토리지

혜 성

지금은  
내 가슴에 들일 수 없어요

잠깐  
스토리지에 보관할게요

조금 마음이 정리되면  
여유가 생기면  
그때 꺼내서  
제 가슴에 받아 들일게요

지금은  
잠깐 이 슬픔을  
스토리지에 넣어 둘게요

각색의 슬픔들이  
앉아 있는 세월의 선반 한쪽에  
오늘의 이 아픔을 놓아 둘게요

지금은  
내 가슴에 받아들일 수 없어요  
너무 아파요



고열로 신음하고 있는 지구를 보았다  
저 가련한 작은 별이 사라질 때쯤  
티끌인 나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창에 걸린 쇠라의 점묘화가 더 이상 낮설지 않았다

\* 조르주 피에르 쇠라(1859-1891) : 광학, 색채학을 연구하여 점묘화법을 발전시킨 신인상주의 미술을 대표하는 프랑스 화가. 대표작 「그랑드 자트섬의 일요일 오후」

## 포도의 맛

정 희 수

포도를 먹을 때마다  
어린 넝쿨손의 양갈짐에 놀라네

갓 태어난 아기에게  
젓꼭지를 물려 본 어미들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휘어지게 열매를 달고 있는  
나무의 물결은  
유난히 거칠고 사납지

포도 한 알이  
작은 우주라는 걸 알기까지  
으깨지고 몽그러지는  
모진 세월을 견뎌내야 했지

머리에 무서리 내린 생의 저물녘  
포도를 먹을 때  
달콤한 맛의 황홀은 찰나



불현듯 떠오른 어머니의 모습에  
입안이 쓰겁기만 하네



정 희 수(정 레지나)  
《창조문학》 시부문 신인 문학상으로 등단  
2015 ~ 현재, 미동북부문인협회 회원  
reginatjchung@hanmail.net

## 밥 한번 먹자

조 성 자

밥 한번 먹자는 말이 여러 번 오간 뒤  
우리는 밥을 사이에 두고 앉았다

밥은 후식의 달콤함이 아니다  
전식의 상큼함도 물론 아니다  
방만한 관할구역만으로도 꿈이 되기도 하고  
제 무게만으로도 꿈을 뭉개기도 하고  
세상의 입을 거느리며 독재자가 되기도 하고  
설움을 틀어막는 입막음이 되기도 하던 밥  
밥 한번 먹자는 건 밥의 내력을 묻지는 게 아니다  
밥의 선량함에 기대 습한 기억의 한쪽을 말리고 싶은  
식어진 온기를 그러모아 불을 붙이고 싶은  
가볍지 않은 실타였는데

당분의 함량을 염려하며 따끈한 밥을  
익숙한 손가락질의 기교로 싱겁게 먹는다

거칠어가는 피부를 이야기 하고  
사라질 미래를 아쉬워하기도 하며

키득거린다

## 환승역

조 성 자

복새통을 이루는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며, 돌아보며

계절의 전광판엔 현기증도 꺼지고  
하늘이 내어 준 선반에서 짐 가방을 모두 내려놓고

한층 가벼운 인사가 오간다

날씨를 확인하던 대합실은 늘 추웠다  
밝은 날은 밝아서 흐린 날은 흐려서

시간에서 추락하던 순간은  
눈물을 기록하느라 질퍽하다

장례식장,

고단한 몸을 싣고 온 좁은 기차에서 내린 아버지  
광활한 기차로 갈아타는 중이다



조 성 자

2002년 《미주중앙일보》 신인문학상 시부문 당선, 2002년 《시문학》으로 등단  
미주서시문학상(2013), 제4회 해외꽃시인상 수상  
시집 『기어가는 것은 담을 넘을 수 있다』, 『새우깡』, 『아카펠라』, 산문집 『비늘의 언어』  
E-mail : jbyoo@hotmail.com

## 미려별서와 장개석

최 주 석

1.  
여산의, 장개석과 부인 송미령을 위한 별장  
주은래와의 협상으로 이루어진 제2차 국공합작,  
대일 항전 선언문의 본산, 국민정부의 하도(여름 수도)  
공산당에 밀려 쫓겨나기 전 아쉬움을 안은 채 10일 더 머물다  
떠나기 전 정원 바위에 ‘미려’ 2글자를 새긴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다시 올 수 있을까, 마지막인가
2.  
10년 후 모택동이 제1차 공산당 회의를 여산에서 연다  
바위의 글씨를 본다. 침묵의 시간이 흐른 후  
“장 위원장 내가 왔소”  
어떤 마음일까 내가 이겼소, 왜 우리가 싸워야 했소  
다음날 시를 남겼다.  
뜨거운 기상과 더불어 도연명의 생의 관조를 은근히 드러낸다
3.  
장개석은 패자이고, 모택동은 승자인가  
장개석은 여생에서 미려별서를 기억하고 있을까

잠 못 이루는 밤을 가졌을까  
왜 쫓겨 빼앗겼을까  
부정부패 때문에, 송미령이 미인이어서  
대국을 호령하던 그 기개, 한 줌의 재로 사라지다  
장개석, 당신은 패자가 아니오  
모택동의 순절이 오염되어 온 대국을 흙탕물로 넘쳐남을  
온 세계가 보고 있소  
당신은 대만이 중국 공산당을 집어삼키는 것을 염원하고 있죠  
나도 희망을 걸어보오  
생전의 당신의 호탕한 웃음소리, 내 귀를 통해 다시 듣고 싶소

## 잊혀진 영혼, 버려진 영혼

최 주 석

동녘 해는 여전히 따사로이 여기에도 비친다  
창공의 푸름은 점점 얇어져 비수의 칼날을 보여준다  
봄빛과 함께 어우러진 찬바람은 휘몰아치며 이곳을 훑는다  
머먼 역사의 한 귀퉁이 이백 년 전, 흑인 노예의 후손, 빼앗긴  
땅의 후손, 인디언의 빼이픈 슬픔을 간직한 채 잠들은 이곳이다  
또다시 반란의 역사, 전염병에 희생된 500여의 영혼, 어린 아이들  
교회의 신성함에 범접할 수 없기에 여기에 던져진다  
부모의 통곡, 지금도 여기에서 맴도는 이곳,  
역사의 강물 여기서 멈춘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시절,  
이제야 기념비 하나로 그들의 영혼을 달랜다  
망각의 세월 누구를 탓하라

적막을 깨뜨린 다람쥐 한 마리, 무엇에 놀란 듯 황급히 철책을 빠져나간다

새들도 머물지 않고, 우짖지 않는 이곳  
그 망각의 역사를 짊어진 고목나무 한 그루  
안타까운 듯 체념한 듯 고요히 머리 숙여 모두를 내려 본다

잊혀진 영혼, 버려진 영혼을 껴안고



최 주 석

1954년 생, 서강대 졸업(73학번), 1985 도미, 자영업 후 은퇴  
홍사단 뉴욕지부 단우 활동  
2022년 《뉴욕문학》 신인상 가작

## 봄의 길목

하 명 자

### 봄의 길목

바람이 불어오자  
어디선가 빛이 쏟아져 내리네요

들꽃이 그림자처럼  
신호를 보내오자  
나비들이 춤을 추네요

아른거리는 안갯속에  
하늘 한 자락 침묵의 구름을 띄우네요

그대 내려오시는가  
자갈밭에 흩어진 민들레 씨앗들이 꿈을꾸고

아직  
들꽃은 먼 길에서 아른거리는데

먼데  
손을 살포시 흔드는데

## 겨울나무

하 명 자

착각인가 햇살 한 점 반짝  
지나간다,  
입 떨린 단풍나무 몸을 흔든다

그림자 같다  
속절없는 그림자 같구나

아지랑이 흐르는 좁은 숲길에는  
별빛 부르는 듯 비바람 소리가 들리고,

누가 다녀갔을까  
하나둘 기침을 하고,  
밭은 기침소리 들리고  
굽은 산 비켜 가는 고향길이 보인다

그날 네가 떠난 그 빈자리  
찬바람 휘어진 산길에는  
단풍나무 붉게 선명하다



하 명 자

2021년 《뉴욕문학》 등단, 《미주문학》 신인상  
뉴욕시문학회 회원

## 커피

황 미 광

커피는 내게 선생이다  
해야 할 일 미루고 있을 때  
나를 책상에 앉히는 선생이 된다

커피는 내게 약이다  
약간은 불안하고  
많이 우울할 때  
친구와 함께 불안을 마시면 다시 일상이 찾아온다

술의 유혹이  
커피 친구 같은 커피를 이기지 못하고

코 끝의 꽃향기가  
혀 끝의 커피를 누르지 못하니

알 수 없는 그대처럼  
속 모를 커피를 만나서  
한 생을 진하게 살고 있다

봄비

황 미 광

봄비를 우산으로 가리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미  
마음이 젖어 버렸기 때문이다

젖은 마음에  
비가 내린다

처음 만난 비에  
봄꽃들이 몸을 떴다

나도  
온몸이 간지럽다

내게도 비로소  
새싹이 돋나 보다



황 미 광

문학박사, 《창조문학》 신인상 등단(2002), 미동부한인문인협회 17대 회장 역임, 국제PEN 한국본부 이사, 재외한인사회연구재단이사, 동서화곡문화회(1981 발기인), 시맥동인(1983), 한국문인협회, 한국연구협회 회원, 미주한인이민백년사 출판위원장, KCB 가톨릭방송 사장, 대한민국 국민포장(2018), 대통령상(2007, 2016), 올해의 한인상(2014), 뉴욕주 여성교육자상(2009), 서울시 교통부 시 입상(2014, 2019), 경희해외동포문학상 등 수상  
시집 『지금 나는 미취 중이다』 외 논문집, 공동 저서 『뉴욕의 한인문인들』 등 다수  
E-MAIL : hamikwang@gmail.com







## 수필 예찬



이 경 숙

(미동부한인문인협회 수필분과 위원장)

지리한 일들로 부산한 날이면 무언가 해야 할 것을 잃은 채, 잊은 채 하루를 보내곤 한다. 삶은 자주 도발적이고 위하적이어서 무력함이 펼쳐지기도 한다. 마음을 정리하고 숨을 고르기 위해 몰입이 필요하다.

글을 쓰는 이유는 제각각이다. 기록을 위해, 직업적으로,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막연한 그리움으로, 또는 상처를 게워내기 위해서 글을 쓴다. 적어도 몰입의 시간을 갖는다. 시간은 혼자만의 시간이어야 하고 자유 영혼의 순간이어야 한다. 마음을 추스릴 수 있고, 의지와 힘을 회복할 수 있다.

실과 바늘처럼 글쓰기와 책읽기도 그렇다. 작은 도전이지만 마음을 풀어내는 글을 쓰다가 시를 흥내 내어 보기도 한다. 시집이 눈에 밟히면 시인에 대해서도 궁금해진다. 작가를 알게 되면 그 작가의 책이 읽고 싶다. 책 속의 와 닿는 문장들을 내 상황에 빗대어 표현해 보며 글을 뽑아낸다. 한 줄의 기쁨이 맥락을 이루고 이야기가 된다.

글을 읽게 되면 세상을 보는 깊이가 달라진다. 고정관념에 갇혀 본 세상의 모습이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며 깨달음을 준다. 더 큰 프레임

으로 세상의 이치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얻으니 생각이 정리되고 행동이 달라진다. 작은 깨달음은 더 큰 깨달음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되니 또 책을 집어 든다.

글을 쓰노라면 작은 일상이나 특별한 이벤트가 다 소재거리다. 사람들을 관찰하고 특징을 살피게 하며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사람들을 알게 되면 많은 지식과 정보 역시 덤으로 따라온다. 책에서 주는 것과는 다른 경험의 산물이다. 실제에서 느끼는 기분, 정서, 감정 등은 차곡차곡 생각의 서랍에 넣어 두었다가 글속에서 녹여낸다. 당연히 마음이 가벼워지고 상쾌해진다.

수명 연장으로 백세 시대가 되니 건강의 중요성을 더 강조한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온다. 특히나 치매나 알츠하이머 등으로 정신 건강을 위한 예방법 또한, 부지기수다. 그중에 글쓰기가 추천된다. 일기, 메모 습관부터 시작하여 뇌를 자극하며 활성화시키는 글을 쓰는 것은 인지기능의 저하를 막을 수 있다. 새롭게 하루하루를 시작하며 느끼는 많은 감동과 깨달음의 기쁨을 수필로 담아내는 뿌듯함으로 자신감을 갖게 하니 어찌 즐겁지 아니할까?

## 봄부추

### 곽 경 숙

한참을 우울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그냥 몇 년을 그래왔다. 물론 지난 삼 년에 걸친 코비드19도 일조를 했을 것이다.

오늘 딸과 사위가 온다고 어제저녁에 갑자기 연락이 왔다. 딸은 올 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서 가져오겠다고 했다. 나는 다 있으니 아무것도 사오지 말고 몸만 오라고 했다. 식사 준비로 무엇을 할까 하다가 지난해에 우리 집에 들렀을 때 입이 짧은 사위가 부추김치를 잘 먹던 생각이 났다.

간만에 뜰로 밭을 읊졌다. 노오란 햇살이 뜰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벌써 자목련 꽃잎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래도 개나리는 알에서 금방 껍질을 깨고 나온 햇병아리 같은 색으로 활짝 피어 한창이고 향취가 기가 막힌 참나물도 따기에는 아직 일렀다. 혹시라도 부추가 따먹을 만큼 자란 것이 있을까고 잘 살펴보니 한쪽에 보기만 해도 침이 넘어가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한 부추가 건강한 연초록색 저고리를 입고 나를 맞아주고 있었다. 오늘 사위가 오면 이걸로 김치도 담그고 전도 구워서 대접하자.

사람들이 부추가 몸에 좋다고들 하고 특히나 추운 겨울 눈비람을

이겨내며 영양을 비축해 놓았다가 봄에 처음 고개를 내미는 봄 부추는 사위도 안 줄만큼 귀하고 인삼과 녹용과도 바꾸지 않는다고 해서 그 유래를 좀 살펴보았다.

원산지는 동부 아시아와 중국 동북부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일본에서 오래 전부터 제사, 약용 및 식용 등의 용도로 다양하게 이용되어왔다.

삼천 년 전 중국 서주시대의 『시경』 이라는 고문헌에는 제사에 사용하였다고 되어있고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에 도입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부추는 불교에서는 자극이 강하다고 피하는 오신채(마늘, 파, 부추, 달래, 아귀) 중의 하나다. 생으로 먹으면 성내는 맘을 일으키고 익혀서 먹으면 음탕한 맘을 일으켜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하여 불교에서는 금한다고 한다.

부추의 이름도 즐, 솔, 새우리 등 여러 가지인데 또 한 번 심어 놓으면 돌보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게으름뱅이풀'이라고도 한단다. 또한 먹으면 담을 넘을 정도로 힘이 난다고 하여 '월담초'라고도 하고 오래 먹으면 오줌줄기가 벽을 뚫는다고 하여 '파벽초'라 불리어지기도 했다.

서양에서도 부추가 식용 외에 외상이나 동상 등의 치료에 쓰였고 로마의 네로 황제는 연설할 때 목청을 좋게 하는데 썼다고 한다. 또한 봄 부추 한 단은 피 한 방울보다 낫다고 한다. 또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어 어혈을 풀어주어 혈액 순환장애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칼륨, 철분, 비타민 C, E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간을 튼튼하게 하여 간건강에 도움을 준다. 또한 소화기관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으며 황화알릴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피로를 풀어주고 활력을 높여

주는 기능이 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

전설에 의하면 진시황도 먹었다고 해서 불로초라 했다가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씨가 마를까 봐 ‘로’자를 없애고 ‘불초’로 부르다가 부추로 변하여 불리기 시작했다는 설도 있다.

나도 어려서 엄마가 부추를 ‘장구지’라고 해서 경상도 방언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건강유지에 도움을 주어 부부간의 정을 오래 유지시켜 준다고 해서 생긴 이름이란다. ‘본초강목’에서도 부추를 ‘온신고정’이라 했다. 신장을 따뜻하게 하여 생식기능을 좋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채소 중에 으뜸인 부추는 다섯 가지 덕이 있는데 첫째는 날로 먹어도 좋아서, 둘째는 데쳐 먹어도 좋아서, 셋째는 절여 먹어도 좋아서, 넷째는 오래 두고 먹어도 좋아서, 다섯째는 매움이 항상 변하지 않아서이다. 또한 부추는 다섯 가지 색을 갖춘 채소로도 알려져 있는데 줄기가 희어 구백이요, 싹이 노랗게 구황이요, 잎이 파래서 구청이요, 뿌리가 붉어 구홍이요, 씨앗이 검어 구흑이라 했다.

오늘 부추를 뜯다 보니 이상하게 내 맘속 어두움이 안개 걷히듯 사라진다. 따뜻한 봄볕 아래 이 싱싱하고 건강한 부추 잎처럼 씩씩하게 살아야겠다는 생명력이 내 깊은 속에서부터 용솟음친다.

어느 시인은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고 했지만 나는 ‘귀하신 몸 봄부추가 나를 맞아주니 살아야겠다’. 그리고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어서 애타게 기다리는 딸네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소망한다.

## 어느 부활절 아침 풍경

곽 경 숙

오늘은 부활절이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는 일이 있다. 경보장치를 해제하고 대문을 열면 고개를 좌우로 돌리며 앞길 주위를 훑어본다. 혹시라도 길에다 누가 쓰레기를 버려 놓았을까봐. 대개는 과자 빈 봉지, 더러운 냅킨, 플라스틱 포크, 음식 찌꺼기 묻은 종이 접시, 담배꽂초, 마스크, 비닐장갑, 빨대가 꽂힌 플라스틱 컵 등등이다. 그러면 나는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치우기 시작한다.

길 건너가 킹즈 하버라는 널싱홈인데 직원들이 주차해 놓은 자기네 차 안에서 점심을 먹고는 빈 컨테이너들을 길에다 버리기 때문이다. 311에 전화해서 불평도 여러 번 하고 널싱홈의 담당자에게도 여러 번 얘기를 해도 개선이 안 되어 결국엔 내가 보이는 대로 치우는 수밖에 없다.

길 건너 파란 우체통 바로 옆에 구겨지고 열려진 편지봉투 두개가 보여 쓰레받기에 담았는데 우연히 눈길이 가서 보니까 한 개는 수신처가 IRS (internal Revenue Service 미국 국세청)이고 다른 한 개는 뉴욕주 세금 내는 곳 (State Processing Center)이다. 내어야 할 납세액을 보니 연방정부에는 일천 불, 주정부에는 오백 불이다. 소인이 안

찍힌 새 우표가 그대로 있고 속을 보니 동봉해 보내야 할 고지서만 있고 수표는 빠져서 나가고 없었다. 우체통 입구를 보니 끈적끈적한 글루가 발라져 있다. 누가 그냥 쓱 밀어 놓고 우체통의 밑바닥으로 떨어진 것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간 것을 다른 누가 끄집어내어 수표만 빼고 길에다 버린 모양이다.

발신인의 이름과 주소를 보니 브롱스이긴 한데 어딘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려다가 다시 생각해 보니 이 세금을 수표로 낸 사람은 세금을 기한 내에 내었다고 마음 폭 놓고 있다가 몇 달 후에 IRS와 주정부로부터 세금 미납 고지서와 벌과금까지 내야 하는 지경에 이를 것이 뻔한데 그 지경을 당하면 얼마나 황당하고 분통이 터질까? 수표를 훔쳐간 자는 특수한 약물로 수표에 쓰여진 수신자의 이름을 지우고 자기 이름을 써서 돈을 찾아키는 일이 빈번하다고 우편물을 꼭 우편국에 직접 가서 부치라고 며칠 전 신문에도 나지 않았던가.

어떻게 발신인에게 알릴 것인가를 고심하다가, 어머니를 혼자 두고 집을 비울 수가 없어 경찰서에다 연락을 해서 도움을 청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옆집 조가 “해피 이스터”하며 인사를 건넨다. 조에게 편지를 보여주며 의논을 하니 발신인의 이름을 보고 자기 이름과 똑 같은 조인데다가 라스트 네임을 보니 같은 이태리 사람이라며 상당한 관심을 보인다. 그러나 부활절 아침에 다른 일을 제쳐 두고 그 집까지 운전해 가서 전해주며 알려야 할 것인가는 망설여지는 것같았다. 그러더니 편지 둘 중 한 개를 달라며 자기가 갖고 있다가 내일 월요일에 출근하는 길에 그 집을 들러 전달해 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자기는 무얼 살 것이 있다고 운전하며 갔다.

나는 속으로 혹시라도 내일 아침에 수표를 훔친 자가 수표현금화를 할까 봐 염려되었으나 나머지 수표를 들고 집으로 들어와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딩동’하며 벨 소리가 나서 나가 보니 조가 서 있었다.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 그 사이에 운전하여 그 집을 갔었다는 것이었다. 가 보니 그리 먼 곳은 아니었다고 했다. 조를 만났고 편지를 전해 주었는데 그 사람이 늙으신 그의 아버지에게 편지 부치는 것을 부탁했더니 우체통에 집어넣고 바닥으로 떨어진 것을 확인하지 않아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며 너무나 고마워하더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내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한 장도 자기에게 주면 바로 돌아가서 전달해 주겠다고 해서 그에게 주어서 그가 잘 전달하고 돌아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짐작컨데 아마도 자기와 이름도 같고 같은 동족이라 일부러 시간을 내어 발신자의 집까지 운전해 가서 직접 전해준 것이다.

나는 옆집 조에게 부활절에 축복받을 좋은 일을 했다고 치하했다. 그리고 내 마음도 큰 짐을 덜은 것같이 새털같이 가벼웠다. 이렇게 해결되지 않았으면 정말 마음이 개운하지 않은 부활절을 보낼 뻔했다. 어떻게 내가 이 구겨지고 개봉된 편지들을 보게 되어 또 옆집 조가 그 집까지 갖다주게 되었고 또 마침 오늘이 부활절이라 훔친 사람은 수표 현금화를 못 했으니 그 발신자 조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다. 아니 부활절이니까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해야 맞겠지.

나도 모두들 자기 살기 바쁜 이즈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지 않고 피해자가 겪을 아픔을 내 것인양 느끼며 일부러 시간 내어 도와준 조와 내가 아닌가. 진정한 시민정신을 발휘한 것 같아서 정말 뿌듯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길을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하며 그냥 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는 방향도 아닌데 일부러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 몇몇이 있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아직은 살 만한 곳이란 생각이 든다.



곽 경 숙

시튼홀 대학교 이중 언어 전공, 서울대 대학원 신문학과, 경북대 국어교육과 졸업  
《창조문학》, 《해외기독문학》 시 등단 《뉴욕문학》 수필 등단  
뉴욕시문학회, 해외기독문학회 회원, 2021년 동부문인협회 입회

## 그랜드 마스터 트레쉬 ‘Grand Master Trash’

김 미 연

친구가 제시간에 나타나지 않는다. 걱정되기 시작했다. 나는 미술관 로비에서 서성이면서, 입구 쪽에 시선을 고정시켰다. 저기서 머리가 보였다. “A야, 왔어?” 너무 반가워서 끌어안았다.

A는 혈떡이며 다가온다. 먼 데서 지하철을 내려서 한참을 걸었다고 말한다. “Q 라인 타라고 했잖아.” “잊어버렸어.” 어쨌든 다행이다. 찾아서 오긴 왔으니. 친구는 멀리 뉴저지 중서부에 산다. 이틀 전, 나는 약속도 확인할 겸 A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지 않는다. 다시 집으로 걸어서 음성 녹음을 남겼다. 세상일이 궁금하지 않은 그녀는 누가 전화를 했는지 카톡에 뭐가 오는지 관심이 없다. 궁금한 쪽은 세상 사람들이다. 지금의 나처럼. 얼마 전까지도 A의 남편에게 전화해서 연락하곤 했다. 남편은 그녀에게 세상을 연결해주는 고리 같은 존재였었다. 나의 녹음을 확인한 그녀에게 연락이 왔다.

“뭐 하고 있었는데 전화도 안 받아?”

“뭐 좀 만들고 있었어. 카탈로그도 오리고 나무 판에 칠도 하면서…….”

“지내기 괜찮아?”

“밥하는 거에서 해방됐으니 이제 빈둥거리며 살 거야. 나 하고 싶

은 거 하면서.”

일 년 전 쯤이다. 추위가 가시고 새 계절이 올까 말까 망설이던 어느 저녁 무렵이다. 식료품으로 가득 찬 창고 같은 차가 우리 집 드라이브 웨이에 잠깐 섰다. A는 와르르 무너질 것 같은 트렁크에서 콧감, 스모크드 살몬, 브리 치즈를 꺼내서 주었다. 멀리 사는 친구 부부가 오랜만에 장을 보러 나온 외출이었다. 그러나 이번은 기색이 좀 달랐다.

“좀 들어와 쉬었다 가세요.”

운전석에서 내리지 않고 있는 A의 남편에게 말했다.

“아네요, 차에서 내리면 꼬꾸라질 것 같아요.”

“우리 집 사람은 아무 것도 모르는 철부지예요.”

왕복 4시간 길을 아내가 혼자 운전하여 장 보러 오지 못할 것이라고 걱정과 한탄이 섞인 어조였다. 그 사이 친구는 내 귀에 대고 울먹였다.

“키모를 너무 심하게 받아서 지금 복수가 차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야…….”

나는 어둠 속으로 힘들게 사라지는 차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미술관 로비 의자에 걸터앉은 A는 칭칭 감은 목도리며 장갑을 벗는다. 우리는 티켓을 산 후에 갤러리로 들어갔다. 인디언 문양처럼 화려한 팔각형의 작품이 커다랗게 걸려있다. 기하학적 디자인이 모슬렘 궁전의 장식처럼 보이기도 한다. 아 그런데, 제목이 Grand master trash였다.

트레슈? 쓰레기라니? 자세히 읽어 보니 쓰레기를 수거해서 만든 작품이라고 한다. 깨지고 흠이 간 조개로 윤곽을 두르고 덴탈 플로스를

여러 개 붙여서 물결처럼 보인다. 쓰다 버린 치솔을 팜 트리 나무로, 단추를 나무 주위에 붙여서 무슨 탑 같기도 하다. 핑크 보라색 탐폰으로 구름처럼 부채살 무늬를 만들기도 했다.

듀크 라일리라는 작가는 어떻게 쓰레기에 천착하게 되었을까? 브루클린 바닷가에서 노을이 지도록 고독하게 앉아 있다가 파도에 밀려오는 쓰레기를 보았을까. 그러다가 시대를 고민하는 작가답게 환경 문제를 생각했을까. 해변가에 버려진 연필, 비눗갑, 샴푸병을 수거해서 닦고 윤내고 칠하고 코팅을 입혔다. 전시장의 한쪽에는 산에서 강에서 쓰레기를 주우러 다니는 나이 든 남자의 비디오가 있었다. 이 작품은 분명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었다.

다 보고 나오니 거의 1시가 되었다. 일 층의 식당에서 점심을 했다. A는 갈 때는 어떻게 가냐고 물었다.(나도 길은 잘 모르는데, 내 집 가는 길만 알고 있는데. 나도 누구를 의지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A는 길을 다 찾아서 종이에 적어주던 남편이 정말 아쉽다고 한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A. 친구는 제2의 인생을 가고 있었다.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못 갈 것도 없는데” A는 담담하게 웃어 보였다. 그녀의 널따란 등 짝이 지하철역으로 사라져 가고 있다.

## 후회의 책

김미연

‘고양이가 죽었다. 옆집 남자가 문을 두드리며 알려 주었다. 볼테르는 길가에서 차갑게 식어있었다. 나쁜 일만 계속 생긴다. 파혼하고 해고당하고 유일한 동무 고양이도 죽었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밤 11시 40분에 약을 먹었다. 눈을 떠 보니 삶과 죽음의 중간 지대에 있었다.

시간은 밤 12시, 그곳은 미드나이트 라이브러리라고 불리는 곳이다. 서가에는 수많은 책이 꽂혀있었다. 그중 제일 두꺼운 책에는 로라가 살면서 했던 수많은 후회가 적혀 있었다. ‘볼테르를 밖에 내보내지 않았더라면!’ 책장을 펼치니 고양이를 집에서만 키우는 로라의 다른 삶이 있었다.

노라는 실수를 하기 전의 삶으로 걸어 들어갔다.

매트 헤이그의 소설 ‘미드나이트 라이브러리’에서 펼쳐지는 내용이다. 나 역시 도돌이표처럼 돌아오곤 하는 후회의 순간이 있다. 오래 전 그 당시 퇴근 무렵이면 나는 항상 지쳐 있었다. 얼른 쉬어야 한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다. 이들을 운동장에 떨구고 쌍하니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다. 운동장 벤치에는 부모와 조부모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었다. 코우치는 부모가 지키고 있는 아이들의 이름

을 먼저 호명할지도 모른다. ‘내 아들은 대기석에 마냥 앉아 있으려나?’ 하는 생각이 순간 스쳤지만, 나는 집으로 차를 몰았다.

나의 후회의 책장은 얼마나 될까? 후회의 순간을 다시 살 수 있을까? 나는 삼십 년 전 그 운동장에서 있었다. 집에 갈까 망설이다, 끝에 있는 벤치로 걸어갔다. 자그만 내 아들은 코우치가 ‘안토니하고 소리치자, 부리나케 뛰어나갔다. 나도 ‘에이’ 소리치며 벌떡 일어났다. 아들은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며 다람쥐처럼 라인을 따라서 뛰었다. 자리로 돌아오는 아들의 얼굴이 의기양양하다. 몸이 좀 피곤한 것쯤이야, 저녁 준비가 늦어진들 어떠랴. 경기가 끝난 아들을 태우고 돌아오면서 피자를 주문했다.

또 다른 순간도 있다. 질기게 나를 물고 늘어지는 장면, 장소는 과거의 서울이다. 마지막 삼 개월을 살고 있는 어머니는 나와 같이 하와이에 가고 싶어 했다. 채식주의자 그룹이 있는 그곳에서 암을 완치했다는 말을 누구에게 들은 것 같았다. 나는 곧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대답했다.

담담 의사는 환자의 몸 상태로 비행기 여행은 무리라고 말했다. 나의 죄책감은 어느 정도 줄었지만, 못 간다고 말했던 과거의 못된 여자는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서 어른거렸다. 그때 직장에 휴직계를 내고 어머니를 모시고 하와이로 갔더라면? 어머니는 계속 사셨을까?

소설에서 자신의 또 다른 삶을 살아본 노라는 고양이가 심근병으로 죽었음을 알게 된다.

수의사는 고양이가 사랑하는 주인 앞에서 죽기 싫어서 밖에 나갔을 것이라고 말해준다. 가슴을 치면서 한 노라의 후회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다. 로라를 죽음으로 내몰 생각이 사실은 그녀의 죄책감

에서 비롯된 엉뚱한 상상에서 나온 것이었다. 기억과 상상은 자주 뒤섞이며 우리를 혼란에 빠뜨린다.

노리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적인 삶에도 텅 빈 공허가 있음을 알았다. 그러자, 죽으려고 했던 자기 삶에 애착이 생겼다. 문을 두드리며 볼테르의 죽음을 알려준 앞집 남자, 친절한 애쉬에게 커피라도 사야 할 것 같다. 사이가 나빠진 오빠에게 먼저 연락할 것이다. 아 참 옆집 할아버지의 약도 타다 주어야지. 황폐하게만 보였던 자신의 삶에도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다니. 작은 친절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 인생의 답은 '일상의 사소한 것'에 있는 것임을 노리는 죽음 직전에 알게 되었다.

미국 CDC는 여학생들 5명에 3명 꼴로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발표했다. 한국의 청소년 자살률은 세계 1위로 올라갔다. 핸드폰을 쥐고 사는 MZ 세대는 친구들의 사진을 보면서 부러워한다. '애는 잘 나가는구나.' 미술랭 급 식당에서 밥 먹고 여행하는 장면들이 매순간 올라온다. 명품까지 들렀다. '난 이게 뭐지.' 자괴감이 고개를 들지도 모른다.

1999년, 24살의 작가 매트 헤이그는 절벽에서 뛰어내리려는 순간에 머릿속에 빛이 번쩍했다고 한다. 빅뱅 같은 현상을 본 작가는 그때부터 항우울제를 끊고 책과 운동으로 스스로를 치유했다.

이 소설은 작가 자신의 치유기 같은 책이다. 사람들이 코로나로 우울감에 사로잡혔던 2020년, 가족, 사업, 직장을 잃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그해 여름에 나온 『미드나이트 라이브러리』에 빠져들었다. 책이 불티나듯 팔려 나갔다. 내 삶도 주인공 로라처럼 엉망진창이지만, 그래도 살만한 가치가 있다. 직장 잃고 귀향하던 MZ세대의 얼굴

에 잔잔한 미소가 얼굴에 퍼져 나갔을 것이다.



김미연

이화여자대학교 시청각교육과 웨스트 버지니아 주립대학, 교육학석사  
페어리디킨슨 대학, 이중언어 / ESL 과정  
뉴저지 팔리세이드 파크초등학교 교사, 뉴저지 노던벨리 고등학교ESL 교사  
《문학시대》 2019년 신인문학상  
현 미주 가톨릭평화신문 필진, 현 미주 중앙일보 오피니언 칼럼니스트



## 변화

김 봉 례

아시아 혐오가 심해져서 맨해튼을 나가는 것을 꺼려했는데, 로봇건의 경찰이 등장했다고 시장이 말을 한다.

눈에 띄게 변하는 세상에 그동안 우려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감안하고 많은 제정을 투여하는 최신식 형태의 보안관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인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긴급한 상황에 대비할 방편이 여러 가지로 새롭게 나타나 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로봇이 나타나 웃지 못할 새로운 아이디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었다.

비 오는 날 몸이 무거워서 기압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며 밖으로 나왔다. 며칠 전에 담석증으로 대수술을 했다는 그녀가 열심히 전화를 걸고 있다. 제법 회복된 모양이다.

나도 전화기를 찾으니 없어서 짐을 훌쩍 뒤집어서 찾으려 기억을 더듬어 본다.

비가 와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이곳에서 뭉개기로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무거운 몸을 움직여 밖으로 나온다.

그동안 코비드 팬데믹으로 사우나도 문이 닫혔고 멤버십 열 장이

그대로 집에서 썩고 있었다.

사우나를 가고 싶다는 그녀가 생각이 나서 위로도 하고 격려해 주고 싶어서 들고 나왔다.

사우나표 열 장을 내밀자 고마워하며 몇 장만 달라고 하는데 모두 주었다.

갑자기 내 전화기가 없어서 갑자기 수선을 피우던 나는 주위를 의식하지 않고 난리를 부리다 짚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차안에 있는 내 전화기를 보고서 안심을 했지만, 요즈음 챗 GPT가 나오면서 스마트폰이 없어질 거라는 말을 듣던 것을 기억한다.

수많은 전화기가 내 생애에 있었다. 집집마다 줄로 된 전화기가 있을 때 특유한 디자인을 찾아 여러 곳을 다니며 샀던 생각이 난다.

전화기로 인해서 비쳐지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다. 눈비가 쏟아지는 공중전화 박스 속에서 이루어지던 연애 사건들, 이제는 그리운 고향 같은 추억일 뿐이다.

영국에서 특유한 그 나라의 빨간색의 공중 전화통이 있는 것을 사 들고 길거리의 기념품점에서 사온 것도 냉장고 문에 진하고 강렬하게 붙어 있다. 추억을 끌고 있는 특유한 영국식 억양의 영국식 발음을 흉내 내던 그때는 나도 젊었고 주위에 없어진 내 친구들도 젊고 어려서 시간관념이 없었다.

커다란 가방을 끌고 다니며 기차 여행을 하던 그때를 그려 본다.

유럽대륙으로 건너와서 여러 나라를 다니는데 프랑스에서 전깃줄이 안 보이는데 가까운 이웃으로 가면 전봇대에 줄이 늘어져 있던 모습이 떠오른다.

이제 전화기에도 선이 없이 어디나 연락이 된다. 카톡, 틱톡, 동양

인들도 앞서가는 상품을 내보이고 세계를 휘두르고 있다. 이제는 마이크로 소프트에서 새로운 AI, 시대의 문을 열고 우리를 자극한다. 그러나 인간의 몸은 그대로다. 근본적인 해부학은 변하지 않는다. 고장이 나면 조금씩 고치며 사는 시대다.

오늘 만난 여인도 전에는 사람이 배를 열고 수술을 했던 과거가 있었다. 그때는 담석을 제거를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장치를 늘어놓고 이루어졌던 때가 떠오른다. 지금도 선하게 그때를 떠올리고 있었다.

이제는 로봇술로 네 개의 구멍을 통해서 간단히 이루어지는 시술로 상처도 거의 없이 점만이 남는다. 빠른 시일 내에 퇴원을 하며 죽을 먹고 밥을 먹기 위해 비가 와도 밖으로 그녀는 나온 것이다.

그녀는 나를 보자 반가워한다.

낮익은 목소리를 남기고 밖으로 나간다. 빨리 회복되어 같이 운동을 하기를 바란다. 오늘은 혼자 운동을 했지만 패션 감각이 뛰어난 그녀가 화려한 운동복을 입고 나타날 그녀의 힘없는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다.

## 뉴욕 대한민국 음악제

김봉례

옛날 우리 동네 친구가 남양 나이론에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회사에서 미국, 뉴욕, 맨하튼에 파견근무, 연수를 받기 위해서 그곳에 간다고 한다 해서 그녀의 집에 갔었다.

그때는 왜 내가 그것이 그리 부러운지 내가 가지 않았던 장소에 그녀는 갔다 왔었다. 내가 알지 못하던 유명한 장소인 카네기홀에도 갔었고 구경도 했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은 미국, 뉴욕에 살고 있고 카네기홀을 수 없이 많이 드나 들었다.

삼십 년 전에 나는 카네기홀에서 노래를 불렀다. 무대에 서서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모든 교인이 참석을 했었다.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교인 모두가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나를 그곳에 서게 하였다. 모든 교인이 참석한 합창단이다.

코로나 팬데믹 때 아무 곳도 가지를 못하고 집안에만 있었다.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제는 못 보던 사람들도 많이 만나서 기뻐지만, 그동안 돌아가신 분도 많이 있어서 마음이 아팠다. 살아 있다는 특권이 실감이 난다.

이제는 모두 만날 수도 있었고 한국 음악제도 열린다고 많은 사람들이 연습을 하는 장소를 찾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연습을 하

게 되었다. 아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서 반가웠다.

다시 합창을 하게 되어서 기뻐고 다시 생각을 하니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몇 달을 연습을 하고 드디어 무대에 서게 되었다. 백오십여 명의 합창단과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같이 하는 큰 무대에 걱정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자리에 앉기 시작한다. 코비드 팬데믹으로 모이기를 하지 않고 오랫동안 집안에만 있다가 처음으로 큰 무대가 열리는 음악제가 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심혈을 기울여 열리게 된 것이다.

연습은 오래도록 이어지고 리허설을 하기 위해서 줄을 서고 낱지를 맞추어서 모두 모이게 되었다. 리허설이 끝나고 옷을 갖추어 입고 화장실에서 안 하던 화장을 하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린다. 정해진 장소에 아직은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발표하는 날은 모두 벗어야 한다.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한다. 모두 커다란 거울 앞에 모여서 그동안 보지 못하던 사람을 반기는 모습이 보인다. 무대에 정렬된 장소에 내 위치에 서서 있다 앉을 수 있는 곳에 찾아앉아도 본다. 입구에는 낮익은 얼굴들이 안내를 하고 있었다.

합창단은 여성과 남성으로,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로 나이와는 관계없이 젊은이들부터 머리가 하얀 나이 먹은 분들도 많았다. 거의 백오십여 명으로 모인 합창단원은 저마다 다른 장소에서 연습을 하고 하루 모여서 맞춰 보는 날 서로 인사를 하고 그동안 알고 지내던 분도 있고 새로운 얼굴로 처음 보는 사람도 있었다. 처음에는 연습할 때 웃지 않고 굳어 있던 얼굴들이 환하게 펴지고 있었다.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같이 리허설을 하는 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같이 모이니 기분이 상승되는 느낌이 든다. 제일 바이올린, 제이 바이올린, 첼로, 바스 플룻, 피콜로 오보에, 바순 혼, 앵혼 트럼펫, 트롬본, 비 트롬본, 투바 하프, 피크존 등 많은 단원들이 리허설을 위해 모였고 자기가 하지 않고 기다리는 동안은 뜨개질을 하거나 독서를 하는 모습을 눈여겨보게 되었다. 모두 긴장되고 흥분된 분위기에도 여러 모습으로 자신을 관리하는 모습이 보인다.

예전부터 알던 권사님의 시에 곡을 붙여서 부르니 더 친근감이 들어 한층 열심을 더하게 되었다.

오케스트라 단원은 거의 칠십 명에 다다르고 있었다.

한국 가곡을 부르는 테너 가수와 소프라노 가수는 한국인이었고 바이올린을 독주를 하는 사람도 유명한 한국인 교포였다. 두 명은 외국인었고 노래를 불렀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여러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가까이 보게 되었는데 옆드려 기도하거나 뜨개질을 하며 마음을 정리하는 모습에 그동안의 연습이 순간의 표현에 조금이라도 실수가 없기를 서로 바라고 있었다.

그동안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사람들의 숨은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지휘자인 박동명 선생님이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면서 연습을 시키고 오늘에 온 것이다.

다시 주위를 살펴보게 되었다. 안익태 선생님의 '코리아 환타지'가 울려 퍼진다. 순서대로 노래를 부르고 의자에 앉아서 내려다보이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손뿔짐을 본다. 독창과 독주들도 순서대로 맞추며 정장을 하고 열심이다. 모두 조용한 가운데 연습한 모든 곡이 실수 없이 순간 예술로 표현하는 것이다.

춤을 추듯 단원들의 손이 움직여지고 감동을 받은 가슴은 붓을 잡고 칠을 하는 것같이 열심히 움직이고 머리에는 그림이 떠오른다. 고향 내가 살았던 그곳이 그려지고 있었다.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소리는 완벽하게 정확하게 두고 온 고향을 그리고 있었다. 다시 가슴이 뜨거워지고 알 수 없는 향수에 젖는다. 고국 고향이 그리운 것이다.

모두 일어나 대한민국 만세를 모든 합창단이 소리를 지르며 부르고 있었다. 잊을 수 없는, 잊을 수도 없는 곳 카네기홀에서 장애인 음악제가 있어서 그곳을 가느라고 연습시간에 빠지기도 했지만, 같이 노래를 부르며 모두 같은 마음을 가진다, 권사 합창단도 이제 팬데믹에 하지 못한 발표회를 갖고 이곳 뉴욕에서는 마스크를 벗기를 시작한 것이다.



김 봉 려

1952년 서울에서 태어남  
1975년 가톨릭의대 간호대 졸업  
1996년 동부개혁 장로회 신학교 졸업  
2000년 경산 한의대 졸업  
병원 간호사로 근무

## 텃밭에서

김 옥 수

단독 주택에서 아파트로 이사를 온 후로 불편한 것은 좁은 공간뿐이 아니다. 봄이 되어 꽃이나 식물들이 되살아나서 한창일 때는 가지각색의 정원의 화초들이 생각난다. 흙을 뒤지기를 꺼리지 않는 편이라 뒤뜰에 두어 가지 채소를 심었던 조그마한 텃밭이 무엇보다 아쉬웠다. 다행히 이곳 시청 공원 관리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신청서를 낸 후 중간 사이즈 카펫 정도의 공지를 불하받았다. 양지바른 곳들은 오래전에 소유권을 얻은 이들의 몫이어서 초보인 나에게는 야생 풀들이 무성한 음지가 배당되었다.

잡초가 가슴까지 올라올 지경의 묵은 밭이지만 내가 가꾸어도 되는 땅이라는 생각을 하니 큰 농장의 주인이라도 된 기분이었다.

몇 년을 비워 두었는지 천방지축으로 자란 쑥의 뿌리를 뽑고 또 뽑아도 그 봄에는 겨우 반 정도의 땅에만 씨를 뿌릴 형편이 되었다. 간신히 자리를 잡고 올라오는 연한 상추는 질기고 강한 야생 쑥에 눌러그야말로 '쑥밭'이 되는가 싶었다.

그래도 키가 큰 한국 종 아삭이고추 나무에 굵은 손가락 크기의 고추가 조롱조롱 달려 있는 걸 보는 재미는 맛있게 먹는 즐거움에 버금가는 일이다. 이 밭에다 새로 부여준 흙이며 추가로 장만한 풀 베는

큰 칼 등의 소소한 비용이 있었다. 매년 시청에 내는 55불의 경작비를 감안하면 나의 노동시간의 대가를 환산하지 않아도 시쳇말로

‘밀지는 장사’이고 그 돈으로 유기농 채소를 더 많이 살 수 있다는 판단도 든다만 이 고생(?)을 자처 함은 그나마 운동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램이다. 작은 씨앗이 움을 틔우고 파랗게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을 지켜보는 일도 빼놓을 수 없는 동기부여이다. 어떤 지인은 “얼굴에 닿는 햇볕이 싫어서 도저히 못하겠노라”고도 하였는데 얼굴에 바르는 햇빛 차단 크림에도 신경을 써야 함은 물론이다.

Community Garden이라 이름한 이곳에는 60여 개의 필지(plot)가 있고 각각의 가든에서 나는 채소나 꽃들의 종류만큼이나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주인이다. 직업이나 인종 분류도 유엔에 뒤지지 않을 정도이다. 나의 바로 이웃은 열대지방 출신인데 얼마나 받을 잘 가꾸는지 보는 이들마다 찬사가 자자하다 모범 농부 상을 받을 만큼 깔끔하고 싱싱한 채소들이 가득하고 농사 초년생인 내가 묻는 말에는 항상 친절하게 알려준다.

지난 달에는 재료비만 받고 나무로 된 박스를 4개나 만들어 주어서 나의 가든은 업그레이드해 격상되었다. 빈 공간에는 잡초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100피트나 떨어진 공동 저장소에서 나무껍질을 가져다 덮어주는 수고도 하였었다. 나의 남편은 두어 해 전 입구에서 이곳을 구경한 일이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늘 혼자서 잡초를 뽑고 있는 이 늙은 여자가 동정심을 나게 하였는지도 모른다. 다섯 필지 왼쪽으로는 나이가 80이 넘었다는 이태리 할아버지의 밭이다. 보슬비가 내리는 지난 주말 오후 “지금 심으면 딱 좋다”며 한 손 가득히 상추 모종을

건네주셨다. 어린 시절 시골 조부모님 댁의 담장 너머로 오가던 애호박 덩이나 갓 베어온 부추 한 줌의 훈훈한 정을 이곳에서 다시 떠올리게 된다.

뿌린 대로 거두는 흙의 교훈도 함께 깨달아야 할 일이다.

## 흔적을 지우는 일

김 옥 수

꽤 오래 전 일이다. 유럽 쪽에 사는 친구와 특별한 일이 아니면 늘 이메일로 소통을 하였었다. 급한 상황을 제외하면 전화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적인 방법이었고 또 시차를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되는 일석이조의 편리함 때문에 늘 그 현대 기기의 혜택에 고마운 마음이었다.

요즈음은 더 빠르고 편리한 수단으로 손에 있는 전화기가 이 일을 대행 해주어서 더더욱 간편해진 “IT”세상을 누리고 있다. 그 친구가 갑작스레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나서 나의 컴퓨터에 남은 그녀의 메일을 보면서 한동안 어찌할 바를 몰랐었다.

남편의 대 선배께서 지난해 갑작스레 부인과 사별을 하셨다. 본인이 스스로 운전하여 병원으로 검진을 가셨고 곧장 입원을 할 만큼 증세가 급변 하시면서, 3일 만에 작고하셨다. 가족들은 물론이고 부고를 접한 주위의 많은 친지들이 믿을 수 없으리만큼 졸지에 가셨었다. 장지에서 뵈고 한 달쯤 지난 후에 그 선배의 사무실을 찾았을 때엔 우선 생각보단 밝은 표정어서서 나를 놀라게 되었다. 답소를 나누다 식당으로 떠날 즈음에 상의 주머니에서 분홍색 커버를 한 사모님의 전화기를 꺼내 보여 주신다.

“출퇴근도 같이하고 저녁에 집에서 충전시켜서 나랑 같이 회사에도 오고 가고 하니 아직은 살아 있는 것처럼 지낸다.”고 하시는 말에 가슴이 멍멍하여 대답 할 말을 찾지 못했었다.

“가끔은 카톡이 올라 오는데 간단히 고맙다는 답신도 보내지요.” 하셨는데 이 전화기를 들고 늘 같이 다니시는 걸 아는 분들이 카톡 문자를 보내었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하늘나라에 계신 분의 전화기이지만 그 아내분의 흔적이 많이 묻어있기 때문이다. ‘60여 년을 넘게 동고동락한 이 표적들을 어찌 짧은 시간에 다 지울 수 있을까?’란 생각을 하니 그 노 선배님의 순고한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듯 하였다.

3년 전 오월이다. 거리는 멀지 않지만 타 주에 사는 친구의 이메일 주소를 지우는 일로 한번 더 나는 꽤나 오랫동안 가슴앓이를 하였었다. 목록에서 비슷한 알파벳을 가진 사람을 치면 그녀의 이름이 훌쩍 올라왔다.

남달리 쾌활하던 그녀의 웃음이 보이고 같이한 여행지의 장면들이 오랫동안 나의 컴퓨터를 떠나지 못했었다. 조출한 나무관에서 한 줍의 재로 돌아오던 이 세상 마지막 그녀의 표적을 못내 지울 수 없었지만 어느 날인가 나는 주소 지우기에 ‘클릭’을 하였다. ‘천국에는 배달이 불가능’한 소통 방법이기에 가슴 한 모서리에 모아두리라 생각을 고쳤었다.

그런데 오늘은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40년 지기 교인, 나의 아우의 친구 ‘사랑이 많아 늘 따뜻하고 아름다운 여인’의 부음을 듣는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벌써 ‘뇌사판정을 받았고 현대의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여 48시간을 버티는 동안 사랑하던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마지막 “Good Bye.” 그리고 “I love You.”의 청천벽력같이 짧은 시간만 허락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나는 다시 한번 더 이 ‘사랑의 흔적’을 지우는 일과 가슴앓이를 거쳐야 한다.

이 인연의 ‘흔적’들을 쉽게 지우는 방법이 있거나 할까?



김 옥 수

경북 달성 출생. 계명대학교 간호학과, 영문학과 졸업.  
《한국수필》로 등단  
수필집 『허드슨강도 바다로 흐르고』  
E-mail : caksookim@gmail.com

## 카블 스케치

김 희 우

2003년 우리가 카블에 살던 때는, 사반세기의 전쟁은 끝났지만, 탈레반이 곳곳에 출몰하여 팽팽한 긴장감을 늦추지 못한 상황이었다.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 살던 우리 동네는 호세이니의 『연을 쫓는 아이』란 책 속에서 작가가 어린 시절 보낸 곳이었다.

테러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집 밖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24시간 보초를 서며 오고 가는 차량에 대한 경계를 하였다.

밤이면 잠들기 전까지 ‘집이 테러를 당하면 어떻게 대처할까?’하는 심각한 궁리로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잠을 설쳤다.

옆집은 전설적인 게릴라의 지도자 마수드의 동생 사무실이었다.

3층에 침실이 있어 옥상으로 나가면, 옆집과 연결된 지붕을 타고 그 쪽으로 피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혼자 피식 웃고 말았다.

암울한 밤은 생존의 존엄을 지켜야 하는 본능의 시간이었다.

어느 날 밤, 옥상 쪽 지붕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별채에 사는 집사 격인 하디를 불렀다.

잠자다 깬 모습으로 덩치 큰 하디가 황급히 올라왔다.

손전등을 들고 소리 죽여 옥상으로 나갔다.

어둠 속에서 파란 불빛의 레이저를 쏘는 두 눈동자가 우리를 주시

하고 있었다.

검정 고양이였다.

“후유.”하는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집안에만 갇힌 우리는 많이 무료했다.

휴일이면 남편과 나는 운전기사 없이 외곽지대로 금지된 드라이브를 나갔다.

납치나 테러 같은 돌발위험이 잠재되어 있으나, 지루한 삶 속에서 모험을 감수하는 일도 하나의 일탈이었다.

집에서 자동차로 30분 거리에 카불 시민들의 유원지였던 하슈마 칸 호수가 있었다.

활기차고, 생명력이 넘치는 물가는 제법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호수의 낭만을 즐기는 사치스러운 여유보다는 잔잔한 호수를 바라보며, 잠시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는 평온의 위안을 받았다.

다리를 건너기 직전에 늘 같은 모습의 키 큰 거지가 깡통을 손에 들고 뭐라고 외쳐 댔다.

알 수 없는 소리가 파편처럼 공중에 부서졌다.

적은 돈이라도 깡통에 넣어 주고 싶었지만, 창문을 여는 것마저도 위험한 일이라 지나치곤 했다.

어느 날 드라이브 중에 ‘지뢰 조심’이라는 표지판이 서 있는 골프장을 지나갔다.

그날 처음으로 풀 한 포기 없는 골프장에서 골퍼를 보았다.

골퍼 뒤편에서 소총을 메고 뒤따르는 군인의 모습이 이색적이었다.

단 한 장면의 웃지 못할 이 모습은 아프간에 근무하는 외국인들이 황량한 질곡을 벗어나고 싶은 지루한 심경을 대변해 주는 숨은 일화

다.

집 어귀를 들어서는데, 웬 동양 아이와 눈이 마주쳤다.

하자라족이었다.

몽골계 외모와 시아파 소수 민족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는 하자라족은 하류계급으로 전락하여 가난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백미러에, 달리는 자동차를 열심히 뒤쫓아오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비쳤다.

외모가 비슷한 우리에게 호감을 가지고 뛰는 것 같았다.

그들의 전성기였던 칭기즈칸의 원정을 떠올리며 서글픈 심정이 되었다.

어린이들은 쓰레기 더미에서 먹을 것을 찾아 나서고, 부르카를 발목까지 뒤집어쓴 여인이, 변장한 탈레반일지도 모르는 현실 속에서 아프간은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었다.

번창했던 카불은 역사 속의 한 페이지로 접히고, 끊이지 않는 테러와 폐허가 된 아프간의 삶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기원해본다.



## 아름다운 동행

김희우

단발머리 소녀들이 미래의 청사진을 품고 청과 언덕에서 만난 지 5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반세기의 세월은 풋풋하고 아름답던 소녀들의 미소를, 반백의 머리와 기쁨 어린 노년의 미소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젊은 날에는 툭툭 튀는 개성과 자기주장의 관철을 위해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으나, 이제 연륜이 더한 노년의 내적 성숙은 서로 다른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는 너그러운 삶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노년의 아집이나 자기주장을 고집한다면 우정의 분열과 파열음이 생기겠지만, 우리의 만남은 마찰음 없이 서로 감싸고 격려해주는 잘 조율된 화음을 연주하는 작은 음악회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믿음과 축복을 보내며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남편의 직업으로 일생의 절반을 외국과 한국을 오가는 삶 속에서도, 귀국하면 언제나 같은 자리 푸근한 우정의 품에 안길 수 있어서 내내 행복했습니다. 남미의 페루에서 사는 동안 친정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는 비행기 노선으로 때 맞추어 귀국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만 슬프고 아플 때, 친구 전원이 나 대신 딸 노릇을 해주었던

고마운 사연도 평생 잊지 못할 우정의 선물입니다.

일 년 주기로 회장직을 맡고, 그 회장은 특유의 개성과 봉사로 입학 동기의 절반이 참석하는 동창회를 이끌어 갑니다. 타국이나 지방에 삶의 터전이 있는 친구들도 따뜻한 마음의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중년의 12월, 부부 동반으로 망년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부인의 동창회에 참석해주는 고마운 남편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써서 낭독하자는 제안에, 쑥스러워 못한다고 이구동성이었습니다.

상품까지 내놓으며 우여곡절 끝에 편지쓰기가 성사되었는데, 오래전 기억에 남는 친구의 재미있는 글이 떠오릅니다. 진지한 사연 뒤끝에 “아빠, 아이들 잘 키우고 아내 역할 충실히 했으니 밍크코트 한 벌 사주이쇼”. 예측불허, 돌발 상황의 멘트에 장내는 환희와 웃음의 도가니에 휩싸였지요! 남편에게 다시 쓰는 러브레터가 진실의 향기와 유머가 폭발하는 즐거움의 산실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천진한 아이처럼, 때로는 달관한 성자처럼 서로를 다독이고 안아주며, 함께 슬피하고 함께 기뻐하며 반세기를 동행하는 우리의 우정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임은 게이민 샤프트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성자 칼릴 지브란은 ‘친구는 여러분이 씨뿌리고 거두는 밭’이라고 했습니다.

코비드로 만나지 못할 때는 카톡이나 전화로 안부를 챙겼고, 근자에는 54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매달 두 번째 수요일 12시에 어김없이 우리는 만나지요. 소풍을 기다리는 어린이처럼 만날 날을 설렘으로 기다립니다. 만나면 변화하는 시류를 얘기하고, 흔한 유머나 시시껄

렁한 잡담도 “그래 맞아” 재미있게 웃으며 맞장구쳐주는 편한 사람들입니다. 카톡에 올려주는 사나 산문, 일상의 평범한 일들까지도 모두 즐겁게 댓글을 달아주고 행복해합니다.

함께하는 노년은 외롭지 않습니다. 노년의 아름다운 우정은 소녀적 설레던 그때처럼, 즐거운 이야기보따리를 풀어줄 약속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중입니다.



김 희 우  
2018년 뉴욕문인협회 입회  
15기 중앙일보 주부통신원  
고등학교 교사

## 픽스킬에서 살아보고 싶다

노 려

이름조차 낯선 픽스킬(Peekskill)이라는 곳엘 가 본 이유는, ‘가게에서 가까운 곳에 살아볼까?’해서였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침저녁 한 40분은 드라이브를 하며 친근만근으로 더디기만 한 10년 세월을 지냈기 때문이다.

가게 종업원 대부분이 살고 있는 픽스킬은 가게에서 한 10분 거리다. “여긴 집값이 무척 쌀 거야.” “애들도 없는 학교 세금 비싼 동네에 살 일이 뭐가 있어.” “우리 두 사람 방 둘 자리 아파트면 되지 않을까?” 지나가는 말처럼 하다가 어느 날 인터넷에서 찾은 허드슨강이 보이는 콘도를 곁에서라도 보려고 재미 삼아 픽스킬에 갔었다.

강이 보인다는 이유로 생각보다 비싼 콘도는 기차역 뒤 높은 언덕에 있었다. 기차역으로 가보니 바로 발아래로는 강물이 출렁이고 눈앞에는 베어 마운틴 산등성이가 널따랗게 펼쳐진다. 근처에는 분위기 좋아 보이는 술집들이 있다.

그러나 낭만적인 역전 앞을 떠나면, 거리거리에 낡은 집들이 촘촘히 들어서 있는, 허술한 도시이다. 허드슨강가의 도시들은 거의가 관광지로 유명하지만, 웬일인지 픽스킬만은 오랫동안 가난한 강마을로 내버려져진 것 같다. 유럽서 온 부자가 이곳에 터를 잡았으면 잔재라

도 있겠으나, 여기는 그런 볼거리도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일찌감치 공장들이 들어선 때문이다.

당연히 노동자들이 살았고, 썩 곳을 찾아오는 남미의 이민자들이 자리를 잡았고 그들의 가족과 친지가 계속 몰려들었으니 언제부터인가 썩 노동임금으로 살아가는 남미인들의 삶터가 되었던 탓이다.

커피나 한잔하고 집에 가려고 '픽스킬 커피 하우스'란 간판을 보고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다. 카페 안에 앉은 사람들은 스페니쉬가 아닌 흰 얼굴의 젊은이들이었다. 머리 위 칠판에는 복잡한 커피 종류와 수십 개의 샌드위치 메뉴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배우 지망생 같은 일하는 여자의 지나치게 친절할 태도까지, 마치 맨해튼의 어느 카페에 들어선 듯했다. 벽에 걸려있는 유화들은 분명 이 동네 아티스트의 작품이라. 구석 자리에 랩탑을 놓고 앉아 있는 나이 든 사람들도 남 다르게 보였다.

카페를 나와서 거리를 좀 걷다 보니 헌책방이 있었다. '짜아' 오래 있고 있던 책 향기에 젖어 들어 공연히 낡은 미술 잡지 하나를 샀다. 유심히 보니까 근처에 갤러리 간판도 눈에 들어온다. 가난한 서민의 동네만은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었다.

그때는 거기까지였다. 팬데믹이 서서히 사라질 무렵, 새로운 삶의 갈망이 꿈틀거렸는지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동생네가 더 늙기 전에 뉴욕에서 살아 보고 싶다고 한다. 당장 떠오르는 곳이 픽스킬이었다. 정식으로 구글을 검색해보기 시작했다. 우선 인터넷에 뜨는 말은, 브루클린과 퀸즈 같은 비싼 뉴욕 시내에서부터 아티스트들이 찾아오고 있는 곳이라는 것이다. 이곳엔 각 나라 식당들이 있고,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바아들이 있으며, 고풍스러운 건물의 극장도 있다.

그리고 보니 큰 길가에 커다란 창고 같은 건물은 픽스킬 현대미술관(MOCA, Museum of Contemporary Art)이다. 아하. 맨해튼과 기차로 한 시간 거리인데 뉴욕 아티스트들이 오래 방치해 둘 리가 없다. 자세히 찾아볼수록 이곳은 아티스트의 마을이었다. 더구나 허드슨 밸리 다른 도시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퍼블릭 도자기 공방도 있었다. 과연!

고등학교 때부터 도자기를 만들었고, 그래픽 디자인을 하면서도 도자기를 즐겨 만들었던 내가 현재 로스앤젤레스에서 도자기 공방을 다니고 있는 동생이랑 같이 노후에 올인할 수 있는 일이 이것 아닐까?

처음에 우연히 들어갔던 '픽스킬 커피 하우스'는 뉴욕 타임즈 부동산 면에 「예술인의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었다. 그래서인가. 생각보다 집값이 비쌌던 것이.

동생 네가 뉴욕 답사를 왔다.

이번엔 '어디 한번 보자'가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을 찾으려는 동생네의 간절함에 맞추어 집을 찾아 나섰다. GPS를 따라 집 크기에 비해서 가격이 그럴듯한 리버 뷰(River View)라는 거리에 있는 집 앞에 이르자 언덕 아래로 강이 보이는 집 분위기부터 마음에 들었다. 현관 문 앞에 지붕을 받치고 쪽 뻗어 올라간 네 개의 높다란 기둥이 감격적이다. 설명서에는 1920년대에 집을 지은 건축가의 이름까지 적혀 있다.

벽돌로 된 계단을 올라가면 작은 분수대처럼 생긴 해시계가 서있고, 집에 들어서면 2층으로 올라가는 층계의 나무 난간이 정교하다. 뒷마당은 집 한 채가 들어갈 만큼 넓다. 분명 그 옛날 어느 부자가 살던 집이다. 동생네가 뉴욕에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도

여기 살아 볼까 했는데, 우리가 사버릴까 하는 마음까지 들었다.

복덕방 아줌마에 의하면 6명의 자녀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집인데 처음에 너무 비싸게 내놓아 오랫동안 마켓에 나와 있는 처지다. 첫눈에는 안 보이던 디테일이 보인다. 집 전체가 낡아 있다. 부엌은 80년대 식이다. 뒷 마당에 집을 짓는다면 허가서를 받는 일은 또 다른 엄청난 일이라는 것. 싸직했던 가격이 썩 게 아니었다. 일단 포기를 했다.

동생네가 정말로 집을 싸 들고 뉴욕에 올 때까지도 그 집이 안 팔리고 있으면 다시 그 집을 가보자고 했다. 동생네가 돌아가고 난 며칠 후에 공연히 또 그 집에 가보니, 아직도 Sale 팻말이 붙어 있었다.

집 앞뒤를 살펴봤다. 평생을 작은 집에서 살던 나에게는 저택이다. 마음이 부푼다. 메인 스트리트에 있는 멋쟁이 일본라면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멀리 바라보이던 언덕 위의 성곽 같은 건물에 가 보니 고색창연한 수녀원이었다. 그 옆으로 고급스러운 콘도가 건축되고 있었다. 분명 이곳의 집값이 오를 것이다.

동생네는 워낙 건축업을 했으니 집 고치는 일이야 일도 아닐 텐데, 방이 많으니 언니를 위해 방 하나쯤 따로 만들어 놓을 수 있을테고, 건너 가면, 배어 마운틴 하이킹을 할 수 있고, 우드버리 아웃렛도 가깝고, 손자 손녀가 오면 강이 바라다보이는 넓은 마당에서 바베큐도 하고……. 집이 크니까 도자기 공방을 만들어도 된다. 한국식 도자기를 만들어 팔면 맨해튼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잘 팔릴 텐데. 상상의 뜻을 단 배가 순풍을 타고 산으로 간다.

그런데, 그런데 말이다. 과연 동생네가 대륙의 서쪽 켄트머리에서 동쪽 켄트머리로 정말로 짐 다 싸 들고 올 수가 있으려나. 우리 집에

서 한 30분 거리이지만, 터전을 움직인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말이다.

오래 놀리어 있는 아티스트의 꿈을 피워볼까 하는 생각이 또 하나의 피울 수 없는 꿈이 되어버릴지라도, 이 강마을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조차 또 하나의 꿈으로 남을 지라도……. 픽스킬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 뉴욕, 나의 뉴욕

### 노 려

아버지에게 브로드웨이 구경 한번 시켜 드리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일본에서 미술대학을 마치고는 평양 국립극장에서 무대미술 감독을 하시다가 6.25 한국전쟁 때 연극배우들과 같이 부산으로 피난 오신 아버지는 평생을 연극, 영화, 라디오, TV 세상에서 사셨다. 영화제작으로 가족의 생계를 불안하게 하셨던 아버지로서는, 세상에서 가보고 싶으신 곳이 있다면 뉴욕만한 곳이 또 어디 있겠는가. 아버지는 내가 뉴욕에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60을 못 넘기고 돌아가셨다.

초등학교 때 아버지 덕분에 남산 드라마센터의 어린이연극대회에도 나갔었지만, 그 당시 한국에서 연극이라는 자체가 드물었다. 대신에, 들키면 정확당하던 여중고 시절 나는 사복을 입고 머리에 스카프를 쓰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막론하고 영화를 보러 다녔다. 수많은 영화의 배경이기도 한 미국, 그중에서도 뉴욕, 뉴욕 중에서도 '브로드웨이'의 네온사인은 자유의 여신상이나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쌍둥이 빌딩과는 다르게 다가왔다.

정작 내가 42가 브로드웨이 한가운데 섰을 때의 그 압도감은 요즘 사람들은 모른다. 그때 처음으로 슈퍼마켓에 들어가 '야, 이게 다 미

제구나 했던 느낌을 요즘 사람들이 알 수가 없다. 멀리 바라만 보이던 신기루에 발을 디뎠던 1982년 그 감격이 무디어져 버린 지 오래다.

영화 '뉴욕, 뉴욕'이 브로드웨이 뮤지컬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보통은 브로드웨이에서 먼저 히트한 뮤지컬들이 영화로 만들어지는데, TV로 두 번이나 본 이 영화가 거의 50년 만에 뮤지컬로 재생이 된 것이다. 이 영화 주제가 '뉴욕, 뉴욕'의 'I want to be a part of it……'. 나도 한 부분이 되고 싶어'가 육성으로 극장 안에 울려 퍼질 것이 상상이 된다.

패티김의 '서울의 찬가' 노래비가 세종로 공원 중앙에 세워졌다가 얼마 후에 공원 주차장 입구로 옮겨졌다고 하는데, 그 어디에도 노래비는 없지만 '뉴욕, 뉴욕'이 뉴욕을 대변하는 노래라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이 곡을 작곡한 존 캔더(John Kander)씨가 96세의 정정한 모습으로 TV에 나와 이 노래에 얽힌 에피소드를 말하는 걸 봤다.

브로드웨이 뮤지컬 '시카고' '카바레' 등으로 성공가를 달리던 캔더씨가 마틴 스코세지 감독에게 곡을 들고 갔다. 감독과 라이자 미넬리는 좋다고 했는데 뒤쪽에 앉아 있던 어느 배우가 손짓으로 스코세지 감독을 불렀고, 잠시 후 스코세지 감독이 미안해하면서 곡을 조금 고쳐달라고 했다. '아니, 배우가 뭘 안다고하면서도 할 수없이 다시 고친 곡이 바로 지금의 '뉴욕, 뉴욕'이라고. 그리고 그 배우가 바로 로버트 드니로이다.

나그네처럼 뉴욕에 왔다가 옷을 잃어버린 선녀처럼 주저 앉은 나에게 뉴욕은 'If I can make it there I can make it anywhere 뉴욕에서 이루었으면 어디에서나 해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겪어낸 삶

의 현장일 뿐이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브로드웨이 극장가는 하도 복잡해서 피해 가야 하는 거리일 뿐이고 제대로 연극을 관람한 적도 거의 없다. 고백하건대, 나는 그 유명한 ‘라이언 킹, 오페라 유령, 에비타, 레 미제라블, 캐츠, 헤어…….’ 등을 하나도 보지 못했다. 아예 볼 마음을 갖지 않았다. 한국에서 오신 시대 어른들을 모시고 간 ‘코러스 라인(Chorus Line)’이 나한테서 뮤지컬에 대한 흥미를 빼앗아 간 장본인이라고 탓하고 싶지만, 실은 그 옛날 시민회관에서 라보엠을 볼 때부터 시작된 것 같다. 진지하게 대화를 해도 모자랄 판에 다 죽어가면서도 목청 높여 노래하는 미미를 보면서, 슬프거나 감격하기보다는 왠지 좀 어색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물론 ‘오프 오프(Off Off)’ 브로드웨이 연극을 보고 싶어 하셨을 것이다. 언젠가 친구와 같이 그야말로 ‘오프 오프’ 연극을 본 적이 있다. 맨해튼 웨스트 빌리지 뒷골목, 어느 집 리빙 룸 같은 작은 극장에서 몇 명 안 되는 관객 사이를 종횡무진하던 배우의 대사를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 대학 때부터 연극을 하다가 미국에 와서 필름 페스티벌로도 유명한 트라이베카에 한국식당을 차렸던 친구는 연기의 열정을 버리지 못하고 거의 70 나이에 다시 한국 무대로 귀의했다. 친구에게는 손바닥이 아프도록 박수를 보낸다.

오즈음 남는 게 시간인데도 ‘뉴욕 뉴욕’ 뮤지컬을 보러 가지 않을 것 같다. 뜨거우면서도 까다로운 정열을 처리하지 못해 신경질적으로 차갑게 깎아낸 대리석 같은 30대 로버트 드 니로의 이미지를 망가뜨릴, 분명 소란스럽기만 할 뮤지컬을 볼 마음이 전혀 없다.

나의 뉴욕은 멀리서 현란한 불빛으로 이른거리던 신기루가 아니다.

나를 붙잡은 나무꾼과 티격태격 살고 있는 일상의 땅이다. 브로드웨이 뮤지컬이나 매트 오페리는 안 가 보더라도, 나의 지손들이 뿌리내리고 가치를 뽐냈으니 내가 뉴욕의 한 부분임은 분명하지 않은가.



#### 노 려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산업미술 대학원 졸업, 기전전문대학교 전임강사  
2008년 《한국수필》 등단, 2009년 미동부한인문인협회 입회, 뉴욕한국일보 문화부  
기자, 웨체스터 저국장 역임, 한국 디자인하우스, 아시아나 기내지 통신원, 2015년  
국제PEN한국본부 미동부지역위원회 입회, 운영위원, 현재 미동부한인문인협회 회장  
저서 『그랜드센트럴에서 달리기』, E-mail : nohyo@gmail.com

## 만두 방망이

### 방인숙

만두를 손수 만든 지 한참 됐다. 만두피까지 밀어서 한 지는 더 오래고. 그런데 오늘 뜬금없이 만두를 하게 됐다.

사건(?)의 단초는 냉동실을 정리하다 꺼낸 한 주먹 분량의 갈은 돼지고기다. 만두를 하자니 숙주나물과 배추가 없는 데다 대타감인 부추마저 없으니 꿈도 못 꾸다. 완자나 하려고 고기에다 양파와 당근을 잘게 썰어 넣고 계란과 두부까지 찌서 넣었다. 그리고 나니까 이참에 만두를 해도 될까 싶어 반개 남은 호박도 넣었다. 허나 야채 부족에 쇠고기 다진 것도 안 들어갔는데 제맛이 날까 싶어 주저했다. 그렇다고 이 추운데 예정도 없던 만두거리 사러 차 끌고 나가려니 귀찮다. 무엇보다 만두피가 없다. 그때 2년째 간직해오던, 일테면, 할머니와 엄마가 쓰시던 생활 유품인 만두 방망이가 떠올랐다.

여기서 사서 쓰던 방망이랑 달리 손잡이도 없고 양끝까지 두께가 같고 굵기도 작은 왜소해 보이는 나무방망이다. 엄마가 살아계실 적에 동생이 한국에서 갖고 왔는데, 한 번도 사용하게 안 되고 버릴 수도 없더라. 언니가 칼국수라도 해 먹으라며 동생이 떠안겼던 거다. 이 먼 데까지 들고 돌아 내게 온 방망이를 만져보니 감화가 '새록새록' 피어난다.

우리가 자랄 땐 겨울이면 거의 2주마다 이걸로 만두를 해 먹었다.

맛 손이신 할머니가 일하는 언니랑 만두에 넣을 속을 감수하셨고, 엄마는 밀가루 반죽을 치대셨다. 우리들은 소반에 오순도순 둘러 앉아, 반죽을 조그맣게 떼어내 두 손비닥으로 비벼 동글납작하게 하거나, 피에 속을 넣곤 했다. 엄마는 숨씨 있게 방망이를 굴려 피를 얇고 예쁘게 속성으로 미셨다. 균일한 두께와 콤팩스로 그린 원형처럼 완전 동그랗게 피를 미는 데는 나름 노하우가 필요했다. 어린 커서야 만두 피를 미는 담당으로 승격했었으니까.

그 후, 만두피가 시판됐지만, 할머니와 엄마는 수제만두피만 고수하셨다. “밀가루 반죽을 밀어서 해 먹어야 제맛이지, 파는 피론 진짜 만두 맛이 안 난다.”는 가족들의 중론을 반영하신 거였다. 나 역시 결혼 후에도 애들과 같이 100% 수제 만두를 해먹곤 했었다. 어느 때 부턴가. 슬며시 만두피는 물론 만두까지 사 먹는 시류에 동참하게 됐지만 말이다. 힘들고 바쁘다는 핑계로 그렇게 ‘방씨표’ 만두를 잇고 살았던 터.

마침 어제 남은 수제비 반죽 덩어리가 냉장고에서 잘 속성됐나 보다. 밀가루만 조금 보태니 치밀 필요조차 없이 반죽이 찰지다. 정든 방망이도 옛 주인을 알아보는지 손에 착 붙는다. 밀어보니 금방 예전 손 감각이 되살아나 보름달처럼 예쁘게 된다.

‘아! 온 식구가 둘러앉아 만두해 먹을 때가 얼마나 행복했던 시절이 었나. 식구가 열 명이라 보통 삼백 개씩은 빚었었지. 지금은 단 두식구니 기껏 삼사십 개만 해도 되는데, 뭘 어깨가 아프다고 피를 부렸나! 도리어 아름다운 옛 만두 추억이 밀물처럼 밀려와 이리 행복해지는데…….’

방망이에 할머니와 엄마의 손맛이 배어 있나 보다. 재료 결핍임에

도 만두 맛이 쫄깃쫄깃한 만두피의 식감과 어울려 그런대로 환상의 조합이다.

그러고 보니 우리 풍습 중에 송편 만들기, 김장하기 외에도 만두 빚기처럼 가족의 유대감과 결속력이 돈독해지는 뜻깊은 가족 공동행사가 많다. 조상님들의 슬기로움이 소중한고도 자랑스레 다가온다. 그럼에도 좋은 전통들이 '사라짐의 슬픔'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하니 아쉽다.

계획에도 없던 만두 방망이 사용으로, 모처럼 할머니와 엄마의 사랑에 푹 잠겨보았다. 이런 흑한의 겨울임에도 내가 마냥 훈훈해지는 이유다.

## 선택의 길에서

방인숙

예전에 읽었던 어느 수필의 한 문장이 기억난다. '탄생(Born)과 죽음(Death) 이에 뭐가 있느냐는 질문에서, 정답은 선택(Choice)이더라는……. 읽는 순간 내 답은 '삶'이나 '인생이었기에, 좁은 생소한 귀결로 여겼었다.(나중에 알고 보니 장. 폴. 사르트르의 명언 중에 "인생이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가 있었다.) 그랬는데 내 생의 소풍이 노을로 접어들고 보니 비로소 알겠다. '선택'이야말로 대 철학자의 지적대로 명답이란 걸…….

또한 로버트 프로스트(Robert Frost)의 '가지 않은 길'(The Road Not Taken)도 심도 깊게 다가온다.

'노란 숲속에 두 갈래의 길이 있었습니다. /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걸 아쉬워하면서 / 한참 서서 한 쪽 길을 / …… / 멀리 바라 보았습니다. /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 // 훗날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 할 것입니다 /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고 / 그리고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어놓았다고.'

곰곰이 지나온 내 인생 행로를 반추하니, 나 역시 운명적인 선택의 기로에 여러 번이나 서 있었다. 그 외에 일상생활의 다반사에서도 갈



등과 고민 끝에 내렸던 모든 결정들이 알고 보면 다 선택의 연장선상이었다. 심지어 인간관계마저도 '할 길'과 '하지 말 길'의 모든 경우들이 기실 선택에 기반해서였다. 그렇게 내 삶은 크고 작은 선택으로 쪽 이어져 온 셈이었다.

문득 내 주변을 헤아려보니 멀어지거나 단절된 인연들이 제법 많다. 따져보니 이 모든 결과의 단초 제공자는 나였다. 당시엔 주변의 여건 상, 스트레스 요인 상, 나로선 최선의 언행이었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치부했었다. 실은 순발력과 결정력에 취약하고 매사 소극적 인테다가 지혜롭지 못한 나의 미숙한 처신 탓이었다. 그렇게 되게끔 오도했던 나의 모든 후회스런 언행들, 역시 선택에서 파생됐던 터. 새삼 죄책감으로 곱씹럽고 부끄럽다.

그래서 더욱더 잠 못 이룰 때면, 선택결과가 안 좋게 됐던 나의 오관들까지 되짚어져 가슴을 쓰리게 한다. 순리로 치부하고 아프게 감수하며 인내했던 숨어있던 상처들까지 떠올라 마음을 어지럽힌다. 심지어 안 가본 길에 대해서는 머릿속으로 아름다운 소설(?)까지 쓴다.

그러던 어느 날, 이어령 선생의 「나에게 이야기 하네」란 시를 접하곤 살며시 위안을 받았다.

‘너무 잘하려 하지 말라 하네. 이미 살아 있음이 이긴 것이므로... / 너무 슬퍼 말라 하네. 삶은 슬픔도 아름다움도 기억으로 돌려주므로... / 중략 / 너무 미안해하지 말라 하네. 우리 모두는 누구나 실수하는 불완전한 인간이므로... / 너무 뒤돌아보지 말라 하네. 지나간 날보다 앞으로 살날이 더 의미 있으므로... / 중략 / 죽도록 온 존재로 사랑하라 하네. 우리가 세상에 온 이유는 사랑하기 위함이므로...’

그래! 앞으로라도 다르게 살아 봐야겠다.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여건일지라도, 받아들이는 내 자신이 변하고 바뀌어져야겠다고. 아쉽게도 얼마 남지 않은 여정! 늙고 쇠약해져 일모도원(日暮途遠)이지만 자책하거나 회오하지만 말고, 초조해하거나 두려워하지도 말고 가자고…….

법정 스님께서 ‘앞으로 새겨질 발자국, 삶의 자취도 마음 쓰지 말고 가세요. 발길 닿는 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우린 지금 이 순간 그냥 걷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하셨다. 그 지침에 공명(共鳴)하며, 하루하루가 생의 보너스임을 감사하며, 묵묵히 걸어갈 일이다.

때마침, 친구가 카톡으로 존 덴버(John Denver)의 ‘Today’란 노래를 보내줬다. 그 가사의 일부분에서도 한 가닥 위무(慰撫)를 얻었기에 적어본다.

“-Who cares what tomorrow shall bring\_ I can't live on promises winter to spring. Today is my moment and now my story. I'll laugh and I'll cry and I'll sing”(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신경 쓰지 말아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는 그런 약속으로 살 수는 없지요. 오늘이 바로 중요한 순간이고 나만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웃고 울고 노래할 겁니다.)

글을 쓰는 이 순간! 내 심정을 대변해주는, 이병재 시인님의 「그런 날이 있다」 시를 선택해 음미해본다.

‘가끔은 / 뒤를 돌아보고픈 / 그런 날이 있다 // 걷다가 문득 / 회상에 젖어 / 오던 길을 다시 가고픈 / 그런 날이 있다 // 처음 만난 /

그곳에 / 설렌 마음을 / 한 아름 안고 가던 그 날처럼 // 가끔은 / 하  
던 일을 멈추고 / 다시 돌아가 / 풍경 하나 걸어두고픈 / 그런 날이  
있다.’



방 인 숙 (BANG IN SOOK)

《한국수필》로 등단 한국문인협회 회원, 미동부한인문인협회 회원, 미주 한국문  
인협회 회원, 1995년 〈뉴욕 라디오코리아〉 에세이 장원, 1999년 《미주 중앙일보》  
신춘문에 가작, 2003년 재외동포문학상 대상, 2004 한국무역협회 해외동포 수필공  
모 최우수상, 2011년 경희해외동포문학상 입상.

작품집 『뉴욕의 미루나무 길을 달리며』 (2009), E-mail : insooktang@gmail.com

## 겨울밤 하이웨이에서

서 헬 렌

그해 겨울, 2월의 겨울밤은 유난히 추웠다. 큰 나무들과 숲으로만  
둘러싸인 하이웨이 길은 칠흑같이 어둡고 을씨년스러웠다.

큰 나무 위의 작은 가지들은 밤이라 모두 까맣색으로 길게 늘어져  
있어 마치 유령의 머리카락처럼 흐느적거리고 있었다. 일요일 늦은  
밤은 적막했다. 벌써 몇 년째 매달 봉사하는 교회의 중요한 행사 날  
이다. 행사가 끝나도 마무리 작업으로 그 넓은 행사장 천장에 매달려  
있는 풍선들을 모두 모아 차 안에 밀어 넣으니 운전석 앞을 빼고는  
옆과 뒷면 시야가 완전히 가려져, 더구나 헬륨으로 불어 올린 풍선들  
은 차 안 천장에도 둥둥 떠 있어 말 안 듣는 아이처럼 제멋대로이다.

손으로 만든 장미꽃들로 꽃다발을 만들어 벽에도 장식하면 참석자  
들은 먼 옛날로 돌아가 마냥 행복해한다. 그들의 행복한 표정이 바로  
풍선아트 디자이너인 나의 표정이다. 밤샘으로 만든 꽃장식도 마음  
에 들지 않아 시간이 아무리 촉박해도 새로 시작한다. 마치 도예가가  
조그마한 흙짐에도 귀한 도자기를 깨트리듯이…….

이제 오늘의 주제인 헬륨 통이 한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 놓은  
주인공이다.

행사를 마치고 어느 집사님이 무거운 헬륨 통(대형 쇠통)을 차 안

뒤 자석에 고정시키지 않고 오뚝이처럼 세워 두어 교회의 큰 골목길은 서행으로 무사했으나, 하이웨이 길에 들어서면서부터 스피드에 견디다 못한 헬륨 키 큰 쇠통이 길게 넘어져 버렸다.

갑자기 요란한 ‘쿵’하는 소리와 함께 ‘씨익~~’ 적막한 밤 풀벌레 소리도 들리는 밤이었으니 상상해보시면 아실 듯.

아마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부(잠금장치)가 빗나가 그 사이로 가스가 새어 나가는 굉음은 공포의 소리 그 자체였다.

순간 차가 폭발할 것 같아 시동만 급히 끄고 그 자리에서 문밖으로 피신했으나 뒷문을 열 엄두를 못 내고 계속 서 있으니, 계속 ‘씨익~~’ 정신없이 눈을 감고 뒷문을 열고 무거운 가스통을 일으키니 그제서야 소리가 조용해진다.

떨리는 손으로 발부를 돌려 잠가놓은 후 차 안에 다시 들어가자마자 차 뒤쪽에서 무언가 들리는 소리와 함께 ‘번쩍번쩍’하는 오색 찬란한 차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었다.

차 뒷좌석 풍선 사이로 보이는 광경은 어찌면 차 안의 풍선 색깔과 흡사한지. 공포를 떠나 전율이다. 바로 경찰차다. 이 늦은 밤 나무 사이에 숨어 있지는 않았을 테고 불과 짧은 시간에 어떻게 알고 출동을 했는지? 술개도 날개를 펼 시간이 필요한데 그 무서운 공포가 채 가시기 전에 도착, 차문을 노크함과 동시에 “아무리 늦은 밤일지라도 하이웨이 중간에 차를 정지하고 있으면 얼마나 위험한 지 아느냐? 갑자기 뒤차가 정지할 수 없다.”라는 아주 놀라는 표정이다.

‘아무리 급한 위기 시라도 반드시 갓길로 이동시켜야 한다.’고 계속 반복하며 걱정스런 마음으로 라이선스부터 다 가져가 버렸다. 차 안에서 한참이 흐르는 동안 본인은 항상 힘들 땐 나대로의 방식이 있

다. 극단적인 생각을 한다.

이 차를 가져간다면 밤이 늦었으니 콜택시를 불러야지. 하이웨이 길 울창한 나무들 사이에 주소가 있어야 할 텐데. 저 많은 풍선들을 어떻게 하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잠시 기도를 했다. “하나님! 저는 역을합니다. 죄가 있다면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싶은 죄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싶었냐고 물으신다면 ‘그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기회에 하나 안 것은 ‘만약 집이 없는 길에서 길을 잃었다면 길에 세워진 전봇대에 숫자가 적혀 있다.’ 그 숫자가 주소다.

한데, 이제 어떻게 판결이 나올지 마음이 초초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호랑이 비켜 가면 사자가 나타난다고 하더니 저 멀리서 아까처럼 오색 등불을 번쩍이며 두 대가 이번에는 쌍으로 도착을 한다. 경찰차 3대가 시동도 끄지 않고 말이다.

그 칠혹 같은 밤하늘을 마치 영화 촬영장처럼. 아마 그 하이웨이 생긴 이래 가장 밝게 빛났을 것 같았다.

처음 도착한 경찰이 혹 마약시범을 잡았다고 했는지? 어두우니 불을 밝혀야 했는지?

분명 교회 행사라고 했으며 상황을 다 알면서 한밤중 지나가는 차 한 대 없는 하이웨이 길에 꼭 경찰차 3대가 와야 했는지? 타운에 기동력을 자랑하려고 아니면 차 숫자가 많다고 과시하려 함인지?

아무튼 얼마나 공포심을 가져다줄는지 생각은 않은 채로 한참을 기다리고 나서야 노크를 한다. 당신은 4가지 티켓에 해당하는 벌칙을 가졌다. 첫째, 하이웨이에서 가는 길 그대로 정차함(도로 중간). 두 번째, 인스팩손이 이틀이 지났다. 셋째, 헬륨 통은 밀폐된 공간에 실

을 수 없다. 넷째, 차 안 풍선이 모든 시야를 가려 위험함.

나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이미 ‘차까지 가져가리라’ 콜택시 번호를 찾아 놓았기 때문이다.

한데,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다. 각종 서류를 돌려주는 동시에 티켓이 보이지 않았다. 처음 도착한 그 경찰은 마치 3살짜리 달래듯이 앞으로 다른 것은 몰라도 한 가지 가장 꼭 지켜야 할 문제는 어떠한 일이 발생해도 차를 밀어서라도 갓길에 비켜 놓아야 한다고 반복해서 몇 번인가 얘기를 한다. ‘오늘은 아무 티켓을 발행하지 않겠다.’며 ‘잘 가라.’고 한다.

이미 몇 번인가 연속으로 놀라 정신이 혼미해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앉아 있으니, 가다가 다시 돌아와 ‘운전할 수 있는가?’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는지?’ 묻는다. 아마 나의 표정에서 공포와 고마움과 모두를 읽고 있는 듯했다.

고맙지만 몹시 지쳐 있어 집에 가서 쉬고 싶다고 하니, ‘조심해서 천천히 가야 한다.’고 했다. 왜냐하면 풍선이 시야를 모두 가려서이다.

아까부터 개인적으로 궁금한 문제인데 왜 몇 시간 지나면 사용하지 못할 풍선을 왜 힘들게 가져가려고 하느냐? 헬륨으로 불어올린 풍선은 24시간이 지나면 모두 내려와 고개 숙인 남자가 아니라, 고개 숙인 풍선이 되고 만다. 똥똥 떠서 고운 자태지만 불과 하루를 지탱할 수 없다. 공기압축기를 사용해 손으로 만든 풍선은 약 일주일일 수명이다.

다시 경찰관의 물음에 보통은 오늘보다 일찍 끝나 가까운 널싱홈의 불편한 노약자들, 주로 휠체어 타신 분, 치매로 바깥출입이 통제되어 있는 희망도 그 무엇도 보이지 않는 그분들이 단 하루라도 행복할 수

있도록 갖다 드리는데, 오늘은 늦어서 내일 아침 일찍 가려고 했다고 하니 경찰도 그곳을 잘 알고 있다고 한다. 같은 타운이니까.

‘입구와 복도에 풍선 장식하면 눈 오는 날의 아이처럼 좋아해서라고… 하니 갑자기 경찰복에 어울리지 않게 얼굴 전체로 웃으면서 다음 달에는 널싱홈에 가서 얼마나 그분들이 좋아하는지를 조사하겠다고 했다.

그 유머는 집으로 오는 길에 극도의 공포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큰 힘이 되었다.

참고로 나중에 안 지식이다. 풍선 헬륨 통은 폭발하지 않는다 한다. 그 아무도 없는 거리 칠흑같이 어두운 길! 분명 하나님은 동행하셔서 보호해 주셨다.



헬 렌 서

2020년 《뉴욕문학》 수필부분 당선, 전직 공무원 10년  
2003년 뉴저지 효녀상 수상(모장수상 100세)  
NY사진협회 정회원, 교회 사진담당  
동물에호가(유기동물 구조), 뉴저지 전문직 결혼소장

## 출근길 단상(斷想)

송지선

집에 계시는 노모의 아침 식사와 약을 챙겨드리고 점심을 차려 놓는 일상의 시작을 마치고 출근길에 나선다.

찌뿌둥한 어제와 달리 햇살 가득한 화사한 사월이다. 팰리세이드 파크웨이를 들어서며 라디오를 켜다. 출근 시간을 비껴간 고속도로는 봄기운을 받아 한가하다 못해 나른하다. 클래식 채널에서는 씩씩한 바그너의 행진곡이 웅장하게 흐른다. 잔잔한 햇살에 어린 이파리들이 살랑거리며 이 곡은 아니라고 몸짓으로 신호를 보낸다. 채널을 WBGO 재즈 채널로 바꿔 본다.

기타 음색이 홀로 고독하게 흐른다. 대시보드 위로 쏟아지는 초록 빛 햇살과 무드가 딱 맞아떨어진다. '타이밍이 좋았어.'

전주가 끝나자 촉촉한 여가수의 음성이 기타 소리와 어우러지면서 나도 그 음률을 타고 휘청거리고, 운전은 그저 기계적 본능으로 하고 있다. 어느새 곡이 끝나고 진행자가 저음의 굵직한 목소리로 곡명을 말한다. 'April in Paris' 역시! 내가 음악 속에 빠져든 이유가 있었네.

4~5분간의 달콤함에 아침 노동의 피로가 다 씻겼다. 오피스에서 일할 에너지는 충전된 듯하다.

진행자는 곡의 가사를 쓴 이는 곡을 쓸 때까지 파리에 가 본 적이

없었다고 한다. 작사자는 사람들이 자기가 이 가사를 쓸 때 '까페 드 쥬쥬'에서 에펠탑을 바라보며 썼다고 생각하지만, 그때 그는 맨하튼 브로드웨이의 식당 'Lindy's'에 앉아 길 건너에 있던 marquee of Winter Garden극장을 바라보며 쓰고 있었다고 한다.

요즘같이 인터넷이 발달하고 지능 로봇이 도와주는 세상에서는 가보지 못한 곳도 가본 듯, 상상 없이도 쉽게 간접 경험이 되는 세상이니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의 테크놀로지가 없던 1920년대라면 이야기가 다르지 않았을까? 작사자는 그가 가보지 못한 곳,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곡을 쓰는 일이 아주 흥미롭고 자극을 받는 작업이라고 했다.

아름다움은 결국 미지의 대상에게 자신의 영혼과 상상력을 쏟아붓는 것이라고. 4월의 파리에서 누군가를 만나 사랑을 느끼며 전에는 알 수 없었던 봄의 매력을 알게 되고, 그 누구도 다시 해 줄 수 없는 벽찬 감정으로, 사랑을 그린 노래다. 그의 영혼과 상상력이 누군가를 파리의 어느 길목, 꽃피는 밤나무 아래서, 한 번도 갈망해 본 적 없던 따뜻한 포옹을 원하는 사랑으로 만들어냈다.

예전에 수채화를 잠깐 배운 적이 있다. 어린 시절부터 그림 잘 그리는 친구들이 부러워 나도 한번 시도해 보자 용기를 냈었다. 처음 배우는 우리에게 선생님은 사진을 주고 그려보라고 하기도 하고 꽃 한 송이, 도자기 한 점 놓고 그려보라고 하신다. 창문 하나 없는 강의실에서 우리는 평면에 입체감을 주기 위해 생각을 짜내야 했다. 검색만 하면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인터넷 동영상도 시청하고 수채화의 기초를 다루는 교재도 열심히 읽어 보지만 실제로 하얀 화지 앞에서 붓을 드는 순간이면 보고, 듣고 읽은 지식은 연기처럼 증발하고 말

았다. 아……. 늦은 오후의 햇살이 탁자 위로 쏟아질 때 약간 시든 틀립의 얼굴을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 빛은 어디를 향해 내려 틀립을 살려주고 있는가? 그 당시 난 대상을 앞에 놓고 감히 그 대상을 넘어설 상상력은 꿈도 꾸지 못한 듯하다.

앤드류 와이어스의 그림, 반쯤 열어 둔 창문으로 바람이 밀려 들어오고 하늘거리는 레이스 커튼이 창틀을 스치며 휘감길 때 내 눈은 커튼을 따라가지만 내 영혼은 바람을 느끼기에 역부족이었다. 분수 모르고 눈만 높아져, 난 그림에 재주가 없다고, 다시 열등감만 키워 버리고 그렇게 흐지부지 끝냈었는데…….

어느새 차가 4번 엑시트를 자나는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느라 속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었다. 나는 액셀을 세게 밟아준다. 올라가는 속도에 힘을 받는 차를 느끼며 ‘상상력의 액셀레이터는 무엇일까?’ 생각해 봤다.

영화 <서편제>에서 득음을 하기 위해 아비에 의해 눈이 먼 송화, 그녀는 어둠 속에서 득음을 해냈다.

드라마 <대장금>에서 일시적으로 미각을 잃고 궁에서 쫓겨날 위기에 몰린 장금에게 스승은 맛을 그려서 요리를 해보라고 한다. 맛을 그려서 대하 요리를 해내는 장금이.

소리에 온전히 영혼을 쏟기 위해 보이는 것을 차단한다. 열정이다. 이미 잃어버린 미각을 평소의 요리 경험을 통해 상상을 펼쳐 ‘그려서 만든 음식’이 나온다.

열정을 불사른 영혼 깊은 곳에 다다르게 한 것은 소리에 대한 끊임 없는 성찰이었으며, 맛을 보지 않고도 그려낼 수 있었던 것은 식재료

를 놓고 최고의 맛을 내기 위해 고민하고 무수히 요리를 반복하며 쌓은 노력으로 가능했던 거다.

대상을 향한 진정 어린 관심과 깊은 성찰만이 울림 있는 상상을 펼칠 수 있게 했다.

나는 지금 운전하는 내 차창 밖의 저 봄을 끌어당겨 보련다. 내 시선 속에 깊이 담아 놓고 이 봄 내내 가만히, 그러나 힘을 다해 들여다 봐야겠다. 그렇게 나의 모자란 상상력에 액셀을 달아 미치도록 밟아 본다면 한 번쯤 그 상상의 나래에 미칠 기회가 내게도 올 수 있을 거라 믿고.

## 카톡이 사라졌다

송지선

지난 2월 24일 금요일 아침, 누가 훑쳐 갈 수도 없는 카톡이 밤새 사라졌다. 난 카톡을 그렇게 잃어버렸다.

한국에 가면 늘 정해진 코스로 강원도 안홍 언니네 시골집을 찾는다. 그 집은 동네 제일 높은 곳에 올라앉아 치악산이 시야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그날도 밤에 도착해 아직 눈도장을 못 찍은 산세를 보러 새벽에 눈을 떴다. 역시 치악은 거기에 우뚝, 봉우리를 늠름히 세우고 아침 운무를 두른 채 떠오르는 해를 맞이하고 있었다.

이 멋진 광경을 아직 초저녁인 뉴욕의 남편에게 보여줘야지……. 전화기를 여니 늘 있어야 할 자리에 노란색 앱 표시가 보이지 않는다. ‘어! 화면이 밀렸나?’ 이리저리 전화기 화면을 밀어 봐도 카톡 앱은 없다. “언니, 내 폰에 카톡이 없어졌어!”, 호들갑스러운 내 말투에 덩달아 언니도 “엥?, 어떻게?” 놀란 음성이다. “몰라, 자고 일어나니 없어…….”

황당했다! 그리고 더 당황스러운 건 카톡이 없어졌다는 사실에 어찌 된 일인가 찾아보려는 생각은 안 하고 맥없이 주저앉을 듯 황망해하는 내 모습이었다.

카톡이 뭔데?

아침도 먹는 등 미는 등, 계속 전화기만 붙들고 씨름했다. 다시 앱을 설치하면 원래의 계정이 사라질까 봐 계정을 열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한다. 뉴욕의 가족들, 지인들과의 연락을 오로지 카톡에 의존하고 있었으니 불편해지는 건 불 보듯 뻔한 상황인데……, 답답하기가 그지없었다.

할 수 없이 서울에서 사용하는 전화에 송지선이 아닌 진짜(?) 내 이름 박지선으로 계정을 만들고 급한 연락만 임시방편을 만들었다.

평소 언니 집에 오면 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멋진 산세도, 뒤뜰 소나무길 솔 향기도 아무 도움이 되질 않는다. 언니는 서울 가서 A/S 센터에 가 보면 해결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하지만 잃어버린 카톡을 못 찾으려면 어쩌나, 담겨 있는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리진 않았는지, 안홍에서 머무는 내내 난 안절부절이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난 이틀 좌불안석이던 나를 돌아보았다. ‘그깟 카톡 하나 없어졌다고 이리저리 하는 거야?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소심해진 걸까? 도대체 앱 하나에 얼마나 매달려 있었던 건가? 집착을 버리고 마음을 바꾸자, 걱정하고 산 시간이 벌써 십 년도 넘었건만 이 정도밖에 못 하고 살았구나…….’

아니다……. 거기에는 지나간 시간이 담겨 있다. 그 시간 안에 복리로 쌓인 40년 친구들의 우정이 있고 가족들의 사랑이 고여 있고 지인들과 나눈 소중한 글들이 있다. 내 마음이 주저앉을 듯 힘이 빠져 나간 이유는 그 귀한 시간 때문이었다.

누구는 하룻밤 사이에 만리장성을 쌓는다는데 난 쌓아 놓은 만리장성을 하룻밤 사이에 무너뜨렸다. 찾을 수 없다면 다시 시작할 수밖에.

‘오늘은 내 남은 생애의 첫날입니다.’ 이해인 수녀의 시 한 구절을 중얼거리려 본다.

서울에 도착해 서비스 센터를 찾았다. 계정에 다시 로그인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보안코드를 받을 수가 없단다. 해외계정이라 뉴욕으로 복귀해야 가능하다고. 테크놀로지도 국경에는 소용이 없네…….

결국 뉴욕으로 돌아와 코드를 받고 로그인에 성공을 했다. 예상대로 쌓아 놓은 만리장성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맨송맨송 하얀 백지 화면만 말갭게 반긴다.

시간의 흔적들은 사라졌지만, 그 시간을 나눈 이들은 그대로 자리를 지키며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린 듯 이름들이 주르륵 화면에 열을 선다. 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그저 고마울 뿐이었다.

‘친구들아, 나 돌아와 너희들 찾아 잘 들어왔네~~’ 우선 단짝 친구들 방부터 들어가 첫 줄 운을 띄워 보낸다.

메시지를 안 읽은 친구 숫자 1이 보여 누가 안 보았을까? 들여다보니 거기에 딱하니 ‘박지선’이 있다. 그리고 송지선은 박지선과 친구 등록을 하라는 메시지가 뜬다.

사라진 카톡은 아마도 새로 시작하라는 신조 명령어였다 보다.



송 지 선

2021년 《문학시대》 등단,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2022년 미동부한인문인협회 입회  
경희 한의원 오피스 매니저, 동산서원 간사(동아시아 철학과 사서 공부)  
전 뉴욕, 뉴저지 차사랑회 총무/차 시연, 차 강연, 전 뉴욕 한국어 교육원 한국어 강사, 전 미주 한국 문화 연구 재단 산하 입양아 학교 한국어 교사

## 버틴다는 것

양 주 희

〈미생〉 드라마 윤태호 작가는 만화가로서 재능이 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 시간 자체를 버텨내기만 한다면 기회가 오지 않을까? 어려운 환경까지 버텨내는 것까지도 다 재능이다.”라고 했다. 만화가로서 그의 삶은 지독히 궁핍했다. 다행히 〈미생〉 덕에 빛을 갈 수 있었다고 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 존재의 의미를 묻는다. 이 존재의 물음에서 넓게는 철학과 사상 정치와 문명이 탄생해 왔고 좁게는 개인의 가치관 인생관이 세워진다.

시대정신을 담은 문학도 영혼을 치유하는 음악도 문화란 인간 자신이 누구인가를 묻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 말고 또 누가 자기 밖에서 자기에 관해 물을 수 있을까. 하지만 이토록 위대한 인간이 각박한 현실을 버텨내기가 힘들다. 뭘 해야 먹고 살 수 있는지가 당장 코앞에 닥친 문제고 직장에서는 위에서 차이고 아래에서 박힌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루가 다르게 뛰는 물가 때문에 주머니는 항상 비어있고 운전하면서 주유소를 지날 때는 내 차 기름이 얼마쯤 있는지 자연스럽게 쳐다보게 된다.

우리 가게 옆 캐를 가게에 물 폭탄이 쏟아졌다. 파이프가 터져 가게가 물바다가 되었다. 물을 퍼내고 한숨 돌리고 있는데 물과 스팀이



혼합되어 곰팡이 냄새가 우리 가게까지 스며들어 온다. 오래된 건물이라 한두 번 물이 천장에서 떨어진 것은 아니다. 건물 주인에게 몇 번씩 통보를 했지만 관심이 없다. 그러다 타운에서 조사관이 나와 경고장을 주면 고치는 시늉만 했다. 캐롤은 아이들이 3명이고 학교에 보내며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곳이 이 가게다. 물이 전기선에 닿으면 화재 위험이 있다고 소방관이 전기를 차단시켰다. 캐롤 가게는 여성 핸드백과 여러 가지 파는 잡화 가게다. 크리스마스 대목도 보지 못하고 바닥부터 새로 깔고 페인트칠하고 가방과 많은 물건들을 다 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가게로 탈바꿈해 놓았다. 그러나 보험이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아 보상도 받지 못하고 타운에서 영업 허락이 안 된 상태이고 소방서에서는 다른 보완 장치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에다 약속 날짜에 오지 않아 몇 번씩 재촉 전화를 해도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다.

캐롤은 힘들어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버틸 수 있는 부적 같은 힘이 아이들이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허물없이 말해준다. '단 한 사람도 행복하다 말한 사람 없고 모두 이루었다고 말한 사람 없다.'고 웃으며 말하다가도 어느새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아이들의 웃음으로 버티든 버티가고 있다. 코로나19가 들이닥친 지 3년 빈 가게들을 볼 때면 남의 일 같지가 않다.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두렵기도 하다. 우리는 모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두운 터널을 버티어 내며 살아내고 있다. 고통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멀리 바라는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사실 먼 목표가 아니라 내 앞에 작은 희망들로 우리는 버티어 나가고 있는 게 아닐까? 매주 서츠 앞주머니에 로또 한 장이 들어있는 손님이 있다. 왜 이것을 사냐고 물어보았다.

그의 대답은 간단했다. 이것이 희망이다. 이게 한 주를 버티게 하는 힘이라고 했다. 그는 일주일마다 희망을 산다. 버티고 버티낸다. 그리고 또 하루를 산다. 그렇게 버티 나갈 힘만 있다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행복하다고 큰소리치진 못해도 희망이 있다고는 말할 수 있다.

## 아이슬란드 마라톤

양 주 희

1045 번호를 가슴에 달고 호텔 문을 나섰다. 바람이 많이 분다. 48도지만 춥게 느껴졌다. 10분 정도 걸어가니 벌써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다. 9,000명이 달린다고 한다. 42.2km를 뛰는 사람과 21.1km를 뛰는 사람, 10km를 뛰는 사람 등 다양하다. 출발점에 서면 가슴이 뚫다.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길을 밟는다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다. 대서양을 끼고 도는 코스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바람을 안고 달리는 벅차고 힘이 두 배로 든다. 눈꺼풀이 경련이 일어나고 있다. 손으로 한쪽 눈을 덮고 뛰었다. 바람이 옆에서 불면 머리카락이 눈가 풀을 감싸주어 괜찮았다. 바람결에 파도와 내가 뛰는 속도를 맞추는 느낌이 들었다.

레이카비크는 대서양 해안도시다.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카비크를 한 바퀴 도는 코스다. 시청 앞에서 시작했다. 해안 길을 따라 달린다. 길도 깨끗하고 자동차 자전거 사람 같이 가지만 사람이 보이면 자동차가 먼저 멈춘다. 길이 좁고 골목이 많아 뛰는 사람들은 불편하다. 길을 가다가 어느 쪽으로 돌아야 하는지 표시가 되어있고 자원봉사자들이 길을 안내했다. 하프는 먼저 간 길을 되돌아오는 코스였다. 너무 지루해서 힘이 들었다. 하지만 다른 하프는 레이카비크 곳

곳을 후비고 다니는 코스였다. 넓은 정원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많고 예쁘게 꾸며놓아 사람들이 많이 구경하는 모습이 좋아 보였다. 특이한 건축 양식으로 집을 지어 눈요기가 되었고 8층 이상 건물은 없었다. 변덕스런 날씨에 오리털 잠바에서 스웨터 가끔 짧은 바지 차림도 보였다. 골목길에서 차도는 자동차가 지나가고 뛰는 사람들은 인도를 이용했다.

우리 그룹 중에 하와이에서 온 남지분이 있었다. 무릎 수술을 받고 걷는 것도 힘들어 보이지만 세계 방방곡곡을 찾아 마라톤을 한다. u턴해서 돌아오는 반대편에서 손을 흔들어 격려했다. 일을 하다가 다쳐 수술을 몇 번씩 한 사람도 있고 선천적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으며 다리를 잘라 목발로 움직이는 사람 때로는 지팡이를 짚고 걷다 뛰다 하는 사람도 있다. 땀을 흘리면서 힘들고 어려운 길을 한 발 한 발 내딛는 모습이 눈물겹고 그 어려움을 뚫고 나와 자신과 싸우는 열정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순수한 그 사람 삶의 표식이다. 그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이 나이에 튼튼한 두 다리로 뛸 수 있는 재산이 있다는 것에 무한한 뿌듯함을 느꼈다.

속도가 빠른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뒤처진 사람들이 띄엄띄엄 보인다. 나보다 젊은 여성이 인사를 한다. 펜실베이니아에서 왔다고 한다. 친정어머니가 이곳에 살고 있어 방문왔다가 처음으로 마라톤에 도전한다고 했다. 연습을 많이 하지 않아 힘들게 발을 내딛는 모습이 걱정스러웠다. 이상하게 이 마라톤 코스는 몇 마일 뛰었는지 표시가 없었다. 5마일, 10마일 표시를 해 놓아야 어느 정도 왔으니 어떻게 스피드를 내야겠다는 암묵의 몸 상태를 조절해야 되는데 겨우 21.1km 35km 두 곳이었다. 골목길 앞에서 안내하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도

모른다고 한다. 응급을 위한 앰블런스도 보이지 않고 물을 주는 곳도 몇 군데밖에 없었다. 파워 젤이나 바나나를 나누어 주는 곳도 몇 군데 보이지 않아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들은 불편했을 것 같았다.

마지막 2마일은 대서양 해변을 따라가다가 시청 앞까지 가는 코스다. 응원하는 사람도 보이지 않고 가끔씩 무슨 날이냐고 묻는 사람도 있다. 끝마치는 장소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음악이 울리고 끝나는 지점을 밟고 손을 흔들며 환호하는 사람을 위해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목에는 아주 큰 황금 메달을 걸어 준다. 화려하지도 않고 끝인지 시작인지 구분이 안 되었다. 어느 마라톤이나 끝나면 사진도 찍고 축하도 받았는데 이번에는 이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호텔을 찾아갈 수가 없었다. 호텔에 전화를 했더니 웹을 열고 찾으라는 답이었다.



양 주 희

1999년 <한국수필> 등단, 미국 동부문인협회 회원, 동부펜문학 회원, 갈벗문학 동인, 한국수필가협회 이사, 미주 중앙일보 오피니언 칼럼니스트  
저서 『찾아 나누는 샘물』, 『그대 숲속을 거니는가?』, 『세상에 던진 그물 생명의 탄생』, 공저 『미주 에세이 1』, 『미주 에세이 2』, 『뉴욕 피기』, 『Mirrored Portraits』  
E-mail : jooheeyang9@yahoo.com

## Romance Scam - 누가 이 사람을 죽였는가?

연 봉 원

몇 해 전 아침에 잘 이는 고객에게서 급히 전화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분은 나이가 70대 후반으로 혼자 된 지가 10년이 넘는데, 꽤 많은 재산이 있는 재력가다.

언뜻 보기에는 50대 건강한 장년으로 젊게 보이는 분이다.

사업에도 성공하고 영어도 잘하는 편이고 우리 동포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존경받는 분이다.

주위에서 재혼을 권했지만, 완곡히 거절해서 오래전에 병사(病死)한 부인을 못 잊어 재혼을 안 하는가 보다고 부인들이 로맨틱한 노인으로 존경한다는 이야기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재혼할 마음은 많지만, 그 자녀들이 재산 문제로 재혼을 극구 반대해서 못 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다.

나에게는 모든 일을 다 말하고 상의하기 때문이다.

전화로 하는 말이 두서가 없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이야기하자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사무실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 예의 패기 찬 모습과는 달리 갑자기 늙어 보이고 어딘가 우울해 보인다.

간단한 인사말을 주고 받은 후 본론을 말하기를 기다렸다.

전과 달리 우물쭈물하면서 말끝마다 “이거 창피해서, 원”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렇다.

몇 해 전에 Facebook을 통해서 한 35세 된 미여군(美女軍)과 친하게 돼서 소식을 주고받는 사이가 됐다고 한다.

더욱 친밀하게 된 이유는 한국인 어머니와 미군 아버지 사이에서 출생했는데 고향이 부산이라고 한다.

어릴 때 미국으로 아버지를 따라 Wyoming 시골로 이주해서 살았기 때문에 한국어는 못 한다고 해서 영어로 통신했다고 한다.

20세 후반에 부모와 문제가 생겨서 미군에 직업 군인으로 입대해서 Iraq으로 파병돼서 있다고 하면서 미 육군 간부후보생 유니폼을 입고 찍은 사진을 여러 장 보냈는데 아주 미인이었다고 한다.

나는 여기까지 듣고서 벌써 이 사람이 국제 사기단에 그 유명한 Romance Scam에 걸려들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러나 내색은 안 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뻔한 사기극을 인내심을 가지고 듣고 있었다.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을 때 사담 후세인 정부 고관 집을 습격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큰 가방을 압수하고 보니 미화 5백만 불이 차곡차곡 쌓여 있어서 몰래 숨졌는데, 당신이 믿을 만한 사람인 것을 그동안 facebook을 통해서 연락하면서 믿게 되었다고 하면서, 자기가 미국에 돌아갈 때까지 보관해 주면 후히 사례하겠다고 간절히 애원 투로 이메일로 연락이 왔다고 한다.

자기를 믿고 그 큰돈을 보관 좀 해 달라고 하는 말에 이 사람은 깊은 감동을 받고는 쾌히 승낙했다.

얼마 있다가 ‘그 가방을 특수 루트를 통해 미국으로 보내는데 1,500불 경비가 드니 좀 보내달라’고 해서 “500만 불도 믿고 보내는데, 1,500불 쯤이야 나중에 500만 불 받은 데서 계산하면 되지.”하고 즉시 송금했다고 한다.

그 후 얼마 후 그 여자의 오빠라고 하는 미국 남자가 전화가 와서 ‘동생이 부탁해서 세관 통과를 하려고 하니 scan하면 그 내용물이 무엇인지 발각 나기 때문에 scan을 안 하고 통관하려니 5,500불이 든다고 빨리 송금시키라.’고 해서 그 예의 미 여군에게 연락하니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편리를 봐주면 사례하겠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보내라는 계좌로 송금했다고 한다.

좀 있더니 갑자기 그 여군이 California의 San Diego로 진출돼 왔다고 하면서 시간 내서 뉴욕으로 가서 만날 날만 기다린다고 애정 어린 편지를 받았다고 한다.

며칠 후 그 가방을 자기가 받았는데 상관이 그 내용물을 검사하고는 30만 불을 쥐어만 가방을 돌려준다고 하면서 군법(軍法)회의에 송치하겠다고 협박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울면서 전화가 왔다고 한다.

‘그러지 말고 가방에서 30만 불을 꺼내서 주고 나머지를 돌려받으면 되지 않느냐?’니까 ‘특수 seal을 해놔서 그건 불가능하니 좀 손을 써봐 달라’고 하면서 ‘이 일이 해결되면 San Diego에서 만나서 가방을 직접 전해주겠다’고 해서, 급한 마음에 써 보내준 계좌로 여기저기서 돈을 모아서 30만 불을 이체하고 ‘고맙다’는 연락을 받고는 급히 San Diego부대로 찾아갔다고 한다.

그 부대에서는 면회가 안 된다고 하더니 하도 끈덕지게 졸라 대니 장교가 나와서 ‘그런 사람은 이 부대에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그럴 리가 없고 이걸 무슨 착각이라고 생각한 이 사람은 그 여인과 전화를 해봤으나, 전화가 갑자기 불통이고, 그 오빠란 사람에게 연락하니 전에는 그렇게 상냥히 살갑게 대하던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하면서 ‘다시는 전화를 걸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외국에서 그 많은 돈을 불법으로 미국에 들여온 당신은 돈은 압수되고 FBI에 잡혀간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당신이 송금한 돈이 당신이 범인이란 증거라고 되려 호통을 치고 다음부터는 전화 불통이 돼버렸다.

기가 막힌 이 사람은 그 여인이 그럴 사람이 아니고 이걸 그 오빠를 위시한 돈에 탐난 사람들의 농간이라고 믿고는 사방으로 알아본다고 힘만 빼고 속만 썩이다가 자기가 뭔가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고 한다.

창피해서 아이들이나 남에게는 말도 못 하고 꾸꾸 앓다가 나를 찾아온 것이다.

이런 비슷한 상담을 내가 직접 받은 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사기꾼들은 꼭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 심리를 이용하고는 불법적인 일에 끌어들이어서 공범(共犯)으로 만들어서 고발도 못 하게 만드는 것이 상투적인 수법이다.

모든 일을 다 변호사하고 상의하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사람이 이런 어이없는 사기에 걸려든 것을 생각하니 어처구니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건 전형적인 Romance Scam으로 홀로된 부자 동양 노인을 주 타겟으로 하는 사기 사건이다.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하는 이 고객의 문제를 시원히 해결해 줄 아무 방법도 없다는 말을 듣고는 낙심천만한 표정으로 돌아서는 이 노인을 바라보는 내 마음도 쓰러왔다.

미인계를 써서 늙은 사람 마음, 꺼진 불에 불을 지펴 놓고는 그것을 이용해서 사기를 놓은 이 국제 사기단은 그동안 사냥감을 찾아다니다가 이 사람을 만나서 다 분석해 보고 작심하고 달려든 데에 할 일 없이 걸려든 것이다.

어떻게 하든 이 여인을 만나면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 이분에게, 처음부터 그런 여인은 존재조차 하지 않았고 5백만 불 운운도 다 사기라고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아직도 반신반의(半信半疑)한다.

다시 한번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몰골이 말이 아니다.

이야기 중에 내심(內心)을 내비치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늘그막에 타오른 애정에 속았다는 것이 죽고만 싶은 심정이라고 한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몇 달 후 갑자기 아버지가 심장 마비로 사망했다는 비보를 이들에게서 받고는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사기꾼들에 대한 분노에 차를 떨야 했다.

## 나의 소년기를 정신적으로 살찌운 월간지 《학원》

- 지금 중학생에게 컴퓨터가 있다면 우리 세대에게는 《학원》 잡지가 있었다

### 연 봉 원

내가 학원 잡지를 처음 만난 곳은 피난지 부산에서 10살 때인 1952년이다.

전투는 계속되고 나라는 전쟁으로 폐쇄되고 있었다.

백성은 가아 선상을 헤매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절망 가운데 헤매일 때 혜성처럼 나타난 《학원》은 당시 소년, 소녀들에게는 희망의 등불이었다.

학원은 본래 중고등 학생을 독자로 한 잡지다.

난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으니 조숙한 편이었는가 보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파랑새》라는 잡지가 있었으나 유치해서 읽을 맛이 안 났다.

나는 한글을 다섯 살 때 배웠는데, 동네 형들이 만화책을 읽어 달라고 하면 처음 얼마는 읽어 주다가 좀 지나면 귀찮아서 들은 척도 안 하고 혼자만 읽는다.

이모 말에 의하면 내가 씩씩거리며 들어와서는 이모에게 글을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

이모가 이유를 물으니 만화책을 읽으려고 한다고 해서 책을 가져와 따라 읽으라고 했더니, 시간이 좀 지나니까 떠들떠들 읽기 시작했다

고 한다.

같은 글자는 발음이 같은 것을 알아차린 것이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어리석은 사람도 일주일이면 깨우치고 똑똑한 사람은 반나절이면 깨우친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다.

한글을 깨우치고는 내 일생 사업인 독서가 시작됐다.

『뚝뚝이의 모험』 등 만화책을 읽다가 이야기책으로까지 발전했다.

『어머니를 찾아 삼만리』란 책을 눈물을 흘리면서 읽었던 기억이 새롭다.

그다음부터는 닥치는 대로 아무 책이나 읽었다.

내 일생 사업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전쟁은 비참하기 그지없다.

월남이 통일이 되었다고 했을 때 공산정권으로 통일이 된 것은 유감스럽지만, 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전쟁 중 월남을 가보고, 북이건 남이건 백성을 이렇게 도탄으로 몰아넣는 정치가들은 죽일 놈들이라고 생각했었다.

정신 상태까지 황폐화하던 전쟁에 《학원》 잡지를 만난 것은 내 일생 행운이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터넷도 없고, TV, 핸드폰도 없었을뿐더러 트랜지스터라디오도 나오기 전이다.

전화도 가뭇에 콩 나기로 몇몇 잘 사는 집에만 있었고, 단행본 출판도 부진했던 그 시절, 《학원》은 거의 유일한 읽을거리였다. 아직 입시 지옥도 없고 도무지 어린이, 청소년이 소일거리가 전무하던 시대에 《학원》 잡지는 지금의 인터넷처럼 새로운 지식의 보고였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학생들에게 교양과 정서를 가꾸는 선생이었고, 마음을 나눌 수 있던 친구였던 것이다.

당시 일거리가 없어 백수로 지내던 지식인, 화가, 작가들이 총출동하여 《학원》에 참여해 《학원》 잡지의 질을 높였다.

화보, 삽화, 사진을 대거 게재해 당시로는 드문 시각적인 구성을 보였고, 연재소설, 연재만화, 연재단편 등 읽을거리가 무진장이었다.

정비석의 『홍길동전』, 조흔파의 『얇개진』은 낙양의 지가를 올린 글이었다.

김래성은 추리 소설 『검은별』을 연재 했는데 여기 나오는 명탐정 유불란은 프랑스 추리 소설가 ‘르 블랑(Le Blanc)’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란 것은 나중에야 알게 됐다. 당시의 우리는 실존 인물인 줄로 착각했다.

김용환의 만화 『코주부 삼국지』 연재는 10년 후 대만에서 출판한 순 한문으로 된 나관중의 『삼국지연의』를 명동 중화민국 대사관 앞에 있는 중국서점에서 구매해서 페이지가 닳도록 읽는 계기가 됐다.

김성환 만화가는 『꺼꾸리군 장다리군』을 연재해서 학생들의 대 환호를 받았다.

월간 《학원》에 문화계 인사는 총출동하였다.

김광주, 윤백남, 최정희, 김말봉, 마해송, 그리고 이모 방 책상 위에서 우연히 본 『렌의 애가』를 쓴 모윤숙 시인을 《학원》 잡지에서 만났을 때의 감격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박두진, 박목월, 조지훈 같은 청록파 시인들의 시도 처음으로 《학원》 잡지에서 만났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의 한국 사회에서 지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다 학원에 주옥같은 글을 썼다.

특히 왕학수 서울고등학교장의 글은 청소년들의 가슴을 울렸다. 이 분들이 주로 쓴 중국 고사는 학원에서 처음 소개됐다.

더군다나 사자성어 소개와 해설은 당시 중고등학생들의 정신을 살찌운 자양분이었다.

내가 아직도 초등학교 시절 학원 잡지에서 처음으로 배운 ‘적반하장’이란 고사성어는 1961년 서울대학교 입학시험 문제로 출제되었다.

나중 국어 시험을 채점했던 교수가 “너희가 잘나서 서울대학에 합격한 줄 아나, 남이 못해서 들어온 것이다.”라고 일갈하고는 “적반하장”에 대한 수험생들의 기기묘묘한 틀린 답을 소개하고는 그중에 백미는 “도둑놈을 때릴 때는 얹어놓고 때려야 한다”라는 답이었다고 한다.

이 학생이 ‘적반하장’의 의미는 몰랐으나 약간의 한문에 대한 소양은 있었는가 보다.

학원 잡지가 당시 우리 사회에 대한 공헌은 여러 가지이겠지만, 학원 문학상을 제정하여 후대에 기라성 같은 학생 문인을 배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설가 최인호는 학원에 시를 발표했었고, 마중기, 황동규, 정공채 같은 시인부터 수필가 유경환, 소설가 이청준, 조세희, 황석영까지 ‘학원문학상’ 출신이다.

이들 중 내가 가장 좋아한 학생은 이제하이다.

학원에 단편도 쓰고 시도 게재하더니 ‘학원문학상’에 마산고 1학년 때 「청솔 그늘에 앉아」란 시가 우수작으로 뽑혀서 장안의 화제가 됐다.

6.25사변이 끝나고 피난 왔던 서울 친구가 서울로 환도한 다음 벗

에게 온 편지를 읽으며 쓴 명사다.

고등학교 1학년의 시가 나중 중학교 교과서에 실려서 더 화제가 됐었다.

아직까지 외우고 있는 이 시를 소개하고 마치려 한다

청솔 푸른 그늘에 앉아  
서울 친구의 편지를 읽는다  
보랏빛 노을을 가슴에  
안았다고 해도 좋다  
혹은 하얀 햇빛 깔린  
어느 도서관 뒤뜰이라 해도 좋다  
당신의 깨끗한 손을 잡고  
이늑한 얘기가 하고 싶어  
아니 그냥  
당신의 그 맑은 눈을 들여다보며  
마구 눈물을 글썽이고 싶어

아아 밀물처럼  
온몸을 스며 흐르는  
피곤하고 피곤한 그리움이여  
청솔 푸른 그늘에 앉아  
서울의 친구의 편지를 읽는다

이것이 어떻게 16살밖에 안 된 고등학교 1학년이 쓴 시라고 하겠는가? 이제하는 나중에 시인, 소설가, 영화 평론, 가요 작사 작곡까지

한 “전방위 예술가”로 성장하였고, 조영남이 불러서 유명해진 ‘모란동백’도 이제하가 작사, 작곡한 것이라고 한다.

하여튼 1950 - 1970년대 청소년에게 월간지 《학원》의 영향력은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SNS, 인터넷 커뮤니티, 카카오톡이 미치는 영향력과 맞먹었다. 조속한 내가 일찍이 ‘학원 세대’가 되어서 《학원》잡지가 내 소년기의 정신을 살찌운 자양분이 되었다는 것은 무한한 행운이었다고 생각한다.



연 봉 원

서울대 문리대 졸업, 브라질 상파울로 FMU 법대 졸업, Boston University, Law School 졸업, 1983-1998 브라질 변호사, 2000-현재 뉴욕 변호사.  
브라질 《열대 문화》 동인.  
2012년 한국일보 문예 공모전 생활수기 부문 당선.  
E-mail : yeorbw@hotmail.com



## 사가모어 힐 미국립사적지

윤 관 호

사가모어 힐은 미국의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1858년 10월 27일 ~ 1919년 1월 6일)가 1885년부터 1919년 서거할 때까지 살던 집이다. 정원과 숲과 소금습지, 비치도 딸려있다. 뉴욕주 롱아일랜드 북쪽 해안인 오이스터만 부근에 위치해있다. 시어도어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가 이곳을 원주민 부족 말로 지도자란 사가모어 이름을 따서 사가모어 힐(Sagamore Hill)이라 불렀다. 미국립사적지이며 기념관도 있다. 빅토리안 양식의 저택 안에는 대통령 재임시기(1901년 9월 14일 - 1909년 3월 4일)에 있었던 가구와 장식품이 놓여 있다. 사냥을 좋아하던 그가 사냥한 표범 가죽과 곰 가죽, 박제된 사슴도 있다.

사가모어 힐은 그의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하계 백악관으로 불리었다. 이곳에서 중요한 일들이 행해졌으며 러일전쟁의 종식을 위한 고위급 외교회담도 열렸다.

그는 수십 권의 책을 저술한 작가이기도 하다. 스페인과의 전쟁에 민병대를 조직하여 참전했고 뉴욕 주지사도 했다. 1901년 9월 14일 매킨리 대통령이 암살되어 부통령이었던 그가 42세에 최연소 대통령이 되었다. 선거에서의 승리를 통한 대통령 취임은 1905년에 이뤄졌

다.

그는 트러스트를 통해서 과도하게 성장한 존 피어폰 모건, 앤드루 카네기, 라커펠러 등의 대기업들을 서면 독점금지법으로 통제했다. 1906년에는 “헵번 법”을 제정, 주간 통상규제위원회에 최고운임 설정 기능을 부여하여 철도 운임 요금을 규제하게 했다.

그는 산림청의 권한을 확대하고 2천여 개의 댐 건설사업을 백지화하거나 인허가를 취소했다.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토지보호와 자연보호 정책을 추진하여 거대한 면적의 연방소유지가 개발제한구역과 개발금지구역으로 책정되었다. 그 외 지역에는 토지수용이나 연방정부에서 매입하는 정책으로 국립공원은 2배로 증가했고 16개의 관광지와 51개의 야생서식지가 생겼다. 식품의약규제법을 제정하게도 했다.

외교정책은 팽창주의로 중남미로 적극적으로 진출했고 1904년부터 파나마 운하 건설을 추진했다. 1905년 7월 27일 일본 도쿄에서 미국 육군장관 윌리엄 태프트와 일본 총리 가쓰라 다로 사이에 만주와 조선에서의 일본의 보호를, 필리핀에서의 미국의 보호를 상호 인정한다는 ‘태프트 - 가쓰라 밀약’이 이뤄졌고 7월 31일 그가 추진했다. 동아시아에서의 세력균형을 통한 미국의 국익을 도모했으나 일제의 한반도 강점을 가속화한 그의 과오이다.

러일전쟁 종식에 기여한 공로로 1906년 현직 대통령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첫 부인인 엘리스 사이에서 1녀, 상처 후 부인 에디스 사이에서 4남 1녀를 두었다. 넷째 아들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1918년 전사했다. 장남과 2남, 3남은 1차, 2차 세계대전에 모두 참전했고 장남은 프랑스 전선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사가모어 힐 미국립사적지를 방문하여 미국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발자취를 보는 것도 뜻깊은 일이라.

## 크리스마스 스펙타클러

윤 관 호

크리스마스 계절에 뉴욕에서 볼거리로는 라디오 시티 뮤직홀에서 공연하는 ‘크리스마스 스펙타클러(Christmas Spectacular)’가 단연 으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공연은 11월 18일에 시작하여 새해 1월 2일 까지 계속된다. 미국 각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 기간 중 뉴욕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보러온다. 라디오 시티 뮤직홀은 1260 6th Avenue, New York, NY 10020 록펠러센터 건물 중 하나에 있으며 1933년 12월에 개관했다. 수용인원은 6,000명이다.

내가 오래 전에 상사 주재원으로 근무한 사무실이 한 블럭 떨어진 건물에 있어 이 앞을 자주 오갔다. 나도 가족과 함께 여러 해 겨울에 크리스마스 스펙타클러를 관람했다. 어머니도 즐거워하셨고 아내와 어린 두 딸들도 재미있어 했다. 극장의 규모와 첨단 기술의 무대장치, 중단 없는 진행, 현란한 의상과 출연진들의 무용실력, 관현악단의 연주, 실물 낙타들의 등장이 기억에 새롭다.

몇십 년 만에 큰딸과 사위, 세 명의 어린 손주들, 미혼인 작은 딸, 아내와 함께 금년 크리스마스 3일 전에 레이디오 시티 뮤직홀을 찾았다. 온라인으로 미리 표를 샀으나 긴 줄을 서고 나서야 입장했다. 거대한 샹들리에가 빛을 발하고 있었다. 공연장으로 들어갈 때 입체안

경을 받았다. 큰 무대 위에는 붉은색 막이 내려와 있었다. 우리 가족은 지정된 좌석에 한 줄로 함께 앉았다. 시작 시간 5분 전에 막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관현악단을 실은 무대가 아래서 위로 올라오며 축제의 서막을 알리는 음악을 연주한다. 동시에 2층 양쪽 발코니에서 무용수들이 무대로 내려가 춤춘다.

막이 오르고 별이 보인다. 낙타 두 마리에 짐을 싣고 동방박사 일행이 예수님 탄생한 곳을 찾아간다. 동방박사들이 마리아가 안고 있는 아기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 절한다. 환희에 찬 울동이 펼쳐진다. 빨간 옷의 썬타가 등장한다. 동시에 썬타가 썰매를 타고 오는 광경이 영상으로 비쳐진다. 입체안경을 끼고 보니 내 코앞에까지 오는 것 같다. 관중들의 탄성이 터진다. 징글벨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경쾌한 울동이 보인다. 무대 위에서 남녀가 피겨스케이팅을 하는 앞에서 배우들이 춤춘다. 움직이는 버스가 서니 무용수들이 나와 나비처럼 춤춘다. 로케츠 무용단이 다리를 하나같이 들어 올리며 신나는 춤으로 관객을 매료한다. 배우들이 GLORY N PEACE 글자 하나씩 들고 나온 가운데 모두 나와 인사하고 막이 내렸다. 밖에 나와 록펠러 광장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며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꿈꾸었다.



윤 관 호

휘문고교, 고려대학교 졸업, 고려대 경영대학원 석사과정  
 《문예운동》 시부문 등단  
 미동부한인문인협회 회장 역임  
 국제PEN한국본부 미동부지역위원회 회장  
 시집 『누이이야기』, 『뉴욕의 하늘』 발간

### 3월의 낙엽

이 경 속

행한데 반짝거린다. 햇살을 받은 옅은 베이지색의 작은 잎사귀들이 숲속 텅 빈 앙상한 가지들 속에서 지금까지 찰랑거린다. 아직도 매달려 있는 가녀린 팔에 어울리는 옅은 색 낙엽의 존재를 읽어 내기는 힘들다. 다가가 한 잎 떼어낸다. 바스락 부서지고 두께가 느껴지는 보통 낙엽 같지 않게, 알따란 실크 천 조각처럼 손가락에 부드럽게 감긴다. 자기보존 본능이 있듯이 여전히 물을 머금고 있다. 깊은 겨울의 정적을 깨우는 처마 끝의 풍경 같다.

매해 다른 나무들의 낙엽은 풍요로운 여정에 후회없이 살고, 치열하게 살아냈음에 더 이상의 바람은 없는 듯 툭툭, 사랑살랑, 확확 하나둘씩 떨어짐에 개의치 않는다. 활엽수는 가을이 깊어 기온이 떨어지면, 잎으로 과도한 증발을 막기 위해 수분 공급을 차단한다. 잎사귀 끝에 떨켜를 만들어 물이나 양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나무를 보호한다. 잎은 결국 바삭 말라 떨어진다. 식물들이 낙엽을 만드는 것은 자신의 일부분을 희생하여 전체를 보존하려는 적극적인 자기보존 방법이다. 어떤 나무들은 활엽수인데도 떨켜를 만들지 못해 차가운 강풍에 의해 조금씩 떨어져 나간다. 떨어지는 과정에서 밟아야 할 또, 다른 고통스러운 절차를 생각할 필요는 없다. 침해된 결정권에 선택의

부담에서 자유로워진다.

겨울 내내 팔랑거리는 잎사귀를 매달고 있는 나무는 줄기가 거의 가늘다. 아름드리나무처럼 둘레가 두껍고 키가 크지 않다. 보통의 다른 나무처럼 자기 보존을 위해 잎을 떨구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다른 나무의 생이나 감정에 개입할 필요는 없는 듯하다. 추위 속에서 움트는 어린 새싹의 겨울눈을 보호하기 위한 모성애로 겨우내 잎을 매달고 있지 않을까 싶다. 그러려니 있는 듯 없는 듯 종이보다도 더 얇은 두께로 최소한의 수분을 취하며 질기게 매달려 있다가 겨울눈이 새순이 되어 움을 틀 때 호젓이 미련없이 떨어진다. 이제는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가 보다.

궁금하다. 나무의 잎들은 어떤 잎들부터 낙엽이 되어 떨어질까? 먼저 나온 잎이 먼저 질 것 같은데 가장 먼저 나온 나뭇잎이 늦게까지 붙어 있고, 가장 늦게 나온 잎이 먼저 떨어진다. 줄기 안쪽의 잎부터 떨어지기 시작해 윗부분의 꼭대기의 잎이 가장 늦게 떨어진다. 그랬던 것 같아 눈이 감긴다. 순서를 챙길 수 없다는 것은 사람이나 나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떨어진 낙엽은 봄에 돌아나올 새싹의 밑거름이 되고 좋은 거름으로 재순환한다. 덕을 쌓은 만큼 쓸모가 있듯이 마무리까지도 온몸을 사리지 않는다.

같이 보이는 낙엽들도, 같은 몸의 낙엽이어도 세심히 살펴보면 색도 틀리고 떨어지는 시기도 다르다. 각양각색의 낙엽과 인간으로 구분하지 않으면 같은 생명이 흐르는 지구상의 존재이다. 눈을 마주치고 진심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모르는 사람들, 손을 잡아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사람들, 나란히 걸으며 속에 있는 말을 들려주기 전에는 가늠할 수 없는 사람들, 가슴으로 기대어 서로가 기쁨과 슬픔의 흐르

는 역사를 토해 내기 전에는 누구인지 모르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무와 나뭇잎과 다를 것이 무얼까? 수많은 나무들이 각각이 사는 방법과 생을 마감하는 잎사귀의 길이 다르듯 사람들의 결도 그러하다.

황량한 겨울 숲속에서 궁금함을 주며 다가가게 만든 얇은 낙엽이 있어 산책길이 볼 재미가 있고 소담스럽다. 유달리 질기고 부드럽고 얇은 상아색을 하고, 온 겨울 내내 매달려 미소 짓게 만든 3월의 낙엽이 그저 좋다.

## 이고 지고 산다

이 경 속

하루에 하나씩 버리고 살겠노라는 새해 약속을 올해도 또 스스로 다짐했다. 여행을 가면 몇 날 며칠을 온갖 살림살이와 옷들이 없어도 불편함 없이, 오히려 흥분하게 잘 지냄에도 불구하고, 집은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이 비싼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냥 '후우'하고 숨을 뱉어낸다. 어딘가에 꽂혀서 시간을 보내고 열정을 쏟은 그 잔류물들이 내 걸을 떠나지 못한다.

자칭 글쟁이라는 분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리 크지 않은 집에 현관을 들어섰다 싶었는데 바로 지중해야 될 것 같은 방이 나왔다. 온 벽이 책장으로 가리어져 있었고, 책꽂이 선반 곳곳에 무언가 적혀 있는 포스트잇이 너풀거려 무거운 책장이 더 버거워 보였다. 40년은 족히 되었다고 했다. 책에 꽂혀 하나씩 읽고 꽂아 두었으니 책장이 세월이었다. 도네이션을 할 것이라고는 하는데 지니고 싶은 책들이 많아 고민이란다.

지인 중의 한 분은 타운에서 하는 문화센터에서 봄, 가을로 여는 클래스에 꼭 참여한다. 미적 감각이 뛰어난 그분의 인테리어는 작은 감탄의 소리가 절로 툭툭 나왔다. 클래스에서 만들어 낸 작품들이 부분부분, 구석구석 어우러지게 전시되었다. 작은 상자 액자 안에 콜라

주를 한, 일명 '미니어쳐 아트' 작품들, 미니 북 작품들, 그리고 그분이 좋아하는 나비 그림들과 공예품들, 그리고 크고 작은 사진 액자들이 집안의 분위기에 일조했다. 올봄의 클래스에서는 어떤 작품으로 어느 한 부분을 장식할 것인지 기대된다.

워킹 그룹 중의 한 분이 원룸 아파트에서 3베드룸으로 이사를 해서 도와주러 갔다. 같은 층에 바로 옆의 옆으로 가는 것이어서 시나브로 천천히 짐을 옮기면 될 것이라 했다. 카트에 짐을 실어 날랐다. 바로 옆으로 가는 것이어서 그런지 따로 이삿짐을 싸거나 정리를 해놓은 상태가 아니었다. 평소에 원룸 아파트가 꼭 차서 빈구석이 없었던 지라 어디 한 귀퉁이라도 비워 놓고 싶었다. 곧 70세를 바라보는 연세에 이사를 가기로 결정을 하셨으니 정리하며 버릴 것으로 여겼다. 천장 키 높이의 책장에는 색색 가지의 천들이 둘둘 말아 켜켜이 쌓여 있었다. 그것을 차례대로 카트에 쌓아 옮겨 달라섰다. 포목점이 아닌 가 싶었다. 한 책장을 다 옮기고 나니 배시시 웃으시며 안방으로 나를 데려 가신다. 그곳에 같은 크기의 책장에 색깔별로 포개져 있는 많은 천들이 누워 있었다. '아악!' 놀라며 왜 포목점을 열지 않느냐 했다. 퀼트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천들을 많이 가지고 있단다. 이해는 되지만 이 많은 천들을 다 쓸 수 있을까 싶었다. 150년 정도가 된다는 침대 프레임, 7살에 갖고 놀았던 누우면 눈이 떠지는 때 탄 인형. 이사 온 이후 한 번도 만져지지 않았을 것 같은 먼지 쓴 서류들과 봉투들, 책들, 100년의 역사를 가진 농기구들의 자잘한 부품들 등으로 3베드룸과 거실은 꼭 차버렸다. 무언가에 꽂혀서, 어딘가에 열정을 다해서 산 흔적으로 빼곡했다.

이제는 고인이 되신 어머니가 생전에 이사를 가실 때였다. 평소에

물건을 잘 버리지 못하는 엄마 몰래 딸들이 서로의 눈빛을 교환하며 이것저것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기억이 났다. 본인에게는 물건마다 사연과 가치가 있어, 지니고 있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풍화를 견뎌내는 힘이 되는 듯했다. 물건이 자신의 존재인 것이다. 하지만 주인이 살아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이 가치 있고 귀중해서 누구에게 주더라도 선물이다. 주인이 떠난 때는 한낱 허접스러운 물건이 되고 불꽃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남은 자식들이 힘든 정리를 하지 않도록 세심함이 필요하다. 에너지가 있을 때, 이고 지고 사는 삶에서 비워내는 삶으로 하루를 보내자 또 다짐한다.



이 경 숙  
Blanton-Pearl Institute 상담대학원 졸업  
미술학원과 유치원 원장  
SAT학원 카운슬러, 다수 유화 개인전과 단체전  
E-mail : lee236to@hotmail.com  
kyungalee9018@hotmail.com

## 이런 의사

### 이 경 애

지난해 나는 코 왼쪽 부분에 약간의 마비증세를 느꼈다.

나는 곧 풀리겠지 하고 몇 달을 방치했다가 내 주치의에게 문의했다. 주치의도 잘 모르겠다며 일단 MRI를 찍어보라고 했다. 그리고도 나는 한 달도 더 지나 MRI를 찍었다.

아픈 증세도 없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기 때문이다.

MRI를 찍은 병원의 이비인후과 의사는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그 병원에 수술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큰 병원에서 수술할 의사가 없다는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뉴저지에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2명 정도 있다며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그곳은 우리 집에서 2~3시간 정도 떨어진 병원이었다. 아이들이 전화 예약을 했지만 한 달 이상 기다려야 한단다. 급한 대로 일단 예약해 놓았다.

생각지 않게 ‘수술해야 된다.’는 말에 나와 가족들은 몹시 놀라고 상심해 있는데,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늘 본 이비인후과 의사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나의 상태를 맨해튼 대형병원의 자신의 교수에게 사정을 했더니 자기가 수술해 주겠다고 하더라. 나를 안심시키려 애써 웃으며 농담까지 하던 잘생긴 그 젊은 의사는 지금 바로 수술해

야 되는 나의 상태가 안타까웠던 것이다.

그날 오후, 그 교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수술할 팀을 준비해둘 테니 오늘 바로 병원으로 오라고 하더라. 뉴저지 보험인데 문제가 없겠냐는 딸의 물음에 응급실로 오면 다 커버되고 나중에 외래에서 자신을 만나는 것도 혹시 커버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자기가 미리 말해 놓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빨리 오라고 하더라.

우리는 급히 주섬주섬 입원준비를 해가지고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저녁에 병원에 도착했다. 여러 가지 검사와 MRI를 다시 찍고 밤 10시가 넘어서 수술실로 들어갔다. 그때까지도 나를 수술할, 나를 불러준 의사의 얼굴도, 이름도 모르고 수술을 받았다. 멀리서 “엄마!” 하는 희미한 목소리에 눈을 뜨니 아들이 곁에 와 있었다. 생각보다 수술 후 통증은 별로 심하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 6시 경, 나를 수술한 의사가 내 병실을 찾았다. 그의 이름은 Dr, Samuel Helman이라는 유대인 의사였다. 평범한 점퍼 차림의 그는 인상 좋은 50대의 아저씨로 보였다. 허리를 숙여 내 손을 꼬옥 잡고 나의 상태를 묻는 그는 참으로 겸손했다.

그날 아침, 그 병원의 이비인후과 팀의 의사들이 회진을 돌며 나에게 오늘 퇴원해도 된다고 말했지만, 퇴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음날 새벽, 나를 수술한 의사가 다시 내 병실을 찾았다. 정확한 균의 종류를 알아야 맞는 약을 처방할 수 있기에 균의 배양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설명을 했다. 나는 며칠을 더 있다 맞는 항균약을 처방받고

퇴원했다.

2주 후, 나는 그 병원의 외래로 그 의사를 찾았다. 의사 가운데 차림의 그는 어스름 새벽에 보았던 모습이 아닌 40대 쯤으로 보이는 젊은 사람이었다. 사람의 얼굴에는 코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빈공간(Sinus)이 있다 한다. 여기에 황거스(곰팡이 균)이 침범한 경우라 한다.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냐는 내 아이들의 질문에 그저 ‘Bad Lucky(재수 없어서) 걸린 것이라고 한다. 곰팡이균은 우리 주위에 어디에나 있는 균이지만 나는 면역력이 약하여 이기지 못한 것이란다.

그 균이 눈 쪽으로 올라갔으면 실명될 수도 있고 뇌쪽으로 올라갔다면 더 심각한 상태가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다행히 나는 급성이 아닌 경우라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의사를 만나는 행운(Lucky)을 얻은 것이다.

알몸뚱이로 세상에 던져진 인생의 긴 여정을 살아오면서 때로는 Bad Lucky(재수 없는)를 만날 때도 있지만, 여기까지 살아낸 것은 행운이 늘 함께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 달 후, 다시 닥터 헬만을 찾았다. 내시경으로 내 콧속을 들여다본 의사는 아주 깨끗하다며 밝게 웃는다. 오늘 좀 들떠 보인다 싶더니 자신의 전화기를 꺼내 이제 3주가 되었다는 아기 사진을 보여 주었다. 첫아들이란다. 우리는 진심으로 축하를 해 주고 돌아오며 그 아기도 저 의사와 똑같은 좋은 사람으로 자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의사의 길에 처음 들어설 때 인류에 봉사하는데 일생을 바칠 것을

맹세한 히포크라테스의 선서 때문만은 아닌, 그에게서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룩한 인성이 보였다.

## 거창하지 않은 나의 생각

이 미 경

수화기 너머에선 다소 떨리고 기대감에 찬 음성이다. 너무 오래간 만이나 ‘혹 이 번호를 쓰신 지 오래되셨느냐?’고 수화기 너머는 묻는다. 역시 ‘오랫동안 이 번호만 썼었노라’고 대답하자 한풀 죽은, 그 역시 조심스럽게 ‘소식 끊어진 올케 운운하며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전화는 끊겼다. 나 역시 두서없이 기다리는 전화가 있다. 이십여 년 연락이 두절된 순위 오빠로 문득, 바랜 세월 속에서 기억의 어디쯤에선가 멈춰진 얼굴을 드리밀곤 한다. 이런 이유로 내게 걸려 온 모르는 번호를 매정히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일전엔 몇 번에 걸쳐 장문의 메시지가 왔었다.

내용에 의하면, 이 전화번호의 주인공인 ‘나’는 이혼한 그들 사이의 아들 양육비를 오랜 기간 체납한 파렴치한 아빠이다. 전송자인 그녀는 ‘우리’의 불행했던 결혼생활(전적으로 내 책임)이며 아이 문제, 경제적인 문제로 끊임없이 ‘나’를 질책하고 있었다. 그러다 말쑤지 했으나 나중엔 대답을 회피하는 죄까지 추궁당할 듯하여 - 나는 통념적인 개념으로 아빠가 될 수 없어요.(논쟁의 여지가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삶으로 표현에 유의했음) 여자거든요. 다시 한번 전화번호를 확인해 보시기를 라고 응답을 했음을 끝으로 메시지는 더 이상 오지 않았다.



이 경 애

국제Pen한국본부 미동부지역위원회 회원, 한국수필가협회 회원, 한국문인협회 회원, 미동부한인문인협회 이사장으로 활동 중. 현재 미국 뉴저지에 살며, 미주 중앙일보 '하루를 열며' 칼럼 연재 중.

수필집 『물안개 너머로 봄은 다가와』, 『봄을 놓치지』, 공저 : 한국수필가협회 대표선집 『천년 숲 서정에 홀리다』, 『비밀의 문』, 『사람, 집, 그리고 길』  
e-mail : kyungaelee9018@hotmail.com, kyungaelee50@gmail.com



우리는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귀 언저리에서 가볍게 흔드는 제스처로 “전화하시오”한다. 이는 어찌 보면 언젠가 밥 먹자와 비슷한 경우로 관계성에서 선을 긋기가 애매할 때, 이를테면 어떤 여지를 남기는 수단이 되는 경우도 흔치 않게 있다.

전화기가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절의 일화는 참 많기도 하다. 나 역시 쓴 웃음을 짓게 하는 사건이 있었다. 서울역 시계탑 앞(에고, 장소 선정이 너무 원색적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허나 절대 실패하지 않을 장소로, 선정에 애달픔이 있었음)에서 만나기로 한 사람이 있었다. 그가 여운이 강한 편지를 보냈고 내 편에서 약속 장소와 시간을 명시한 답장을 보낸 것이다. 그 즈음엔 흔치 않던 편지의 지체로 결국 그 장소에 그는 나오지 못했다. 기다리다 우울하게 귀가했더니 예의 그 사람이 찾아왔었다 한다. 편지를 늦게 받아 곧장 집으로 온 듯한데 그 역시 죄지은 모습으로 발길을 돌리더라고. - 후에 알았지만, 서울역 시계탑은 한 개가 아니었다. 무려 다섯이나 났다고. 어차피 어긋날 운명(?)이었음에 -

전화가 없는 요즘은 가히 상상하기도 힘들다. 어찌다 전화기 없이 외출한 경우는 그야말로 모든 것에 적신호다. 저장 기능을 통해 모든 정보가 입력돼 있으니 알량한 전화번호 하나 기억하지 못한다. 전화기 없이 다섯 사람을 각각의 공간에 격리해 버티는(?) 실험을 한 다큐를 본 적이 있다. 일찌감치 하루 이전에 포기한 사람에, 울며 하소연하는 사람에, 심지어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사람까지 생겨났다. 총 네 사람이 심각한 부적응 상태를 보임으로 실험은 종료되었다. 이는 전혀 생소하지 않은 우리 대다수의 이야기이다. 누군가를 혹은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소위 ‘킬링타임’의 공신자이다. 어떤 상황에

서도 전화기를 들여다보는 사람을 흔치 않게 본다. 나 또한 무의식적으로 전화기를 들여다본다. 누군가의 오지 않는 연락을 기다리고, 최근 찍은 사진도 돌려보고 심지어 내일 날씨는 어떨까에도 관심을 가져본다. 내가 전화기를 소유한 게 아니고 전화기가 주체가 된 지 오래전인 듯하다.

나는 이 빠르고 엄청난 편리함을 조금 반납하고 싶다. 아날로그 시대의 나는 편지를 쓰는 것도 받는 것도 여전 좋아한다. 편지가 닿았을 날짜를 계산해보는 즐거움이 분명 있었다. 조금 돌아가고, 천천히 가고, 때로는 역주행하며 머리 속의 한 줄기 바람을 생각해본다.

날로 스마트해지는 시대에 제대로 발맞추지 못해 엇박자인 역시 나의 마음뿐의 반란이겠다.

## Killer whale의 꿈

이 미 경

그는 후렌치 토스트를, 나는 예의 야채가 들어간 오믈렛을 시켰다. 아무리 완전 단백질로 몸에 좋다고 한들, 자주 먹는 계란 요리가 그닥 탐탁친 않았으나 어차피 끝을 못낼 것을, 나는 세 등분한다.

중간을 먹는 내게 그는 killer whale을 운운했다.

바닷가에 떠내려온 백상어 떼의, 몸에 상처 없이 말짱한 의문의 죽음에 관계자들은 추적 결과 장기의 일부인 간이 없어진 것을 예의 킬러 웨일의 소행으로 결론지었다 한다.

아침 햇살이 좋고, 가끔씩 커피잔 부딪치는 정겨운 아침식사 테이블에 걸맞은 대화는 아니었다.

버지니아 비취를 가면, 그 한여름의 물살을 가르고 은빛으로 부서지는 포말 사이로 솟구치는 고래들을 볼 수 있었다.

무라까미 하루기가 야구장에서 파란 하늘에 솟구치는 공을 보며 글쓰기를 결심했다는 것은 가히 고무적이다.

나도 그 고래들에 맘 속 저 밑바닥에서 꿈틀거리는 그 무엇을 느꼈으니까.

꽤 흥행했던 모 드라마에서 등장한 지폐증을 가진 변호사의 희망, 성취를 상징하는 것은 물을 가르고 솟구치는 고래였다.

그뿐이라, 우리는 원로가수 송창식의 〈고래사냥〉의 노래를 기억한다.

그야말로 보이는 건 망망대해의 ‘예쁜 고래 한 마리’ - 손에는 안 잡히나 그 어딘가에 존재하는 꿈과 희망의 종결이겠다.

고단한 삶이 설 수 있는. 나, 예의 킬러 웨일의 꿈은 무엇이었을까? 딱히 꿈과 희망 따위는 없었던 듯하다.

엄마가 가끔 그 부분을 꾸짖은 적이 있었으므로.

킬러 웨일은 어릴 적, 집을 가기 위해 거쳐야 했던 101개의 계단을 떠 올렸다.

유명한 맥주회사 사장도 살았다는 나름 시는(?) 동네였는데, 후에 생각함. 그나마 가파른 언덕이 아닌 넓적한 계단을 설치했다는 것에 수공이 갔다.

아무튼 방과 후, 우리 동급생 여럿은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그 계단을 올라야만 했는데 돌아가는 먼 길보다는 힘들기는 했으나 지름길인 때문이었다.

오르는 중간에 우리들은 여러 번, 층계참에서 고단한 다리를 뻗곤 했다, 가끔은 헤벌쭙하고 모자란 미소를 짓는 아저씨와 부딪치기도 했는데, 우리는 두려워서 줄행랑치곤 했다.

조그만 그 무엇도 우리들에게 그야말로 무용담이었다.

시답지 않은 비밀(?)을 공유함으로써 우리는 끈끈해졌으며 의리를 내세웠고 나름 의협심을 발휘하곤 했다. 그리고 우리들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다.

막연히 우리를 제어하는 많은 것에서 자유로우리라 싶었다.

어른인 나는 과연 모든 것에서 그러한가, 주위 따위 신경 안 쓰고

생각하는 바를 피력함에 수 없는 주저함이 따르는 것을.

어찌 생각하면 그때의 사고들의 무모함과 순수함이 문득 그리워진다.

그리고 또 있다. 침대 중반에, 등하곶길에 마주치는, 지대가 약간 높고 울창한 숲에 가리어서 안이 가늠이 안 되는 나의 은밀한(?) 집이 있었다.

밝은 나무 대문까지 이어지는 이끼 낀 계단이 있었고 나는 아따금씩 계단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곤 했다.

일종의 호기심과 막연한 그리움으로 그 집 앞을 서성이곤 했다.

그 집에 사는 누군가, 현실에 존재할 것 같지 않은 그가 나의 힘겨운 사춘기의 해답을 제시해 줄 것 같았다.

이렇게 저렇게 우리 집은 그 뒤에도 몇 번의 이사를 했고 그 집은 내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다.

나, 킬러 웨일은 뚜렷한 꿈이 없이 막연히 무엇이 되고 싶었다.

우리 아이에게 물으면 돈 많이 벌고 싶다고 한다.

나로 말하면 그래, 비슷한 맥락의 뜬금없는 꿈이겠다.

나 다운 삶을 사는, 어느 날 무엇이 되어있는.

무엇이 나 다운가에 대한 정의 따윈 없다.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는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문득 나는 101개의 계단과 나무에 가리어진 그 집 앞을 떠올린다.

최근에 한의사에게 진료를 갔었다.

나의 발가락들이 쉼 없이 긴장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분명히 나는 지시에 따라 편안한 자세로 숨을 고르고 있었으나 발가락들이 앞쪽을 향해 들려 있다는 것이다.

푸욱 쉬세요, 긴장하지 마세요

한의사는 말했다.

남기지 말고 더 먹어.

내 눈 앞의 그는 남겨진 오물렛 조각을 내 접시에 옮겨준다.



이 미 경

서울 출생, 2020년 미동부한인문인협회 가입  
대학졸업 후 일본계 회사 근무  
후에 동경유학 대학원에서 번역 및 임상심리과정 이수

## 백세시대에 노후 대책

### 전 설 자

#### ‘내 나이에’ 매번 놀라며

사흘 가지 못할 것이라는 의사 선생님의 선고를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와 의식 없이 누워있었던 그때를 말로만 들었을 뿐, 나는 지금도 가족들의 고통을 어림짐작으로만 알고 있다. 그 암울했던 터널을 지나 햇빛 쏟아지는 태양을 맞보며 오늘을 숨 쉬며 이어진 나이에, 이럴 수도 있구나!

#### ‘연금수령’도 초기에 신청

어머님의 무한 능력으로 이어 놓은 명줄이 세월과 더불어 쇠심줄로 탈바꿈한 것 같다. 예순을 넘길 때까지도 잔병치레를 한 이력으로 일흔을 훌쩍 넘겨 여든을 바라볼 때까지 살게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기에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일찌감치 신청해버렸다.

#### ‘설마, 먼 훗날’이려니

소리 없는 밤이슬에 젖어들 듯 백세시대란 단어가 유행어처럼 돌게 되면서 어느 날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익숙하게 된 지도 이미 오래전이다. 이 시대의 한 축을 대변하듯 백세를 넘기고 있는 노인들의 건재한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추어, 그 무서운 염라대왕이 불러도 못 간다고 전하라며 큰소리치는 노래까지 만인의 사랑과 호응을 받으며 노인들의 응원가 마냥 들썩이고 있다.

#### ‘그러나 어찌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는 날이 가는 날이다.

지병으로 오랜 투병생활 끝에 떠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지난해처럼 코로나로 갑자기 떠나시거나, 발을 헛디뎈 낙상으로 졸지에 떠나신 분들의 소식은 말문이 닫힐 정도로 안타깝다. 황망하고 어이 없는 잦은 부고 소식이 슬퍼할 틈도 없이 이어져, 순간순간 회한으로 목이 잠겨 넋 나간 망부석처럼 굳어진다.

이렇게 때가 되어 하늘의 부름을 받은 자들 외에도, 크고 작은 황당한 각종 재난사고들, 광란의 질주와 음주운전의 희생자들, 악평에 시달리다 유명을 달리하는 자들, 우울증으로 무기력해진 마약의 노예들, 독거노인들의 안타까운 고독사까지, 사망자가 줄을 잇고 있다. 웅웅거리며 길 위에 무법자로 질주하는 앰블런스들이 실어 나르는 환자들로 인해 응급실은 북새통을 이루고 있지만, 북망산천으로 가는 길은 교통체증 없이 탄탄대로, 시원스레 열려 있다.

귀신같이 안다는 말이 있듯이, 저승사자들은 귀신이다.

밤낮없이 시, 때, 장소 가리지 않고 코앞에 왕림하시면, 지체없이 움작달작 못하고 따라나서야 한다.

### ‘이 또한 한 축일뿐’

따라잡지 못하는 노인성 질병들에 대처하느라 기본적으로 크고 작은 알약들을 한 줍씩 삼키며 연명한다. 백발은 샅길에 지름길로 다가와 염색에 의존하고 있으며, 대머리 걱정과 비어가는 두피에 마음 줄이면서 온갖 대비책을 꺾문을 열어 세우고들 있다. 그러나 별 대책 없이 몽그적거리며 연명으로만 간다면 오래 산다고 무턱대고 좋아할 일도 아니고, 살아있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문제는 여건도, 건강도, 어우러져 모두가 백세시대가 아니라는 점이다.

### ‘이 시대의 진풍경’

70대는 노인이라는 명함도 못 내민다.

집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로 봉양 받은 지 오래인 8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노인 분들 모여 계시는 곳이나 행사에 가면 90을 바라보거나 90대 어르신들이 정정하시니 자식 대라 애 취급에 직급은 심부름꾼이 된다.

사우나 불가마 거적을 뒤집어쓰고 땀을 빼며 명상 중인데 몇 명이 우르르 들어오는 것 같았다. 지옥불이 불가마 정도라 천국에서도 지옥불의 도수를 올렸다는데, 아니 그건 이미 오래전이고 벌써 숯가마

장인을 모셔다 다시 만들었다는 등등, 뜨거운 불가마가 무색할 정도로 여유 있는 우스갯소리들로 하하 호호 즐거워 들 하고 있다. 이러니 지옥상제께서도 대비책을 세울 수밖에….

### ‘갈 때는 순서가 없다.’

건강 체질이었던 남편이 일흔여섯에 폐암진단 받고 2년 6개월 힘들어하다 결국 떠났다. 그렇게 나 자신부터 불시에 불똥들이 오지랖에 튀어 송송 뚫린 구멍으로 새어드는 냉기와 동락하며 6년이란 무심한 세월을 어이 없어 하며 아직 이렇게 살아있다. 내가 더 오래 살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다. 내내 골골거렸으니까. 혼자 남아 이 일 저 일 겪게 되면서, 때로는 상실감에 부대끼면서 이어가고 있을 뿐이지 현실은 시대의 대열에 순응하며 줄을 따라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정답일 것 같다.

짧게 앞서 언급했듯이 20대에 가망 없다는 의사의 사망선고에 집안을 발각 뒤집어엎어 축대밭을 만들고, 장기간 초상집을 방불케 했던 내가 아직도 성인병 없이 이르고 있으니,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내 입장에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닌 것 같아 혼란스럽다.

백세시대란 말이 이젠 턱밀이 아니라 공존임을 실감하고 있다.

### ‘노인 단체에서 일했던 경험으로’

AWCA, 시니어 센터, 상록회, 데이케어센터 등 이런저런 단체들을

찾아 봉사하며 참여해 보기도 하고, 지역사회 행사를 찾아 돕기도 한다. 어려운 점은 이제 나이가 같거나 비슷하신 분들도 있어 함께 늙어가는 상황이라 개중에는 ‘너나 잘 해’하는 비협조적 반응을 보이거나, 노골적인 시기심이 만만치 않음을 체험하게 된다.

의도한 뜻에 못 미쳐 부족함과 상실감에 발길이 더더진다.

### ‘모임들은 대체로 구태로 만연

시작이 호구조사 아니면 자식 자랑에 손자 자랑, 신이나 널어놓는 왕년에 그때 그 추억들을 듣고 있자면 스트레스가 만만찮다. 어떤 명분으로든 함께 몰려다니면서 밥 먹고, 자랑 떠벌리며 늘어놓다, 남의 뒷말로 끝이 난다. 물 위에 기름 꼴이라 처세가 부자연스럽고 불편해 견디기 힘들어진다. 오랜 교직생활로 학교와 집을 오가던 지극히 단순한 일상이, 내가 알던 전부여서 습성에 맞지 않아, 시간 낭비에 지나지 않음을 곧 깨닫게 되었다.

### ‘이름을 내어 올리고 있는 몇 줄의 글들과 대처

풀잎의 노래가 코끝을 간질이는 밭고랑을 따라 들어서듯, 하얀 백지 위에 온 마음을 다해 세상을 향해 올릴 글줄을 일구기 위해 글밭으로 들어선다. 노안이 들어와 책읽기도 힘들어지고, 활동량이 줄어들어 행동반경이 좁아져, 점점 퇴보되어 가는 빈약한 실력으로 사력을 다해 기름 짜듯

취어짜 가면서 애쓰고 있다. 그러나 이나마 할 수 있어 누구에게

보다 자신에게 자랑스럽고, 글을 쓸 수 있음에 대견해하며 감사하고 있다.

장점이라면 글줄에 매달려 있을 때는 실력은 비루해도 시간 가는 것을 잊게 된다.

\* 논문과 편지 등 대필이 가능하고, 무엇이든 대답해 준다는 인공지능 시대, 대두될 과장이 만파라 착잡하다.

### ‘공적으로는 이파트 보드멤버’로

미약하나마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애쓰고 있다. 각종 일들이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완성되었을 때, 그 뿌듯함은 보람으로 다가와 설레기까지 한다.

누구 한 사람의 일이 아닌 주민 전체의 일이기에 더욱 배가 되는 것 같다.

몇 년 전 눈 폭풍으로 해묵은 노송이 뿌리째 뽑히는 이변으로 정원에 나무 배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일치로 기대되는 벚꽃나무 세 그루를 포함해 또 다른 종류의 나무들을 심었다. 업무 분담 결과 물 주기는 내 몫이 되어 열심히 공들여 물을 주어 잘들 자라고 있다. 벚꽃나무는 꽃을 피우기 전에 옮겨 심어 언제쯤 꽃망울을 터트릴까 하고 기대 반으로 바라만 보고 기다렸다. 작년까지는 미숙하더니 올 봄에는 기특하고 대견하게 벚꽃 본연의 분홍빛 자태로 만연하다.

잘 자라 피워낸 꽃송이들이 흐드러지게 활짝 웃으며 다가와, 내 마음도 분홍빛으로 물들여져 흐뭇하다. 바로 행복 그 자체다. 이렇게

크고 대단한 것 보다는 작은 꽃잎 들의 화답에도 희열을 맞보며, 오늘을 알뜰히 엮어, 다하는 그날까지 삶을 가꾸어 갈 생각이다.

### 백세시대의 노후대책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아닌, 나를 다스리는 의지가, 노후대책에 기본 축”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첫째. 나이를 즐기며 살자. 어떻게 하겠는가. 늙어져 가고 있는 수명을……. 결론은 거듭나야 한다.

‘살아있어 행복해’라는 노랫말과 걸맞게, 오늘을 즐기며, 일거리를 찾아 나열하고, 기록을 하고, 실천을 한다. 미루어 놓치면 쯤이 쑤시는 성미라 좀 힘들긴 하지만 둘러보면 사방에 일거리가 산재해 기다리고 있다. 해서 일상에서 우두커니 앉아 뉘 놓고 멍 때리는 시간이 없다. 장점이며, 이로 인해 우울증을 모르고 산다. 지금껏 이만큼이라도 살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낙오와 좌절보다는 무한긍정의 힘이었다.

“개으름으로 찌들어 우울해 지지 말고, 몸을 곧추세우고, 씬표를 주지 말자.”

둘째. 마음을 비워 여유로운 사고(私考)로 바라보자.

위를 바라보며 헛물만 쉰다면 뱀새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보다는 나보다 못한 수많은 그들을 생각하며 염려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은 아마도 은퇴 후부터인 것 같다. 활동이 단조로워져 주위를 둘러볼 여유가 있어서일까,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 “이만큼 살 수 있음에” 만족스러워하면서 ‘부족할 것 없다’는 마음으로 만사에 여유로워질 수 있었다.

‘이만큼 가질 수 있음’에 풍족해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흥기분해질 수 있었다.

마음을 비우고, 주어진 오늘을 반기며, 노력하면서 살아보자.

셋째.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로 건강을 유지하자. 동정 받는 초라한 노인이 아닌, 당당한 노인으로 살기 위해서, 요즘은 시간표에 의해 일어나고, 시간표에 의해 하루 일과가 끝이 난다

- \* 운동은 아침, 점심, 저녁 1시간씩.
- \* 식사는 소식과 체질에 맞는 식품으로.
- \* 의자와 텔레비전은 장식품으로.
- \* 인터넷은 최소한으로.
- \* 어떤 이유로든 드러눕는 일은 없다.

이렇게 생활 리듬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 빼곡히 들어찬 일과표와 더불어 쉴 틈 없는 하루를 충실히 여닫고 있다.

노후대책이란 “일구난설(一句難設)” 한마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오직 자신의 책임과제라고 본다.

“자신이 일어서면 걸을 수 있고, 앉으면 설 수 있고, 누이면 끝이다.”



전 설 자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한국수필》 신인상 수상  
한국수필가 협회 회원, 미동부문인협회 수필분과 위원장, 감사 이사, 부회장 역임  
뉴저지 한국 학교 26년 근속, 경희사이버대학 재외동포재단 주최 교육자 체험수기  
공모전 수상,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 국제언어교육원 주최 교육자 체험수기 공  
모전 수상, 전통문화 예술 전래 민속놀이 전수자  
snowsjk@yahoo.com

## 빛

전 수 중

“에이 참! 빛 없는 세상이 없나?” 살면서 한 번도 그런 푸념을 내뱉은 적이 없다면 복 받은 사람이다. 빛을 지고 싶어 지는 사람이 있을까. 녀석지 못한 살림은 아껴서 살더라도 자녀의 학자금을 대느라 빛을 진다. 때로 갑작스러운 병원비를 대느라 빛을 질 때도 있다. 어쩔 수 없이 급한 빛을 얻어 매꿔야 한다. 빛은 우리네 인생길에서 너무나없이 깊어지고 가야 할 힘겨운 짐이다.

혹 욕심이 생겨서 투자할 목적으로도 빛을 얻는다. 새로운 말인 ‘영끌’은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를 하다.’라는 준말이란단다. 갚을 요량이 없이 무턱대고 빛을 얻는 사람은 없다. 만일 있다면 그는 사기꾼이 틀림없다. 치밀하게 계획하여 투자했어도 투자금도 회수하지 못했다면 결과는 사기꾼과 무엇이 다르랴?

처음 요량한 대로 잘 쓰고 제 때에 갚은 물질적인 빛은 참 고마운 것이다. 그래서 신용이 쌓이고 다음에 또 빛을 얻기가 쉽지 않은가. 그러려면 빛은 꼭 갚아야 한다. 이는 서로 간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어려울 때 누군가가 거저 준 물질적인 도움은 빛이 아닌가. 이것을 빛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갚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지 않기 때문이리라. 부모가 준 도움은 그만두더라도, 형제나 친척이나 친구



가 준 물질적인 도움은 공짜인가. 사회단체나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해준 도움은 어떤가. '내가 노력해서 얻었으니 빛이 아니다.'라고 할 셈인가. 이 모든 도움들이 당신의 오늘이 있게 한 이유가 아닌가. 갚고 갚지 않고를 떠나 감사해야 할 도움들이다.

선한 마음이면 누구나 빛을 갚으며 잘 썼다고 고마움을 표한다. 이 자를 쳐서 갚았는데도 마음에 고마움이 남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자조차 갚지 않은 물질적인 도움에는 감사에 인색한 경우가 많다. 당연히 받을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애써서 얻은 도움이니 무슨 감사가 필요하냐고 반문할 생각을 마음속에 둔다.

우리는 빛을 물질적인 빛으로만 생각하기 쉽다. 생각하면 우리는 살면서 갚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빛보다 그렇지 않은 빛이 훨씬 많지 않은가. 갚지 않아도 되는 빛을 마음의 빛이라고들 말한다. 이러한 빛은 감사를 느끼는 사람만이 지고 사는 빛이다. '갚아야 하는 빛을 다 갚았으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도무지 느낄 수 없는 마음이다.

물질적인 빛보다 마음의 빛이 더욱 소중하지 않을까. 갚지 못한 마음의 빛 때문에 세월이 가도 감사의 마음이 늘 남는다. 자신이 받은 도움을 생각하며 남들을 도울 마음이 우러난다.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세상이 더욱 아름다워지지 않겠는가.

우리는 누구나 사회에 빚진 자이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의 속담이 있듯이 우리는 우리를 키운 사회에 감사해야 한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다. 가족을 위해 사는 것도, 형제자매를 돌보는 것도 누구나 한다. 길지 않은 인생에서 우리는 언제쯤 남을 돕고 사는 자아를 발견할 수 있겠는가.

## 창작의 종언

전 수 중

천지창조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무(없음)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빅뱅(Big Bang) 우주론에 따르면 우주는 한 점에 모여 있던 에너지가 대폭발을 일으켜 팽창했다고 한다. "점은 크기가 없고 위치만 있는 도형"이라는 기하학적 정의가 천지창조와 빅뱅 이론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만드셨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삶에 소용되는 모든 것을 먼저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다 한다. 마지막에 흠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어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아하셨다 한다.

독도에 서식하는 생물을 처음 찾아냈다면 생물학자는 새로운 종에 자기의 이름을 붙여 세상에 알리며 얼마나 기뻐할까. 천문학자가 새로운 천체를 발견하여 자기의 이름을 붙이는 것도 그러하다. "마젤란 해협!" 이렇게 예전 탐험가들은 미지의 세계를 발견하여 자기의 이름을 붙이곤 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미 세상에 만들어 놓은 것들을 발견하는 것도 기뻐서 자기의 이름을 붙인다. 이름을 남기지 않아도 발견의 기쁨은 있다. 이른 봄 마른 풀밭에서 찾아낸 달래나 가을 송림 속에서 찾아낸 송이버섯이 주는 기쁨이 얼마일까.

세상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도 무척 큰 기쁨인데, 세상에 없는 물건이나 기술을 만들어내는 발명은 얼마나 큰 기쁨이 되랴. 우리는 발명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 있고, 보기 위해 만드는 것이 있고, 주기 위해 만드는 것이 있고, 팔기 위해 만드는 것이 있고, 자랑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 있고, 심지어 생명을 죽이기 위해 만드는 것들도 있다. 세상에 이미 있는 것을 만드는 모방과 세상에 있지만 좀 더 낫게 만드는 개선도 기쁨이 되지만,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드는 발명이 가장 큰 기쁨을 주지 않겠는가.

인간이 하나님처럼 생명을 도저히 만들 수 없어 하나님을 창조주나 조물주라 부르며 경외하는 것이 아닌가. 사람의 유전자가 어떻게 조합되었길래 모두가 서로 다른가. 당신은 복제물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창조물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욱 귀한 존재이다.

인간의 탄생을 축하하는 생일축하 노래가 가장 많이 불려지는 이유다. 모르긴 해도 일란성 쌍생아도 어딘가 서로 다르지 않겠는가. 인간도 기계를 만들어 똑같은 물건들을 판박이로 찍어낸다. 그러나 기계에게 계속할 수 있는 욕구를 줄 수는 없다. 그러니 그 물건들은 한갓 복제물일 뿐이다. 그저 쓰다가 버릴 물건들이다.

인간의 창작성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능력이라고 생각된다. 자능이 높다고 학식이 많다고 모두 창작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누구나 선천적인 창의력을 무엇인가 집중하면 대단한 것을 이룰 수 있다. 세종대왕처럼 한글을 창제할 수 있다. 또 에디슨 같이 많은 발명품을 남길 수 있지 않은가. 그가 99% 노력과 1%의 영감으로 그 많은 발명을 이루었다고 한 말을 음미해보라. 발명가 중에 세상에서 아무짝에도 쓸데 없는 것들을 만들어 자랑하는 것도 그에게는 기쁨이 되니 누가

업수이 여길 수 있으리요.

오늘날 피부색이 다르다고, 예쁘지 않다고, 아는 것이 없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차별하는 것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용서치 않을 일이라 본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인간 각각은 하나님의 유일한 창조물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은 실로 정보의 바다이다. 검색을 하면 수많은 정보를 순식간에 쏟아낸다.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며 창작하고 발견한 정보들이 모두 모여 있다. 최초로 이루어낸 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붙이는 기쁨에 모여진 정보들이라고 볼 수 있다. 검색 엔진은 저작권 등을 보호하며 제 역할을 다해왔다.

최근에 이 저작권을 아랑곳하지 않고 정보를 캐기는 새로운 유형의 정보가공 엔진이 등장했다. 이는 “챗GPT”라 한다. 요청하는 의뢰인에게 검색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도 지어주고, 연설문도 적어주고, 숙제도 해준다고 한다. 현재로도 웬만한 시험은 합격할 정도란다. 검색한 정보를 의뢰인이 요청한 대로 가공까지 해주는 셈이다. “이제 세상 정말 좋아지는구나…….”하고 철없이 좋아만 할 인인가.

정보 제공자에게 기쁨도 없이 대가도 없이 정보가 도용된다면 정보를 제공하려는 의욕이 계속 생겨나겠는가. 기쁨으로 보상받지 못한 정보들은 그릇된 정보이거나 의도된 결과를 얻고자 하는 정보들일 것이다. 통계의 기법을 이용하지만 임의로 그릇된 표본을 선택하여 편향된 결과로 모집단을 예측하여 정보 사용자를 오도하는 것이 한 예다.

요즘 동북공정 이후 중국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미국 유명 대학의 강의 중에 교수에게 제기하는 반론을 자주 보았다. 그 학생들은

한결같이 역사적으로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으며, 자기들이 어릴 때부터 교과서에서 배웠다고 거짓을 주장한다. 한국사에 정통한 교수들이 근거를 들어 해명하자 말문이 막히면 “당신은 동양인이 아니라서 모른다.”고 인종차별적인 항변을 서슴지 않는다. 저들도 김치, 고추장, 삼계탕이라는 말만 들어도 군침이 돌까. 또 한복이라는 말에 바로 그 자태의 아름다움이 떠오를까.

중국 학생들이 동북공정으로 꾸며진 거짓된 정보로 배우고 그릇된 주장을 펼치듯이 앞으로 챗GPT가 가공해서 내 놓을 “아니면 말고”식의 결과물이 넘쳐나는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전 수 중

경북 울진 출생, 2005년 《뉴욕문학》 신인상 당선 등단  
 한국항공대학교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NYU MBA, CUNY PhD 수학  
 미동부한국문인협회 총무 역임  
 저서 『한글꼴 발음기호에 따른 영어없이 영어배우기』, 『미국시민권시험』, 『미국영어발음』, 『영어나무 1000』, 『흔들리는 고향』 (수필집, eBook)  
 smpchun@gmail.com

## 오월에 쓴 낙서

### 전 애 자

계절의 여왕이고, 가족의 달인 오월에 롱 아일랜드에 있는 STATE HISTORIC PARK를 방문하였다.

얼굴을 스치는 바람은 상큼하고 달콤했다.

벌써 오월…….

세월은 숨 가쁘게 달려서 잡아보지만 잡히지 않는다. 이메일로 올라오는 문우들이 세상 줄을 놓았다는 슬픈 소식들은 우울증 높으로 빠뜨린다.

달리는 차창으로 비추는 나무들은 연초록 옷을 입고 ‘도레미파…….’로 움직이며 반기니 위로가 된다

한 시간 반 만에 도착한 곳은 COE HALL HISTORIC HOUSE MUSEUM 등등……, 유명한 명소가 있는 사백 에이커가 넘는 아름답고 화려한 나무들이 많은 공원이다. 많은 나무들이 나이가 백 년이 넘어 우람하고 크고 아름다웠다. 예술적으로 잘생긴 나무들을 골라 사진기에 담았다. 나무들이 멋진 모습을 같이 취해 주어 오래 남을 것 같다.

아이취 모양의 라일락 향기가 코를 찌르는 숲에서 사진 몇 장을 더 찍고 작은 동물들이 목을 축일 듯한 웅달샘이 있어 보니 예쁜 옷을

입은 아기 잉어들이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다.

큰 나무 밑에는 가족들이 오손도손 모여 앉아 소풍을 즐기는 모습이 행복해 보였고, 결혼을 앞둔 몇 커플들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모습으로 카메라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행복한 기운을 받아 나도 행복했다.

뉴욕을 가로질러 오는 퇴근길은 지옥인데 돌아오는 길은 다행히 막히지 않아 좋았다.

오늘은 수채화 교실, 쇼핑, 공원 산책……. 바쁘게 산 날이다. 몸은 피곤하나 마음은 평안하다.

요즈음 나는 언제 안전핀이 빠질지 모르나 안전핀을 만지며 살아온 날보다 살날들이 짧은 삶의 원칙 앞에 서서 열심히 산다.

자연을 주는 선물들을 만끽하며, 꽃무더기 속에서 행복을 느끼며…….



#### 전 애 자

1979년 미국이민, 《한국수필》 신인상 당선(2003년), 아시아 이종언어 개발센터(시튼홀 대학) 근무, 미주 뉴욕 《동아일보》 편집기자로 근무, 뉴저지 YWCA 한국어 교사로 근무, 삼성중인포토리그램MAJOR ACE 회원, 미주 중앙신인문학상 시부문 당선(2005년) 공저 『21세기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하여』 1·2·3권  
E-mail : annieree123@hotmail.com

금발이라고 좋아할 게 아니라…

“후배야, 네 머리 색깔 예쁘다.”

친한 선배 언니가 칭찬한다.

나는 흰 머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집에서 혼자 간단히 할 수 있는 머리염색약을 한동안 사용했다.

어느 날부터 빗질하면 머리카락이 제법 많이 빠졌다. 머리 꼭대기는 고등학교 때 두 갈래로 묶어 다녔던 때 생긴 것으로 대머리처럼 중간 부위에 머리카락이 없었다. 거울로 비춰본 머리 꼭대기가 보기 싫어 발모제를 사서 발라 봤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딸아이는 자연스럽게 흰 머리카락이 나오면 ‘은발로서 더 멋있을 텐데 머리 염색약을 그만 사용하라’고 매번 말했다.

어느 날 과감히 잔뜩 사 놓은 염색약을 다 내다 버렸다. 그리고 커피로 머리 염색을 하기 시작했다. 커피는 먹는 기호품으로 화학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머리카락에 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았다. 머리 염색하기 전 숯이 많은 솔로 머리 쌍피를 빗어 마사지해 준다. 머리카락이 빠진 부위를 조금 강하게 빗질해서 10분 정도 자극을 준다. 머리 감을 때마다 인스턴트 가루 커피를 큰 스푼으로 2스푼 소금 약간과 더운물 1큰 스푼 함께 녹여 머리카락에 바른다. 컨디션으로만 머리를

감는다. 다음날 샤워 시에는 샴푸를 사용하고 컨디션도 사용한다. 이렇게 한 지가 1년이 되었다. 나도 모르게 머리 빠진 부위에 머리가 나왔고 머리카락 색깔도 천하지 않은 노랑 색깔이 되어 보기가 그리 흉하지 않다. 그래서 선배 언니가 사진으로 본 나의 머리카락 색깔을 보고 칭찬을 한 것이다. 내 나이가 80이 넘었지만 내가 늙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언젠가는 은발로 돌아가겠지만 아직은 노란 금발로 있고 싶다.

나는 사무엘 올만의 시 「청춘」에서 이 구절을 좋아해서 늘 입에 다 달고 산다.

Youth is not a time of life. It is a state of mind,  
Years Wrinkle the Skin  
But to give up Enthusiasm Wrinkle the Soul  
청춘은 인생의 한때가 아니라 마음가짐의 상태다  
세월은 사람의 살갗을 주름지게 하지만  
열정을 포기하는 것은 영혼을 주름살 지운다.

“그래, 나는 열정을 포기하지 않았어.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며 재미있게 살고 있잖아. 누가 뭐라 하던 나는 아직도 청춘이야.”

혼자 중얼거리며 거울 앞에서 커피로 인해 금발로 변해버린 내 머리카락을 보며 멋진 하루를 보낼 궁리에 설렘이 가득하다.

그런데 금발의 청춘이 되었다고 좋아했던 나는 분명 용무가 있어 이층 거실에서 아래층 거실로 내려왔는데 무슨 용무로 아래층으로 내

려왔는지 도무지 생각이 안 난다. 깜빡깜빡하는 기억은 어떻게 고칠 것인가? 이 깜빡거리는 것 때문에 선글라스도 몇 개 잊어먹고 우산도 몇 개 잊어먹고 손목시계도 하나 잊어먹고 속상해한 일이 떠오른다. 깜빡하는 이 기억은 무엇으로 고칠 수 있나?

“나는 아직도 청춘이야.”

중얼거리던 입을 꼭 다물고 왜 아래층에 내려왔는지 지금도 생각 중이다.

“껍데기만 청춘이면 뭐하나?”

“깜빡거리는 청춘도 있나?”

마음 한구석에서 구시렁구시렁하는 소리가 들린다.

금발보다 깜빡깜빡하는 것은 무엇으로 고칠 수 있나? 고민 하나 생겼다.

## 멋진 도서관

### 차 덕 선

‘철거덕, 철거덕!’

오늘 아침 일찍 한 달 전에 왔던 나무 자르는 기계가 내 앞에 왔다. 오늘은 누구 차례야?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한 달 전에 내 앞줄에 있던 녀석이 잘려 나갔다. 오늘도 그때처럼 나무 자르는 트럭이 왔다. 노란 줄로 접근금지 줄을 치고 여러 사람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누군가를 자르려고 온 것이다. 옆에 녀석도 긴장하고 있다. 이번에 “형 차례야, 나이 따라 자르나 봐. 제일 큰 형이 한 달 전에 잘렸잖아. 오늘은 형, 아마 다음은 나일지 몰라.”

세상은 백세시대라고 오래 산다고 좋아하는데, 내 나이 100살인데 몸통을 몽땅 자르려고 하니 분통이 터진다. 지금도 내가 지닌 가지들은 왕성하게 뻗어 나가 무성한 잎을 뽐내고 있다. 나는 그들을 만들어 사람들이 쉬어 가게도 했다. 내가 심어질 때는 작은 나무였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작은 나무들이 덩치가 커지므로 뻑뻑하게 들어선 나무끼리 좁아 자리다툼을 할 정도로 복잡해졌다.

드디어 팔처럼 휘어진 기계가 나를 감싸더니 자르기 시작했다. 왜 나를 자르려고 하는가? 뜨거운 여름 햇살에 내 그늘에서 쉬며 놀기도 했던 사람들이 이제 너무 커서 너무 늙어 필요가 없는 모양이다. 슬

퍼서 몸부림을 쳐도 소용없다. 이픔을 참고 이 고통을 견뎌내야 한다. 내 몸뚱어리가 다 잘려 나가고 밑동만 남은 그루터기로 더 이상 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 나의 아름다운 모습은 영원히 볼 수 없는 불품없는 그루터기로 살아야 한다. 잘린 내 몸뚱어리는 같이 온 차가 기계에 넣어 작게 부수는 일을 한다.

삼시간에 내 100년의 일생이 잘게 부서진 아주 작은 나무조각이 되었다. 나는 큰 차에 실려 어린나무가 자라는 농장에 가서 비료가 될 때까지 그곳에서 산적해 있게 된다.

“형, 잘 가.”

옆의 녀석이 눈물로 인사를 한다. 언젠가는 잘게 부서진 나무 조각이 되어 비료로 산적한 자리에서 만날지도 모르는 우리는 그렇게 작별했다. 다시 태어날 어린나무들의 밥이 되는 것이다. 밑동만 남은 그루터기로 살아갈 생각을 하니 서글프고 을씨년스럽고 분통도 나지만 현실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내 신세가 가엽기만 하다.

그런데 두 달이 지난 어느 날 내 그루터기 몸통 위에 작고 깜찍한 예쁜 집이 하나 올려졌다. 내 집의 이름은 Little Free Library이다. Take a book, share a book이라고 안내 말도 붙여 있다. 안에는 그림이 있는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림책과 여러 가지 책들이 가득 들어있다. 이 책들을 가져가서 나누라는 것이다. 여러사람이 이 작은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 오기 시작했다. 외로워서 잠도 못 자고 너무 슬퍼서 우울증에 걸려 내 신세를 한탄만 했던 나는 내 몸통 위에 예쁘고 깜찍한 도서관이 세워지므로 그동안 한탄만 하던 내 팔자는 이제는 행복한 기다림으로 외롭지도 않고 우울증도 없어지고 즐겁기만 하다.

오늘 마이클과 마이클 엄마가 와서 일 주 전에 가져갔던 책도 가져왔다. 내 집 책장에 넣어 놓고 다른 책을 가져갔다. 제니가 가져간 책은 조금 두꺼웠다. 2주가 넘었는데 오지 않아 어디가 아픈지 걱정이 되기도 한다. 이제는 제니가 언제 올까 기다리는 나는 모든 아픔을 참고 슬픔도 참고 지금은 기다리는 행복 속에 나날을 보낸다. 그루터기라고 보잘것없다고 함부로 나를 불쌍하게 보았던 눈들이 지금 나의 모습을 보고 놀라며 감탄한다.

“와 멋진 도서관 좀 봐”

부러워하는 소리에 가슴을 펴고 기분이 좋아 어깨를 으쓱하며 폼을 재어본다.

노트

1) 성경에서는 이 Remnant라는 단어에 대해 미래를 위한 후대 시대와 국가의 어두운 앞날을 책임지고 나아갈 ‘남은 자라는 뜻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죄악과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과거 그들의 조상과 약속을 기억하고 언약의 사람들을 남겨 두셨는데 바로 이들 몇몇 남은 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되었고 이것이 성경 중심부에 흐르는 Remnant 사상이다. 성경과 역사 속에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전달자인 그루터기가 있다.



차 덕 선

부산 출생. 약사, 현 미국 하와이 거주, <그린에세이> 등단  
 2011년 <뉴욕문학> 수필 신인상, 하와이문인회 신인상, 한국산문작가협회 회원,  
 한국그린에세이작가회 회원, 미동부한국문인협회 회원, 재미수필문학가협회 회원,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원 Korean American Literature Academy(KALA) 회원  
 E-mail : gloria.d.cha@gmail.com

할머니와 장미꽃

- 동화 -

이 광 지

아침에 일어나면 할머니네 집안에는 꽃향기가 풍긴다.  
 예쁜 옷은 사 입지 않으셔도 시장에 가면 꽃을 사 오신다.  
 요즈음은 몸이 점점 약해지셔서 얼굴도 부으시고 기억력도 없으시다. 궂은일을 많이 하셔서 손등에 힘줄이 튀어나오고 주름이 지셨다.  
 어느 날 할머니의 꽃병에 꽃이 없이 비어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생화로 장미꽃 한 다발 사다 드리면 며칠 지나서 시들 것이고 물  
 같이주기도 힘드실 거야.’  
 그래서 빠알간 장미꽃 한 다발을 조화로 사다 드려 꽃아 드렸다.  
 “아하 참 예쁘다.”  
 할머니는 좋아하셨다.  
 며칠 후에 할머니네 집을 방문하고 깜짝 놀랐다. 꽃병에 물이 가득 넘쳐서 책상이 젖어 있고 방바닥까지 흘렀다.  
 할머니는 전에 하던 대로 장미꽃을 오래도록 보고 싶어 물을 준 것이다.

할머니는 점점 치매가 심해지셨고 아프시다가 저세상으로 가셨다.  
 봄철이 되면 곳곳마다 흐드러진 꽃 별판이고 6월이 되면 꽃처럼 웃으며 사시다 가신 할머니와 장미꽃을 생각한다.

그리고 마음으로 소리친다.

“할머니 보고 싶어! 장미꽃 더 많이 사다 드릴게.”



이 광 지

목사, 전 한국크리스천문인협회 회원

전 미주 'disapora' 편집인

저서 『교회학교 주일공과』, 『성경동화』, 『어린이 찬송가』 집필

E-mail : kwangilee@gmail.com







## 챗 지피티 세상 창작의 고통

홍 남 표

(미동부한인문인협회 소설분과 위원장)

안녕하세요. 미동부한인문인협회의, 소설분과 위원장이라는 과분한 자리를 맡고 있는 홍남표 인사드립니다.

어느덧 《뉴욕문학》이 33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991년에 태어나 장년의 길을 힘차게 걷고 있습니다.

역사를 함께한 원로 회원 여러분의 노고와 지원이 없었다면 이룰 수 없는 성과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저희를 지켜봐 주시고 소중한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원로 회원 여러분들과 임원진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챗지피티라는 프로그램이 작가들의 경쟁자가 된 세상입니다.

짜깁기 한 글이 인터넷상에서 대량 생산되고 있습니다. 창작의 고통은 더욱 심해지고 작가분들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과도기에 미동부한인문인협회는 끊임없는 시도와 노력으로, 보

다 나온 글쓰기를 위해 정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여러분 같은 문우들이 있어 마음 든든합니다.

저희가 짊어진 창작의 고통이 독자들에게는 큰 감동과 위로를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글 쓰는 여러분들의 끈기와 열정을 다시 한번 응원하며, 앞으로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별

김근영

별 할 일도 없이 하루를 무료하게 보낸 오후 시간대였다.

피곤과 함께 별의별 잡념들이 밀려와, 잠시 눈을 붙일 참이었는데, 꿈인지 생시인지 갑자기 요란한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타다다 단!”

아마도 엇그제 오더한 유피에스 배달부의 문 두들기는 소리겠거니……, 했는데, 또다시 그 소리가 울리는 것이다. “참 성질도 급한 배달부라.”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 그건, 어제저녁에 창가에 었어 둔, 핸드폰에서 울리는 소리였던 것이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쇠퇴하는 것이 치매의 초기 증상이라더니……, 의심하며 엇그제 일을 기억해 보았더니, 요즘, 신식 전화기 속엔 전화벨 울리는 기능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바흐의 ‘후가’, 브람스의 ‘협주곡’, 베르디의 ‘축배의 노래’, 하이든의 ‘놀람 교향곡’, 베토벤의 ‘운명교향곡’ 등 다양한 음악 벨 신호음이 기다리고 있었다.

‘참! 편리한 세상이야.’하며 선택한 효과음은 베토벤의 제5번 교향곡의 테마 음, 아까 울리던 “타다다단~”이었다.

젊은 시절, 우리가 한창 음악을 들을 때, 마치 미국 선교사 이름을 한국명으로 개명해서 불렀듯이, 베토벤도 우리말로 개명하여 ‘베도빈’

씨라 불렀고, 슈베르트는 ‘서병도’라고 우스개 삼아 불렀지만, 그 베도빈 씨가 깊이 잠들어있는 내 영혼을 흔들며 깨우고 있는 것이다.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치는, 배 밑창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요나’를 깨우는 소리 같은 것이었다.

어쨌든, ‘왜? 무슨 일로? 도빈 씨가 나에게 전화를 했을까?’ 수화기를 들어보니, 그건 남자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 인쇄소에 근무하는 교정사 김 양의 상냥한 목소리였다.

“어! 김 양이야! 별일 없겠지?”하니,

“사장님! 별일 있어요, 한 달 전에 ‘예육회’에서 사장님께 부탁한 그 ‘순수 음악’ 원고, 지금 얼마나 진척돼가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원고 마감 날짜가 며칠 남지 않아 황급히 드린 전화예요!”

예육회란 6.25 전란 때, 피난지인, 대구 향촌동 녹향이란 자그마한 다방에서, 시인 박목월, 작곡가 김동진, 김성태 씨 등, 서울에서 내로라 할약하시던 문인, 음악인들이 모여, 스메타나의 <나의 조국>을 들으며 막걸리잔을 기울이며, 기울어져가는 우리 대한민국을 걱정하면서, 예술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발족된 단체인데, 그 후에는 유근수, 이창수, 이정춘, 안창수, 김사장 등이 이어받아 명맥을 유지하던 터였고, 또, 일 년에 몇 번씩 계간으로 ‘예육’이란 음악 잡지를 만들곤 하였는데, 평소, 음악 좀 듣는다는 김 사장에게 청탁한 그 원고였다.

김 양의 전화 내용은, 이제 겨우, 원고 마감일이 며칠 남지 않았다 는 다급한 전화 목소리였다.

“김 양! 어찌나, 그걸 그만 깜빡했지 뭐야, 아직, 원고 초안도 잡질 못했는걸”하니, “사장님! 참 답답도 하시네요! 그 원고가 어떤 원고인

데! 지금에서 원고를 써서, 언제 탈고를 하며, 또, 언제 식지는 치고, 또, 언제 교정은 보고, 또, 언제! 인쇄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줌처럼 서두르지 않는 느긋한 김 양의, “언제!” “언제!”라고 호통치며 노래라도 하는 전화를 받으며, 누가 사장인지? 누가 점원인지? 주객이 전도된 이 시점을 어떻게 모면할까 하다가, 사장 체면은 살리고 싶어, 한 마디 한 것은, “김 양! 제발! 호들갑 떨지 마! 나도 생각이 있어!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쓸 테니 걱정 붙들어 매!” 호언장담은 했지만, 사실, 김 양의 다급한 호들갑이 다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시에, 정신이 번쩍 들어 원고지와 펜을 집어 들었지만, 도무지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써야 할지, 시상이 떠 오르지 않는 것이었다. 무얼 쓸까? 머리를 싸매다가 얼핏 머리를 스치는 묘안이 떠올랐다. 그건, 그 옛날 군대서 먹던 비상식량이었다.

“바로 그거야, 군대 얘기야!”

그것도 지금으로부터 5-6년도 훨씬 넘는, 고망년때 얘기이며, 전란 후, 보릿고개 때 소나무 껍질이며, 진달래 먹던, 그 시절 예길 꺼낼라 치면, 요즘 애들 아빤 또 그 얘기 꺼낸다고 빈정거릴 터이지만, 이럴 땐 그때 얘기가 효자노릇 단단히 한다면서, 또다시 그 가난했고 어려울 때의 추억의 나라를 펼쳐 보는 것이다.

인쇄소 김 사장이 아랫도리 다 벗고 다니던 철 없던 시절, 6.25가 터졌고, 그때 대구 애락원, 나병환자 교회에는 평양에서 피난 오신, 김중은 목사님이 부임하셨고 마침, 자매결연 격인 여수 소록도 애양원의 손양원 목사님과 절친한 친구가 되어서 서로 왕래하며 부흥회를 인도하셨는데, 한번은 손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부흥회를 하실 때, 어머니께서는 보리밥도 먹지 못하던 그 시절 어디서 구해 오셨던

지 그 귀한 소고기 등심국과 하얀 쌀밥을 지으셔서 대접을 하시곤 했었다.

누이들은 손 목사님이 진지를 다 드시지 않고, 상을 물리시는 것을 은근히 바랐던 터라, 장난기 어린 행동으로 손가락에 침을 발라 창호지에 구멍을 내어, 식사 장면을 몰래 훑쳐보며, “언니! 손 목사님, 밥에 물 부으셨어?” 등 뒤를 찌르며 묻곤 하였는데, 물을 부으시면 밥을 남기시지 않는다는 암묵의 사인이었고, 그럴 때마다 늘 실망하여 돌아섰다는 것이다.

그 몇 년 후,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 공산당에게 살해되었다는 비보가 날아 들었던 것이다.

김 사장도 어느덧 하던 인쇄소 견어치우고,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동인이 동신이 두 형들을 총으로 쏜 죽인 공산당을 복수하기 위해, 대한민국 육군 김 일병 특등사수로 변신해 D.M.G 철책선 야간 근무할 그때로 돌아가는 타임머신에 시동을 걸고 있었다.

흙먼지 덮어쓰고 트럭에서 내리자마자 D.M.G 대남 확장기에서 들리는 소리는 피양 사투리의 북한 여자 아나운서의 앙칼진 목소리였다.

“우리는 날마다 경애하옵는 수령님 덕분에 ‘고깃국에다 이밥’ 배터지게 먹고 있습니다. 보릿고개에 굶주린 이남 동무들 냅다 이쪽으로 건너 오시라요!”

그럴 때마다. 전라도사투리 육쟁이, 우리 선임하시는 “너거들 저 피양 기생 같은 년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랑께! 오늘 우리 부대 메뉴

는 대통령 후보 기호 2번, 박정희 후보가 내는 돼지고기국 이랑께!” 하며 우릴 위로하곤 하였는데, 반복되는 거짓말의 속성이란 마력에 홀린, 이웃 중대 황 일병은 그 말을 끝이듣고 월북하여 매일 밤마다 대남 방송을 통해 우릴 유인하고 있었다. “김 일병! 선임하사님! 저는 매일마다 고깃국에 이밥 실컷 먹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금강산으로 휴가 떠납니다!”하며 우릴 유인하고 있었다.

김 일병도 그 거짓 선동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짜낸 묘안이 바로 고전 음악 감상이었다. 그래서 첫 휴가 때 양키시장에서 산 고물 소니 라디오에 귀를 대고, 서울 남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볼륨을 높이니, 언젠가 유피에스의 노크 소리라 착각했던 배도빈 씨의 운명 교향곡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베를린 필 하모니와 카라얀의 지휘였는데, 추위에 덜덜 떨던 김 일병도 카라얀의 보조 지휘자가 되어, 신이 나게 손을 흔들며 야단법석을 떨고 있었는데, 아마도 4악장 ‘코다’의 절정에 이르렀을 무렵 쫓아왔을까? 갑자기 누군가가 지휘봉으로 김 일병의 철모를 후려갈기는 소리와 함께, 별 하나가 번쩍하며 나타난 것이었다.

“이 총! 어떤 놈의 총이냐?”

호통치는 사람은 작업모에 별 하나 계급장을 달고, 야간 비밀 경계 순찰을 나오신, 준장 사단장님이셨다.

사단장님이 철조망에 팽개쳐 걸어둔, 김 일병의 소총을 빼앗아 들고 계시는 것이다.

전쟁터에서 만일, 병사가 적에게 총을 빼앗기는 날엔 곧 죽음이나 다를 바 없다는 엄중한 교육을 귀가 아프도록 들어 왔던 터라, 이 큰

별이 청천벽력, 나에게 떨어졌다고 인식한 바로 그때였다.

“내가 너를 당장 군법 징계 위원에 회부하여 엄벌에 처할 수도 있겠지만, 내 아들 같은 놈이 이 영하의 추위에 얼마나 추웠으면 벌벌 떨며 손을 흔드는 것을 보이하니 측은히 여겨 그냥 가벼운 경범죄인 영창 10일에 즉결 처분하노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는 훈계와 함께, 그 별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고…….

그날 밤, 김 일병은 그 별의 명령대로 검은 죄수복에다 검정 고무신을 신은 채, 마치 지옥만 같다고 소문난 연대 위병소 차가운 반지하 영창에 수감되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다.

“이젠 죽었구나! 히는 탄성의 체념과 함께, 영창(營倉) 안에 뚫려 있는 영창(映窓) 밖으로는 이미 어둠이 밀려왔고, 이상하게도 그 영창을 바라보는 김 일병의 눈앞에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다. 그 별은 나를 영창에 가둔 별과는 다른 별이었는데, 얼굴이 새하얀 별! 마치, 첫 휴가 때 그녀와 함께 잔디밭에 누워서 본 그 직녀성과 같은 별이 아닌가!

“이 지옥과 같은 영창에서 저 직녀성을 다시 볼 수 있다니…….”하는 순간! 철창 밖에서 요란한 군화 소리와 함께, 험상궂은 한 사나이가 들어오며 소리치는 것이었다.

“아니! 이게 누구십니까? 인사과 김 일병님 아니십니까!”

‘여기에 우째서 들어 왔느냐?’ 물으며 소리치는 사내는 이 영창에서 악명 높다고 소문난, 경상도 토박이 배건설 병장이었다.

그리고는 김 일병은 “보초 때, 배도빈의 음악을 들으며 벌벌 떨며 손을 흔들고 있다가, 별 하나인 사단장님께 발각되어 왔노라.”고 진술하니, 다짜고짜 ‘그 배도빈이라는 자의 정체는 누구?’며 또 얼마나 무

서운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벌벌 떨었나며, 마치 김 일병을 위해서라면 복수라도 해줄 양으로 목소리를 높인다.

“아, 그 배도빈 씨는 제가 제일 존경하는 독일의 작곡가의 별명입니다.”라고 하니 그제서야 하는 말이, 걸작이었다.

“그러면 그렇지! 우리 배씨 가문은 모두들 음악에 소질이 있고, 음악 하면 끝내주는 음악 가문인 걸요!”하며, 가문 사랑을 늘어지게 하며 한다는 말,

“난 우리 집안 형뻐 되는, 한국 유명 가수 ‘배호’가 불렀던 〈울긴 왜 울어〉를 제일 좋아해요! 김 일병님도 여기 영창에 계신다고 울거나 떨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계십시오! 우리가 어데 남입니까?”하며 계속해서 한다는 말은 “영창에서 주는 콩밥이 지겨우시다면, 우리 애들 시켜, 라면도 끓여 드릴 것이고, 추우시면 오리털 침낭에다 소설책, 성경책, 만화책, 라디오까지. 다 넣어 드릴 테니, 아무 염려 말라.”고. 갖은 친절과 호의로 연기(?)하는, 배건술 병장의 심리 저의를 아무리 눈치 없다는 김 일병인들 조금은 눈치를 채고 있었던 것이다.

때마침, 죽음의 사지인 월남 전쟁이 시작되던 때였고, 맹호부대 용사들의 부산항 출항을 계기로 육군본부의 파월 병사 차출이 시작되어 당시, 현역 군인들은 너도나도, 파월 장병 강제 차출에서 면제되기만을 간절히 바라던 때였다. 비록 김 일병이 말단 졸병 계급장을 달고, 영창에 들어온 영어의 품이긴 했지만, 연대 인사과의 월남 병사 차출의 중대한 임무를 띤, 일선 실무자로 그 편대를 거머쥐고 있다는 것을 배건술 병장인들 모를 리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배건술 병장의 호의에 위로를 받는 듯 보였지만, 사실 김 일병의 마음은 매일 밤마다 영창 속에 떠 있는 저 별과의 은밀한 대

화가 유일한 위안이었고 즐거움이었던 것이었다.

벌써, 영창 생활 9일째 되던 날이었다.

연대 인사과 신상철 병장이 제대복을 입고, 군대 매점에서 막걸리한 병을 사들고 면회를 온 것이다. 신 병장은 서울 모 명문대 S대학에서 국어국문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엘리트 출신이었고, 김 일병의 직 상관으로 얼굴에는 대한민국 지도마냥, 검붉은 반점이 있는 개성과 지성을 겸비한 인상을 가졌고, 이제 3년 만기 제대를 겨우 하루를 앞둔 터였다.

“김 일병! 차가운 이곳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이것 한 잔 쭉 들이키게, 물론, 자네가 예수 믿고 술 못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말이야!”하면서, 독일에서 신학 박사 공부한다는 자기 외삼촌에게서 한국 교회 실정을 어깨 넘어 들어 조금은 짐작한다면서, 김 일병에게 은근히 음주의 정당성을 간접적으로나마 인식시키려는 의도가 깔린 뜻으로 풍월을 읊어대는 것이다.

즉, 말하자면 ‘한국 기독교는 한국사회의 폐습 운운하며 선교사들이 만든 금주 금연이란 관습법의 영창에 갇혀 맨날 울며불며 죄의식 타령, 회개 타령, 하나님 앞에서 각설이 타령만 하다 교회 출퇴근한다’느니, ‘세계적인 보수주의 신학자 칼 바르트나, 히틀러 암살 주범으로 옥에 갇힌 담배 골초인 본 회파 목사가 하는 술 담배는 전혀 죄가 되지 않고 유독 한국 교인들에게만 죄로 적용시키는 것은 보편적 기독교 윤리에 어긋난 한국적 민주주의에 편승한 한국 기독교 만의 횡포라’느니 하면서 최근 입국한 외삼촌의 어깨 너머로 들은 뉴스라며 읊어대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국제 사회의 산업 생산 부조리까지 들추어내면서 마치 한

국 기독교 평론가인 것처럼 목에 핏대를 올린다.

‘한국 사람들이 편의상 만든 짝퉁 기독교가 중국 사람들이 만든 짝퉁 롤렉스 시계니, 짝퉁 루이비통 가방과 무엇이 다를 바 있는냐?’는 것이다. ‘예수님도 직접 포도주를 만드신 장본인이고, 최후의 만찬 때는 꼬냑과 같은 독한 술을 돌렸다.’는 등……, ‘서울의 한 대형교회 어떤 장로는 주가 조작하여 수 10억을 챙기고, 고급 나이트클럽에서 돈을 물 쓰듯 뿌리면서 고작 몇백만 원의 감사헌금을 하고 성자 취급을 받는데, 휴자나 주위 생활하는 한 집사는 그렇게 고된 노동 끝에 목이 말라 선술집에서 막걸리 한 잔 했다는 죄로 예배당 뒷석에 꿰어앉아 근신하는 형벌이 너무 불평등한 현 한국 교회의 가혹한 횡포가 아니냐?’는 것이었다.

이렇게 현 한국교회와 무슨 원수라도 진 사람들처럼 침을 튀기며, 김 일병과 신 병장은 서로 박장대소하며 막걸리병을 주거나 받거나 하며 나팔을 불 때, 갑자기 신 병장이 언젠가 몇 달 전에 사무실에 들어오시면서 등 뒤에 편지 하나를 감추며 들어와 “김 일병! 지금 당장 매점에 달려가서 막걸리 한 병 사 가지고 와! 아마도 김 일병이 펜팔하며 죽고 못 산다는 그 여학생 편지 같아 보이는데 막걸리 한 병과 교환하자!”고 제안하며, 김 일병의 애간장을 태우던 일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침을 튀기며 한다는 말씀은, “자넨 겨우 별 하나를 만나, 영창 살고 있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 어떤 사람은 밤에 길가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똥에 맞아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땅이 갈라지는 지진에 빠져 죽는 사람도 있어. 아 참! 말이지. 김 일병이 영창 가는 날 그날이네! 우리 연대 취사병이 월동 준비용 김

장독을 문으려고 뒷산에서 곡괭이로 땅을 파다가, 6.25때, 인민군이 묻어 놓은 대 전차지뢰 뇌관을 때렸는지 뭐가! 전차도 부숴 버린다는 그 폭탄이 터졌으니 어떻게 된 줄 아냐? 짐작이나 가? 취사병이 그 폭탄에 맞아, 만신창이가 된 그 시체가 무려 500미터 떨어진 우리 인사과 내무반 문 앞에 떨어져 있었어!”

그 취사병을 김 일병이 잘 알고 있는 이유는 어느 날 아침 배식 후 인가? 배가 차지 않아, 밥그릇을 창구에 놓으며 밥 한 주걱만 더 달라 애걸했을 때, 밥그릇을 식당 바닥에다 내동댕이쳐 ‘쨍그렁’하며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김 일병에게 창피를 주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그놈은 고집까지 세서 우리 군목 소 목사님이 늘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천당 가자’고 전도하면, ‘교회 가서 100원 헌금하고 겨우 9월이나 얻는 손해 보는 짓은 안 하겠다.’고 늘 손익계산서를 쓰며 군목 소 목사님 속을 썩이더니, 결국, 그놈의 장례식은 누가 치른 줄 알아? 또, 구원 얻지 못하고 떠난, 그놈의 시신을 짊어지며 눈물까지 흘리시더라고, 찻찻!”

“그런데 김 일병, 이게 다 뭐야? 순수문학 소설책이잖아! 김동리의 『까치 소리』, 황순원의 『소나기』, 김동인의 『발가락이 닳았다』 어쭙! 이건 또 뭐야! 신이 죽었다는 목사 아들 니체의 철학책이며, 로맹 롤랑의 『베토벤 전기』 며……, 김 일병은 지금 영창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호텔 생활을 하고 있구먼!”하시면서 자신의 심중의 소리를 꺼내는 것이다.

자신도 비록 국문학과에 몸담고 있지만, 그렇게나 지루하고 케케묵은 순수문학 논쟁은 이제 신물이 난다는 것이고, 순수문학을 해봐야 돈도 안 되고 딱 굶어 죽기 십상인 직업이라느니 투덜거리며, 김 일

병도 보아하니 순수 음악에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동네 사정은 어떠냐?’ 물어 오는 것이다.

그래서 신 병장의 배고픈 순수 문학동네 얘기에 동조라도 하는 듯,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예요, 늘 대중음악의 그늘에 밀려, 트로트 공연에는 모두들 아담법석 떨어지지만, 순수음악회는 파리만 날리는 형국이에요.”라고 맞장구치면서, 김 일병은 첫 휴가 때 겪은 일이 얼핏 생각나기도 해서, 한마디 거들어 보았다.

“휴가 첫날 서울 호암아트홀 개관 기념 공연으로 본 일본 NHK교향악단이 연주하는 차이코프스키의 ‘비창’ 공연 때의 일이었는데, 마지막 악장의 짧은 첼로에서 연주가 끝난 줄로만 착각한 청중들의 성급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고 또, 심지어는 기립박수까지 치며 지휘자를 곤혹스럽게 했다.”는 해프닝을 얘기했지만, 갑자기 지휘자의 황당해하는 모습이 어찌면, 몇년 전, 김 사장에게 원고 독촉을 하며 황당하게 호들갑 떠는, 인쇄소 김 양의 모습으로 오버랩되고 있었다.

그래서 이참에, 그때 쓰고 싶었던 원고를 요약하여, 신 병장과의 대화로 이어 가고 싶었던 것이다

“신 병장님! 사실 말이지 순수문학과 순수음악은 다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쌍둥이 남매나 같은 것이지요”라며 시작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그건, 음악과 문학의 상호 예술성의 미학으로, 단테의 『신곡』이나, 멘델스존이 쓴 셰익스피어의 『한 여름밤의 꿈』이나, 『로미오와 줄리엣』, 마스네가 쓴 『돈키호테』, 스트라우스의 『살로메』, 로시니의 『신데렐라』, 루소의 『마을의 점쟁이』, 괴테의 『파우스트』, 오펜바흐의 『호프만의 이야기』, 리하르트 스트라우스의 『차라투스

트리는 이렇게 말했다』 등 무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순수 음악과 순수 문학의 만남을 얘기하며, 또 우리나라에서도 일찍이 공연된, 현재명의 〈오페라 춘향전〉, 박재훈의 유관순, 손양원, 장일남의 〈원효〉, 〈콩쥐 팥쥐〉, 〈왕자 호동〉, 〈이순신〉 등이 다-음악과 문학의 상호 밀접한 관계성을 가지고 창작된 것이라며, 지루한 예를 열거하였다.

그리고는 곧장 신 병장이 그렇게 빈정대던 ‘니체’ 얘기로 마무리하기로 작정하였다.

“신 병장님, 니체 있잖아요?”하며 시작하니,

“김 일병! 또 신은 죽었다는 그 괴변쟁이 목사 아들, 니체인지 시체인지 하는 그 철학자 얘기 할려고?!” 하는 것이다.

“신 병장님, 니체는 괴변쟁이가 아닙니다. 그는 『짜라투스트리는 이렇게 말했다』는 등 훌륭한 저서를 남겼을 뿐 아니라, 베토벤과 바그너, 쇼팽의 광이었고, ‘신은 죽었다.’고 했지만, ‘음악의 신은 죽지 않았다.’면서, 자신은 장래에 ‘음악 하는 소크라테스가 되겠다.’고 했으며, 심지어는 ‘나의 베토벤은 너희의 베토벤과는 다르다.’고 고집하며, 순수 음악에 대한 깊은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그의 논술서에서는 “음악이 없는 삶은, 잘못된 삶이요 피곤한 삶이며, 유배당해 영창 사는 삶이다.”라고 하면서, 인생사에서 음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순수 음악이나 순수문학이란 것은, 마치 조각배를 타고, 인생이란 망망대해를 외로이 노 저어가는 뱃사공에 비유하며, 꾸준히 항해를 하다 보면, 셰익스피어, 괴테가 살고 있는 섬도 만날 수 있고, 바흐, 베토벤 같은 즐거운 섬도 만날 수 있으니 우리도 저 뱃사공같이 매일 노저어 가야만 한답니다.”하니, 신 병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척하더니 하시는 말씀.

“김 일병! 도사 앞에서 요령 혼드는 설교 그만하구, 밖이 벌써 어두워져 별이 떴구먼 그래! 우리 둘의 운명의 시간이 드디어 다가온 것 같아, 지금 작별하면, 우리 언제 또다시 만날 수 있을까? 살아생전에 말이야!”하며, 눈시울을 적시는 신 병장님을 보며 “신 병장님! 언젠가는 판문점에서 열릴 우리의 소원이었던, 남북통일기념 행사장의 불꽃놀이와 함께, 다시 울려 퍼질, 베토벤 운명 교향곡 들으며, 신 병장님을 다시 만나길 소원해 봅니다!” 하는데, 등 뒤에서 갑자기

“타다다 단!”

노크 소리를 내며, 배건술 병장이 문을 따고 들어와 “승리!”라는 거수경례와 함께, “지금 즉시! 김 일병을 출소시키려는 사단장님의 명령이십니다!” 하면서, 출소하는 김 일병 귀에다 손나발을 대며 한다는 말은 “김 일병님! 출소하시면 파월 차출 명단기안서에서, 제 이름 배건술!을 꼭 기억해 주실 거지요?”라며 재차 확인하는 울먹임의 소리를 들으며, 신 병장과 함께 감감한 영창 문을 나서며, 김 일병이 그렇게 아끼던, 소니 라디오와 때 묻은 신약성경을 꺼내어 신 병장님께 건네며, 평생 처음으로 설교하였다.

“신 병장님! 예수 믿고 구원 받아, 천당에서 다시 만나요!”

그때, 어둠 속 저 멀리, 서쪽 하늘 스카이라인으로부터, 석별의 정을 아쉬워하는 두 병사의 머리 위로, 긴 궤적을 그리며. “별” 하나가 지나가고 있었다.



김 근 영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대한민국 육군 병장 제대  
대구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한국기독교100주년 통합 영남신학대학 졸업. 본부  
농어촌부 목사  
장노회 신학대학 및 대학원 졸업. 포항 북부, 김포금곡중앙 시무

## 해풍

### 나정길

동편 하늘이 환하게 밝아온다.

박 서방은 바짓부리를 접어 올리고 돌 축대를 내려와 갯벌에 맨발을 던진다. 발이 차갑다. ‘어느새 가을이 갯벌에 왔구나’하고 느낀다. 축대 위에 놓아둔 짐꾸러미를 내려 한 손에 들고 축대와 갯벌에 길게 걸쳐 논 노를 다른 편 어깨에 맨다.

뒤뚱거리며 갯벌을 걸어 아직 새벽의 어둠에 싸인 전마선으로 간다. 뱃전에서 노와 짐을 내려놓고 다시 돌아와 축대의 큰 돌에 감겨진 밧줄을 벗겨 들고 이물 쪽에서 배에 집어 던진다. 이물에 걸터앉아 담배를 한 대 피워 문다. 새벽의 썰물 때를 맞춘다는 것이 조금 이른 것 아닌가 생각한다.

멀리서 장닭이 길게 해치는 소리가 들린다. 이 바다 마을은 아직도 조용하다.

오늘 따라 박 서방은 자기 혼자만 마을에 살고 있는 듯한 느낌에 빠진다. 갯벌은 바닷물 쪽으로 경사져서 갯벌 위에 얹힌 배들을 바닷물에 띄울 때는 배를 밀어서 썰매를 타듯이 미끄러지게 한다.

피우던 담배를 갯벌에 집어 던진다. 담뱃불이 ‘피지직~’ 소리를 내며 꺼진다.



나지막한 자세로 등을 이물에 기대고 양팔을 넓게 벌려 선체를 붙잡고 좌우로 흔들며 밀어댄다. 물기 있는 촉촉한 갯벌 위를 배는 쉽게 미끄러진다. 그는 뒷걸음질을 하며 깊게 파진 발자국을 본다. 배가 빠르게 미끄러지자 재빠르게 이물에 뛰어오른다. 언덕에서 신나게 썰매를 타는 아이들 같은 기분을 맛본다. 고물과 뱃전에 흰 물살을 일며 전마선은 바다에 내려와 빙그르 반원을 그린다. 이물에 걸터앉아 바닷물에 발을 흔들어 씻는다. 고물로 가서 닻을 끌어 올린다. 조그마한 쇠닻을 고물의 선판에 올려놓고 다시 이물로 와서 노를 물에 내리고 돛병을 능숙하게 맞추어 끼우고 병아줄을 썩운다. 노를 길게 헤쳐어 큰 바닥으로 나갈 방향을 잡아 놓고 이물 쪽 선판에 편하게 앉는다.

나지막한 언덕에 층층이 붙어있는 초가들을 올려다본다. 마을의 동편과 서편 그리고 뒤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남쪽만이 너른 갯벌이 펼쳐져 있다. 밀물 때는 바닷물이 갯벌을 덮고 썰물 때는 기다란 물줄기가 마을 앞을 휘어 돈다.

그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보잘 것 없는 조그마한 어촌이었지만 이제는 자동차도 들어오고 학교와 예배당이 세워지고 병원도 생기고 면사무소도 생겼다. 그러나 박 서방만은 옛날에 살던 그 초가집에서 별로 달라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큰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선들은 보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조금 때가 되어야 입항할 수가 있다. 그동안 바다에서 쓰는 일용품이 떨어지면 아쉽게 된다.

박 서방은 성냥, 담배, 술, 여러가지 양념, 그리고 야간조업용 까쓰 등에 필요한 연료까지 가지고 가서 어선들에게 나눠주고 대신 고기로

바꾸어 물에 돌아와 파는 일을 해왔다.

그는 이물의 선판에 앉아 가볍게 노를 꺼안고 한 손으로 슬슬 노를 젓는다.

배는 썰물을 타고 빠르게 떠내려간다. 지푸라기와 나무토막에 얽힌 더러운 물거품이 갯가에 떠 맴돌다가 가운데 선 물살에 휩싸이면서 함께 떠내려간다.

서편에 버티고 선 곰보 모양의 산봉우리에 햇살이 비친다. 이 산모퉁이를 돌아서면 바다에 나선다. 마을의 집들에서 아침 짓는 연기가 피어오른다.

박 서방은 으스스 한기를 느낀다. 소주병 마개를 따고 그릇 뚜껑에 술을 가득 따라 짐꾸러미에서 마른고기를 찾아 뜯으며 천천히 술을 마신다.

박 서방보다 늦게 떠난 범선 한 척이 돛을 활짝 펼치고 전마선이 물 쪽을 뒤쫓아 온다.

사람들은 박 서방더러 눈물도 없는 매정한 사람이니 쇠처럼 강한 사람이니 개미처럼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니 제각금 떠들어댔다. 그러나 그 자신은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아픔 속에 살아왔다. 어려움과 두려움을 모르고 바다를 헤쳐 다니는 것도 기구한 지난날을 억지로 잊지는 방편이기도 했다.

전쟁은 그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앗아갔다. 딸 향이가 경찰과 결혼할 때만 해도 동네 찬치를 하고 좋아라 했다. 전쟁이 터지자 사위는 한밤중에 허겁지겁 인사를 하고 떠나갔다. 딸은 잠시 친정으로 돌아와 은거하고 있었다.

시택 식구들은 내무서에 끌려가 그 후 소식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어느 날 이른 아침 내무서원들이 들이닥쳐 누나를 끌고 가려 하자 동생 철이는 그들을 막아서서 ‘누나는 이혼을 했으니 도망간 사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우겼다.

내무서원들은 철이마저 묶어서 끌고 갔다. 두 남매가 끌려가는 광경을 뒤에서 떨면서 지켜보던 아내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옛날 지서를 내무서로 사용하고 있었다. 내무서원은 낯모르는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네 사람들이었다. 철이는 누나를 살려 달라고 애원을 했다.

‘네가 우리에게 협조를 잘하면 너의 누나도 부모들도 다 살 수 있다.’고 은근한 목소리로 꼬드겼다. 철이는 하룻밤을 곰곰이 생각했다. 그들을 돕더라도 사람을 해치는 짓은 절대 하지 않으리라고 혼자 다짐을 하고 내무서장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그들이 말하는 반동 색출은 동네 어른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누나는 바닷가에서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인민재판을 받게 되었다.

붉은 완장을 찬 몸집이 든든한 여자의 악의에 찬 주장에 사람들은 ‘옳소’하는 응답으로 재판은 끝났다. 김 부자, 누나, 국방군 아내 손씨와 함께 바닷가에서 총살형을 당했다. 시신은 모두 바다에 던져졌다.

세상은 또다시 바뀌었다. 공산당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고 철이는 부모만 두고 갈 수 없어 망설이다가 붙잡혀 경찰서로 끌려갔다. 철이는 내무서에 다니며 여러 사람들에게 미리 도피하도록 알려 살렸다. 가족이 희생당한 몇 사람의 앙심으로 부역자로 몰려 바닷가에서 처형을 당했다. 이들의 시신을 거두어 공동묘지에 묻

고 돌아와 아내는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

박 서방은 한동안 술로 보냈다. ‘무슨 놈의 세상이 형제간에 죽이고 이웃간에 원수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푸념하기도 했다. 아내를 따라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하늘이 준 목숨을 스스로 끊을 수 없고, 사는 날까지 살아보자고 스스로 마음을 다잡았다.

햇살이 제법 따갑다. 바람과 물길도 바뀌는 느낌이다. 환히 보이는 배들도 가깝지는 않다. 부지런히 노를 저어야 한다. 팔과 몸으로 기계처럼 노를 저으면서도 생각은 늘 자유로울 수 있다. 노 젓는 수를 셈하기도 하고 해안선에 웅크리고 있는 집들을 세어보고 풍어기에 수지맞은 지난 일들을 생각해본다.

발동선 한 척이 섬 뒤편에서 돌아온다. 피곤하고 지친 날에 같은 방향의 발동선을 만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발동선의 이물에 밧줄을 걸고 노도 젓지 않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반대 방향에서 오는 동력선 그것도 큰 배가 지나며 일으키는 물살은 작은 전마선을 크게 흔들며 위협한다.

넓은 바다라고 아무 데나 다닐 수는 없다. 육지가 가깝고 섬이 많은 곳은 흙모래가 바다 밑을 알아지게 만든다. 바다에서 푸른 빛을 띠고 깊은 데가 뱃길이 된다.

뱃길을 따라오가다 보면 이는 배도 모르는 배도 만나게 된다.

통통통, 발동선 소리가 가깝게 들리자 김가네 배인 것을 금세 알게 된다. 김가네 아들이 엔진을 보고 김가는 키를 잡고 다정히 다니는 것을 볼 때마다 은근히 샘이 나고 자신의 처지가 서글퍼진다.

“어이, 박 서방인가. 오늘은 일찍 떴네.”

김가네도 곧 알아보고 소리 지른다. 박 서방은 바로 대답하기 싫어

조금 뜸을 두었다가

“으디서 오는가?”

“습에서 오네”

“재미는 으뜰가?”

“돼지 좀 가져오네. 으디로 가는가?”

“새우 어장을 가는 디 으쩨런가 모르 것네”

“그럼 재미 많이 보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말을 나누는 사이 배들은 가까워졌다가 멀어진다.

통통거리는 발동선의 여운이 사라지자 바다에는 더 짙은 외로움이 남는다.

바다가 말을 한다. 한평생을 바다에서 보낸 박 서방은 바다의 말소리를 알아듣는다. 얼굴을 스치는 바람이 상쾌하고 태양이 눈 부시게 빛날 때는 뱃전에 물살이 출렁거리며 상쾌한 기분을 알린다. 하늘에 검은 구름이 덮고 거센 바람이 불 때 파도는 화가 난 듯 배를 심하게 흔들며 두려움을 전한다. 사랑하는 처자식과 가정의 재미를 다 잃어 버리고 버티어 올 수 있었던 것은 이 다정한 벗이 있었기 때문이다.

중화잡이 어선들 쪽으로 전마선이 가까워지자

“박 서방이다.”

반갑게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해는 벌써 중천에 떠 있다. 서두른 덕에 한 시각 쯤 일찍 당도한 느낌이다. 햇볕에 거슬린 검은 이마에 솟은 땀을 팔뚝으로 문질러 닦고 노를 힘껏 젓는다. 여느 때와는 달리 어선들의 갑판 위에 사람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어쩐지 중화잡이

가 신통치 않게 느껴진다. 주 서방네 어선 중 가장 큰 배의 이물 쪽에 전마선을 밀어붙이고 밧줄을 배 위로 집어 던진다.

꼬마 화장이 나와 반갑게 줄을 받으며

“박 서방 어른, 찬거리 많이 가져 오셨어요?”

“그래, 간장 고추장 식초 된장 술도 있응게, 니가 알아서 덜어 오니라. 물은 좀 으뜨냐?”

“이번은 별 재미 없구만이라우.”

“사공은 으디 가셨냐?”

“화가 나서 아침도 안 뜨시고 뱃장에서 주무시는 구만이라우.”

박 서방은 수건으로 땀을 훔치며 뱃장으로 내려간다. 뱃장 속은 어둡고 퀴퀴한 냄새가 난다.

“잡으라는 피기는 안 잡고 낮잠들 만 퍼자, 싸게들 일어 나드라고”

“음, 박 서방인가.”

사공을 따라 다른 어부들도 부시시 일어난다. 박 서방은 답답하게 느껴져 다시 갑판 위로 올라온다. 뱃장의 눅눅한 냄새를 더 견딜 수 없다. 그는 담배를 피워 물며 주위에 한가롭게 떠 있는 중선들을 바라본다.

목조인 중선들의 생명줄은 바다 밑에 내린 큰 나무 닻이다. 이 닻은 쇠줄로 배와 연결되어 있다. 그 쇠줄은 ‘그리스’를 발라 ‘형집’과 ‘로프’로 정성스레 감은 ‘와이어선’이라는 것이다. 고기를 잡는 그물은 위쪽은 뜨도록 대나무를 달고 아래는 참나무에 돌을 매달아 와이어선에 연결하여 바다에 가리얏게 한다. 밀물과 썰물 때마다 그물은 큰 고기의 입처럼 벌어져 떼지어 다니는 물고기들을 삼킨다. 어망 속에 한 번 들어간 고기들은 물러날 줄 모르고 맨 끝의 쫄쫄한 그물에 빠

저든다.

그물 끝은 줄로 이어져 수시로 들어 올려 고기를 털어 낸다. 고기 떼가 몰려다녀 어느 배는 풍어를 만나는데 어떤 배는 바로 옆에 있어도 잡어 몇 마리밖에 못 잡는 경우가 흔하다.

“박 서방, 밥이나 같이 드시게.”

사공이 부른다. 그는 어부들과 함께 둘러앉아 아침과 점심을 겸한 식사를 한다.

다른 때는 이상한 냄새가 나는 뱃밥도 오늘은 유별나게 맛이 있다.

“저쪽 배들은 좀 으떠.”

박 서방이 한 공치의 밥을 끝내며 사공에게 묻자.

“마찬가지여, 가보나 마나여. 전번 물때는 그래도 괜찮혔는디.”

“인자 물때도 바뀌져 큰 바닥에는 글렀고, 마른 것은 좀 읍슬가?”

“가오리 하고 풀치 말린 것이 있을 것이구만.”

“술이나 더 들어.”

“그래, 출출하던 참이라, 자네도 오늘은 공치는 날인 게 술이나 들세.”

배에서 술안주는 생선찌개나 마른고기면 충분하다. 술맛에 안주를 들고 안주 맛에 술을 더 들게 되어 뱃사람의 술자리는 취하도록 마신다. 잔잔히 불어오는 바람이 반주로 마신 술로 열이 오른 얼굴을 기분 좋게 식혀준다. 바다는 살아있는 생명체 같다는 느낌이 자주 든다. 해가 비추고 잔잔한 바람이 불 때는 작은 파도가 뱃전에 출렁거리며 즐겁게 노래한다. 검은 구름이 세찬 바람을 몰고 와 화가 나면 거대한 파도가 작은 배들을 삼키려 한다.

“나 한숨 잘랑게, 뭇일 있으면 깨우소.”

그는 말을 던지고 뱃장으로 내려왔다. 취기 탓인지 냄새도 느끼지 못한다. 베개를 찾아 눕자 금새 잠이 빠져들었다.

운동회 날이다. 만국기가 학교 운동장 위에 펄럭인다. 아들 철이와 한쪽 다리를 묶고 삼각달리기를 한다. 아내와 딸이 응원을 하는데,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는다. 일등으로 들어온다. 아들은 깡충거리며 좋아 하고 자신은 이마의 구슬땀을 옷소매로 닦으며 운동장을 걸어서 나온다.

“어르신, 싸게 일어 나시잉, 날씨가 이상해 졌으라우”

화공이 급하게 흔들어 깨운다.

박 서방은 서둘러 갑판 위로 올라왔다. 하늘은 어느새 먹구름으로 덮였고 풍어 때만 쓰는 선미에 누여진 삼색 깃발이 세차게 펄럭인다.

“전마선을 띄어 가까운 물으로 싸게 움직이드라고”

사공이 재촉한다.

“젓 먹은 기운까지 내서 닻을 빨리 올리 드라고”

사공이 선원들을 다구친다.

뱃줄을 감아올리는 것에 매달린 어부들이 땀을 흘리며 애를 쓴다. 뱃줄에는 그물이 묶여있어 태풍에 닻을 잃어버리면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다. 박 서방은 돕고 싶었지만 ‘어서 서두르라’는 사공의 말을 뒤로하고 선미에 매어 둔 전마선 쪽으로 갔다. 어느새 바다는 거칠어져 파도가 심하게 전마선을 두들긴다.

전마선 바닥에는 물이 상당히 고였다. 뱃줄을 풀어 전마선에 던지고 재빠르게 전마선에 올랐다. 능숙하게 노를 끼어 맞추고 육지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바람은 비까지 함께 몰아왔다. 육지가 희끄무르하게 멀리 보였다.

검은 구름이 세상을 덮고 성난 파도는 세차게 뱃전을 두들긴다. 구릿빛 목의 힘줄이 돌아날 정도로 온 힘을 다해 노를 젓는다. 온몸이 땀과 바닷물로 범벅이 된다. 배 밑바닥에 바닷물이 많이 고인다. 잠시 노를 놓고 바가지로 물을 퍼낸다. 물살이 칠 때마다 짹짹한 바닷물이 얼굴을 때린다. 빗발이 굵어지기 시작한다. 다시 노를 잡고 힘껏 젓는다. 팔이 아프고 피로가 빠르게 밀려 온다.

머리도 어지럽다. 사방이 뿌연 장막을 드리워 어느 쪽이 육지인지 방향 감각도 흐려진다. 그는 노를 놓아 버린다.

박 서방은 문득 ‘이렇게 공치고 가는 인생도 있구나’라 생각한다. 전마선은 주인의 뜻과 달리 바람 부는 대로 파도 치는 대로 밀려간다.



나 정 길

《뉴욕문학》 수필 등단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수필집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E-mail : jungna1941@gmail.com

## 지독한 사랑

민 병 임

“어, 너 장수지? 문장수 맞지?”

“야, 이게 누구야, 김경식! 진짜 오랜만이다.”

“마침 잘 만났다. 이번 주말에 고등학교 동창회 하는데 너 꼭 나와라.”

플러싱 한국마켓에 장을 보러 왔다가 수십 년 만에 동기동창을 만나 반가워하는 중년들, 남녀불문하고 잠시 잠깐 학창시절로 돌아간다. 과거를 잠시 회상하는 그들의 얼굴은 상기되고 목소리는 활어처럼 생동감이 있다.

미국 이민 생활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한인들은 주중에는 집과 일터만 오가다가 주말이면 한국 음식을 해 먹으려고 한국 슈퍼에 가게 된다. 한인 밀집 지역에서 벗어나 멀리 사는 이들도 한국 장을 찾아서 오다 보니 수십 년 만에 이곳에서 친구를 만나기도 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태를 묻고 학창시절을 보낸 이민 1세대들은 ‘정(情)’에 약하다. 생업의 현장에서 타 인종과 어울리며 콩글리시 영어로 말하며 살다가 같은 한국말을 사용하는 한인을 만나면 우선 반갑다. 생전 처음 만나본 사람도 동문이라면 낯선 마음을 접고 다가간다.

그렇게 우연히 만난 친구를 동창회에 나오라고 권하여 다른 동문을

만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시간이 되면 각자의 집을 방문하는 등 가족 모임을 갖기도 한다.

중고등학교나 대학에서의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금방 “선배님.”, “후배님.” 하면서 친해진다.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집을 오가면서 이민 생활의 힘든 점을 의논하고 도움을 주고받는다. 서로 친구의 아이들이 태어나고 성장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민 생활을 같이 흘러가는 것이다.

골프를 같이 치고 모교의 교장이나 총장, 교수가 뉴욕을 방문하는 자리에 나가기도 한다. 모교 장학금 보내기, 동문 자녀 장학금 모금 행사에 형편대로 기금도 내면서 친밀감을 깊게 다진다.

보통 이민생활에 성공한 동문들이 후원금을 많이 내고 밥값이나 골프비를 앞장서서 낸다. 처음 동문회에 나왔더라도 선배를 통해 누가 어떤 비즈니스에 성공했는지 정도는 쉽게 알게 된다.

그런데 액수에 상관없이 돈 문제가 개입되면 오랫동안 다져온 선배 관계가 흔들리게 되는 것은 순간이다. 죽마고우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기 힘들고 다 아는 처지에 설마 내가 내 돈을 떼먹으랴 하지만 결국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도 한다. 누가 돈 좀 있는지를 탐색한 다음 전화번호를 받고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친목을 다진 다음 돈을 빌려달라는 선후배도 있다.

1990년대 중반, 어느 겨울밤, 저녁을 챙겨 먹고 설거지를 마친 후 방에 들어온 영은에게 남편 미스터 우는 말한다.

“일영이가 돈을 빌려 달라고, 딱 일주일만 쓰겠다고 해. 당장 현금이 있어야 크리스마스 대목에 팔 물건을 받는다고 해. 낮에 일영이 와이프가 14가 건설 현장에 왔다 갔어.”

“벌써 돈을 썼다는 말이네. 당신이 무슨 현금이 있었어?”

“건설 자재 살 돈 선금 받은 거 오천 불 있었어. 마치 내 손안에 돈이 있는 줄 알고 말하는 것 같았어. 급하다고 숨이 넘어가, 와이프까지 현장에 보냈더라고. 고스란히 그 돈 내주었지. 지금 공사할 자재는 충분하니까 일주일 후에 나머지 자재를 사도 돼.”

“뉴저지에서 상업용 주얼리 장사한다면서, 어떻게 맨하탄까지 왔대?”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어딘들 못 가겠어? 뉴저지에서 기차 타고 맨하탄 32가 펜스테이션에 내려서 전철 같이타고 로우 맨하탄으로 왔다. 일영이는 안 왔어. 와이프만…….”

“왜 자기가 안 오고, 와이프만 보내, 거절도 못 했겠네.”

영은은 남편이 고등학교 동기동창 친구 일영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말을 별로 심각하게 듣지 않는다. ‘뻔히 공사대금인 줄 아는데 일주일 후에 갚겠지’하고 낙관한다.

남편은 일영을 플러싱 한국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주차장에서 만났다고 했다. 그날은 영은이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남편 혼자 장을 보러 간 것인데 우연히 만난 그들은 선 자리에서 30분 동안 안부를 나눌 정도로 반가워했다고 했다.

일영을 만난 이야기를 저녁에 하면서 남편은 살짝 흥분하기까지 했다.

“야, 몇십 년만인지 몰라. 40년이 뭐야, 50년이 되어가네. 머리 뺄 뺄 깎고 똑같은 교복 차림으로 나란히 앉아 수업을 듣다가 얼굴에 주름이 지고 머리가 반백이 되어서 만나다니…….”

뉴욕의 사방팔방을 둘러보아도 일가친척 한 명 없는 남편 미스터

우는 고등학교 동기동창 세 커플이 수시로 만난다는 것을 알고는 반색했다. 다음 모임부터 영은네도 합세했다. 집을 돌아가면서 모여 식사를 하고 크리스마스나 신년모임도 가졌다. 8명의 어른이 모이는 날이면 초등학교생이나 중학생인 아이들도 만나서 자기들끼리 게임을 하고 TV를 보았다. 그렇게 2년이 지났고 가족들끼리 정이 다소 돈독해졌다고나 할까.

뜬금없이 일영이 처가 남편 공사 현장으로 찾아와서 돈을 빌려 간 것이다. 네 커플 중에 이민 년도가 3년 조금 넘은 영은네는 맞벌이를 하지만,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살기에도 바쁜 형편이다.

영은의 남편 미스터 우는 뉴욕에 온 후 2년간 건설회사에서 현장감독으로 주급장을 하다가 자신의 건설회사를 차려 독립한 지 1년 남짓, 아직 비즈니스는 자리를 잡지 못했다. ‘앞으로 남고 뒤로 밀지는 사업’을 하는 중이다.

20년 전에 이민 왔다는 일영은 뉴저지 포트리 지역에 상업용 주얼리 가게를 하고 있고 다른 두 명은 10년 전에 이민 와서 각각 세탁소와 운동화 가게를 하고 있다. 한국에서 돈을 갖고 왔다는 이들은 쉽게 자영업을 시작했고 착실하게 일하여 돈을 모아 이민생활에 자리를 잡았다.

영은네만 초기 한인 이민자들이 주로 정착하는 플러싱 지역 아파트에 살고 있고 일영은 뉴저지에, 다른 두 명은 롱아일랜드 지역에 좋은 집과 좋은 차를 지니고 살고 있다.

그럼에도 일영은 가장 형편이 어려운 영은네로부터 돈을 빌려 갔다. 일영의 아내는 현금 오천 불을 신문지 뭉치에 싼 벽돌처럼 포장하여 장바구니 안에 넣어 갖고 갔다고 한다.

오천 불은 그리 큰돈이 아니다. 성공한 이민자들에게는 그야말로 푼돈이다. 하지만 남들에게는 하찮은 금액이라도 영은에게는 아주 큰, 거금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민 온 지 3년이 되어도 은행 아카운트에는 늘 수백 달러만 달랑달랑 남아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당장 숨이 넘어갈 듯 찾아와서 돈을 빌려 간 일영은 약속한 일주일이 지나도 전화를 주지 않는다. 한 달이 지났다. 그래도 전화가 없다. 영은의 남편은 급히 돈을 융통하여 공사 진행에는 차질이 없게 만든다. 일영의 전화를 기다리다 못한 영은의 남편은 전화를 한다. 혹여 일영의 자존심이 상할까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레 말을 건넨다.

“한꺼번에 갚으려 하지 말고 돈 있을 때 오백 불씩 갚아라. 내가 기다릴게.”

“알았어, 그렇게 할 게.”

그러나 두 달이 지나도 돈이 생기면 오백 불을 주겠다고 일영은 약속을 안 지키다. 영은의 남편 미스터 우는 다시 전화를 한다. 하지만 일영은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는다. 몇 번이나 전화 메시지를 남겨도 대답이 없다.

그나마 종종 만나오던 동기 모임에 일영은 나오지 않는다. 알고 보니 다른 두 친구에게도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한다. 자영업을 크게 하는 두 친구는 그만한 현금이 없다면서 단칼에 거절해 아무도 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가장 가난한 영은네만 자신의 돈도 아닌, 건축 자재 대금을 덜컥 빌려주고 만 것이다. 돈거래를 하면 돈 잃고 친구도 잃는다니 그렇게 되고 말았다.

미스터 우는 더 이상 동창회에 나가지 않는다. 동기동창 네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고 노래방도 가며 화기에애하게 보내던 시간은 겨우 2년을 넘기고 해산된다, 동기끼리 금이 갔는데 전체 고교 동창회에 나가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 일이 벌써 30년이 넘었다.

영은은 뉴욕에서 살아오면서 그 돈이 가끔 생각한다. 아이들 서머 스쿨 보낼 돈이 모자랄 때. 친정 식구들이 보고 싶어 큰맘 먹고 한국 행 티켓은 끊었으나 선물 사 갈 돈이 한 푼도 없을 때, 겨울 흑한에 아들 딸에게 따뜻한 새 외투를 사 입히고 싶을 때…….

“그 돈이면 지금, 얼마나 요긴하게 쓸까.”

그래도 잔소리나 구차한 말은 하기 싫다. 영은은 잇고 살다가 10년 전, 수중에 돈이 푹 떨어졌을 때 그 돈이 아쉬웠다. 남편의 건설업은 1년 동안 적자였고 일거리도 들어오지 않았다. 딸과 아들은 한창 먹어야 할 십대인데 냉장고 안은 텅텅 비었고 전기요금 낼 돈도 없다. 어려운 용기를 낸 영은은 남편에게 말한다.

“내가 일영 씨 와이프한테 전화할까. 난 지금 오백 불도 아쉬운데……. 전화번호 가르쳐줘.”

“됐어, 됐어.”

모질지 못한 영은의 남편은 자기 친구에게 와이프인 영은이 전화를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듯 손사래를 친다. 일영이 제 마누라를 보내 돈을 빌려간 것은 괜찮은 일인지, 영은은 결국 경우나 상식을 무시하는 사람이 쓸데없이 경우나 상식을 내세우는 사람을 이기는 것을 깨닫는다.

영은의 남편 미스터 우는 돈을 빌려준 사람임에도 돈을 빌려 간 사람이 어려워 전화조차 못 건다. 영은은 전기요금을 안 낼 수가 없어

서 결혼 초부터 갖고 있던 제법 묵직한 금팔찌를 금은방에 내다 판다. 겨우 850불 받아서 전기요금 내고 애들 먹을 식품을 잔뜩 사다가 냉장고 안을 그득 채운다.

‘30년 전의 오천 불은 2022년인 지금, 오만 불 가치가 있으려나. 아니, 단 만 불의 가치라고 해도 내 수중에 있으면 좋겠다. 지금의 오천 불도 내게는 큰돈이다. 남에게는 미미한 액수라도 내 손에 있는 돈은 아무리 작은 액수라도 귀하고 소중하다. 뉴욕에 살면서 우리 부부의 은행 어카운트에 그만큼 돈이 들어 있는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

뉴욕에서 중고등학교, 대학 동창회가 수없이 많지만, 모두가 화기에애한 사이는 아니다. 선후배끼리 동업을 하다가 평생 원수가 되기도 하고, 동창의 권유로 돈이 될 만한 비즈니스에 투자했다가 몽땅 날리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돈으로 얽힌 동문들로 인해 동창회의 존립이 위태로워지기도 한다.

그래서 반토막 난 동창회가 있는가 하면 아예 유명무실해져 버린 동창회도 있다. 학창시절의 추억에 설레는 마음으로 참가했지만, 실망한 후에는 아예 발걸음을 끊어버리는 것이다.

바람이 몹시 분다. 바람을 싫어하는 영은은 이런 날 외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위잉.”, “휘이잉”, “휘리릭.” 바람 소리가 먼 과거로부터 몰려온 듯 낮설고 기이하다. 바람의 위력이 자신을 회오리바람처럼 밀어 올려서 먼 태곳적 시절로 데려갈 것 같다. 바람이 센 날이면 영은의 걸음걸이가 빨라진다. 얼른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다. 집으로 돌아가 따뜻



한 이부자리에 몸을 파묻고 싶어지는 것이다.

지난 주말, 이틀 동안 바람이 몹시 불었다. 주말이라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어 좋았다. 거실 유리창 너머 주차장을 빙빙 도는 듯 한 곳에 갇힌 바람 소리를 집 안에서 들었다. 이런 날이면 집안에 틀어박혀 하는 일은 침대 위에 드러누워 한국 드라마 보기, 이메일, 메시지, 카톡 확인하고 답하기다. 바람이 몹시 불던 토요일 아침, 한국에서 날아온 카톡 한 줄이 영은을 순식간에 42년 전으로 돌려세웠다.

“유영주 후배가 지난 8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 19에도 씩씩한 투병생활을 하던 그가 60도 안 된 나이에 우리들 곁을 떠났습니다. 동우들이 모여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대학 신문사 동문회장 김종우 드림.”

“아버님은 뭘 하시는가?”

“네, 항공사에 다니셨고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신입기자 후보의 말에 다들 몸을 가까이하고 귀를 기울였다. 신문사 주간 박 교수가 주로 질문하고 그 옆에 나란히 앉은 선배기자 3명은 한두 마디 말을 보태어 신입기자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누구와 사는가?”

“저와 여동생이 서부이촌동 아파트에서 어머니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유영주는 키가 작고 덩치도 작는데 ‘나 푹푹해요’하고 얼굴에 쓰여 있다. 말 한마디마다 재기가 철철 넘치는데 자그마한 체구에서 어떻게 그렇게 큰 목소리가 나오는지 우렁차게 대답했다.

유영주는 신입기자 시험에서 상식과 영어, 작문 성적이 좋았고 무

엇보다도 시원시원한 대답에 높은 점수를 받아서 한국신문사 37기로 입사했다. 그날 인터뷰에 참여했던 선배기자 속에 영은도 있었다. 영은은 대학 3학년으로 33기다. 보통 1년에 2번, 봄가을로 기사를 채용하므로 유영주와는 기수가 4기 정도 차이가 났다.

학생기자라는 것이 학업과 신문사 생활을 병행하다 보니 판을 짜는 날에는 거의 수업을 못 들어가기 일쑤였다. 대학 지도교수가 워낙 수업을 안 들어오니 학생의 존재 자체를 모르기도 하고 학과장은 신문과 학생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입사 한 달 만에 신문사를 그만두기도 하고 일 년 만에 그만두기도 하니 원래 일 년에 한 번 뽑는 기사를 봄가을로 뽑는 일도 많았다.

입사식 공식 선서가 끝나면 ‘선배는 신과 동격이다.’라는 구호를 외쳐야 했다.

“유리창이 깨져나가도록, 이 건물이 흔들리도록 복창한다. 알았나?”

선배의 말에 신입기자들은 벌벌 떨면서 구호를 외치는데 가끔 ‘동격’은 ‘똥격’으로 들렸다.

“선배가 똥이냐? 다시 해.”

“선배는 똥격이다.”

잔뜩 긴장한 남학생이 열 번을 시켜도 계속 ‘똥격’이라고 하자 나중에는 선배들이 ‘푹 하하하’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마지막 순서를 앞두고는 선후배 모두 야릇한 긴장감이 돌았다. 신문사를 은퇴한 졸업반 선배가 씨익 웃으면서 기다란 나무 작대기를 들고 오면서다.

‘사랑의 매’ 순서다. 남학생들은 선배부터 아래 후배로 내려가면서 엉덩이를 긴 매로 때리는데, 후배일수록 ‘뺏다’ 수가 늘었다. 나무 작

대기 손잡이 부분에 '사랑의 매'라고 쓰여 있었고 그날, 엉덩이 맷집이 좋은 후배는 칭찬을 받았다. 같은 기가 선배들에게 매를 맞을 때 여기자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있어야 했다. 그 무지몽매한 '뺏다'가 아닌 '뺏다' 의식을 장엄하게 치른 후 선배들은 후배들을 이끌고 술집에 가서 밥과 술을 퍼먹었다. 그날 밤 남자 기자들은 무조건 여인숙에서 '폐숙'을 하면서 선후배 간 우의를 다졌다.

그 혼란하고 무식하면서도 나를 거창하게 치르는 의식이 있던 다음 날 아침, 바로 신문사를 그만두는 남학생도 있었다. '선배는 신과 동격이다.'라는 문장을 목이 터져라 외쳐야 했던 모순을 견디지 못한 여학생은 '이것은 전통이 아니라 폐습이다'고 항변한 뒤, 한 달 만에 신문사를 그만두었다. 남자친구가 있던 신입 여기자는 매일 신문사 일이 밤늦게까지 있으니 얼마 못 가서 남자친구가 신문사를 그만두게 했다.

영은은 간섭하고 챙겨주는 남자친구가 없었다. 신문사 장학금과 원고료는 신문사에 들인 시간과 노동력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살아남은 학생기자들은 '신문사 기자'라는 것이 마냥 좋았다. 수업 들어가랴, 매주 한 번씩 나오는 신문을 만들려고 일주일을 고스란히 갖다 바쳐도 말이다.

자신의 담당인 단과대학 별로 다니면서 기사거리를 찾고 취재를 한 다음 기사를 써서 선배에게 원고를 넘겼다. 선배는 빨간색 색연필로 기사를 시뻘정게 지우기도 하고 오케이 사인을 하기도 했다. 선배들은 완성된 원고를 들고 일주일 만에 한번 시내의 일간지 인쇄소로 가서 판을 짰다. 후배 기자들은 매주 목요일 오후 인쇄소로 교정을 보러 갔다.

신문이 인쇄되어 나오면 정문에서 학생들에게 한 부씩 배부하고 저녁이면 주소 딱지를 풀로 신문에 붙이는 발송을 했다.

지금이야, 학생기자가 직접 신문을 발송한다(?)면 그야말로 비생산적인 일이고 노동력 착취지만 40년 전에는 일상적인 일이었다. 신문 잉크 냄새에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학교 정문에서 신문을 나눠주고 학과장실에 신문 배달까지 하다 보니 영은에게 '신문팔이 소녀'하고 짓궂게 부르는 남학생도 종종 있었다.

'지금이라면 그 노동을 왜 해?'라고 했을 텐데 대학 신입생 영은은 신문사 생활이 재미있었다. 학생신문을 만들며 대학시절을 보낸 영은은 졸업 후에도 기자가 되었다. 첫 직장인 잡지사 기자 생활은 또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랐다.

'이런 게 사회생활이야? 누가 직장생활이 힘들다고 말했어? 완전 신나는데.' 했다.

80년대 초반 여성잡지는 인기 절정이었고 같은 또래 여기자들과 낮이고 밤이고 어울려 다녔다. 취재하고 편집 마감하고 맛있는 식당 찾아다니는데 정신이 팔려 모교 소식은 관심이 없었다.

그래도, 일 년에 한 번, 대학 축제기간이나 신문사 창간기념일에 선배로서 참가하는 일이 간혹 있었다. 영은이 학교 다닐 때도, 졸업 후 참가하는 신문사 회식자리에서 유영주는 사회를 잘 보았다.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기도 하고 합창도 하는데 유영주는 수시로 영은을 지목했다. 아무리 영주와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해도 번번이 영은은 걸려들었고 벌칙으로 영은은 노래를 해야 했다. 노래를 하는데 또 박자가 틀렸다면 중지시키곤 했다.

"이 선배, 옐로카드! 옐로카드!"

식탁 위 종지에서 노란색 단무지를 들어서 영은에게 경고를 주곤 했다. 급기야 영은은 후배가 노래하는 뒤에서 춤을 추기도 했다. 영은과 유영주는 그렇게 70년대 후반과 80년대의 세월을 함께 보냈다.

영은이 사회생활을 시작한 80년대에 대학 3학년인 유영주는 신문사 특집부장이었다. 유영주는 1980년 서울의 봄 대자보를 통해 군사 독재에 맞섰다가 5.18 수배 명단에 올라 피신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해병대에 복무한 후 제대하여 복학을 했다. 유영주는 시간만 나면 신문사에 들렀고 수시로 후배들 술을 사주었다.

신문사 선후배들은 동부이촌동 집을 찾아 그의 어머니가 차려준 밥을 많이 얻어먹었다. 그는 선배로서 후배들의 어떤 곳은일도 다 뒷바라지해주었다고 한다.

영은은 90년대 초에 뉴욕에 이민 와 살면서 선후배들과 연락이 소원해졌다. 몇 년에 한 번 한국을 방문하면 신문사 후배로부터 유영주의 소식을 들었다.

직접 통화한 적도 있다. 딸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여름방학이 되어 함께 한국을 방문했다. 어린 딸과 낮에 쇼핑을 한 다음에 저녁에 신문사 후배들을 만나러 갔다. 연락이 된 여섯 명이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만났다. 편하게 앉아서 먹고 수다도 실컷 떨자고 방안에 들어가서 저녁을 먹는데 유영주 이름이 나왔다.

“유영주, 일산에서 대형 찜질방 해요. 엄청 규모가 크다고 하던데, 지난번에는 일산에서 대형 노래방을 했었고, 이번에 있는 돈 없는 돈 모두 다 때려 넣고 한다고 기대가 커요.”

영주의 일 년 선배인 김종우 신문사 동창회장이 말했다. 그는 교육학 박사 출신으로 모교에서 강의 중이었다.

“안부 전화 한번 해봐요.”

김종우가 전화기를 누르더니 얼른 전화를 바꿔주었다.

“유영주구나, 반갑네.”

“아, 영은 선배 서울 왔어요?”

“지금 비즈니스 크게 한다며?”

“모두 다 같이 지금 와요, 무조건 와요.”

영주는 제대로 안부 전화도 챙기지 못한 채 얼른 다 데리고 자기네 찜질방으로 오라고 한다. 멀리서 소란한 소리가 나는 것이 엄청 바빠서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았다.

“우리 딸이 시차 때문에 지금 내 옆에서 잔다. 어떻게 가, 못가.”

“그냥 와요. 여기 와서 자라고 해요. 무조건 와요.”

딸아이는 저녁을 먹자마자 고개를 꾸벅꾸벅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방바닥에 대(大)자로 누워 자고 있었다. 그날 영주와 번개 같은 통화를 한 후 지는 아이를 깨워 택시를 타고 언니네 집으로 갔었다.

영은은 유영주의 비즈니스가 성공하기 바랐다. 이후 뉴욕에 돌아와서 먹고사는 일이 바쁘다 보니 대학 동문 소식은 잊고 살았다. 그러다가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신문사 동우회 100명이 조인한 카톡에 가입했다.

그리고 3년 전 조카가 결혼을 하게 되어 10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다. 신문사 선후배들과 함께 한 저녁시간에 유영주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유영주가 대학을 졸업한 후 벌이는 사업은 잘 되는가 하더니 넘어지는 일이 반복되면서 빛이 눈덩이처럼 커지기 시작했다. 사업이 실패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주게 되고 그도 가

파르고 광박한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는 우울한 소식이었다.

“영주가 하는 비즈니스마다 넘어지고 결국 파산했어요. 후배들이 보증을 서준 것도 못 갚고 빚쟁이에게 쫓겨서 여기저기 피신 생활을 몇 년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저런, 그럼 어느 병원에 있어?”

“서대문 병원 중환자실에 있는데 의식이 없어요.”

“가족은?”

“부인은 일찌감치 헤어졌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후배 경재 제자 예요. 2000년대 말, 아들 고등학교 입학식에 영주 선배가 와서 그때 알았대요. 경재가 영주 선배 아들한테 신경 많이 써주었어요. 지금 대학교에서 사진 전공해요, 신문사 동문들이 결혼식이나 회갑, 애들 돌잔치 사진 촬영 아르바이트를 서로 주선해줘요. 예의 바르고 올바른 청년이에요.”

“영주가 아들이 있어 그래도 든든하겠네. 병원 주소 한번 줘봐. 내가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들 전화번호도 알려줘.”

영은은 유영주가 입원한 병원과 그의 아들 전화번호를 받았다. 그러나 겨우 2주간 서울에 머물면서 여러 볼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뉴욕으로 갈 날짜가 다가왔다. 전화 한 번 못한 채 부랴부랴 뉴욕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서울에 있으면서 볼일을 보러 서대문 근처를 지나 갈 때면 유영주 생각이 났다.

입사 인터뷰 때 초롱초롱한 눈동자로 왜 학생기자가 되려는 지, 어떤 기사를 쓰고 싶은지 앞으로의 각오를 딱 부러지게 말하던 영주, 참으로 영특했다. 빚쟁이한테 즐려서 피해 다니다가 쓰러졌다니, 가여운 인생이었다. 그래도 잘 자란 아들이 있어 영주의 인생이 결코

실패한 것은 아니라 싶었다.

그리고, 이번 겨울, 그의 부음을 카톡으로 전해 들은 것이다. 유영주의 부고 소식에 이어 김종우 동창회장이 장문의 편지를 전체 동문들에게 올렸다.

“3여 년 전 찾아온 병마로 다시 재기 못하고 팽팽한 나이에 불귀의 객이 된 후배 유영주, 그가 너무 가여워서, 이제 그가 말할 수 없는 사정하기에 그를 대신해 말합니다. 그가 살면서 상처 주고 힘들게 했던 분들에게 언감생심 용서를 청합니다. 죄인으로서 고인을 저 세상을 보내기 싫기 때문입니다. 젊은 날부터 함께 했던 저보다 어린 후배를 앞세우고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느낍니다. 그와 함께했던 분이 라면 떠난 그를 많이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장례식 안내와 함께 김종우의 글이 올라오자 계속해서 “까뚝” 소리가 스무 번 이상 울렸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하는 문장이 계속 올라오며 한바탕의 소요가 지나갔다.

그리고 그다음 날, 장문의 편지가 조용히 올라왔다.

“2002년 월드컵이 열렸던 그해 여름 제 아버님 빈소에 찾아오셨지요. 아내는 말했습니다. 문상객이 빨간 양말 신고 오는 건 처음 봤다고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잖아 하고 말했지요.

그랬던 우리는 2007년 이후 형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도 형 생각을 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전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 제 아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젤 나쁜 놈은 저라고 생각합니다. 착한 사람을 울고 울게 만들었으니까요. 그

타을 전 형께 돌리며 15년을 살았습니다.

먼 그대 같은 단톡방을 통해 부고를 접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는데, 이런 식으로 얼굴을 내밀다니요. 이건 반칙입니다. 해병대가 할 짓이 아닙니다. 한국신문사 기자가 할 일이 아니라고요.

기억나세요? 80년 5월, 시위 취재하지 않고 시위대에 섞여 있는 높은 기자가 아니라며 뺏따를 치던 그날, 형은 이렇게 말했지요. ‘뺏따의 강도는 애정의 강도와 비례하는 거야!’ 지독한 합리화의 끝판왕이었습니다.

김형이 ‘유영주를 위한 변명’을 하셨더군요. ‘용서를 청합니다. 고인이 죄인으로 저 세상을 보내기가 싫기 때문입니다.’

안 된 건, 용서받지 못한 자가 아니라 용서하지 못한 자입니다. 아플 때 찾아보지 못해 미안합니다. 천국에서 괜히 천사들한테 보증 서달라 하지 마시고, 이젠 편하게 쉬세요.

우리는, 지독한 합리화가 지독한 사랑이 될 수도 있었던 아름다운 시절을 함께 했던 거 같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 후배 김우민

한참 후, 김종우 회장의 글이 다시 올라왔다.

“그 지독한 합리화의 끝판을 지독한 사랑으로 승화한 모습 고맙다. 그 오랜 세월 참 모질게 견디었네. 형의 마지막 식물처럼 누워있던 그 긴 세월은 바로 참회의 몸짓이었을 거네. 용서는 신의 영역이란다. 고맙네. 이제 얼굴을 보여주시게, 단톡방은 가능한 나가지 마시고 이 밤이 아프지만 아름다운 밤이길 기도합니다.”

선후배들의 유영주 추모 글들도 계속 올라왔다.

“선배가 쓰러지고 몇 번 병문안을 가고 코로나로 세월이 지났습니다. 신문사 기자들 회식 때면 ‘앞마을에 순이 뒷마을에 영이……. 선배가 노래를 하면 아래 기수 후배들은 안무를 하고, 많이 웃고 즐거웠던 시절. 박자가 틀리면 노란 무를 들면서 옐로카드를 외치던 선배, 여러 모습이 기억납니다.”

이후 많은 글들이 올라오면서 그의 장례식이 잘 치러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장례식 후, 유영주의 아들이 보낸 인사말이 들어왔다.

“선후배 동문님들 감사합니다. 다들 조문을 오셔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버님을 삼우제까지 잘 모셨습니다. 오랫동안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생활하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렇게 유영주는 이승을 떠났다. 그리고 2022년 12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열리지 못하던 송년회가 3년 만에 열렸다. 그 송년회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한 유영주의 아들이 참석했다고 한다. 아버지의 선배, 후배들이 돌아가면서 그를 껴안아 주고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한다.

영은도 멀리서 마음으로나마 그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영은은 일영과 그의 와이프가 머리에 떠올랐다.

‘그까짓 돈이 뭐라고, 학창시절 추억을 통째로 날려버리고 소식을 끊어버리는지, 훨씬 많은 돈을 때 먹히고 이렇게 지독한 사랑으로 감

씨는 이도 있는데…….’

사랑하라, 사랑은  
용서보다 거룩한 용서  
기도보다 절실한 기도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도  
사랑이 있다면 사랑하라  
사랑할 때 사랑하라.

- 정일근 시인의 「사랑할 때까지 사랑하라」 중에서



민 병 임

1980년 3월 《여원》 잡지사 입사, 차장, 8년 근무, 1989년 5월 뉴욕 한국일보 편  
집국 차장 입사, 2022년 8월 현재 뉴욕 한국일보 논설위원, 34년 이상 재직 중  
1997년 미주한국일보 신춘문예, 미주중앙신춘문예 소설 입상, 1997년 미동부한인  
문인협회 신인작품상 소설 당선, 1997년 미동부한인문인협회 입회  
칼럼집 『죽발이든 감자든』 (2017) 출간. E-mail : minlee88@hotmail.com

그러던지요

임 혜 기

민 여사가 <그렇게 하시든지요>했다. 그렇게 하시든지요 라는 의  
견은 찬성인지 아니면, 내키지 않지만 하고 싶으면 하라는 말인지 또  
는 당신 생각대로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는 것인지 심중에 갈등이  
일었다.

흠. 민 선생은 한번 기침 비슷한 소리를 내며 물끄러미 앞에 앉은  
여인을 바라보았다. 문득 그녀가 자기 의견을 분명하고도 또렷하게  
말한 적이 있었던가 싶은 의문이 치밀었다.

이런 건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고 내 생각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  
지고 있는지 그쪽의 의견이 듣고 싶소, 최소한 부드러운 음성으로 문  
고자 했으나 이 또한 그런 부드러움으로 저쪽에 전해졌을지는 의문이  
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겨냥할 감으로 약간 한동안 마주 바라보  
기만 했다. 그렇게 정면으로 바라보자면 서로 완전히 익숙하지 않은  
얼굴이기에 눈에 들어오는 것은 상대방의 깊어진 주름이나 세월이 휩  
쓸고 지나간 칙칙한 삶의 잔재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마이너  
스의 여건을 뛰어넘으며 서로에게 안착할 수 있는 공간지도 없고 젊  
음이라는 막강한 약발이 사그라진 처지라 상대에게 호감이 일어날 엄

두가 나지 않는 것이 분명했다. 메달라버린 감정은 뜨거워지기는커녕 미지근해질 불씨조차 담을 수 없는 처지인 것 같았다. 서로가.

육십과 칠십의 끝자락에서 만난 두 노장 남녀가 무슨 활달한 패기와 만만한 정령이 있다고 상대에게 자신을 던지겠는가. 그저 두드리고 망설이고 건넌까 말까 재고 겨누기만 해온 것이 석 달 가까운 두 사람의 모습이었다.

상대를 위해 할애할 에너지가 실상은 고갈한 것이 분명한데 이견 아니지. 새로운 인생으로 앞날을 즐기며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말고, 옛날에 집착할 필요도 없고 자신을 옹아매선 안 되고 새로운 사람과 만나 전진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옳고 말고.

두 사람의 생각은 그러한 전진을 부르짖으며 자신을 열고 새 생활을 시작해야 한다는 비슷한 생각을 공평하게 나누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견해가 누가 더 많고 적음 없이 똑같이 꽃혀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만날수록 부풀어 오르는 것은 기대와 꿈이 아니고 현실의 당면 과제와 함께한다는 것이 자신 없어지는 위축되는 감정과 부정적인 면면이 슬그머니 늘어날 뿐이었다.

이런 마음으로 앉아 식사라도 끝내고 나면 커피를 앞에 놓고 나눌 수 있는 대화는 한계가 있고 흥미 없는 라떼나 들춰내는 과거사를 들어줘야 하는 것도 부담스럽다면 이견 아니다, 가 아닐까? 이런 의문에 싸인 채 상대방이 무얼 제안하면 그러시던지요, 라는 반응이 민 여사로부터 나오는 것은 당연했다.

그 대답이야말로 관계를 깨지는 않고 불쑥 가깝게도 하지 않는 가장 합리적인 답이라는 것이 기실 민 여사의 마음가짐이었다.

이혼녀 민 여사와 홀아비 남 선생은 석 달 열흘 전 친지로부터 소개받아 큰 부담 없이 만나기로 했고 그렇게 알게 되어 사흘이 멀다 하고 만났으니 거의 이십여 번을 만나온 터다. 짧은 아이들 같았으면 그 사이 만리장성도 쌓을 시간이고 깨져버린 지 오래일 수도 있는 짧은 지 않은 기간인 건 분명하다.

그러나 정이 들기 전 너무나 많은 감정들이 수시로 빗발치는 바람에 민 여사는 두어 시간을 같은 마음으로 지내는 것이 어려울 지경이었다. 그래 이 정도 사람도 앞으로 올 기회는 없을 거다. 잘해 보자, 이것이 아침의 각오면 모든 것이 귀찮다는 생각이 온 전신을 장악하며 관계에 대한 흥미가 완전 사라지는 것이 한 시간 후의 마음가짐이었다. 사람이 짐작고 괜찮다는 생각을 하면 호감이 생기다가도 색다른 판단과 새로운 의구심으로 소침해지고 진지한 결단이 서지 않았다. 함께 산다는 것은 결국 여자가 식사를 책임지고 식사뿐 아니라 가사 일을 맡아야 하고 남자는 앉아서 유튜브나 감상하며 밥이 대령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앞날을 뻔히 내다볼 수 있는 그림과 스마트한 추리가 그녀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장애 요소였다. 긍정적으로 나서야 진척이 있는데 부정과 의문이 끊이지 않으니 무슨 좋은 일이 되겠는가.

민 선생도 피차일반일 터였다. 혼자 자내는 것이 외로우니 벗을 만들라고 떠밀려 만날 때만 해도 혼자 사는 것에 익어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편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때였다. 그래도 상대의 인상도 좋고 혼자되어 외로운 처지를 백번 이해할 수 있어서 혼자보다는 함께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열심이 생기기 시작한 건 다행

이었다. 허나 민 여사의 꼬리를 내리는 비적극적인 태도는 남 선생에게도 여러 생각을 떠올리게 했다.

우리 아이들이랑 만나 함께 식사를 할까요? 라는 요청에 그러자 말자가 아니고 그러든지요? 하는 대답은 말의 뉘앙스를 따져볼 때 절대 긍정은 아니었기에 남 선생은 민 여사의 표정에서 답을 찾아보려 했다.

싫으신 건가요? 그가 표정을 살피며 묻자 싫은 건 아니구요. 그렇게 하세요. 라고 힘겹게 상대방이 응답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런 대화는 피곤하다는 생각이 스치자 남 선생의 얼굴에서 약간의 짜증이 흘렀고 이 표정을 민 여사는 또한 놓치지 않고 간과했다. 그녀는 얼른 좀 더 시간이 지난 후 함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괜한 오해를 하게 만들까 싶어서요.

어떤 오해요?

우리가 무슨 결정이라도 한 것처럼 보일까 싶어서요. 아무튼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남 선생은 깍듯하게 무슨 뜻인지 잘 알았습니다. 했다. 그의 대답은 모든 의문과 군더더기를 다 잘라내듯 명료한 느낌으로 전달되었다. 이 대화로 모든 어려움과 의문을 매듭짓고 기대와 희망도 철회한다는 단호한 어조로 전달되어 황당할 지경이었다.

민 여사는 이거 뭐야, 이런 의견 차이 하나로 그냥 끝내자는 거야. 그렇게 대화가 안 통해? 생각하며 붉어진 얼굴로 벽에 쓰여 있는 커피 메뉴에게 새삼 관심을 보였다. 민 선생은 이 나이에 시간 낭비에 너지 낭비 이런 건 사절이라는 생각으로 민 여사의 옆모습을 응시했

다. 물들여지지 않은 흰머리들이 새삼스럽게 여자의 노화를 들이대듯 했다. 그는 자신이 젊지 않다는 것을 잘 알지만, 여자가 젊지 않다는 것은 부담스럽게 여기고 싶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야. 행복과 즐거움은 자신이 만드는 것 한번 뿐인 인생 별거 아니야. 욕심 없이 즐기면서 자기를 위해 남은 생을 보내는 것이 후회가 없고, 그리고 기회도 생기는 것이요, 친구가 여사를 소개하며 부추긴 말들은 하나도 그른 것 없고 지당한 것이었다. 그러나 문득 늙어서 서로 함께한다는 것은 자기가 살아온 모든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큰 부담과 서로 원치 않는 일들은 누가 양보해야 하며 하고 싶은 것을 맘대로 할 수 없다는(예컨대 낚시 같은) 근심도 따를 것이었다. 즐거움보다는 힘든 책임과 마음의 갈등이 더 할 것이라는 예전의 굳은 생각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저는 이해합니다. 나이 들어서 갑자기 만난 사람들이 함께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더 많을 것이라고 여겨요. 그러나 그냥 흐르는 세월에 맡기고 노력하려고 했어요. 전 그냥 밥이나 함께 먹고 헤어지는 여자친구는 필요 없구요. 서로의 손발이 되어주는 파트너를 만나 함께 살고 싶었어요. 여사님은 아직 마음의 결정이 안 된 거 같네요.

남 선생은 그동안 여러 번 내놓고 싶었던 심중의 말을 흥분하게 털어놓았다. 여사의 표정은 지금 마음의 결정이 안 됐다는 당연한 답변도 거부하는 듯했다. 마음의 결정이 되면 연락하세요. 전 확실한 걸 원해요. 연락 주시는 걸로 알고 있을까요?

남 선생이 아주 예의 바르고 따뜻한 질문을 던졌고 민 여사는 자신도 모르게 얼른 대답했다. 그렇게 하시던지요, 그리고 황급하게 덧붙



였다.

아, 확실히 말하는 건 쉽지 않아요. 제 마음이 그래요.  
그녀의 당황하듯 내뱉는 그 말은 정말 정말 진심이었다.



#### 임 혜 기

서울 출생, <소설과 사상>으로 등단. 미동부한국문인협회 9대 회장 역임, 국제PEN한국본부 이사. <월간조선> 전문가 칼럼 10년 집필  
장편소설 『글로벌 하룻강아지 우짜 소리』, 『셋은 많고 둘은 적다』, 『사랑에게 묻는다』, 『열려라 레몬』, 소설집 『맨해튼 블루스』  
수필집 『결혼한 여자의 자유』, 『여자가 왜 술 마셔?』, 『사람들은 자꾸 그곳을 바라본다』, 『교과서를 탈출한 미국영어』

## 내 짧은 인생(I Started a Joke)

전 준 성

모든 게 다 꿈만 같았다. 심신이 나른해지고 몽롱해지더니, 몸이 솟털처럼 가벼워 하늘이라도 날고 싶었다. 그래, 나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꿈이라고 하기에는 모든 것이 현실적이었다. 희미한 바람이 코끝을 스치며 전해주는 상쾌함과 어디선가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지린내……. 바닥을 흥건히 적시고 있는 핏줄기가 이건 꿈이 아니야, 라고 나를 확신시키고 있었다. 피는 내 오른쪽 머리에서 출발해 하수구를 향해 마치 강물처럼 도도히 흐르고 있었다. 핏물은 바닥에 있던 먼지와 섞여 검붉은색이 되었고, 나는 숨이 차 헐떡거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오 층 난간에 머리를 뺨쪽 내밀며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나를 보았다. 그녀였다. 우리는 순간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나를 보며 잠시 미안한 표정을 짓더니 금방 살기가 충만해져 섬뜩한 미소를 보였다. 그녀는 자주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누가 자기를 지켜보는지 무척이나 조심하고 있었다. 잠시 후 같이 온 여자에게 고갯짓을 하며 자기 쪽으로 오라고 했다. 둘이 나란히 서서 나를 내려 보며 기도하듯 두 손을 모아 합장했다.

잠시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흐릿해진 내 눈앞에 지금껏 한 번

도 보지 못한 장면들이 스르르 나타나기 시작했다. 나는 정신을 가다듬고 그 장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거기에서 나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었다. 그 속에서 나는 그들과 대화하고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어떻게 내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까? 이해할 수 없었다. 눈앞의 장면들은 마치 플레이 버튼과 되감기 버튼을 동시에 눌러보는 것처럼 내 삶의 전체가 한꺼번에 드러나 총알처럼 스치고 있었다. 죽음을 앞두고 지난 삼십여 년의 삶을 파일로 정리해 보여준 다음, 메모리 스틱에 담아 던져 줄 것 같았다.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장면들은 시간 순이 아니었다. 여러 장면들이 동시에 떠오르고 겹치며 흩어졌다. 어떤 장면은 물 위에 뜬 뚝단 배처럼 주위를 맴돌며 떠돌았다. 떠돌다 지워지고, 다시 재생되기를 반복했다. 살면서 경험하고 보고 느낀 것 이외에 생소한 것들도 많이 보였다. 그것들은 기억의 저편, 어둡고 음침한 골목길에 숨겨져 있던 것들이었다. 어떤 것들은 포장지 속에 단단히 감추어져 있어 단숨에 볼 수 없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것들은 마치 총알처럼 내 뇌리 속에 깊숙이 박혀 있어 자연적인 기억이라 당연하게 믿고 있었다. 내가 집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사회와 군대에서 통제를 위해 마음속에 수시로 집어넣었던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야 한다, 희생하라' 그런 것들이었다. 지겹도록 남용되던 마인드 컨트롤의 영향이었다. 마인드 컨트롤로 인해 기억이 황폐해지고 거품이 생겨 죽을 때가 되어서 비로소 내 본연의 기억을 찾아간다는 사실은 불편했고 아쉬웠으며 슬펐다. 내 감춰진 기억들의 대부분이 죽을 때가 되니 스르르 거품 빠지듯 줄줄 새 나가고 있었다. 모든 것이 다 빠져나왔을 때, 실없는 농담

처럼 나는 혼자였고, 무척이나 쓸쓸하고 측은하고 더럽고 못생긴 한 동양인 아이였다.

\*

“지금부터 당신은 미합중국 영토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추후, 당신은 미합중국 영토 어디에도 다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공항에서, 이민국 직원의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이 엄숙하고 차가웠다. 삼십여 년의 미국에서의 삶이 간단한 몇 마디 말로 요약 정리되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때, 나는 우습게도 내 머릿속에서는 비지스(Bee Gees)의 노래, 아이 스타티드 어 조크(I Started a Joke)가 맴돌고 있었다.

- 내가 농담을 하자 세상은 울기 시작했고 ~(생략)~ 내가 울자 세상은 웃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그 농담이 나에게 대한 것인지 몰랐다. 미리 알았다더라면…….

내가 비지스의 노래를 처음 접한 것은 열다섯 살 때였다. 변태 성욕자인 의붓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고 아동 보호소에 잠시 있었을 때였다. 성폭력에 익숙해져 있던 나는 몇 날 며칠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누워만 있었다. 어느 날, 저녁노을이 내 작은 방 창가를 빨갛게 적시고 있을 때, 라디오인지 어디에선가 그 노래가 흘러나왔다. 나는 노래를 들으며 내가 처한 모든 것들이 다 농담처럼 들렸고, 마침내 내 가슴 속에 무엇인가가 빠져나오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 노래

를 들으며 살 수 있었다. 그래 다 농담인 거야.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는 덧없는 농담인 거야. 그때 이후로 나는 뭔가에 부딪혀 꼼짝하지 못할 때, 그 노래를 떠올리며 벗어나곤 했다.

팔 월, 어느 무더운 여름날 나는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경찰에 의해 구속되었다. 그때 나는 노숙자로 거리를 방황하며 인생의 어두운 골목길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거리에서 나는 수없이 자살을 생각했었다. 자살을 그리며 마약에 길들여져 있었다. 마약 소지로 구속되기는 이번이 두 번째였는데, 소지한 양이 지난번보다 많고 또 재범이어서 재판을 받아야 했다. 재판을 위해 국선 변호사가 선임되었고, 그를 통해 나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다.

“당신은 잘 모르겠지만, 당신 양부모가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아 그동안 불법체류자로 미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민법에 의거 한국으로 추방 절차를 밟게 됩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할 겁니다.”

처음에 나는 그가 내게 무슨 재미없는 농담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잘못 들었나 했었다. 미군으로 이라크 참전까지 했던 나는 당연히 며칠 구류를 살거나, 최악의 경우 재활원에 끌려가 단기 재활 코스를 수료하면 될 일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돌아가는 상황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심각해져만 갔다. 일심에서 나는 추방 명령을 받았고, 재심 청구를 할 형편이 되지 않아 바로 추방 절차를 밟는 지경에 이르렀다. 내게 남은 희망은 없었다. 내게 한국은 그저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나 같은 의미였고, 가서 살 수 없는 극한의 시베리아처럼 무서운 곳이었다. 나는 이민국 직원에게 일말의 동정을

바라며 물었다.

“한국에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 절박한 질문에 그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말했다.

“그건 당신 나라에 가서 물어보시오. 당신은 불법체류자일 뿐입니다. 더 이상의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

나는 화장실 변기에 앉아 물을 내렸다. 썩, 하는 소리와 함께 심호흡을 깊게 들이마신 다음 천천히 숨을 내뿔으며 주머니에 들어있는 어머니 사진을 꺼냈다. 한국 외무부 직원이 공항에 있는 사무실에서 나를 조사하며 내게 건네준 것이었다.

“조사해보니 당신 어머니와 누나가 충청도 J시에서 작은 쪽방을 운영하며 살고 있더군요. 그리 넉넉해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아서 다시 만나니 축복받을 일이야. 그렇지 않나.”

사진을 내게 건네줄 때, 외무부 직원은 마치 새 신자에게 세례를 주는 동네 목사님처럼 가늘게 눈을 뜨고는 짐짓 거룩하고 엄숙한 표정을 지었다.

사진 속 어머니는 고단했던 그녀의 삶이 그대로 투영되었는지 얼굴 전체에 주름이 깊이 파여져 있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와 무심한 표정 그리고 거기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적의가 숨겨져 있었다. 치아가 빠져 입술 주위가 주름이 자글거렸고, 머리는 쪽을 틀어 비너를 꼰았다. 이마는 좁고 작았지만, 그 안에 주름이 가득해 등고선 표식처럼 보이기도 했다. 반면 누나는 얼굴이 둥글고 살이 통통해 친

근한 모습이었지만, 자세히 보면 눈초리가 아주 사나웠다. 키는 어머니와 비슷했지만, 깡마른 어머니와는 대조적이었다. 두 사람은 아무리 보아도 모녀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진을 보며 감정이 북받쳐 우는 일은 없었다. 내게 그들은 단지 모르는 낯선 사람들일 뿐이었다.

화장실을 나와 직원을 다시 만났다. 그들을 놀라게 해주고 싶으니 나에게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부탁을 했다. 그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며칠간의 소양 교육을 마치자, 한국 정부는 내게 소액의 정착금을 주었다. 나는 그 돈과 내가 미국을 떠날 때 가지고 들어온 돈, 그리고 재미동포들의 후원금을 들고 어머니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서류에서 이들의 주소를 찾아 받아 적었다.

나는 어제, 그러니까 이곳 J시에 내려오기 하루 전, 시장에 들렀다. 거기서 내가 살 수 있는 고급 양복과 구두 그리고 넥타이를 구입해 입었다. 어머니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어머니와 누이에게 줄 선물 몇 개를 사 들고 나는 충청도 J시에 가는 버스에 올랐다.

어머니가 살고 있는 J시는 바닷가에 면해 있는 전형적인 항구 도시로, 도시 곳곳에 비린내가 촘촘히 배어있었다. J시는 구도시와 신도시로 나누어져 있는데, 어머니가 운영하는 쪽방은 구도시의 재래시장 안에 있었다. 오래전 항구 도시로 변창하던 시기에 구도시는 부산에 못지않았는데, 평택항이 열리고 인근 미군 부대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자, 급속한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재개발을 앞두고 있던 재래시장 지역은 경제 사정이 나빠져 급속히 빈민촌으로 변해가고 있었

다. 신도시는 유흥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최근 인근 도시로부터 인구 유입이 많아져 새롭게 번영하기 시작한 지역이라고 직원이 말해주었다.

어머니의 쪽방을 찾아가는 길은 간단하지 않았다. 시장의 좁고 굴곡진 골목을 따라 한참을 걸었는데, 갑자기 허름한 담벼락으로 둘러싸인 작은 철거촌 입구(달리 적당한 말이 없었다)가 나타났다. 그것은 입구라기보다는 작은 틈새처럼 협소했다. 입구는 작고 지저분했는데, 막상 그 안에 들어서니, 마치 딴 세상에 들어온 듯했다. 철거 직전의 허름한 집들이 거대한 무리로 줄을 지어 언덕을 빼곡하게 채우고 있었다. 무너져 내리는 집들은 서로에 서로를 잇대어 길고 가늘게 그리고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그곳은 내가 살았던 미국의 흑인 빈민촌보다도 훨씬 열악해 보였다. 그리고 거기에 어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쪽방이 있었다. 어머니의 집은 그 중심에서 쓰러지는 집들을 양 축으로 받쳐주는 듯했다. 그곳은 주로 노동일을 하는 장기 투숙자나 떠돌이들이 값싸게 하루 머무는 그런 곳이었다.

드디어 나는 어머니의 쪽방 앞에 바로 섰다. 그곳의 이름은 개벽이었는데, 허름한 쪽방치고는 꽤나 대단한 이름이라는 생각을 다시 했다. 물론 나는 처음에 개벽이라는 의미를 몰라 직원이 내게 그 뜻을 설명해 주었다.

“세상을 열다, 라는 뜻인데……. 구멍을 여는 것이나 세상을 여는 것이나 똑같지……. 호호호.”

직원은 이상한 농지거리를 하며 능글맞게 웃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이 어떻게 같고 무엇이 웃기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어쨌든 하늘을 열고, 세상을 여는 거창한 이름의 초라한 쪽방 안으로 발을 집어

넣었다.

대낮인데도 전기를 아끼려는지 쪽방 내부는 어두웠고,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 썩은 냄새가 진동했다. 차츰 시력이 어둠에 익숙해지자 카운터 안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어머니가 선명히 보였다. 카운터 위에는 재떨이가 하나 있었는데, 잘 닦지 않아서 담뱃재가 소나무 껍질처럼 더덕더덕 붙어있었다. 재떨이 안에는 오래전 누군가가 침을 뱉어 비벼놓은 담배꽂초가 노랗게 변색되어 덩그러니 누워있었다. 카운터 맞은편에는 커다란 쓰레기통이 있는데 반쯤 열려 있었고, 거기에서 사궁창 냄새가 진동했다. 쓰레기통 주위로 포동포동하게 살이 오른 똥파리들이 붕붕거리며 날아다니고 있었다. 마치 쓰레기 처리장에 온 느낌이었다.

어머니는 내가 들어온 줄도 모르고 계속 고개를 끄덕거리며 졸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가 깨지 않기를 바라며 어머니의 졸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사진에서 본 것처럼, 어머니의 주름은 오랜 시간 풍화작용을 거친 바위처럼 깊이 파여 있었다. 어머니를 보며 갑자기 밀려드는 원망과 알 수 없는 그리움 등이 뒤섞여 어쩐지 거북한 마음만 들었다. 삼십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일이 없던 여자를 보며 나를 낳아준 어머니라는 가슴 먹먹해지는 감정의 몰입은 없었다.

잠시 후, 어머니가 무엇을 의식했는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보았다. 희미하지만 강렬한 인상이었다. 그녀는 내게 어떻게 왔는지 물었다. 내가 며칠 묵으려고 한다고 하자, 어머니는 비싼 양복을 입고 번지르한 내가 이상했는지 정말인지 다시 물었다. 내가 정말이라고 하자, 갑자기 묘한 웃음이 얼굴에 서렸다. 그녀의 묘한 웃음에서 나는 알 수 없는 적의를 느꼈다. 그것은 오랜 시간 고생하

며 살아온 사람들에게서 천착되어 나타나는 공격적인 성향으로 조그마한 자극에도 쉽게 발톱을 드러내는 날카로운 감정이었다.

“며칠이나 묵을라우?”

어머니가 물었다.

“한 삼 일이요.”

내가 말했다.

“만 오천 원만 내요.”

나는 일부러 지폐가 가득한 지갑을 어머니에게 보여주며 돈을 꺼냈다. 어머니는 눈빛이 달라졌다. 그녀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나를 위아래로 주위 깊게 훑어보았다. 어머니는 돈을 받아 서랍에 넣고 열쇠로 잠근 다음 카운터에서 나왔다. 그녀는 방 열쇠와 물 주전자를 들고 어둡고 긴 복도를 따라 앞서 걸었다. 어둠 속으로 갑자기 빨려 들어간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빠지지 않았나, 갑자기 두려워졌다. 나는 어머니 등 뒤로 바짝 붙었다. 허리가 굽은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도 모르게 안도하며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어두우니 발 조심해요. 넘어져도 절대 책임지지 않아요. 지난번에 노가다 하는 어떤 무식한 놈이 미끄러지지도 않았는데 미끄러졌다고 하면서 지 다리가 부러졌으니 치료비를 물어달라고 지랄 염병을 떨었지 뭐야. 참, 기가 막혀서……. 쯤쯤쯤……. 막무가내로 깡판을 놓는 바람에 아주 힘들었어요. 우리 젊은 사람은 그럴 사람 같이 보이지는 않구먼.”

어머니는 내 눈치를 보며 말했다. 쪽방은 여러 채의 철거 예정 집들을 통합해 개조했는지 카운터에서 객실에 가는데 다중의 문과 미로

를 거쳐야 했다. 마지막 문을 열고 나가니 큰 마당에 재래식 펌프가 있는 세면장이 보였다. 그 옆에 화장실과 커튼으로 막아놓은 샤워장이 있었다. 화장실에서 나는 냄새가 마당에 가득했다. 마당 구석에는 채소와 고추 등을 심어놓은 작은 화단이 있었다. 208호실 문 앞에서 어머니는 가져온 열쇠로 방문을 열고는 내게 주었다. 주전자를 밀어 놓고는 선풍기를 틀면서 날이 더우니 세면실에 가서 샤워를 하면 좋다고 말했다. 나는 가방과 사 온 선물을 방안에 밀어 넣었다. 어머니의 눈길이 가방과 선물에 멈췄다.

“선물 샀나 보네. 받는 사람은 좋겠어요.”

어머니가 말했다.

“예, 아주 오랜 만에 만나는 분에게 드리려고요. 그동안 모은 돈 다 드리려고 여기 왔어요.”

내가 말했다.

“외국에 나갔나 보네. 요즘 외국에 나가 돈 벌어 오는 사람도 많다고 들었는데. 받는 사람은 참으로 좋겠네 그려.”

“그랬으면 저도 좋겠어요.”

나는 짐을 풀 다음 어머니에게 식사를 하고 싶다고 했다. 그녀는 시장에 가면 맛있는 국밥집이 있다며 찾아가는 길을 그림으로 그려주며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런데 막상 밖에 나오니 허기는 없어지고 갑자기 바다가 보고 싶었다. 사실 나는 바다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 입양되어 어린 시절 살았던 동네는 중부 내륙 아이오와의 옥수수 농장 지역이었고, 내가 커서 노숙자로 떠돌 때는 주로 따뜻한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살았다. 내가 바다를 처음 본 것은 이라크 파병을 위해 마련된 수송기 안에서 내려다본 바다였다. 그때 본 바다는

실체가 없어 망막한 느낌이었다. 검푸른 것이 바닷물이 아닌 두터운 잿빛 장막을 펼쳐놓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었다. 어머니가 시는 J시는 바다와 근접한 도시라는 것을 외무부 직원을 통해 잘 알고 있었다. 나는 국밥집에 가는 대신 시장을 나와 지나가던 택시를 잡아 바닷가에 가고 싶다고 했다.

“그냥 걸어가도 오 분도 채 걸리지 않아요. 택시 탈 필요 없습니다. 내려서 저기 앞에 보이는 길로 죽 따라가다 오른편으로 돌면 됩니다. 바로 바다가 있어요. 괜히 돈 낭비하지 마시오.”

그는 내게 훈계조로 말하며 택시에서 내려 걸어가라고 했다. 이상한 택시 기사였지만, 나름 철학이 있는 정직한 사람 같았다. 나는 택시에서 내려 그가 말해준 방향으로 잠시 걸었다. 사거리를 지나 오른 쪽으로 돌자 신기하게도 바로 바다가 보였다. 바다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한 번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날, 바다는 빛으로 가득 차 뿌옇다. 하늘은 맑고 푸르러 빛의 밀도는 점점 고조되었다. 어느 빈구석 한 점 없이 자글거렸다. 이따금 바람이 불었는데, 그때마다 바람은 파도를 올리고 빛을 허공 속에 부유케 했다. 하늘과 바다 사이에 빛은 밝게 퍼져나가 공간이 있는 곳이면 살아있는 생물처럼 흘러 가득 채웠다. 나는 바다가 좋았다. 내가 어머니와 여기서 같이 산다면 바다를 자주 볼 수 있어서 좋을 거라 생각했다. 바다를 보고 나서, 쪽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어머니에게 내 정체를 밝히고 나름 감동적인 재회를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쪽방에 들어가니, 어머니와 누나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때, 이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 이미 알고 있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누나가 내게 시간 있으면 근처 노래방에서 술 한 잔 해요, 라고 말했다. 내가 그러세요. 저도 한 잔 마시고 싶었는데 잘 되었네요, 라고 하자, 누이는 노래방에서 식사도 하고 술도 마셔요, 하고 말하며 내게 윈크했다. 그 순간 나는 이들이 아직 나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누이가 안내한 노래방은 어머니의 쪽방과는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었다. 노래방은 철거촌의 맨 끝자락에 있었는데, 검게 퇴색된 콘크리트 빌딩 안에 있었다. 콘크리트 빌딩의 외관은 페인트가 다 벗겨지고 일부는 허물어져 흉물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그 흉물스러움이 주위에 늘어져 있는 집들과 묘한 조화를 이루어 마치 삼쌍둥이처럼 거북하지만 서로 떼어 낼 수 없는 이상한 정경을 그려내고 있었다. 그것은 철거촌을 보호하는 정령이 사는 신성한 상징물처럼 보이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철거촌을 억압하는 잔인한 독재자의 궁전처럼 고독해 보이기도 했다. 더러운 골목길을 따라 건물로 향하는 길에 석양이 건물 뒤로 조용히 내리기 시작했다. 붉은 기운이 검게 퇴락한 건물에 색을 입히며 생명의 김을 불어넣고 있었다. 그 시간은 어찌 보면 신성한 제사를 드리는 엄숙한 의식 같기도 했다. 길게 늘어진 노을 속에서 건물은 황금빛을 받으며 어둡고 초라하며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철거촌을 향해 아름답고 화려한 빛을 내리기 시작했다. 죽어가는 철거촌에 새로운 생명이 깃드는 순간이었다. 그 순간만은 더 이상 더러운 빈민촌이 아니라, 아름다운 꽃으로 덮인 신전의 백성들이 사는 곳이었다.

허름한 빌딩이 우리를 맞았다. 나는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건물 안에는 다양한 상점들이 포진해 있었는데, 노래방은 오 층의 맨 끝단에 있었다. 건물은 칠 층이었고, 상점 간판들이 누더기처럼 덕지덕지 건물 외벽에 아무렇게나 붙어있었다. 대부분은 영업을 하지 않고 간판만 달고 있을 뿐이었다. 건물 내부는 더욱 형편없었다. 청소를 전혀 하지 않았는지 쓰레기 더미가 널려있었다. 지린내가 잔동했고, 인분 냄새도 어디선가 끝없이 올라오고 있었다. 숨을 쉬기가 불편할 정도였다. 하지만 어디서 오는지 사람들은 끝없이 들랑거렸고, 술이 취한 사람들이 돌아가며 소리 지르고 침 뱉고 구토하는 것이 곳곳에서 보였다. 한파디로 아비규환의 모습이었다. 누이는 주정꾼들을 헤치며 나를 노래방으로 안내했다. 노래방 입구에서 누이가 내게 지나가듯 말했다.

“저기가 화장실.”

누이는 굵은 손가락으로 화장실을 가리켰다. 나는 소변이 마려웠다. 내가 화장실에 가려고 몸을 돌리려 하자, 누이가 호들갑스럽게 내 팔짱을 끼고는 나를 노래방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누이에게서 싸구려 향수 냄새가 났다.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자 실로 극적인 반전을 계획한 것처럼 깨끗한 노래방이 내 눈앞에 펼쳐졌다. 종업원들은 예의가 발랐고, 깨끗한 복장에 취객들은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다. 은은한 라벤더 향이 내 코를 간질였다. 다른 세계에 들어온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정도였다. 우리는 룸으로 안내를 받았다. 누이는 종업원에게 약간의 돈을 쥐어주며 컵속말로 시킨 거 가져와, 라고 했다.

음식은 한식과 중식이 이상하게 섞여 있었는데, 맛은 그리 나쁘지

않았다. 맥주와 소주를 같이 가져왔다. 나는 한식에 익숙하지 않아 중식을 먹으며 술만 들이켰는데 누이는 내게 바삭 다가와 돼지고기에 김치를 싸 내게 ‘아’하며 입을 벌리라고 했다. 내가 ‘아’하고 입을 벌리자 누이는 고기를 내 입에 쪽 넣어 주었다. 어느새 나는 좋은 기분이 들었다. 누이가 다시 건배를 하자고 했다. 몇 잔을 급하게 들어켜니 취기가 확 올랐다. 나는 어머니는 언제 오시는지 물었다. 그러자 누이는 조금 있으면 올 거예요. 근처에 사시는 할아버지에게 잠시 가게를 맡겨야 하나까요, 라고 했다.

누이는 내게 의식적으로 술을 권했다. 나는 술을 계속 들이켜면서도, 이들에게 언제 어떻게 말할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잠시 후, 조용히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들어왔다. 어머니는 앉자마자 소주를 물 컵에 가득 붓고는 벌컥 마셨다. 인주는 쳐다보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에게 가볍게 목례를 했다. 누이에게는 잠시 화장실에 간다고 말하고 방을 나왔다.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다.

밖에 나와 누이가 말해준 화장실로 가고 있었다. 문득, 누군가 내 뒤를 따라온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나는 뒤를 살피지 않았다. 그냥 취객이려니 생각했다.

화장실 앞에 서서 노크를 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나는 잠시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화장실 안으로 오른발을 내디뎠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이지 발을 디딜 수가 없었다. 발을 움직여 보았지만 디딜 바닥이 없는 것이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나는 간신히 발을 거두고 정면을 보았다. 황당하게도, 내 앞에는 있어야 할 화장실은 없고, 정체 모를 어둠의 절벽만이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찔한 순간이었다. 나는 안전하게 몸을 뒤로 빼고 화장실

문을 다시 보았다. 문에는 화장실이라는 표시가 분명히 있었다. 혼란스러웠다. 나는 문고리를 잡고 멍하니 밖을 보며 황당해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누군가 내 등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쿵.”

머리가 먼저 바닥에 닿으며 나는 아무런 소리도 지르지 못했다. 오른쪽 머리 부분이 부서지고, 목뼈가 부러진 것 같았다. 나는 쓰러져 허공을 응시하고 있는데, 누군가 오 층 난간 사이로 머리를 빼죽이 내밀며 두리번거리며 땅에 떨어져 있는 나를 찾았다. 맙소사! 그 사람은 내 누이었다. 누이가 나를 오 층 난간에서 밀쳐 떨어지게 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순간 눈이 마주쳤다.

이아, 정말 오해하지 말기 바란다. 지금 그녀는 내가 누구인지 전혀 모른다. 만일 알았다면, 이토록 잔인한 짓을 할 수는 없을 거라 확신한다. 그러니 제발 그들을 혈육마저 죽이는 파렴치한으로 몰지 않기를 바란다. 어머니가 누나 옆으로 다가왔다. 그들은 죽어가는 나를 내려다보며 기도하듯 손을 모으고 합장을 했다. 그때였다.

- 그 사람 그대라는 걸, 따라라 라~라~ 라라라 따라라……

어디서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어머니가 핸드폰을 찾으려 허리춤을 주섬주섬거리더니, 잠시 후 전화기를 꺼냈다. 그리고 곧바로 비명과 울부짖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뭐라고요. 무슨 말이……; 그럴 리가 없어요. 오! 하느님…….”

어머니는 멍한 표정으로 전화기를 땅에 떨어트리며 나를 내려 보았다. 망연자실한 표정의 어머니는 그저 눈물만 뚝뚝 떨어뜨리며 나를 보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제야 내가 잃어버린 당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았다. 그녀가 애절한 눈으로 나를 보며 눈물을 쏟



아냈다. 깊게 파인 주름 속으로 눈물이 파고들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말이 필요 없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기에 어머니가 느끼는 절망의 정도는 쉽게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었다. 나는 두려움이 생겼다. 제 자식을 죽였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는 절망으로 어머니를 끌고 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어머니에게 괜찮다는 말을 하고 싶었으나 말이 나오지 않았다. 다만 그녀를 계속 붙잡고 있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나는 죽지만 어머니는 살아야 돼요. 제발 죽지 마세요.”

나는 마음속으로 어머니에게 계속 말을 했다. 어머니는 나만 바라보며 울고 있을 뿐이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무슨 전환데 그러는 거야. 빨리 말해. 무슨 일이야!”

옆에 있던 누이도 어머니의 급작스런 절규에 겁을 내며 짧은 비명을 질렀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급속히 무너져버렸다. 누이는 영문도 모른 채 절규하는 어머니를 옆에서 지켜보다 묘한 표정을 지었다. 잠시 고민하는 듯 보였다. 그리고 무슨 결심이 섰는지 어머니를 일으켜 세웠다. 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없는지 다시 쓰러졌다. 나를 슬픈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어머니는 일어서기를 포기한 듯 앉아서 누이에게 고개를 돌리며 뭐라고 말했다. 누이 역시 주저앉아 울부짖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나에게 대해서 누이에게 말했으리라. 잠시 후, 내가 꿈에서조차도 생각하지 못한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뒤에 서 있던 누이가 어머니마저 오 층에서 밀어 떨어트린 것이었다.

“쿵.”

나와는 불과 삼 미터도 채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머리가 깨져 골수가 터지고 피범벅이 된 어머니가 내 쪽으로 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어머니 역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그저 눈만 깜빡이며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나도 어머니를 향해 눈만 깜빡거렸다. 곧이어 누이도 떨어진 어머니를 보며 자기도 몸을 던졌다. 바닥에 떨어진 우리 모두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을 뿐이었다.

\*

우리들의 만남은 이렇게 끝이 났다. 짧지만 강렬했다. 남들이 우리들의 죽음을 놓고 대단히 비극적이라 말할 하겠지만, 사실 그다지 슬프지 않았다. 넓게 보면, 이렇게 안타깝고, 불쌍하고, 또 재수 없는 인생이 나 혼자만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더 생각해보니, 처음부터 내 인생은 실없는 농담처럼 덧없고 부질없었다. 순간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모든 것이 농담이라는 자기 최면으로 노래를 흥얼거리며 버텼어야 했다. 태어나 부모로부터 버림 받고, 미국으로 입양되어 양부모들에게도 다시 버림받고, 노숙자로 거리를 떠돌다 마약에 중독되었다. 인생의 어두운 골목길에 우두커니 서서 수없이 자살을 생각했고, 한국으로 추방되어 지금 죽는 이 시간에도, 나는 다시 그 노래를 흥얼거리며 나의 별볼일 없는 최후를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 마침내 내가 거의 죽을 때가 되자, 세상은 활기차게 살아나기 시

작했다.

한국은 한때 고아 수출국 부동의 세계 1위였다. 민관(民官)합동으로 아이들을 수출하듯 해외로 내보낸 부끄러운 결과였다. 외화벌이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정당화되었던 참담한 시절이었다. 한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버림받아 만신창이가 된 그들에게 지금까지 나라는 없었다.

이 소설은 한국으로 추방된 입양인(한호규, 미국명 몬테 하인즈)의 이야기가 모티브가 되었다.

주인공이 어머니와 누이를 만나 살해되는 과정은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 2부 2장에 나오는 신문 기사에 영감을 받았다.



진 준 성

2014년 《뉴욕문학》 단편소설 등단  
2014년 해외동포문학상 소설부문 우수상

## 소미의 분노

정은실

1.

소미는 오늘도 다른 사서들보다 일찍 나와서 한쪽에 흠어져 있는 책들을 정리하고 있다. 화장기 없는 가름한 하얀 얼굴에 누가 보아도 사십이 넘는 여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소녀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여자다. 그렇다고 소미가 유난히 예쁘다거나 매력이 있다는 건 아니다. 얼핏 보면 덜 자란 여인으로 보일 수도 있다. 작은 키에 마른 몸집을 가진 그녀는 매사에 세심하고 지나칠 정도로 조심성이 많은 여자다. 가톨릭인 그녀가 단발머리를 하고 조용히 앉아서 묵주를 굴리고 있을 때 옆에서 보면 여고생으로 보일 정도다. 사십이 넘는 늦은 결혼에 아직 아이가 없는 탓인지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책을 빌리러 오면 부러운 눈길로 쳐다보고 한 번씩 머리를 쓰다듬어 주곤 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한 손에 커피를 들고 도서관장 A가 들어오면서 큰 소리로 외친다.

“소미 씨, 벌써 와서 다 정리했네. 커피는 마셨어요, 어때 커피 한 잔?”

“죄송해요, 저는 괜찮습니다.”

소미는 사람과 눈도 안 마주친 채 들릴 듯 말 듯 모기만한 소리로

고개를 숙이고 말을 했다.

“아아, 커피 안 마신다고요. 그럼 핫 티라도?”

“죄송해요, 그냥 물 마실게요. 감사합니다.”

자신의 주어진 일에는 누구보다 열심이지만 사람들과의 대화에 익숙하지 못한 소미는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수줍음을 타는 듯 양 볼이 빨개졌다. 도서실 직원들 사이에서 ‘천연기념물’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소미는 요즘 사람 같지 않고 마치 조선시대 여인이 환속해 온 듯한 느낌이 드는 여자다.

특히 친한 친구도 없고 걸려 오는 전화도 없다. 도서실에 나오면 한 자리에 앉아서 책을 정리하거나 일일이 목록을 보거나 그에 맞게 꽂아놓고 식사 시간이 되면 도시락이 담긴 작은 노란 손수건을 풀어서 혼자 제 자리에 앉아 소리 나지 않게 먹는다. 햇볕 좋은 봄날, 남들이 잠깐 밖에 나가서 봄벌을 쫓아도 고개만 좌우로 내젓고 조용히 거절의 표시를 보낸다. 그리곤 혼자서 창가에 기대어 봄벌을 쫓는 것이다. 마치 이 세상에서 대화할 사람은 그녀의 그림자일 뿐, 어느 누구하고도 먼저 물어보기 전에는 대화를 한 적이 없다. 그렇다고 쌀쌀맞거나 통명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저 할 말만 가까스로 작고 낮은 음성으로 조용조용히 말한다. 음성뿐 아니라 행동에서도 그녀의 조심스러운 행동은 여지없이 나타났다.

한번은 디저트로 싸온 딸기를 먹다가 떨어뜨렸는지 흰색 블라우스에 빨간 물이 들었다. 화장실에 가서 비누로 지우고 와서도 어쩐지 꺼림직했던지 도서관장에게 허락받고 10분 거리에 있는 집에 가서 다른 흰색 블라우스로 갈아입고 왔다. 그리고 그날, 혼자 남아서 30분을 더 일하고 집에 간 적이 있다.

남자와 한마디만 이야기해도 얼굴이 빨개지는 소미가 어떻게 결혼을 했고, 또 남편은 어떤 사람일까, 사내에서는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소문에 의하면 원래 소미는 수녀가 될 생각으로 결혼을 전혀 생각 안 했는데 사십이 넘어 자신과 성격과 처지가 비슷한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뤘다는 것이다.

남의 일에 관심이 유독 많은 B 부관장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소미에게 바짝 다가가 물었다.

“소미 씨, 나도 여자라서 그런데, 아무래도 결혼하면 아기를 가져야 하잖아. 무슨 계획이 있어? 그리고 소미 씨 남편은 뭐해?”

상대방이 답변할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질문공세를 퍼붓는 B 부관장의 무례함에 소미는 상상외로 겸손하고 의연하게 대처했다.

“네. 맞아요. 아기를 가져야 하지요. 그래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의 남편께서도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여기저기서 킁킁 웃는 소리가 들렸고 한쪽에서는 빈정 섞인 야유도 들렸다.

“어머, 그런 말은 처음 들어보네? 남자가 노력하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순간 소미는 자신이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얼굴이 빨개져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목주만 굴리고 있었다. 군중들이란 때로는 우매하지만 때로는 한없이 잔인하기도 한 사람들이다. 소미는 같이 일하는 직원들에게 해를 끼친 일도 없고 누구를 미워한 적도 없다. 그런데 군중들 서너 명이 모이게 되니까 쓸데없는 용기가 생기면서 아무 잘못도 없는 소미를 이유 없이 미워하고 곱탕 먹일 궁리부터 하고 있

다.

자기들과 다르게 자기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소미 씨, 하늘을 봐야 별을 만난다는 말 들어봤지? 남자가 노력하고 있다는 건 부부관계를 많이 갖는다는 말인가? 어머, 놀랍네. 소미 씨가 그런 말도 할 줄 알고. 우리도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데. 소미 씨, 생각보다 대범한 구석이 있네?”

묵주알만 연신 굴리던 소미는 입술을 깨물고 참고 있다가 드디어 그렇그렇한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을 보이면서 화장실로 달려갔다. 그리고 십 분 후에 다시 나타난 소미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시 제자리에 앉아서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크게 싸움이라도 걸어오든지 아니면 한바탕 징징거리며 울 줄로 생각했던 소미가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태연한 모습을 보이자 다시 군중들은 제풀에 꺾인 듯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갔다.

2.

소미와 내가 친하게 된 건 정말 우연한 기회였다. 나이도 비슷하고 직장에서 자리도 옆이라 진작에 친해질 수도 있었을 텐데 웬지 나는 소미와 친하게 되면 혹시 받을 수도 있는 불이익을 먼저 계산하고 있었는데 모른다. 불이익 이래야 별것 아니지만 직장에서 주위 사람들 눈 밖에 나는 일 자체가 나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었다. 그렇다고 그들과 함께 가세하지도 못하면서 어정쩡한 입장만 취하고 있던 나를 소미는 무언의 아군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여자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간 나는 화장실에서 나와 거의 울상이 다 된 상태로 손 씻는 싱크대 앞에 우두커니 서 있는 소미

를 발견했다.

“소미 씨, 왜 그래? 무슨 일 있어요?”

소미는 건드리기만 하면 당장 울음이 터질듯한 눈으로 애원하듯 천천히 나에게 말했다.

“혹시 생리대있어요?”

“응, 있어요. 생리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나가서 사면 되지, 그게 뭐 큰일이라고.”

나는 마치 소미의 언니라도 되는 듯, 반은 꾸지람, 반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 잠깐 기다리라 하고 핸드백에서 생리대를 챙겨 갖다주었다. 소미는 생리대를 받으면서 입가에 씩씩한 웃음 한 자락을 흘렸다. 그 표정은 보통 때 같으면 눈에 안 띄었겠지만 단 둘이 있는 작은 공간에서는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는 표정이었다. 나는 문득 방금 내가 본 그녀의 허탈한 웃음의 정체가 궁금해졌다.

“소미 씨, 괜찮아요?”

그러자 평소의 그녀답지 않게 소미는 한숨을 한번 크게 쉬고는 자조적인 어투로 한마디를 뱉었다.

“피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3.

그날 이후로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연대감이 생기면서 소미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녀의 영토를 내게 보여줬다. 나에게 이야기할 때 소미는 희고 고른 이를 드러내면서 한번씩 웃음을 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마치 해서는 안 될 금기사항을 저지르다 들킨 수녀처럼 의식적으로 가느다란 손으로 입을 가리곤 했다.

“소미 씨, 치아가 참 고르네요. 웃는 모습이 너무 고와요. 손으로 가리지 말고 웃어요.”

“죄송합니다. 제 습관이에요. 제가 잘못 굳어진 습관이 좀 많아요.”

항상 대화의 마지막은 자신을 책망하는 소미에게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나이를 물었고 그녀는 75년 2월이고 나는 74년 11월생이니 학번은 같아도 띠가 다르다는 것까지 서로 알아냈다. 들연 소미는 느닷없이 나에게 질문을 해왔다.

“죄송해요, 저와 동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언니네요. 이제부터 언니라고 불러도 돼요?”

그렇게 물어보는 소미의 표정 속에는 외로움의 꺼풀이 한 꺼풀 끼어 있어서 어쩐지 꼭 ‘예스’라고 대답해야만 할 것 같았다.

“그럼요, 나도 여동생이 없어서 항상 여동생 있는 사람들이 부러웠거든. 그럼 우리 이제 의자매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직장에서는 전과 다름없는 관계지만 사석에서는 언니 동생 사이로 지내는 묘한 이중생활이 시작되었다. 소미는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고아원, 천애원에서 자란 고아였고 남편 역시 같은 천애원 출신이란 걸 그녀의 집에서 앨범을 보면서 알게 되었다. 자신은 핏덩이때부터 천애원에서 자랐지만, 남편은 일곱 살 때 천애원에 왔기 때문에 그 당시 원장 수녀와 어머니의 대화 내용까지 기억하고 있다고 말해주었다.

한동안은 결혼해서도 전에 천애원에서 부르던 대로 ‘태호 형제님’이라고 남편을 부르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서로가 호칭에 대해 불편함을 느꼈고 그래서 지금은 ‘아내씨’ ‘남편님’으로 부른다고 했다. 소

미의 남편, 태호는 키가 크고 근육질의 잘생긴 남자다. 보기와는 달리 겉으론 조용한 듯 보이지만 막상 대화를 해보니 열정이 많고 불의를 보면 못 참는 불같은 면이 있는 남자다. 이혼하고 열세살 짜리 아들과 살고 있는 나는 마침 아들이 써머 캠핑을 가면서 소미네 부부와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다.

대화의 내용은 태호의 어머니가 그를 천애원에 데리고 와서 원장 수녀와 나눴던 이야기다. 십대에 태호를 낳은 그의 어머니는 집에서 쫓겨나고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어렵게 혼자서 태호를 키웠다. 일곱살 되면서 초등학교에 가기 시작할 때 주위의 눈을 의식하게 되었고 그래서 찾은 곳이 천애원이었다. 그때 원장 수녀는 종이 한 장을 주면서 읽어보고 지장을 찍으라 했고 약간의 돈이 든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다. 종이에선 다시는 태호를 찾지 않겠다는 서약과 이 아이를 천애원에서 시키는 대로 천주님을 위한 봉사자로서 기르도록 허락한다는 내용이었다.

태호는 자라는 동안에는 그곳에서 하는 일들이 모두 옳은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막상 천애원이 속한 재단의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면서 성직자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제를 받기 전에 결국 신학교를 중퇴하고 세상으로 나오게 되었다. 한도 끝도 없을 정도로 사제들의 방탕함은 극에 달했고 무엇보다 평등을 부르짖는 교회 안에 놀라울 정도로 많은 계급과 서열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왜 계급을 의미하는 영어의 하이라키(hierarchy)라는 단어가 성당에서 시작되었는지 충분히 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런데 태호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했다. 태호는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나 핏덩이를 천애원에서 거의 사가다시피 해서는 가톨릭으로 변모 또는 개종시

키고 결국 자기네 집단을 위한 사람으로 키운다는 사실이 가장 끔찍한 일이라고 열변을 토했다. 더욱이 어릴 때부터 키워진 아이들은 흠없고 순전한 아이들로 전적으로 천주님의 은혜를 받은 아이들이라는 궤변은 어디서 나온 논리냐며 성토를 했다. 어떤 종교든지 종교는 절대로 아직 철이 들기 전부터 답습하게 하는 건 세뇌교육, 즉 브레인 워시라는 이야기도 함께 했다.

잠시 나에게서는 허리케인이 지나가는 듯한 큰 태풍이 몰려왔다. 나는 딱히 종교가 없다. 부모님은 교회에 다녔고 나 역시 주일학교라는 이름으로 어릴 적엔 교회를 다녔던 기억이 있다. 대학 가면서 친구 따라서 성당도 가고 또 한참 우파니샤드 철학에 탐닉했을 때는 절에도 갔었다. 심지어는 이태원의 모스크 앞을 지나갈 때는 호기심으로 모스크에 들어가서 무슬림에 대해 배운 적도 있다. 그러나 어느 종교든지 내 머릿속에 박힌 생각 하나는 태어날 때부터 또는 어려서부터 어떤 종교를 갖게 된다는 것은 신으로부터 받은 은혜라는 사실이었다. 불현듯 그동안 내가 갖고 있었던 사상,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게 나를 옥죄고 있었던 이 사상에 의혹이 일기 시작했다. 태호는 나에게 그동안 아무도 말해주지 않던 비밀스런 진리를 말해준 것이다.

#### 4.

‘이월상품 70프로 세일’ 광고를 보고 소미와 백화점에 갔던 날 이야기다. 소미는 주름치마 하나를 사면서 요리조리 살펴보고 심지어는 손가락 마디로 주름의 폭까지 재고 있다. 그런 그녀를 보면서 너무 어이없어서 물어보았다.

“소미 씨는 어릴 적부터 그렇게 꼼꼼했어? 아휴, 너무 놀랬다. 아니

주름치마 주름의 넓이까지 다 재봐? 난 심지어 치마 사러 갔다가 치마 없으면 바지라도 사 오는 성격이거든. 그런데 소미 씨는 꼭 자기가 원하는 종류가 아니면 그냥 빈손으로 오더라구.”

“죄송해요. 오늘 저 때문에 시간 많이 뺏기셨죠? 성격을 좀 고치려고 해도 힘들더라구요. 글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초등학교 때까지는 이 정도로 꼼꼼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가끔 옷에다 음식을 흘린다고 수녀님께 야단 맞은 적도 많거든요. 근데 아마 중학교 이후부터 야단 안 맞으려고 매사에 조심했던 것 같아요.”

그날 우리는 백화점에서 나와 출출한 요기도 달랠 겸 근처의 분식점에 들어갔다. 떡볶기와 만두, 어묵을 주문하고 기다리면서 단무지를 하나 집어먹고 있는데 소미는 자기 쪽에 놓여진 앞 접시를 들어서 이리저리 살피고 있었다.

“왜? 뭐가 있어?”

“아니요, 금이 간 것 같아서요.”

“그래? 내 건 괜찮은데. 똑같은 거잖아.”

“그러게요. 이상하게 제 것만 금이 간 것 같아요.”

“어디 봐, 아니야, 이건 무늬잖아.”

“죄송해요. 지금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흰색에 연하게 불규칙한 무늬가 있는 접시는 얼핏 보면 깨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접시 안쪽도 아니고 외형의 밑 부분을 조사하듯이 살펴보는 사람은 내가 만난 사람 중 소미가 처음이다. 생각해보니 소미는 이번 일뿐 아니라 항상 흰색에 대해 유난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것 같다. 왜 그랬을까 의문이 갔지만 그렇다고 내놓고 물어볼 수도 없는 일이다. 나는 에둘러서 색깔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나는 요즘 녹색이 그렇게 좋더라고, 전에는 노랑이나 흰색 등 연한 색이 좋았거든. 근데 요새 환경이니 뭐니 하면서 여기저기서 녹색운동이 한참이다 보니까 나도 따라가게 되는 것 같애. 소미 씨는?”

한참 밑을 보고 있던 소미가 한쪽 뺨을 붉히면서 마치 어려운 문제를 풀 듯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저는요……. 흰색이 제일 싫어요.”

나는 무슨 색을 싫어하냐고 물은 게 아니었는데 의외로 소미는 먼저 자기가 싫어하는 색부터 말했다. 말을 하면서도 다른 한쪽 뺨에 스치는 우울하고 슬픈 분위기에 내 마음 한쪽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그때 소미는 마치 나에게 위안이라도 주려는 듯 다시 처음의 표정으로 돌아갔다.

“죄송해요, 싫어하는 색부터 말하니까 이상하시죠? 좋아하는 색 말하면 더 놀라실 것 같아서요. 저는 검은 색을 제일 좋아해요. 검은색은 모든 걸 다 덮어주잖아요.”

5.

소미는 두 번의 자연유산 후 침체 상태에 빠졌다. 그렇잖아도 조용한 소미가 더욱 말수가 적어지고 내 눈길조차 피하고 혼자서 한 곳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기 일쑤였다. 나는 친한 친구 중에 산부인과 의사인 닥터 C를 생각해내고 소미에게 닥터 C에게 가서 소미의 상태에 대해 의논해보면 어떻겠냐고 권했다. 소미는 깜짝 놀라면서 재차 물어왔다.

“죄송한데요……. 분명히 의사가 여자죠? 저는 남자 의사한테는 안 갈 것입니다.”

“당연하지, 그래서 내가 내 친구를 생각한 거야, 소미 씨가 그럴 것 같더라고. 그리고 닥터 C는 성격도 쾌활해서 아마 한번 말해보면 기분도 달라질 거야. 개는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고 친구들 사이에도 소문났거든.”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해서 소미는 닥터 C 클리닉에 다니게 되었다.

토요일 오후, 모처럼 밀렸던 빨래며 집청소를 하고 있는데 소미에게 전화가 왔다. 토요일에는 좀처럼 전화를 안 하는데 웬일이지 생각을 하면서 전화를 받으니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에 나오는 축배의 노래와 함께 한껏 들뜬 목소리가 들려왔다.

“죄송해요, 제가 카톡으로 ‘전화 가능해요?’라고 물어봤는데 카톡을 안 보셔서요.”

“어, 그러네. 청소기 돌리느라고 못 들었어. 근데 웬일? 잠깐만, 내가 먼저 말할게. 좋은 일이지?”

“죄송해요, 토요일에 전화드려서요. 좋은 일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소미 씨, 그 죄송하다는 말 좀 안 할 수 없어? 뭐가 그렇게 매일 죄송해, 기쁨은 나누면 두 배, 슬픔은 나누면 반이라고 하잖아. 토요일이 무슨 상관이야.”

“죄송……. 아니, 이제 안 할게요. 죄송하다는 말이에요. 오늘 닥터 C 클리닉에 다녀왔어요. 임신 6주래요.”

“어머! 진짜 좋은 소식이다. 태호 씨도 알아? 모르면 빨리 알려줘지.”

“같이 다녀왔어요. 처음 3개월만 조심하면 괜찮대요. 근데 정말 괜

참을까요? 걱정이 돼서요.”

“아니, 남들 다 낳는 앤데 무슨 걱정을 해? 제발 사서 걱정 좀 하지 마.”

일단 특하고 말을 던지긴 했어도 나도 내심 걱정이 앞섰다. 잘 되어야 할텐데…….

“그래서 들어서 축배라도 하고 있었던 거야? 정말 축하해. 그리고 뭐 필요한거나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 까짓 꺼, 내가 다 사 줄게.”

“말씀만 들어도 고마워요.”

뭔가를 안 하고 있으면 항상 불안한 듯 직장에서도 잠시도 쉴 틈이 없이 일하는 소미다. 다른 사람은 자기 할 일만 하면 전화기를 무음으로 해 놓고 실컷 카톡하고 심지어는 게임하는 사람까지 있다. 성격이 좀 활발한 사람은 관장에게 일 다 끝났는데 잠깐 밖에 나갔다 와도 되느냐고 묻는다. 내가 바로 그랬다.

조용히 앉아서 컴퓨터와 둘이 일하는 직장 분위기가 싫어서 빨리 일 끝내고 도서관 뒤쪽의 공터에 나가서 멍때리고 있다 들어오곤 했다. 그런데 소미는 달랐다. 일단 직장에 들어오면 전화부터 꺼 놓는다. 그리고 페이퍼 타올에 물 묻혀서 자기 자리, 컴퓨터, 회사 전화기 등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닦는다. 비누가 묻은 물티슈가 있는 데도 마다하고 꼭 물을 묻혀서 닦고는 의자에 앉기 전에 의자 다리며, 앉는 자리, 손잡이 등을 점검하고 앉아서 컴퓨터를 켜기 시작한다. 지겹지도 않나, 회사에 처음 출근하는 날도 아니고 어찌면 저렇게 매일 똑같은 일을 할까, 사실 더러워질 것도 없다. 먼지가 쌓일 곳도 없다. 그런데 소미는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자체를 마치 죄악시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내가 밖에 나가서 혼자 멍때리고 있는 걸 보면 얼마나 놀

랄까 생각을 하면서 하루는 소미에게 물었다.

“소미 씨, 혼자서 멍때린 적 있어? 알지 무슨 말인지? 그냥 냅 놓고 있는 거, 아무 일도 안 하고.”

“네, 알아요. 근데 왜 그래야 돼요? 그건 나쁜 거잖아요.”

“뭐가 나빠? 한번 멍때려봐. 얼마나 휴식이 잘 되는데. 소미 씨, 사람이나 동물이나 가끔씩 휴식이란 게 필요하거든.”

“아무 일도 안 하고, 생각도 하지 않고 머리가 텅 빈 상태는 나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빈공간에는 잡념이나 나쁜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누가 그래. 나쁜 생각이 들어간다고?”

“꼭 누가 그러는 건 아닌데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릴 때 수녀님들도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구요.”

문득, 소미의 마음과 생각과 인생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단단한 쇠사슬. 그리고 그 쇠사슬에 매임을 당하면서도 즐거운 듯, 그것이 최상인 듯 살고 있는 소미가 이 공간 사람이 아닌 듯 보였다. 마치 햇빛 한점 들지 않는 동굴 속에서 동굴 벽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그것이 실체인 양 살고 있는 느낌. 그래서 밖에서 ‘나와 보세요. 여기 햇빛이 좋아요. 딴 세상이예요.’라고 부르짖어도 결코 나올 수 없는 동굴.

물론 우리 모두는 다른 크기와 모양의 자기만의 동굴이 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안에서 삶을 영위하고 때로는 빛이 들어오는 작은 틈을 발견해서 나가는 사람도 있다. 이들을 우리는 선자 혹은 도인이라고 명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소한 소미를 옥죄고 있는 아니 어찌면 그녀가 택한 쇠사슬의 고리를 내가 풀어줄 수 없다면 알려는 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왜냐하면 그녀의 선택은 그녀가 가진 자유의지를 사용하기 이전에 이미 정해진 길이고 그 길은 한 길밖에



없는 외길이었으니까.

6.

“아, 참 소미 씨,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자꾸만 잊어버리네. 요즘 성당에 안 가는 것 같더라, 그치?”

언젠가부터 성당 얘기를 안 하기 시작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물었다.

“네, 태호 씨가 주일에 일을 해야 하는 이유도 있고요. 그래도 가끔 기도하러 들려요.”

“태호 씨 무슨 일 한다고 했지?”

“건설현장에서 일해요. 노동이죠. 태호 씨 말을 빌면 ‘신성한 노동’이죠.”

“와, 신성한 노동이라? 거창한데? 어쩐지 좀 이데올로기가 섞인 말 같기도 하고.”

“태호 씨가 신성하다면 맞을 거예요. 지나 놓고 보니까 태호 씨 말이 거의 다 맞더라고요. 성당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태호씨 말이 꼭 의식적으로 주일에 갈 필요 없다 하더라고요.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순수한 여자, 소미다. 마치 물이 든 컵에 잉크 한 방울을 떨어 뜨리면 금방 퍼져 나가듯 옆에서 누군가가 설득력 있게 잘 말해주면 그대로 믿어버린다. 사십 중반의 나이에 저렇게 때 묻지 않은 아이 같은 맑은 영혼을 가질 수 있을까, 세상 풍파에 시들고 누가 뭐라 해도 듣는 등 마는 등 ‘그래서 어찌라고’하는 식의 생각을 가진 나로서는 한편 부럽기도 했다. 남편인 태호 말을 믿는다면 최소한 여태껏

스스로를 확대하게 만들었던 그 어떤 관념 그리고 세뇌를 강요하는 그 집단으로부터는 자유로울 것이라는 안도감마저 생겼다. 아기를 가졌다는 말을 들으면서부터 소미는 매사에 긍정적으로 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다. 직장에서도 동료들과 가끔씩 농담도 하면서 웃는 모습이 무척 즐거워 보였다. 군중들도 더 이상은 놀림의 먹잇감이 없어지자 제 위치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소미를 대하기 시작했다. 마치 여태껏 가면을 쓰고 있던 사람이 가면을 벗고 본래의 모습을 찾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나 스스로도 ‘그래 아마 소미가 쇠시슬에 얽매이지 않고 제대로 자랐다면 저런 모습이었을 거야.’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날, 점심을 함께 먹으며 나는 장난스럽게 소미에게 물었다.

“소미 씨, 그때 말이야, 내가 색깔에 대해 물었을 때 왜 흰색을 싫어한다고 한 거야?”

나는 사실, 호기심 반, 장난 반으로 물었던 것이지 결코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은 아니었다. 그런데 의외로 소미는 진중하게 받아들이면서 목청을 한번 가다듬고는 기늘고 여린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댔다.

차분하거나 진중한 말을 하려 할 때면 으레껏 하던 그녀의 버릇이다.

“처음엔 많이 힘들었는데 이젠 됐어요. 천주님이 다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니 제 마음이 힘들었던 것도 자꾸 그 행위 자체를 떠올려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그 신부님을 결코 미워하지는 않았습시다. 그리고 지금도 미워하지 않아요. 미워하는 건 최악이니까요. 저는 용서할 수 없지만, 천주님은 다 용서하실 수 있으니까요.”

내가 뭔가를 좀 안다고 느꼈는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한 사람으로 나를 지목한 건지 몰라도 소미는 담담하게 그러나 모호

하게 믿도 끝도 없는 이야기를 했다. 그렇다고 내가 일일이 그 신부가 누구냐거나 그 일이 무슨 일이었냐고 물어볼 수는 없다. 단지 이야기 끝에 본인이 많이 울었다는 것, 그때 피가 흰색 시트에 묻었던 기억이 안 잊혀진다는 것, 원장 수녀가 따로 불러서 아무한테도 이 일에 대해 발설하면 안 된다 했고 천애원이 나쁘게 소문나면 결국은 천주님을 힘들게 하는 일이라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지금은 다 잊혀진 일이라고 했다.

머칠 후 태호에게 들은 바로는 소미가 중학교 3학년 쯤 되었을 때 한 신부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소문이 잠깐 돌았지만 아무도 문제 삼는 사람이 없었고 그저 잘못 퍼진 소문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그 후로는 모두 잊혀진 일이 되어버렸다고 했다. 소미가 자기랑 살면서도 한 번도 이 일에 대해 말을 안 해서 몰랐다고. 벌써 30년이 지난 일인데 혹시라도 고소가 가능하겠느냐고 나에게 조언을 구하기까지 했다. 나는 이 일에 대한 주도권은 천주님도 아니고 신부님도 아니고 원장 수녀도 아닌 오직 소미만이 가지고 있고 소미는 이제 없었던 일로 다 잊었다고 하니 소미가 원하는 대로 따르자고 했다.

내 친구 닥터 C는 서글서글하고 매사에 긍정적인 여자다. 자기와 전혀 다른 성격의 사람도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여자다. 무엇보다 소미를 참 좋아했다.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많은 매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극구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면서 내가 이미 소미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했던지 소미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어릴수록 조심해야 하는데 말이야, 소미처럼 어릴 때 임신해서 소

과수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염증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나팔관 한 쪽이 막히거나 협착이 와서 임신이 어려워져. 이번에 임신된 게 천만 다행이지.”

소미는 닥터 C에게 모든 걸 다 솔직하게 얘기한 것 같다. 단 한 가지만 빼고, 상대는 신부가 아니고 동네 깡패들이라고.

임신 3개월이 가까워 오면서 소미는 아직 부르지도 않은 배를 가끔씩 옷 위로 만져보고 쓰다듬고 하는 버릇이 생겼다. 나는 놀리기도 할겸 농담으로 뭐가 그렇게 좋아서 싱글벙글이나고 이제 낳아보라고 얼마나 힘든지라고 했다. 그 소심하고 소극적인 사람이 대범하게 만인이 보는 앞에서 아직 부르지도 않은 배를 쓰다듬으며 걷는 모습이 어쩐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한편 측은한 마음도 들었다.

“소미 씨, 뱃속에 아기가 있을 때가 제일 좋은 때야, 일단 밖에 나와 봐, 그때부터 애나 엄마나 둘 다 고생이지 뭐.”

“고생이라도 좋아요. 다른 고생은 안 하고 싶은데 이 고생은 꼭 하고 싶어요. 저도 제가 이렇게 아기를 좋아하는 줄 몰랐거든요.”

7.

“큰일 났어요. 태호 씨가 공사현장에서 떨어졌대요. 어떡하죠? 빨리 가봐야 되겠어요.”

마침 토요일, 아들과 집에 있는데 다급한 소리로 소미에서 전화가 걸려 왔다. 언젠가 소미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아기가 생기면 식구가 하나 더 느니 태호가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한다고 했던 기억이 났다. 이제 막 임신 3개월에 접어드는 소미를 혼자 보낼 수는 없다.

“소미 씨, 기다려. 내가 자기한테 갈게. 그리고 병원부터 알아봐,

어느 병원인지?”

이렇게 말하고 간 지 15분도 채 안 되었는데 소미는 급하게 2층에서 내려오다 층계를 헛디디면서 쓰러져 있었다. 소미에게 달려가자마자 닥친 급작스런 상황에 뭇부터 해야 할 지 잠시 난감해졌다.

그렇지, 소미부터 병원에 데려가야겠다 생각하고 닥터 C에게 전화를 하고 급히 응급실로 차를 몰았다. 뒷자리에서는 배를 움켜잡고 다리를 든 채로 소미가 울고 있었다. 급한 상황에서도 뱃속의 아기를 지키려는 모정이 자신도 모르게 다리를 세운 채로 뒷자리에 누워 있었던 것이다. 나는 차에서 내리면서 얼굴이 하얗게 변한 소미의 모습을 보는 순간 앓, 하면서 정신이 확 깼다. 내 뒷자리 시트에 피가 흥건하게 고여 있던 것이다. ‘어쩌지, 안 되는데?’하면서 급히 응급실로 들어갔다. 마침 기다리고 있던 닥터 C가 빠른 동작으로 소미를 눕게 하고 나를 잠깐 나가 있으라 했다. 밖에서 기다리는 10분의 시간이 이렇게 길게 느껴질 수 있을까. 닥터 C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들어오라 해서 들어갔다. 그때 울고 있던 소미는 천장을 응시한 채로 크게 한마디, 외마디 비명 같은 소리를 질렀다. 어디서 그런 사자의 포효하는 소리가 났을까, 생전 소미의 목소리라고는 상상이 안 될 정도의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개새끼, 용서할 수 없어. 다 죽여버릴 거야!”



정은실 Eunsil Chung(Choi)

서울 출생. 국립의료원 간호대학(NMC) 졸업, 2005년 5월 《문학저널》 수필부문 등단. 2014년 마동부한인문인협회 입회  
2020년 「사랑법 개론」으로 마주한국소설가협회 신인상 수상  
저서 『뉴욕서 정은실의 클래식과 에세이의 만남』(2015년), 『정은실의 영화 속 클래식 산책』(2019년), E-mail : chungensil@gmail.com

Tun으로 쓰고 Sun으로 읽는

한영국

모기가 사라져 간다.

모기의 극성 때문에 참 괴로웠다. 하지만 이제 모기는 보이는데 공격은 사라졌고, 그러면서 차차 모기 개체수도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살만하냐 하면 그건 아니다. 세상이란 모기 외에도 온갖 골칫거리들이 넘쳐나는 곳. 더구나 지금은 겨울이다.

꼭두쇠는 모기가 사라진 것이 ‘속임수’ 때문임을 안다. 자기가 피는 신문 한 귀퉁이에서 읽은 적이 있다. 모기에게 포만을 유발하는 먹이를 주어 굶겨 죽일 거라는 기사였다. 위장은 비었는데 배불러 죽는 것. 성공한 속임수의 미덕이다. 사람들이 위를 잘라내 포만감으로 자신의 배를 속이고, 식욕을 억제하는 약으로 자신의 뇌를 속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겠지. 인간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을 스스로 기꺼이 선택한다. 외계인도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유명 연예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벌어진 폭행 시비와 관련해 경찰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은 하루 만에 참여 인원 13만명 (2019년 1월 29일 오후 5시 기준)을 넘어섰다. 이날 자신이 해당 사건의 피해자 K(28)씨라고 주장한 청원인은

‘경사 \*\*\*, 경장 \*\*\*, 외 \*\*\*에서 뇌물을 받는지 조사 부탁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청원을 시작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은 지난해 11월 24일 클럽 ‘썸’에서 발생했다. 피해자라고 주장한 K 씨는 당시 클럽에서 관계자와 보안요원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신고자가 자신인 데도 출동한 경찰들에게도 폭행을 당하고 뒷수갑이 채워져 연행되었다.(출처 : 한국일보)

이것이 오늘의 주요 기사다. 이 기사 때문에 오늘은 신문이 잘 팔린다.

뻘해. 경찰들이 무슨 오해를 해서 실수한 게 아니라고 도리어 돌아가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 거지.

지금 거리에 멈추어 선 행인들은 신문에 실린 사진과 길 건너에 있는 ‘썸’의 입구를 대조하면서 번갈아 눈동자를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갑자기 이쪽 길의 인기가 짙어지고, 지나가던 행인들이 새삼스럽게 ‘썸’을 바라다보며 발길을 멈춘다. 구경꾼들도 몰려온다. 그 덕에 모퉁이에 나타날 군밤장수가 오늘은 한 몫 하겠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중요하다. 군밤장수와 꼭두쇠는 용무가 급할 때 서로의 가게를 보여주는 공생관계다.

방송 차량들이 몰려와 길은 점점 더 복잡해진다. ‘썸’에서 한길을 건너면 바로 꼭두쇠의 간이 신문판매대여서 마이크를 잡은 사람들이 그에게 여럿 다가왔지만, 그는 인터뷰를 안 하겠다는 대꾸조차 하지 않는다. 손사래만 친다. 시간을 낭비한 방송사 직원들은 그가 농인인가보다 생각하며 재빨리 다른 사람을 찾아 뛰어다닌다. 꼭두쇠는 말이 조금 맛을 잃어 길거리에 버려진 지 오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아, 장수 씨 오시네. 집사람 수레 먼저 끌어다 두고 오는 게지.

군밤장수는 손수레를 밀고와 그의 간이 매장 바로 옆에 자리를 잡는다. 좀 떨어진 코너가 잘 팔리는데…… 이 사람이야 말로 농인이라서 오늘 돌아가는 분위기가 영 불안하다. 가게는 간이 매장이라고는 하지만 엄연히 유리로 된 가건물인데다 일이 끝나면 셔터를 사방팔방 다 내리는 국가 인정 신문판매대다. 그렇다고 신문만 파는 건 아니고, 껌도 과자도 음료수도 잡지도 판다. 군밤만 빼고 무엇이든지 팔고 싶은 게 주인의 심정이다. 꼭두쇠는 한평생 여기서 일했다. 유리 밖 가판대에서 행인이 집어드는 물건값을 재빨리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름이고 겨울이고 앞 유리창을 활짝 열어 두어야 한다. 대략 6자와 3자인 가게 안에 선풍기를 돌리고 전기히터를 켜며 견뎠다. 그는 가을이 좋다.

오늘은 반쯤 팔 신문도 없이 일찍 완판이다. 불안한 분위기에 겁을 먹은 군밤장수는 그의 옆에 바짝 붙어서서 그가 내민 신문을 들여다 본다. 물론 꼭두쇠는 신문에 나온 그 모든 장면의 목격자다. 유일하게 열 수 있는 유리창 쪽 말고 180도 뒤로 돌아서면 유리벽 너머로 길 건너 ‘썸’이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게 절로 보인다. 2018년 11월 24일. 꼭두쇠가 꼭두 새벽에 신문을 받아 놓으려고 가게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싸움은 벌어져 있었다. 흰 후두를 입은 청년이 사람들에게 매를 맞았고, 곧 경찰차 두 대가 나타났지만 경관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높으신 분들이 ‘썸’ 입구에 태양처럼 뜨신 다음에야 그들은 천천히 차에서 내려 흰 후드의 남자를 낚아채고 수갑을 채웠다. 그리고 그를 연행해 갔다. 남은 사람들은 손을 탁탁 털기도 하고 담배를 피워 물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며 여유를 부리다

사라졌다. 그게 지난 11월에 있었던 오늘의 기사 내용이다.

가관이네요.

꼭두쇠는 듣지 못하는 군밤장수에게 말한다. 못 들어도 상관은 없다. 안 듣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 그는 그에게 항상 문어체로 고상하게 말을 건네려 한다. 이 요지경인 세상에서 자신의 인격을 유지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언어구사다.

방송사들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이번에는 인플루언서들이 등장한다. 정말 누구에게, 혹은 무엇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들은 방송사 기자들보다 더 극성이다. 어떤 이는 꼭두쇠에게서 물을 사서 자신이 들고 온 빈 꼬냑 병에 붓는다. 카메라 앞에서 그걸 흔들며 저 안에서 파는 만수르 세트에 이게 포함되어 있다고 힘주어 말한다. 자신은 그걸 매일 마신다고도 떠든다. 그의 날개는 오스트리치처럼 거대하게 부풀어 오르지만, 그 거대한 날개로도 오스트리치는 날지 못한다. 꼭두쇠는 군밤장수를 내다보며 또 한마디 던진다.

어디, 날아오르는지 두고 봅시다.

어떤 이는 사람들을 헤치고 ‘썸 로고 앞까지 간신히 진입해 떡방을 진행한다. 그는 “저 안에서 뭘 먹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같은 서민들은 이것도 충분히 맛있지 않습니까,” 라며 낱닭 치킨을 뜯는다. 그가 그 말 끝에 ‘?’를 붙일지 ‘!’를 붙일지는 뻔하다. ‘!’를 붙일 사람이라면 여기 오지도 않았다. 꼭두쇠는 그에게 바셀린을 한 병 팔았고, 그는 말라서 퍼석한 치킨에 그것을 정성껏 발랐다. 코스프레는 다양하고 치열하다. 다 저 ‘타오르는 태양’의 안쪽이 부러운 것이다.

참 애쓰며 사네요.

거리를 메운 사람들 때문에 차량 통행이 멈추었다. 사람들은 서로 부딪히고 떠밀고 또 용케 빠져나간다. 꼭두쇠는 쪽문을 열어 놓고 일이 바쁜 군밤장수를 도와 군밤도 판다. 손수레가 사람들에게 밀려 옆 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대 소란을 하나도 듣지 못하는 군밤장수지만 그도 고요하지는 않다. 귀는 사망의 소리를 듣지만 눈은 전방만을 보여주는 법이다. 그는 자꾸 뒤를 돌아다본다.

“아하, 우리 아버지!”

군중 속에서 짜잔하며 아들 상쇠가 나타난다. 일대가 다 막혀서 한참 걸었다고 투덜댄다. 꼭두쇠는 대답하지 않는다. 상쇠는 궁전 옆에 초라하게 빌붙은 초가집, 그 곁에 허접하게 기대 놓은 군밤 수레를 눈을 부라리며 발로 찰 기세다. 어디 이런 걸 감히 내 집 옆에다. 꼭두쇠가 때맞춰 벽력 같은 “어딜!”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면 뜨거운 수레는 군중들 사이로 옆어져 화상자와 부상자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자를 낳을 뻔했다.

상쇠는 아버지에게 좋지 않은 낯빛을 보인 적이 없다. 언제나 웃음으로 대한다. 자신의 사업을 네 번 말아먹었지만, 나이 탓인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웃음이 카르마가 되어 가고 있다. 지금은 네 번의 사업 실패 끝의 다섯 번째 휴지기다.

“아버지, 인터뷰했어요? 텔레비전에 막 뜨던데, 인터뷰하려면 우리 아버지보다 더 적절한 인물이 어디 또 있겠어! 기자들이 오면 사양하지 말고 제까닥 응해요. 유명해지면 장사도 잘 된다니까.”

꼭두쇠는 대꾸를 하지 않고 일부러 군밤 파는 데 더 열을 올린다. 아내가 살아 있을 때에는 그래도 사정이 좀 나왔다. 그와 아들 사이에 아내라는 범퍼가 있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상쇠 녀석 얼굴을 마

주 대하기도 힘이 든다. 그의 와이프를 보는 건 더 힘들다. 며느리는 노골적이고 아들은 위선적이다. 아들의 위선의 껍질은 아주 얇다. 그 얇은 껍질은 벗겨져도 문제고 안 벗겨져도 문제다. 벗기면 이 가게를 넘겨야 하고, 안 벗기면 오늘처럼 흰소리를 들으며 울화를 참아야 한다.

상쇠가 첫 사업에 실패했을 때 꼭두쇠는 자신의 가게를 한 번 맡아서 해보라고 권했다. 상쇠는 명쾌하게 거절했다.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워서 싫됐다. 마진율이 적고 허접해서 싫됐다. 화장실도 마음 놓고 가지 못하니 건강에 좋지 않됐다. 꼭두새벽에 일어나는 게 불가능해됐다. 어름산이 공부시키는 돈도 안 나올 거라고 했다. 6자 곱하기 3자 유리 박스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낭비할 수 없됐다. 그냥 팔아서 달렸다. 그리고보니 아들의 마음 속에는 이미 자연스럽게 빼도 박도 못하는 자기 것이었다. 이제 그는 그런 말조차 하지 않는다. 그냥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기다린다. 얼마 남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할 것이다. 꼭두쇠의 입장에서는, 아직 신문에 날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니 효자라고 할 수 있다.

“불타는 태양, 불타는 썬 버닝 썬!”

이 길에서 지금 제일 많이 들리는 소리가 “불타는 썬!”이다. 여기서 저기서 그 말이 공명한다. 상쇠도 무슨 구호처럼 “썬이 불타고 있다”며 자랑스러운 듯 주위를 둘러본다. 오늘이 아마 그가 일생 중 가장 아버지를 존경하는 날일 것이다. 노인네가 명당을 보는 눈썰미는 있어서……. 그는 신바람이 난다. 꼭두쇠는 아들에게 네 눈엔 그게 ‘썬’으로 보이냐? 라고 말한다. 헛 가르쳤다고도 생각한다. 실제 말을 한 건 아니고, 그냥 속말로 한 것이다. 그는 아들과 말을 섞지 않는다.

아들의 입장에서는 자판을 해도 돈을 만졌을 아버지가 천지가 개벽해도 언제나 오늘이나 그저 신문 등속이나 팔고 있다. 어찌 된 영문인지 오늘은 군밤까지 판다. 사람은 많고 날은 추워서 군밤은 잘 나간다. 이런 시점에는 더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아버지의 고지식과 완고가 답답하기 그지없다. 이제 바야흐로 팝 컬처 사적자가 될 게 뻔한 ‘썬’의 지하 입구! 진입로에서 셀카를 찍어 두어야 한다. VIP입구가 따로 있다는데, 그곳도 탐사해야 한다. 사진은 자신의 가게와 각도를 잘 맞춰서 한 폭에. 그는 휴대전화를 높이 치켜들고 찌질한 대중들을 헤치고 나아간다. 그러기 전에 그는 평소의 버릇 대로, 아버지 기판대에 놓인 《맥심》 최신호를 하나 낚아 채는 걸 잊지 않는다. 오늘은 군밤도 한 봉지 챙겼다. 요즘은 나이 드는 것이 자못 억울해서, 계체에 유행하는 초록색 공방패션으로 단장했다. 눈에 띄게 우쭐거리며 확보하는 아들의 뒤통지를 보며 꼭두쇠는 한숨을 쉰다. 군밤장수의 주머니에 밤값을 찢러 넣으며 그가 중얼거린다.

민망합니다.

사람의 행동에 ‘적정 수준’이라는 게 있다면 이런 난장판이 없다. 모두를 말과 몸짓과 손짓과 속도와 범위를 잇고 마냥 요란하다.

듣지 않을 뿐 아니라 보지 않아도 좋을 듯합니다.

짧은 겨울해가 누엇 질 때쯤 군밤도 다 나간다. 군밤장수는 꼭두쇠에게 진 신세를 생각하고 마지막 군밤 봉지를 들고 가게로 들어와 나누어 먹는다. 점심 먹을 짬도 없었다. 꼭두쇠는 뜨거운 물을 끓여 대접한다.

말없이 들어서 밤을 먹으며 서 있는데 여자 하나가 사람들의 난장을 요령껏 피해가며 가게 안으로 들어선다. 얼굴이 조막만 하고 키도 조막만 하고 피곤에 절었다. 여인은 말없이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하고 꼭두쇠도 마주 인사를 한다. 여자는 다른 길가에서 호떡을 팔고 오는 길이다. 오늘은 그쪽도 경기가 좋았나 보다. 여인에게도 세상은 음향 없는 고요의 바다지만, 그곳도 마냥 고요하지만은 않다.

어서 어서 들어들 가세요. 오늘은 일찍 쉬시게 됐네.

꼭두쇠는 어서 가라는 시늉을 하며 그들을 내보낸다. 팔을 휘휘 저으며 여기서 길을 건너지 말고 골목을 돌아 빙 우회하라는 말을 그들은 다 알아듣는다. 말이 아니라 말히는 사람 때문에 알아듣는 것이다. 녹슨 드림통이 없던 수레 두 대를 밀며 그들은 ‘썸의 반대쪽으로 사라진다. 그들에게는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야 할 딸이 있다.

가판대를 접고 물건을 안으로 다 들여놓는다. 히터를 바짝 당기고 의자에 앉아 있자니 졸음이 몰려온다. 이곳은 군중 속의 오아시스. 상쇠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지 않는다. 창을 닫았지만 이따금 사람들이 유리를 툭툭 치며 이것저것을 사간다. 빈 집에 가 봐야 딱히 할 일도 없으므로 좀 더 앉아 있기로 한다. 언 줄도 미처 몰랐던 몸이 차차 녹는다.

별을 보며 집을 나섰던 셀 수도 없는 새벽들이 있었다. 콘크리트 프라이팬에 올려져 지저지던, 지저지는 줄도 몰랐던, 무수한 여름이 있었다. 피부 속 3센티미터까지를 열리는 공기얼음이 그를 따라다녔다. 얼러지다가 날이 풀리면 마이크로웨이브의 ‘녹이기’ 버튼을 누른 듯 몸이 풀리고, 지저지다가 날이 선선해지면 티도 안 나게 입었던 화상이 꾸덕 꾸덕 아물어갔다. 여름을 무사히 넘기고 겨울을 무사히

견딘 건 모두 몸 깊이 매장되어 있던 생이라는 석탄 때문이었다. 이제 그 석탄의 매장량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아무런 원도 없소이다.

내일 천지가 무너져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사람도 있었다. 꼭두쇠는 내일 천지가 무너져도 매일 꼭두새벽엔 집을 나설 것이다. 천지가 무너지기 전에 군밤장수가 오늘처럼 군밤을 많이 팔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원으로 되는 일이 아님을 알고 있다. 그들 내외를 제외하면, 그가 아는 거의 모든 지인들이 ‘썸’의 지하에 있는 아방궁으로 앞다투어 이사 들어가고 싶어 한다. 그것이 그들의 원이다. 거기서 앙리 4세 그랑 상과뉴를 매일 마시고 싶어 한다. 그렇게, 원하는 바대로, 그대로 되어라…….

모두들 몰려간 아방궁으로 인해 지상은 비었다. 하늘을 날던 새는 무료로 인해 방향을 잃고 떨어지고, 여우는 길어지는 우울증을 견디다 못해 굶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연어는 아예 회귀를 포기하고, 오랜 발자국으로 생겼던 길은 스스로 제 길을 닫고…… 바람만이 그약스런 식물에 둘러싸인 이 유리방을 감싸며 휘몰아친다…… 그래도 그는 즐면서 거기, 유리 상자 속에, 바람 속에…… 앉아 있다. 살아 있는 건 그가 아니라 바람이다. 그는 풍장 중이다.

달리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 뛰어난 세상의 자리가 바로 여긴데……

그래도 말은 안 할지언정…… T를 S로 발음해 주지는 않을 참입니다……

말이 소금기를 잃었으니, 세상을 직시하는 확실한 눈 하나는 남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증인이나 목격자 같은 그런 거 말이에요. 이

유는 모르지만, 그게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돌맹이 하나, 언덕 하나, 농인 하나, 노인 하나라도……. 천지가 무너진 후 주인도 없이 물끄러미 서 있을 사과나무처럼…… 주인이 천지 간 어디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사과나무가 말해주지 않겠어요?

‘썸’ 앞에 긴 줄이 늘어서기 시작한다. 마스크를 타서 그런지 오늘은 줄이 더 길다. 아직은 개장이 시간 반이나 더 남았는데도…… 세 상에는 온갖 사람, 온갖 사례들이 다 있다. 지금은 말을 은폐하는 말이 대세고, 태양처럼 빛나는 나쁜 놈 속에 내장된 부귀와 영화가 대세다. 단골 손님은 일찌감치 VIP입구로 입장했을 거고, 이방궁을 구경이라도 하고픈 하루치기들은 긴 줄을 참으며 음료수와 빵으로 자신의 재정을 축내고 서 있다.

“할아버지!”

이번에 창을 똑똑 두드리는 건 어름산이다. 지 부모가 최고의 교육을 시킨다며 보딩 스쿨로 유배시킨 녀석이다.

“응, 얼른 들어와. 출겠다.”

곧 겨울방학이 끝나고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때로 몰려다니며 무서운 아이들이 되기도 하겠지만, 꼭두쇠는 이 아이들의 위악이 차라리 괜찮다. 아버의 위선은 가볍고, 아이의 위악은 무게가 좀 있다.

“웬 줄이에요?”

설명을 해주며 묻는다. “너 보기에 저게 Sun이냐, Tun이냐?”

어름산이는 줄타기를 하듯 가볍게 밖으로 나간다. 사람들에게 가려 잘 보이지 않는다고 자세히 보고 오겠다고 한다. 그는 사진을 찍어 돌아온다.



“Tun인데.”

“네 눈에도 Tun이지?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같이 Sun으로 읽는다. 한 사람도 T라고 항의하지 않아. Tun이 무슨 뜻이냐?”

“술통.”

Tun으로 쓰고 Sun으로 읽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읽어 주는 대로 Sun이라 따라 읽고, 합창하고, 그러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빼도박도 못하는 Sun이 된다.

꼭두쇠는 가게 문을 닫고 셔터를 내리고 어름산이와 함께 식당에 가서 늦은 저녁을 먹는다. 먹는 것보다 드러눕는 것이 더 고프다. 할아버지 집에 가서 자자는 꼭두쇠의 제안을 뿌리치고 어름산이는 할 일이 있다며 휘황한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또 한 번의 꼭두새벽.

지하로 들어가는 '썬'의 요지경 입구를 지나가는데 새 간판이 보인다. 위악이 응징해 바로 잡은 위선. 그래피티. 태양이 불타던 곳에는 커다란 술통이 놓이고, Tun인지 Sun인지 위에는 알파벳 정자가 볼드로 덧입혀졌다.

Burning TUN

아직 마르지 않은 페인트가 반짝, 가로등 불빛에 빛나고, 오늘의 첫 햇살은 증인처럼 술통의 술을 익히기 시작할 것이다.

흠, 누군가는 새 단어를 배울 수 있으려나?



한 영 국

《뉴욕문학》 소설 신인상. 《뉴욕 한국일보》 시 신인상.  
제1회 해외동포문학상 대상(소설).  
저서 『동글동글네 모퉁이』 (바오로 딸 출판사).  
littlesongforu@yahoo.com

미스 신, 그녀

홍 남 표

해뜨기 전의 운전이 부담스럽기만 했다. 마주 오는 차의 커다란 불빛이 시야를 흐트러트리니 집중을 방해했다. 차의 속도를 더 줄이고 손과 가슴을 더 운전대에 가까이한다.

큰 딸아이 부부가 손자를 맡겨 놓고 여행을 갔다. 몇 년 전부터 계획했던 한국 일주 여행을 하고 온단다.

고등학교 다니는 손자를 아침마다 기차역에 데려다줘야 한다. 귀찮았지만 만딸 역할 톡톡히 한 큰딸의 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 혼자 살며 거르던, 아침 걱정을 해야 했다. 빵 종류를 준비하면 될 일이지만 손자의 눈치를 살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며 잔뜩 예민해진 게 제 어미를 빼다 박은 사내놈이다. 손자를 기차역에 내려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무슨 공사인지도 모를 공사로 며칠 전부터 중장비들이 길을 메우고 있다. 포클레인, 레미콘 트럭, 불도저……, 차선의 도로가 더욱 좁아졌다.

맞은편 차를 지나칠 때마다 신경이 잔뜩 곤두섰다.

막 시작된 서머타임의 6시 30분은 어둠을 미처 거두지 못한다. 세월 탓하면 무엇하랴만 예전 같지 않은 육신 탓을 매번 한다. 공사 구간이 거의 끝나고 신호등 앞에 멈춰 섰다. 뿌옇한 전망이 차창 때문

인 것 같아 신경질을 담아 와이퍼를 작동시킨다. 마른세수를 하듯 창 밖이는 별 효과가 없다.

차창이 문제가 아니고 쓰고 있던 안경이 문제였다. 혼자 무안해하며 고개 돌려 버스 정류장의 사람들을 쳐다봤다. 줄 서있는 사람들의 옷 두께는 제각각이었다. 계절이 바뀌는 시기이다 보니 마음의 온도도 제각각인가 보다.

두툼한 파카를 입은 사람 옆에 재킷도 없이 얇은 셔츠 바람인 사람이 서 있다. 그 모습이 우스워 보여 조절 안 되는 미소로 사람들을 살피는데 청자켓에 검은색 면바지를 입은 여자가 눈에 띄었다. 다리 선에 맞춰 바지를 꿰맨 것처럼 다리 윤곽이 훤히 보였다. 곡선 큰 웨이브 머리에 얼굴은 가렸고 다리만이 깨끗한 모습. 그녀가 잠시 고개를 들었다. 그녀였다. 그렇게 잊으려고 했던 그녀였다. 침침한 눈을 비벼가며, 허둥거리기만 하는 손으로 운전석 창문을 내린다. 뒷 차가 크게 경적을 울렸다. 경적 소리에 그녀가 내 쪽을 쳐다봤다. 순간 눈이 마주치고 급히 차를 출발시켰다. 그녀일 리 없지만, 그녀와 너무 닮은 여자였다. 그녀의 섬뜩한 아름다움이 가슴을 조였다. 미스 신이라고 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가 그녀를 그렇게 불렀다. 세련된 밝은색의 옷을 즐겨 입는, 청자켓도 당시에 유행하던 짙은 색깔보다는 물 빠진 옅은 색깔로 멋을 냈다. 마포의 경보 극장과 연결되는 좁고 길지 않은 동네 길에서 미스 신은 스타였다. 미스 코리아 같은 짧은 파마머리, 날씬한 몸매에 어울리지 않는 커다란 가슴.

조약한 핑크색 플라스틱 대야를 허리에 걸치고 목욕탕이라도 갈 때면 보금당 아저씨도 청산 슈퍼 아저씨도 밖으로 나와 결혼질을 했다. 그녀가 목욕을 끝내고 돌아가는 길에는 더 많은 아저씨를 볼 수 있었

다. 눈은 결혼질이었지만 그녀의 비누냄새라도 맡으려는 듯 코들은 하늘을 향했다.

개 흉내를 내던 아저씨들의 시선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녀의 커다란 눈은 언제나 반달 모양으로 웃고 있었다.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내 눈에 미스 신은 보호해 주고 싶은 대상이었다.

저녁 밥상머리에서 엄마는 이빠에게 문간방 세가 나갔다는 말을 하셨다. 혼자 사는 여자라고 했다.

전라도 익산에서 올라와 데려올 친구도 없고 살림도 단출해 별말 없이 받기로 했다. 1주일 후, 동네 끝자락에서 보던 그녀를 우리 집 마당에서 보게 됐다. 우리 식구가 사는 안방과 건넌방 사이의 마루 정면에 그녀의 문간방이 있다. 문간방은 동네 길 쪽으로 창문을 내고 있다.

정신 차리자고 다짐하며 운전을 계속했다. 손자를 6시 30분 기차에 태워 보내고 돌아오는 길이었으니 그녀를 본 건 6시 40분쯤이었다. 땀살스럽게 손자를 맡겨 놓고 여행을 간 딸 부부가 뒤늦게 고마워진다.

다음 날, 손자를 내려주고 긴장한 채로 운전을 했다. 그녀는 안 보였다.

방금 지나친 버스에 오른 걸까? 공허하게 빈 버스 정거장만 쳐다보다 집으로 돌아왔다.

하루 종일 멍하니 옛 생각만 했다.

학교에 다녀오니 미스 신은 이삿짐을 풀고 있었다. 모르는 척 문간방을 지나쳐 가는데, 대뜸 그녀는 나를 꼬마라고 불렀다.

“꼬마, 학교 다녀오니?”

“나 이름 있어요!”

“누가 이름 없대, 그냥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는 거지.”

괜히 얼굴이 붉어지는 거 같아 소리를 질렀다.

“엄마! 배고파 밥 줘!”

일요일이었다.

마루에 누워 만화책을 읽고 있었다. 마루에서 마주 보이는 문간방의 그녀는 좀 전까지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다.

빨래가 끝났는지 좀 전까지 시끄럽던 물소리가 멎었다.

누워서 붙들고 있던 만화책에서 눈을 떼고 문간방 쪽을 쳐다봤다. 그녀는 쪽마루에 걸터앉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짹짹 눈을 만화책으로 옮겼다.

“꼬마야! 꼬마야!”

“아, 왜요.”

귀찮은 척하며 고개를 돌려봤다.

“이리 와봐.”

둘밖에 없는데 목소리를 낮추며 손짓을 했다.

“왜요.”

만화책을 내려놓고 서서히 일어나 마루밑 널려진 슬리퍼를 발가락으로 집는다.

짹도 안 맞는 슬리퍼를 끌며 좁은 마당을 거쳐 그녀가 있는 쪽마루 앞으로 갔다.

“꼬마야, 너 커피 마셔봤어?”

“커피요? 커피우유는 먹어봤어요.”

“마셔볼래?”

“진짜요?”

“매니큐어 거의 다 말랐다.”

그녀는 손가락을 입으로 후후 불며 하얀 손에 새빨간 손톱으로 뒤

편의 소꿉놀이 장난감만 한 노란색 주전지를 집었다. 그리고는 쪽마루에서 폴짝 뛰어내려 마당의 수도에서 물을 받아 곤로에 올렸다.

불을 켜 놓고는 찬장에서 커피잔 두 개를 꺼냈다. 꽃이 그려진 작은 잔이었다. 쪽마루 앞의 나는 그녀 방을 걸논질로 살폈다. 비키니 옷장 옆의 얇은뱅이 화장대에는 아모레, 피어리스 병들이 사이좋게 정렬돼 있었다. 작은 병이나 네모 상자에는 뜻 모를 한자들이 적혀있었다.

커피잔을 꺼낸 찬장은 고춧가루, 간장, 미원이 들어있는 엄마의 찬장과 많이 달랐다.

찬장에는 커피와 커피잔, 접시밖에 없었다. 그녀는 커피병을 꺼내 작디작은 스푼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분말커피를 잔에 옮겼다. 물이 끓기를 기다리는, 내 눈길은 알록달록한 접시에서 앙증맞은 사기 그릇 들에서 서성였다. 그녀는 끓는 물을 붓고 그 작은 스푼으로 빠르게 내 잔에 설탕 세 스푼을 넣고 자신의 잔에는 한 스푼을 넣었다. 그리고 프리마 두 스푼을 넣었다.

“뜨거우니까 천천히 마셔. 쓰면 말해, 프리마 더 넣어 줄게.”

그날 밤 아무리 숫자를 세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별들을 세어보고, 본 적 없는 양의 숫자도 세어보았다.

잡지 못할 잠은 멀리서 비웃고 머릿속은 전파사 앞에서 본 텔레비전마냥 선명했다.

그때 미스 신의 방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발자국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대문의 빗장 들리는 소리, 나무와 나무가 스치는 소리가 짐승의 포효가 돼 가슴에 닿았다.

연이어 구두 소리가 들렸다. 무게에 짓눌리는 쪽마루의 비명이 들리고 소리는 사라졌다. 더워서 차버렸던 흠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썼다. 마루의 자명종 시계가 12번을 울렸다.

통행금지 시간이 됐고 곧 귀신이 나올 시간이었다. 몇 발짝 안 되는 마당의 넓이를 원망했다. 미스 신이 귀신을 불러들인다.

이른 아침부터 서둘렀다. 기차 시간 남았다는 손자를 재촉했다.

일찌감치 갔지만 오늘도 비어 보이기만 하는 정류장 체념한 채로 서서히 차를 모는데 저 앞 좁은 교차로에서 그녀가 걸어오고 있었다. 내 차를 지나쳐 가는 그녀. 미스 신이었다.

찰나에 본 지난번 얼굴에 착각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예전의 그녀를 빼닮은 그녀였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해 기어코 차를 길가에 세웠다. 선풍기에 의지해 마루에 누워있었다. 뭘 하고 있었는지는 기억에 없다.

무척 더웠고 규칙적으로 터덜거리며 돌아가던 선풍기 소리만 기억난다.

“꼬마야! 커피 마실래?”

“꼬마라 부르지 마요!”

“그럼 아파꼬 어때?”

“그게 뭐예요?”

“뭉긴 뭐야! 꼬마야 거꾸로 한 거지…….”

그녀는 뒤로 넘어갈 듯 웃었다. 나는 약이 더 올라 소리를 냅다 질렀다.

“싫어요! 더운데 무슨 뜨거운 커피를 마셔요!”

“그래 답긴 답다. 이번 여름 참 기네…….”

“꼬마야 우리 등목하자! 이리 와!”

그녀는 이미 티셔츠를 긴 목 위로 올리고 있었다.

“누구 올지 모르니 넌 문부터 잠가!”

나도 모르게 그녀의 명령에 따르고 있었다. 문의 빗장을 잠그고 수돗가로 갔다.

그녀는 이미 가슴을 내보이며 엎드려 있었다.

“팔 아파……, 빨리 물 좀 뿌려봐!”

수도에 걸려 있던 초록색 호스로 조심히 물을 흘렸다.

“야! 간지러워. 바가지로 그냥 뿌려!”

나는 아무 말도 못 하고 그녀가 시키는 대로 하기에 바빴다. 엎드려 있으면서도 한 손으로는 자신의 가슴 쪽으로 물을 보내려는 하얀 손 그리고 더 하얀 젖가슴에 현기증이 났다.

“꼬마야 뭐해……. 저기 수건으로 물기 닦아야자…….”

나는 쪽마루 위 빨랫줄의 수건을 잡아당겼다. 내 눈은 그 아래 빨간 브래지어에 멈춰있었다.

“야, 빨리 닦아 팔 떨어지겠다!”

그때서야 그녀를 돌아보고 등의 물기를 닦는다. 점 하나 없는 등이었다.

“자, 이제 네 차례……. 뭐 해? 엎드려!”

“저, 등목 안 할 건데요!”

나는 집 마루로 도망치듯 뛰어올랐다.

늦여름의 끈적한 햇살 그리고 새빨간 브래지어, 묘하게 닳은 점이 있었다.

오랜만에 고등어를 사 왔다. 집안에 냄새 배는 게 싫어 잘 먹지 않는 음식인데 손자가 먹고 싶단다.

‘미국에서 자란 애가 별게 다 먹고 싶네’라는 생각을 하다가 ‘사돈집에서 먹어봤겠지’라는 지레짐작으로 결론을 내렸다. 갑자기 술 좋아하는 사돈네가 생각나, 유쾌하지 않은 마음으로 생선 손질을 시작했다.

나이 탓만 하는 어두워진 눈이 세심해진다. 배를 갈라 내장, 아가미를 엄지손가락으로 밀어내고 칼로 내장을 쓸어냈다. 포를 뜨듯이 반으로 펼쳐 조심스럽게 잔가시를 제거한다. 기왕 시작한 거 깔끔하게 끝내자. 쓸 일 없던 굵은 소금을 한참 찬장에서 찾아야 했다. 손질한 고등어에 소금을 뿌리고 채반에 올려놓았다.

학교에서 돌아와 책가방을 던져 놓고 엄마의 잔소리 전에 손을 씻으려던 참이었다.

마당의 수도에 허리를 숙이는데 앞집에 사는 원식이 엄마가 쏟아지듯이 대문을 밀고 들어왔다.

“엄마 계시니?”

눈은 문간방을 향하고 있었다. 쪽마루 앞에는 신발이 없었다.

“엄마! 엄마! 원식이 엄마 오셨어!”

마당 옆 부엌에 있던 엄마가 고개를 내밀었다.

“나 숨 안 넘어가! 왜?”

원식 엄마는 출썩거리는 걸음으로 엄마를 부엌으로 되 밀며 들어갔다. 좁 전까지 목청을 높이던 두 여자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손을 씻고 방에 들어가 라디오나 들으려는 데 벽을 타고 부엌의 속삭임이 내 귀에 닿았다. 아줌마들 이야기에 관심도 없었는데 미스 신 얘기가 언

뜻 들린 거 같아 허둥거리며 라디오를 끄고 벽에 귀를 갖다 댔다.

“아 그렇다니까 12시가 다 된 시간에 이 집으로 들어가던 게 저 아래 중국집 짱개라니까…….”

엄마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알고 계셨어?”

엄마의 표정이 궁금했지만 들리는 건 원식 엄마의 목소리뿐이다.

“내 그 여자 그럴 줄 알았다니까……. 아니 알면서도 그냥 뇌들 거야! 어쨌거나 요즘 젊은것들이 그렇다니까……. 어찌나 남자들을 홀리는지…….”

원식 엄마의 혼자 말과 혀 치는 소리가 내 귀에 달라붙었다.

밤마다 동네 길 쪽으로 난 창문을 두드리는 손, 무게가 느껴지는 발걸음 아무리 조심해도 소리를 만들어내는 나무 문빋장은 귀신이 아닌, 짱개를 불러들이는 거였다.

중국집을 다섯 개나 갖고 있다는 중국 사람이었다.

나의 가을 소풍날 미스 신은 이사를 갔다. 소풍에서 돌아오니 문간방은 비어있었다.

봄에 짐을 풀었다가 가을에 짐을 싸 나갔다.

갑자기 전셋값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엄마와 아빠가 신경을 곤두세웠다.

“아, 그러길래 왜 갑자기 잘 사는 사람 내보내고 그래!”

“동네 사람들이 엔간해야지요!”

“뉘라들 그러던데?”

“젊은 년이 유부남 짱개하고 놀아난다고 얼마나 수군거리는지…….,

알아요!’

“됐다, 됐어. 애들 듣겠다. 목소리 낮춰라!”

그 후로 미스 신을 닮은 여자를 몇 번 마주했다. 고등학교 때 다니던 교회의 성가대 선생님이 미스 신을 닮았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세운상가 직장 근처의 조명가게에서 미스 신을 봤다. 미스 신의 행방은 몰랐지만 미스 신을 닮은 그녀들과 사랑에 빠졌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녀들의 빨갈지 모를 브래지어와 하얀 젓가슴을 생각했다. 나의 생각이 정상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없었다.

주위의 눈초리를 의식하며 또 다른 미스 신을 찾아 헤맸다. 미스 신들과 가까워질수록 멀리하고 그 멀어진 거리를 원망했다.

나는 잘못된 게 없는데 그들은 내 잘못이라 했다. 나이 서른이 되었지만, 연애는 남의 일이었다.

중매를 서겠다는 사람들이 나섰다. 맞선 자리에 나가 만난 이들 모두가 중매쟁이 탓, 내 탓을 했다.

그들은 내가 아프다고 생각했다. 어머니, 아버지도 내가 아프다고 생각했다.

정신이 아파서 그렇다고 했다. 미스 신의 자국 때문이라는 것은 나조차도 몰랐다.

서른 두 살 생일이 지나고 며칠 후였다.

아르헨타나로 이민을 갔다가 지금은 뉴욕에 사는 이모에게서 편지가 왔다.

이모가 개업한 야채가게에 일손이 필요한데 이참에 뉴욕으로 오는 게 어떠냐는 물음이었다.

어머니, 아버지와 상의를 했다. 좋은 생각이라며 다녀오라고 했다.

뉴욕행은 이모와 어머니가 미리 계획했던 거라는 것은 나중에야 알았다.

뉴욕 구경을 하며 마음 정리를 하려던 계획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보며 허물어졌다.

한국으로 돌아갈 용기가 서지 않았다. 이모의 주선으로 맞선을 보고 두 달 후에 식을 올렸다.

나보다 더 기뻐한 건 어머니, 아버지, 동생, 이모였다.

다행히 야채가게 일에 재미를 붙였다. 새벽부터의 생활은 다른 생각할 틈을 주지 않았다.

우리 부부는 5년의 주급 생활 끝에 아스토리아에 가게를 갖게 됐다. 딸 둘을 키우며 주 7일 가게문을 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돈 세는 재미로 피곤을 잊었다.

늦은 밤 돈 세는 것도 귀찮아 돈이 든 누런 봉지를 매번 침대 밑으로 쑤셔 넣었다.

어느 날 돈을 세어보려고 침대 밑을 보니 돈이 가득한 누런 봉다리가 먼지를 묻힌 채로 쉼 새 없이 나오는 거였다. 돈 봉지는 언제 넣었는지도 모르는 옷장, 화장대, 서랍 같은 곳에서도 발견됐다.

돈의 장점은 모든 걸 잊게 할 수 있다는 거다. 간혹 가슴에 새겨진 상처 같은 병이 꿈틀거릴 때가 있었지만 곧 상처는 내 몸 어딘가의 심해로 가라앉았다. 부력의 힘이 미치지 못할 곳이었다.

만난 지, 두 달 만에 결혼을 했던 사람과는 19년을 같이 살았다. 비가 오던 저녁, 소파에 누워 자다가 깨어나지 못했다. 나에게 늘 냉정하다고 불평하던 사람이 냉정히 갑자기 떠났다. 너무도 황망한 죽음 이었고 나는 죽음을 우두커니 받아들였다.

손자 녀석을 기차역까지 데려다주는 일이 기다려졌다.

늙지 않은 미스 신을 보기 위해 애썼다. 가슴속 심해에서 튀어나온 상처가 믿기지 않았고 재발한 이픔이 심장을 조였다. 6시 20분의 기차 시간에 맞춰 아이를 내려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6시 35분 전에 도서관 앞의 교차로에 도착하면 된다. 그녀는 왼쪽에서 꺾어져 내 앞쪽으로 걸어올 것이다. 가늘기만 한 다리로 부드럽게 걸어 내 앞을 스쳐간다. 주저함에 뒤돌아보지 못한다. 방금 지나버린 찰나의 시간을 그리워한다.

백미러에 집중해 본다. 멀어져 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내일을 기약한다.

나는 예전의 꼬마가 된다. 아마꼬가 된다. 두 주 후, 딸 부부의 여행이 끝났다. 손자를 돌봐 줄 일이 없어졌다. 기차역 같 일이 없어졌다. 그녀를 볼 일이 없어졌다. 무료해질 삶에 겁이 났다.

6시에 집을 나서 도서관 앞으로 갔다. 항상 여기서 꺾어져 버스 정류장으로 갔으니 이곳에서 그녀를 기다리면 될 거 같았다. 6시 35분이 넘었다. 그녀를 볼 수 없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6시 40분……, 6시 50분.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7시까지만 기다려보자. 7시가 되어도 그녀는 보이지 않았다. 다른 셋길이 있나? 그냥 버스 정류장 앞에서 기다릴 걸 잘못했나…….

실망한 손으로 시동을 걸고 차를 움직이려 할 때, 오른쪽 집에서 그녀가 나왔다. 도서관 옆의 두 번째 집이었다. 그녀의 집이었다.

다리가 일자로 모아지는 걸음걸이, 보폭이 좁아 위태로워 보였다. 그녀를 보고 안심을 한다.

겨울이었다. 미스 신은 이사를 가고 딱 한 번 우리 집에 들렀다.

시골에서 보내온 편지를 가지러 왔다. 갑자기 방을 비워 달라고 해 미안했다며 어머니가 굴뚝길로 꿇인 차와 시루떡을 내왔다. 어머니는 눈짓으로 나를 내몰았다. 마지못해 방을 나와서는 마루에 서서 방 쪽으로 귀를 곤두세웠다. 한층 목소리를 낮춘 어머니의 목소리가 앵앵 거렸다.

“아버님은 좀 어떠셔? 그게 말이 돼, 기차 폭발이라니…….”

“많이 놀라시긴 했는데 지금은 괜찮으세요.”

“그만하길래, 다행이네……. 죽은 사람도 많은데……. 그건 그렇고, 미스 신도 결혼 해야지, 언제까지 그러고 살려고?”

침묵이었다. 마루 문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에 발이 시릴 때쯤 미스 신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사람이 못 헤어지겠어요. 내가 붙잡아서 못 헤어지겠어요…….”

방안의 어색한 공기가 나에게까지 전해졌다.

“아저씨 오실 때 됐죠? 저 이제 가 볼게요. 편지 고맙습니다.”

“그래, 더 어두워지기 전에 가봐!”

“편지는 더 안 올 거예요. 바뀐 주소 아버지께 알렸어요.”

찾 상이 밀리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건넌방으로 뛰어 들어갔다.

미스 신이 소리를 질렀다.

“아마꼬! 나, 간다!”

나는 내다보지도 못하며 들리지 않을 안녕히 가세요! 를 외쳤다.

더 이상 듣지 못할 아마꼬라 부르던 그녀의 목소리만 퇴적층이 되어 내 몸 어딘가에서 굳어졌다.

손자가 돌아간 후에도 6시면 집을 나섰다. 그녀의 집 맞은편에 차

를 세우고 그녀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녀를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그녀의 집 문을, 창문을 그 앞의 차를 바라보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매일의 일상이었다.

그렇게 미스 신은 또다시 사라지고, 가슴속 흔적은 부유해 떠돌았다.

오랜만에 딸네 식구와 저녁자리를 가졌다. 손자 녀석이 대학으로 떠나기 전, 송별회를 겸한 자리였다. 시집 안 간 둘째도 참석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못 온다는 연락을 해 왔다.

“넌 하나 있는 이모리는 게 캘리포니아 가는 조카 송별회 참석도 못 하나!”

소리를 냅다 지르고 전화를 끊어 버렸다. 전화를 끊으니 서먹하기만 할 사위와의 저녁 자리가 떠올랐다. 나는 이번에도 심통 난 노인네 마냥 사위를 맞이하겠지. 공감 안 되는 사람과의 소통은 감정 낭비일 뿐이다.

장소는 오이시 일식집이었다.

가족 모임이라고 해도 딸 내외와 손자 그리고 나 뿐인 자리였다. 나와 딸은 회를 좋아하지 않는데, 회를 좋아하는 사위가 손자를 꼬드겨 정한 장소였다. 회에는 손을 안 대고 딸려 나온 밑반찬 정도에만 젓가락을 놀렸다. 내 눈치를 보는 딸아이를 애써 외면했다. 어려서부터 내 눈치를 보던 맏딸이라 미안하다가도 술 좋아하는 사위를 보고 있자면 괜한 심술이 나온다. 저녁을 먹는 내내 대학은 고등학교와 다르다는 뻔한 말들이 오갔다. 눈치 빠른 사위가 분위기는 아랑곳 않고 벌써 소주가 2병째다. 언제나 사위는 술기운으로 무거운 공기를 모면하려 한다. 압박하는 숨을 내쉬며 등 뒤 젊은이들의 기척에 고개를

돌렸다.

손자 또래의 젊은 아이들이었다. 그중, 단발머리 여자의 낮은 광대뼈 옆얼굴이 보일락말락 했다. 거부 못 할 기시감에 길게 느껴진 찰나를 기다려 그녀의 눈과 코를 확인했다.

미스 신이었다. 머리 스타일이 바뀐 미스 신 언니였다.

“어, 제사카다……, 제사카!”

천둥 같은 손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들렸다. 침묵은 깨지고 모두 단발머리 여자 쪽을 쳐다봤다. 반달눈의 언니가 뒤돌아봤다.

나도 모르게 다급한 소리가 터졌다.

“너, 저 여자 알아?”

“네, 할머니 저 애 내 중학교 동창이야.”

인사를 하겠다며 벌떡 일어나 멀어지는 손자 녀석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미스 신 언니는 더 젊어진 듯 보였다. 언니를 잊으려 했던 시간들이 한스럽기만 했다.

내쉬기만 하던 한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사위에게 술을 따르라고 손을 뻗어 잔을 내민다.

“술……? 술이요? 장모님 술 드실 줄 아세요?”

사위가 작은 눈으로 놀란 표정을 짓는다.



홍 남 표

뉴욕 시립대 영화과 졸업, 2016년 《뉴욕문학》 소설부문 작가 수상  
전 문화방송(MBC) 뉴욕지사 카메라 감독, 전 뉴욕 KTV 방송 연출  
2021년 미주 한국일보 문예공모 '기다린 자국' 단편소설 당선  
E-mail : nampyohong@hctmail.com





## 런던에서 온 머리핀

줄리아 김

여행하지 않은 사람에겐 세상은 한 페이지만 읽은 책과 같다고 했  
던가?

몇 년 전 런던에 두 번째 여행할 일이 있었다.

폴란드에서 해마다 갈라 쇼가 크게 열려 미국에선 영화음악을 만  
드는 아이가 잤었다.

그 쇼는 엄마와 여행 가고 싶다는 소망으로 이어졌다.

아이는 이번 여행은 자신의 뜻에 따라 달라고 말했다.

이미 유럽 여행은 다른 아이들과 관광지나 명소를 다녔었기에 큰  
욕심은 없었다.

지식을 갖고 돌아오고 싶다면 떠날 때 지식을 몸에 지니고 가야 한  
다는 사무엘 존슨의 말을 인용하며 사전 조사를 많이 한 아이와 호기  
심 가득한 여행을 동반하게 되었다.

트라팔가 근처의 아파트(에어비엔비)를 구했다.

고급스러운 영국 풍 그릇이며 커피잔을 식탁에서 만나는 건 취향을

저격한 듯했고 고전적인 집안 분위기는 영국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  
다.

더욱이 화가인 주인이 그린 그림들이 벽에 걸려 또 다른 감상에 빠  
졌다. 고급스러운 침대, 포근한 잠자리가 편안해 영국을 방문한 여행  
자를 배려한 자기만의 자존심 같았다.

동네에서 오믈렛 먹었던 브런치 가게는 조그맣고 허술하게 보였지  
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짙은 커피 향과 음식이 어찌나 고급스럽고  
맛있었던지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를 잊을 수 없다. 식탁 위의 꽃들이  
펼쳐진 듯 아파트에서 봤던 고급 접시와 잔이 고스란히 있었다.

벽에도 그릇과 커피잔들이 진열되어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고풍  
스러워졌다.

손님들의 취향에 맞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늘 그래왔던 것 같  
이 집 같은 분위기가 영국을 느끼기에 충분했던 조반이었다.

테임즈 강가를 거닐며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건 글을 기  
록하는 모전자전의 취향이나 정서 때문이었을 것이다.

젊은 아이답지 않게 음악과 문학은 동급인 듯 고전적인 취향과 닮  
은 감성이 나를 놀라게 했다.

좋은 곡을 만들 수 있게 떠난 여행이었지만 문학 속에서 음악적 영  
감을 찾는 듯했다.

음악가와 작가들이 예술 창작의 배경이 되었던 곳을 찾아다니는 건  
가장 흥미로운 여행이었다.

논리와 반박이 많은 자기만의 주장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끊

이지 않는 아이는 개인 가이드가 되어 가는 곳마다 설명해주며 문학 속 주인공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편안하고 흥미로운 문학탐방이 되었다.

영국의 실체를 보는 듯한 감동과 셰익스피어 같은 영국 작가들을 만나는 설렘은 명소들만을 구경했던 단체 여행과 확연히 달랐다.

찰스 디킨스가 살던 집은 한국의 시골집처럼 조그맣고 옛 물건들이 가득해 그 시대에 들어간 듯 나에겐 신선한 충격이었다.

금방이라도 비를 쏟을 듯한 음침한 영국 특유의 날씨와 어두운 회색 빛 하늘 아래서 살아온 이들에게서 유명한 가수도 작가도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화에서 만났던 어두운 배경과 미스터리 같은 공포의 분위기는 그들만의 특유한 영국식 영어(British English)와 환경적인 정서나 고전적인 문화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여행을 즐겼다.

유명한 도서관이나 미술관, 뮤지컬이나 성당, 유명 작가들의 집을 찾아다니고 버지니아 울프 형제를 비롯한 블룸즈버리 멤버들이 모여 살았던 고든 공원, 그녀의 동상이 있는 타비스톡 공원을 방문하는 일은 얼마나 흥분이 되었던지 새로운 감동이었다.

책에서 언급된 배경인 장소를 찾아 우울한 런던의 하늘 아래 호젓한 공원에 앉으니

언젠가 읽었던 『텔라웨어 부인』을 만나고 버지니아 울프를 만난 느낌이 들었다.

남편에게 그동안 자신을 사랑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는 내용의 편지와 자살하기까지 고독과 우울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었다.

런던 필 하모니 오케스트라에서 카르멘을 보고, 뉴욕에서 보지 못했던 레 미제라블이나 미스 사이공도 볼 수 있었다. 신과극 같은 뮤지컬 속 주인공들은 사랑에 울고 웃으며 결국 이루어지지 않는 셰익스피어의 소설 속처럼 비극으로 끝난다.

런던에서 가장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백화점 헤롯이나 셀프리지를 돌며 접해 보지 않았던 특이한 음식을 먹고 아이는 긴 머리를 한 내게 예쁜 분홍색 머리핀을 선물했다.

영화 속에 들어온 듯한 킹스 크로스역의 9 & 3/4 승강장에서 영화 속 같은 포즈를 취하며 해리 포터(Harry Potter)를 만나는 일은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한 좋은 견학이 되었다.

희생을 멋스럽게 생각하는 신사의 나라,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릴 만큼 고풍스러운 런던이라는 도시를 걸으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잘 실천하는 나라임을 보여주는 고 황태자비 다이애나의 고독한 봉사정신도 보인다.

극단적인 평화주의와 무사 안일주의에 빠진 탁상공론만 할 것 같은 그들의 도덕적 충격도 읽을 수 있었다.

이차 세계 대전 당시 무책임한 타락과 부패한 영국이 히틀러리는 역사적 파괴자를 만난 후 공동체 의지를 보여준 그들의 국민성을 이야기하는 아이의 말에 귀 기울이며 멋스러운 도시를 보고 많은 것을 느꼈다.

해리 왕자와 결혼한 배우 메간 마클은 어머니가 농장에서 일하는 노예였고 런던 윈저 궁에 하인으로 일했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유색인종의 혼혈이라는 점을 보면 체면을 중시하는 고지식한 영국 왕실도 며느리로 받아들이기까지 혼란이 왔을 테지만 전통을 무너뜨릴 수 있는 왕실의 법도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간다.

영국은 많은 것을 접한 여행지 특유의 상상의 나라였다.

자유스럽지 않으면서 개인적이지만 남에게 배려도 확실하게 하는 신사적이고 예의를 잘 지키는 왕국을 이룬 나라로 전해왔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다 죽은 마더 테레사가 노벨 평화상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세상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사랑하며 살 수 없다고 말하는 아이에게서도 배우고 느낀다. 아이는 잘 관리한 긴 머리를 암환자들의 가발로 쓴다고 세 번째 기증한 것만 봐도 휴머니즘이 강한 아이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었던 밀착 여행이었다.

그 후 유로스타 기차를 세 시간 타고 파리에서 자유와 낭만을 보았고, 영국에서 규칙과 근엄이 보였던 여행을 마치고 뉴욕에 도착하니 머리핀이 없었다.

어머! 어떡하니. 머리핀 두고 왔네~”

머칠 뒤 분홍색 머리핀을 받을 수 있었다.

어쩌면 그 조그만 머리핀 하나가 뭔데 하고 간과하고 무시할 수도 있었는데 박스를 열어보니 예쁜 종이에 소중하게 싸서 카드와 함께 보낸 머리핀을 보니 큰 감동이었다.

런던에서 온 머리핀은 영국의 문화와 음악 예술 외에 영국인들의 약속과 예의가 숨겨져 있다. 그 속에서 본 아이의 사고와 개성을 느낀 문학의 여행이었다.

여행 중 얻은 지식과 경험은 감동으로 이어져 사람의 마음을 전해 받은 잊을 수 없는 에피소드가 되어 기억에 머문다.

신인상 소식을 전해 듣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 뒤엔 진심으로 내가 받을 자격이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순간, 뉴욕에서 35년 살면서 어려웠던 시간들을 반추해 봅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시간 속에서도 사는 동안 가장 나에게 위로를 준 건 틈틈이 책을 읽고 글을 쓰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글쓰기란 습관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려고 쓰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일상의 생각과 말들을 나의 언어로 적어보는 게 나의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책을 읽기를 좋아하여 독후감을 쓰곤 합니다. 영화를 봐도 감상문을 적는 버릇이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새벽부터 움직여야 하는 일상에서 바쁘게 살아야 하는 나에겐 망중한에 쓰는 글은 살아 남아야 하는 현실 앞에서 기록 같은 삶의 일부였습니다.

글쓰기는 기쁨이고 위안이었습니다.

이다음에 글을 못 쓸 만큼 손가락이 아프고 눈이 아프면 지금 적어둔 글을 읽으며 젊은 날의 나를 기억하기 위해 글을 써 두겠노라고……. 노후에 나의 화양연화 같은 시절을 아름답게 회상을 하겠노라고…….

“런던에서 온 머리핀”은 지식과 함께 떠난 여행을 통해 문학과 지식을 알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을 그려냈습니다. 문학 여행을 통해

무엇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아였는지 스스로를 알게 되었고 또한 부모로서 자식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신인상을 받는다는 건 이제부터 시작임을 압니다. 매일 살아있듯 글을 쓰라는 채찍질 같은 상을 주신 《뉴욕문학》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줄리아 김

제주대학교 졸업, 1989년 도미  
뉴욕 그레잇백 한국학교 교사 역임  
예일대학 한국 입양아 봉사활동 20년  
현재 식품협회 이사

40년 전

이 주 용

정확하게 40년 전이다.

그러니까 1983년 2월에 27살의 나이로 한국을 떠나 이곳 미국 뉴욕에 도착했다. 그해엔 유독 이곳 뉴욕에 눈이 많이 왔었다.

뉴욕 방 한 칸 스튜디오 창문에서 바라본 바깥의 모습은 그렇게 생소하게 느껴지진 않았다.

직장에 나간 집사람을 집에서 혼자 멀뚱치 기다리기보다는 빨리 나도 직업을 구하겠다는 생각이 앞섰다.

학업을 계속할 거라는 생각은 이미 접어 둔 상태였으며,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으니 해야 할 첫째 일이 그 당시의 나의 생각으로는 무엇을 하든 우선 경제적으로 독립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우린 너무도 가난했다. 그러나 우리가 가난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없음으로 우리가 슬프거나 괴로워서 잠을 못 잔 날은 하루도 없었다.

우리에게 젊음이 있고 앞으로의 시간이 있었다.

빈손으로 무작정 상경한 시골 사람처럼 단순하고 용감했다.

그리고 바로 며칠 후엔 양파와 감자를 다듬는 일로 뉴욕 빈민촌의 한국인이 주인인 어느 야채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흙이 묻은 감자와 양파를 다듬고 저울에 달아 일정량을 플라스틱 봉지에 담는 일이 처음 한 일이다.

여자 손처럼 하얗던 내 손바닥이 엉망이 되었다.

다음엔 시금치와 파를 다듬는 일을 시작했다.

그냥 밭에서 거둬드려 큰 통에 담겨온 것들을 보기 좋게 다듬고 빨간 고무줄로 가지런히 묶는 일이다.

차가운 겨울 날씨에 드디어 손등이 터지고, 손톱 끝은 까맣게 되었다. 레몬을 잘라서 손톱 끝을 문지르다 보면 손등이 쓰리고 아팠다.

그래도 매주 토요일이면 주급을 받아 주머니에 넣고 오는 저녁엔 발걸음이 가벼웠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뻣적지끈하다.

손이 굳어서 뻣뻣했다.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가 생각났다.

그래도 기합이 없으니까 할 만했다. 같이 일하는 다른 한국분이 있는데 한마디는 나하고 좀 다른 일이다. 손에 흙이 묻지 않는 일이다.

나보다 상위 직급이다. 과일을 만지는 일이다.

나처럼 흙 묻은 것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먹음직스러운 사과, 오렌지 등을 정리하고 디스플레이 한다.

그분이 일을 그만두던지 혹은 내가 경험을 쌓으면 그 일을 해서 손에 흙을 대지 않게 된다.

언제가 될는지 모르지만……. 드디어 나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과일도 만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 일은 더 어려웠다.

동글동글한 과일을 모양 있게 쌓아 올리는 일이 그리 간단하게 되질 않았다.

쌓으면 허물어지고 또 허물어지고……. 진땀이 흐르는 기간이 한동안 계속되었다.

주말이면 제법 손님들이 많다. 주말에는 고객들이 오기 전에 빨리 물건들을 진열해 놓고 영업을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주로 하는 일은 밖에서 진열해 놓은 야채 과일을 지키는(?) 일이다.

지키고 있지 않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오가면서 거저 가져간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절로 웃음이 난다.

80년대 초 이곳 뉴욕에서 가장 구하기 쉬운 직장으로 최말단 단순 노동이다.

몇달 전 만하더라도 양복입고 와이셔츠에 넥타이 매고 사무실 책상에서 결재 서류 작성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여기 뉴욕시 빈민가 야채과일 가게에서 흙 묻은 파를 다듬고 있다.

그래도 하나도 서럽지 않았다.

내가 태어나서 처음 하는 일로 신기하기만 했다.

흑인 여성고객들이 주로 오는 야채 과일가게로 며칠 일하니까 영어로 한 두 마디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고가 터졌다.

야채 과일을 저장하는 큰 냉장고실 속에서 페인트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사다리를 세우고 페인트 통을 들고 벽을 페인트하는 일이다.

생전 처음으로 페인트 붓을 들었다.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붓에 페인트를 적셔서 벽에 문지르면 된다. 단순한 일이다. 못할 게 없다.

냉장고실 벽이 나무로 되어 있어서 방수 페인트를 해야 했던 것이다. 한쪽 벽을 끝내고 다음 벽으로 옮기려고 사다리를 내려오는 순간이다.

이때 다 한 손에 든 페인트 통 때문인지 그만 몸의 균형을 잃고 말았다.

아차 하는 순간 사다리가 쓰러지고 난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왼쪽 손으로 시멘트 바닥을 짚었는데 왼쪽 팔뚝이 매우 아파 왔다. 그리고 붓기 시작했다. 뼈가 부러진 것이다.

앰블런스 차를 타고 병원으로 실려갔다.

Emergency 대기실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참에 팔뚝이 아파 오른손을 들어 왼손 팔뚝을 어루만지는데 갑자기 그날따라 시커먼 나의 손이 그렇게 서러웠다.

뜨겁게 흐르는 눈물을 훔치는 손등이 하얗게 드러났다.

아주 하얗게……. 그날 저녁 병원 밖에선 하얀 눈이 그리움처럼 서러움처럼 쌓이고 있었다.

그렇게 시작한 뉴욕에서의 삶이 이제 딱 40년이 되었다.

신문에 나온 기사를 보신 잘 아는 목사님께서 아침 일찍 연락이 오고 또한 몇몇 분의 지인들이 기사를 보시고 축하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 주시면서 더욱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서로 나누면서 기쁨을 누리듯이 제가 쓴 글들을 여러 사람과 나누면서 서로에게 기쁨과 위안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더 노력하여 좋은 글 쓰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신 협회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주 용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학교 다님  
육군 병장 제대  
1983년 미국 이민  
현재 뉴욕 upstate 거주

이번 공모에서 당선작으로 김미선 씨의 「런던에서 온 머리핀」 이, 가작으로 이주용 씨의 「40년 전」 이 선정되었다.

먼저, 김미선 씨의 「런던에서 온 머리핀」 은 아들과 함께 영국을 여행하면서 아들이 사준 머리핀을 잊어버리고, 그곳에 놓고 왔는데 잘 포장해서 미국의 집으로 보내준 머물렀던 집 주인을 보며 영국인들의 약속과 예의를 중시하는 것에 감명을 받은 것을 쓰고 있다. 대체로 주제가 흐트러지지 않고 문장구성 능력도 보였다.

가작으로 선정된 이주용 씨의 「40년 전」 은 미국에 처음 이민 와서 겪은 일을 담담하게 반추한 이야기이다. 누구나 겪는 이민 초기의 고생이지만 젊었기에 희망을 가지고 견디어 지금까지 살아낸 자기 체험을 글로 풀어냈다. 좀 더 문학성 있는 문장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수필은 자기 고백적인 문학이지만 읽는 이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자기 성찰과 사색을 통하여 문학성이 있는 글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일기나, 수기, 여행기 같은 에세이와 수필이 다른 점이다. 수상하신 두 분에게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 더 좋은 작품을 기대한다.

심사위원 : 노려, 이경애





예심을 거칠 필요도 없이 본심에서 작품을 대하게 된 총 7편의 시 모두가 정직한 문장 감각은 있었지만, 투명성은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아 아쉬웠다.

작품들 한 편 한 편을 심도 깊게 읽어 보고 또 읽어 보았지만, 긴장을 유지하게 하는 탄력이나 개성이 뚜렷하질 않았다.

섬세한 시어가 감당해야 할 투명성이 부족했고 관찰과 묘사에 더 깊은 울림이 있어야 한다.

한 줄 한 줄 이어 가는 맥락의 힘이 있어야 하는데 안타까운 마음이었다. 여러 작품들이 응모되었으면 편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작품도 있었을 텐데 기대마저 접을 수밖에 없었다.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많은 응모작품이 들어 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으로 여러 편의 응모작품이 들어와 좋은 작품들이 당선작으로 뽑혀서 미동부한인문인협회에 또 문학도들에게 신선한 공기로 와 닿아서 새로운 도전으로 작가로서의 사명감을 다하면서 새로운 문학의 장이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당선작이 없어 참으로 안타까웠다.

심사위원 : 윤영미, 변정숙

- ☑ 1 (1993 )
  - 소설부문 : 당선 박진영 「콘트라베이스 연주」
  - 수필부문 : 당선 최영은 「폭발음 경고」, 당선 나은영 「센세이랄프」
  - 시부문 : 당선작을 선정했으나 표절로(문정희의 시) 당선 취소됨
- ☑ 2 (1994 )
  - 시부문 : 당선 장석렬 「바람 앞에서」
  - 소설부문 : 당선 한영국 「에블린」
  - 수필부문 : 당선 김용미 「감꽃의 추억」
- ☑ 3 (1995 )
  - 《뉴욕문학》 모집 결과 각 분야마다 입상작을 내지 못함(회장 김정기)
- ☑ 4 (1996 )
  - 시부문 : 당선 김기정 「겨울나무」, 당선 형남구 「아내의 꿈」
  - 수필부문 : 당선 이경희 「진인한 달」, 당선 조성자 「순백의 성」
- ☑ 5 (1997 )
  - 소설부문: 당선 민병임 「생명」

- ☑ 6 (1998 )

  - 시조부문 : 당선 여영자 「먹물 향 스미는 날」
  - 시부문 : 당선 이혜란 「수맥 찾기」
  
- ☑ 7 (1999 )

  - 입상작 없음
  
- ☑ 8 (2000 )

  - 시부문 : 당선 최임선 「정신병동」, 가작 차선자 「석양」, 가작 유기성 「아픈 새벽에」
  - 수필 부문 : 당선 허 석 「다일라」, 가작 김부경 「오십 점만 된다고 생각하면」, 가작 여운해 「2000년 새해, 첫눈 오던 날」
  - 소설부문 : 최초 영문 소설 당선 김래영 「The Lost Generation 1」
  
- ☑ 9 (2001 )

  - 시부문 : 당선 고치완 「목련 또는 봉준」
  - 소설부문 : 이숙중 「미스트 레인」
  - 영문시부문 : 박이슬 「Samchun in the Grocery store」
  
- ☑ 10 (2002 )

  - 수필부문 : 이은아 「아춤마 끌어안기」
  
- ☑ 11 (2003 )

  - 소설부문 : 당선 다이아나 리 「Rhythms」
  - 수필부문 : 당선 나정길 「수바위와 천님이」
  
- ☑ 12 (2004 )

  - 소설 부문 : 당선 황진규 「손」, 가작 정권수 「지난 여름」, 가작 김병관 「홍 소장」
  
- ☑ 13 (2005 )

  - 입상작 없음
  
- ☑ 14 (2006 )

  - 시부문 : 당선 한정화 「개나무」, 가작 허도행 「백장미」
  - 소설부문 : 가작 장송영 「티우하나」, 가작 벤 김 「폭설주의보」
  
- ☑ 15 (2007 )

  - 수필부문 : 당선 소병임 「기억 속의 고향 들녘」, 가작 나혜경 「여정」
  
- ☑ 16 (2008 )

  - 입상작 없음
  
- ☑ 17 (2009 )

  - 소설부문 : 당선 박숙자 「철원의 하루」
  - 수필부문 : 가작 민(이)경애 「주덕 가는 길」
  
- ☑ 18 (2010 )

  - 수필부문 : 당선 황정숙 「나무가 말하다」, 가작 임혜숙 「파워 게임 · 1」

· 소설부문 : 당선 강갑중 「떠오르는 얼굴」, 당선 안교승 「도시 인간」

☑ 19 (2011 )

· 수필부문 : 당선 차덕선(봄비 내리던 날)  
· 시부문 : 당선 하영미(동시) 「우영을 먹어봐」, 가작 조희연 「아버지의 추신」

☑ 20 (2012 )

· 시부문 : 가작 이종비 「썸바귀」  
· 소설부문 : 당선 이수정 「김장본능」, 가작 김도연 「마음의 초상」  
· 수필부문 : 가작 최민홍 「다시 꺼내 본 나의 어린 시절」

☑ 21 (2013 )

· 시부문 : 당선 이성곤 「과도」  
· 수필부문 : 당선 연봉원 「우리나라는 모계사회로 회귀하는가?」

☑ 22 (2014 )

· 시부문 : 시조 당선 김태수 「봄빛」  
· 수필부문 : 입상작 없음  
· 소설부문 : 가작 강남옥 「영자의 전성시대」, 가작 전준성 「백년 동안」

☑ 23 (2015 )

· 시부문 : 당선 임선철 「엘도라도」, 가작 홍군식 「국상」, 가작

홍노을 「가족」

· 영문 시 : 가작 Joseph Sunwoo 「The holy cloud」, 가작 박정화 「Unfinished Love」

☑ 24 (2016 )

· 시부문 : 가작 이명숙 「탱화로부터의 명상」  
· 소설부문 : 가작 홍남표 「뉴욕, 늦가을 그리고 봄」  
· 수필부문 : 당선 최동선 「가을, 세 번째 편지」

☑ 25 (2017 )

· 시부문 : 당선 김정혜 「3월」, 당선 송은경 「가을 차비」  
· 수필부문 : 가작 이경숙 「종소리」  
· 소설부문 : 입상작 없음

☑ 26 (2018 )

· 시부문 : 당선 윤금숙 「새벽에」, 가작 김영대 「택배로 온 안경」  
· 수필부문 : 가작 김희우 「나무늘보 당신」

☑ 27 (2019 )

· 시부문 : 가작 장 마르셀로 「택시도 역」, 가작 이종길 「보신당」  
· 수필부문 : 가작 함종택 「부끄러웠던 왼손잡이」

☑ 28 (2020 )

· 시부문 : 당선 현영수 「엄마」, 가작 김철우 「맨하탄 겨울 풍경」  
· 수필부문 : 가작 이미경 「단상 2」, 가작 김봉례 「전 재산」, 장

려상 서헬렌 「어떤 경험」

☑ 29 (2021 )

- 시부문 : 당선 아브리함 유 「엄마」, 가작 하명자 「수첩」
- 시조부문 : 당선 주동완 「민들레의 꿈」, 가작 이동규 「나눔」
- 수필부문 : 당선 곽경숙 「떠남에 대하여」
- 소설부문 : 가작 김근영 「십자매의 외출」

☑ 30 (2022 )

- 시부문 : 당선 유경순 「청국장」, 가작 최주석 「겨울 속의 봄」
- 수필부문, 소설부문 : 입상작 없음

☑ 31 (2023 )

- 수필부문 : 당선 김미선 「런던에서 온 머리핀」, 가작 이주용 「40년 전」
- 시부문, 소설부문 : 입상작 없음



Palisades H.S            이 에스더  
Francis Lewis H.S      구 나 연  
Bayside H.S             박 윤 선

**심사위원**  
팰리세이드 팍 고등학교: 이경애, 이경숙  
프랜시스 루이스 고등학교: 노 려, 이선희  
베이사이드 고등학교: 윤관호, 선우옥



## 나를 제일 아끼는 친구

이 에스더 (12학년) 미국 거주기간 17년

나는 아주 친한 벗이 있다.

나의 기쁜 상황과 고된 상황을 다 봐왔던 친구가 어쩌나 소중한지 모른다. 어렸을 때부터 나를 위로해주고 따스한 손길로 나를 엄마의 손길같이 만져주었지. 그 벗은 바로 나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집에 혼자 있거나 다른 지인의 집에 머물렀다. 부모님은 이민생활에 언니와 나를 키우기 위해서 일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집이 차갑고 텅 빈 기억만 남는다. 그 어린 나이에 나는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이해조차도 할 틈도 없었다. 학교 친구들은 나를 집에만 가야 하는 애라고 알고 있어서 내 집에 오는 경우가 많진 않았다.

이런 상황들이 나한테 주어졌을 때 나는 이 세상에 나와 진정한 친구가 될 사람은 없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온갖 생각과 눈물이 나를 찾아왔을 때, 항상 나 자신이 있었다. 누구도 모르는, 가슴 깊이 박힌 감정들은 나와 함께만 나누었지 부모님이나, 언니나, 친구들은 내가 이런 감정들을 나눴을 때 나를 우습게 볼까 봐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른다. 내 자신만 아는 그 6살 아이의 마음을 알 수 있어서 감사했다.

현재에 나는 친구들이 많고, 부모님은 더 자주 볼 수 있다. 허전함

과 미움은 작아졌지만, 부모님과 마음의 나뉘이 왜 이렇게 어렵든지 또는, 나는 아직 인생을 17년밖에 안 살았지만, 친구들을 많이 봐왔고 상처도 무지하게 받았지. 현재에 친구들은 당연히 소중하지만, 나를 내 자신만이 잘 아는 사람은 없다. 언젠가는 내가 그 6살 아이의 마음을 벗어나는 날이 오겠지?

내가 제일 힘들고 나도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나와 부딪혔을 때, 내가 있었지만, 이제 보내야 하는 시간이 왔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나는 이제 곧 18살이 될 거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사회 생활을 해야 된다. 아직 낯설지만 내가 결코 꺾어야 하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다.

그리하여 이제 나의 어린 마음과 나의 제일 소중한 친구를 봐 주고 세상에 나가서 또 다른 친구를 만나겠지? 꼭 어린 나에게 나를 달래 주고 아무도 나와 같이 말을 안 해 줬을 때 나에게 말을 걸어줘서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다. 보내야 한다는 게 얼마나 슬픈지 모르지만, 기억에 꼭 남아있을 거라고 말해주고 싶다. 그동안 고맙고, 나 까먹지 말고 잘 가, 내 가장 소중한 친구야.



## 가을

구 나 연 (10학년) - 미국 거주기간 15년

3개월 만에 해가 쨍쨍,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반팔티와 반바지에서 두꺼운 긴팔 후드티를 부르는 쌀쌀한 가을이 찾아왔다. 푸릇푸릇했던 초록색 나뭇잎은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에 열은 단풍잎으로 변해갔고, 점차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던 매미 소리도 이젠 사라졌다. 매년 이때쯤이 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이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많이 보고 싶어도, 그저 기억 속 가물가물해진 얼굴에 형태만 보일 뿐, 함께 손을 잡을 수도, 눈조차 마주칠 수 없는 사람, 이 세상 단 하나뿐인 우리 아빠, 항상 내 곁을 지켜주고 한 평생 같이 있어 줄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지금은 부르기 너무나 무거워진 우리 아빠.

너무나 어릴 적, 사고로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기억은 그리 많지 않다. 아니 어찌면 그때 그 충격으로 내가 스스로 지운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없애려고 노력해도 매년 가을이 오면 나도 모르게 십년 전 그때에 가을로 돌아온 것 같은 설렘과 함께 밀려오는 벽참과 그리움으로 사실 세상 밖에 잘 나가지 않으려고 한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오늘은 달랐다. 아침에 일어나 눈을 떠 보니 이 곳에 와 있다. 내가 어릴 적 아버지와 자주 왔던 공원, 너무 긴 세월이 흘러 내가 어릴 적 타고 놀았던 작은 나무는 나보다 몇 배로 자

라 하늘에 구름을 가려줬다. 또한 내 무릎까지 자라난 잡초로 알 수 있듯이 이곳은 이미 오래전 버려져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어릴 적 그 감각을 이용해 지금은 깊은 산속과도 같아진 숲을 헤매 겨우 길을 찾아온 곳에선 내가 어릴 적 이 공원에서 가장 좋아했던 작은 연못이 있었다. 여기까지 오니 이젠 도저히 막아낼 수 없는 추억이 밀려왔다. 매년 올 때마다 낙엽 잎을 모아 아버지와 함께 던지고 밟으며 장난도 치고 아침에 엄마가 싸 주신 김밥을 함께 먹으며 연못에 아름다운 풍경을 관찰하며 아버지는 항상 자연에 소중함을 강조하셨다. 그때는 그저 한 귀로 흘렸었던 이야기들이 지금은 너무나 그립다.

갑자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차오르고 얼굴이 빨개졌다. 훌쩍거리며 나를 보았는지 어딘가에서 낮은 목소리가 나의 이름을 불렀다. 몇 초 간 머리가 하얘졌다. 뒤를 돌아보자 아버지께서 서 있었다.



## 겨울

박 윤 선 (11학년) - 미국 거주기간 16년

제가 겨울을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제 생일이 12월 달이라는 이유도 있고요, 두 번째는 겨울이랑 좋은 추억이 있어서예요. 겨울이 제일 좋은 계절인 이유가 홀리데이가 다 모여있어서 그렇고, 제 생일 때 선물을 두 배나 받아서 좋아요. 또는 제가 2019년 겨울방학 때 아빠랑 일주일 한국을 놀러 갔는데요. 그때 공기와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따뜻했어요. 겨울인데 왜 따뜻하지? 할 수 있는데, 저 때는 인생이 되게 여유롭고 신경 쓸만한 일이 없어서 재밌게 놀았던 거 같아요.

여행이 크리스마스랑 겹쳐서 다른 나라에서도 크리스마스를 보내는게 너무 좋고 신기했어요. 시간 차 때문에 아침 일찍 식당을 찾으러 다니는 것도 새로웠는데 길거리 간식도 찾아 먹는게 즐겁고 맛있었어요. 또 다른 추억은 눈을 때 옆집 친구하고 밖에서 노는 것도 너무 좋은 추억이었어요. 그 친구는 이제 한국으로 이사 갔지만 매 겨울 눈 싸움하고 눈에다 천사 만들고 눈사람 만드는 게 인상 깊었어요. 아무래도 지금보다 더 어린 나이에 놀았으니까 더 좋은 추억일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잊지 못할 기념이었어요.

겨울이 왜 저를 제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계절인 이유는 또 맨

해튼에 나가면 크리스마스 데코로 다 장식돼있고 분위기가 거의 천국인 느낌이라서 그래요. 특히 크리스마스트리를 보러 가는 게 너무 인상 깊은 경험이라서 더 즐겨요. 아무리 많이 봤어도 볼 때마다 “우와” 하는 반응이 너무 좋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패션이나 스타일이 겨울 되면 엄청 잘 어울려서 좋아요. 좀 추워도 견뎌야 제가 자신감도 올라가고 기분 자체가 좋아져서 너무 설레요. 겨울이 되면 꾸미고 다니는 게 저한테 맞는 거라고 생각해서 생각만 해도 진짜 기쁘고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자신만의 스타일의 표현을 강하게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많은 이유로 겨울이 제 최애 계절이 되고, 저를 제일 행복하게 만들어 주고, 좋은 추억을 쌓아주는 겨울이라서 애정이 가요.

\* 2022년도 《뉴욕문학》에 실린 2021년도 고교백일장 베이사이드 고등학교 심사위원에, 손정아 회원 이름이 빠졌음을 정정합니다.

2023년

## 뉴욕문학

발행처 : 미동부한인문인협회

발행인 : 노려

홈페이지 : [www.nymunhak.com](http://www.nymunhak.com)

이메일 : [nohryoo@gmail.com](mailto:nohryoo@gmail.com)

121 Delhi Rd Scarsdale, NY

창간일 : 1991년 1월 20일

발행일 : 2023년 10월

제호 : 이근배

.....

펴낸이 : 김순진

펴낸곳 : 도서출판 문학공원

등록 : 2004년 3월 9일 제6-706호

주소 : 우편번호 03382 서울 은평구 통일로 633

          녹번오피스텔 501호 스토리문학사

전화 : 02-2234-1666, 팩스 : 02-2236-1666

홈페이지 : <http://www.munhakpark.com/>

이메일 : [4615562@hanmail.net](mailto:4615562@hanmail.net)